

신약교회사관에 의한
새교회사 Ⅱ

정수영 목사지음





정수영 (鄭秀永)

1940년생

▣ 저자 소개 ▣

『학력』

한국신학대학 졸업(신학사. Th.B)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M.A)

리버티 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기독교 교육학 석사. M.R.A. 신학석사 Th.M)

인터내셔널 신학대학원 졸업(목회학 박사. D.Min)

웨이스 신학대학원 졸업 (신학박사. Th.D)

『목회』

충남 장항교회 목사

공군 군목(소령예편)

반포 침례교회 목사

벤엘 침례교회 목사

『교수』

수도침례신학교 및 목회 대학원

성서 침례 신학교

성결교 신학 대학원

서울 고려신학교

그리스도 신학대학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명지대학교

현재 대전 침례 신학대학 및 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사회』

기독교 실업인회 성경 공부 인도

사모, 햇불회 성경공부 인도

극동 방송국 고정 설교

건설 교통부 신우회 성경공부 인도

『저술』

새 교회사 I. II. (규장)

현대 신학(절판) (규장)

기독교 교리사(절판) (규장)

기독교 교리 (규장)

베드로 전, 후서 강해 (바울)

히브리서 강해 (규장)

마태복음 강해 (임마뉴엘)

재 침례교도의 역사 (요단)

신학의 역사 (명현)

부흥의 역사 (명현)

에베소서 강해 (명현)

빌립보서 강해 (명현)

신약교회서관에 의한

새교회사 Ⅱ

정수영 목사지음

도서출판 **명현**

신·약·교·회·사·관·에·의·한

새교회사 Ⅱ

정수영

• •

나의 교회사 연구의
두번째 열매인 이 책을
나의 신앙과 학문의 은사이며
미국 리버티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김창엽 목사님께 드립니다.

• •

개혁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며

나는 「새 교회사 I」에서 교회의 시작인 1세기부터 종교개혁 직전까지 인 15세기까지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그 책에서 나는 중대한 사실 하나를 강조하고자 했다. 그것은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후 교부들이라는 사람들이 순수한 신약교회를 세속적인 교회로 변질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중세교회가 암흑을 달린 것도 엄밀히 따지자면 이미 궤도를 이탈시켜 끌고 온 교부들의 탈선에 의한 결과들이었다. 교부들의 탈선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것은 신약교회 사도들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모범을 보인 계시 중심의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뜻이다.

교부들은 한결같이 자기 멋대로 상상하거나 세상 철학을 받아들여 성경에서 이탈하여 잘못된 가르침들을 많이 남겨 놓았다. 물론 교부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기독교 진리를 쉽게 체계화시켜 놓은 공헌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 쌓아는 기초들은 세대를 거듭하여 후세들에 의해 더욱 잘못된 문제들로 확대되어 갔다.

중세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배들의 말과 관행을 더 중히 여기는 풍토가 만연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개혁자들은 한결같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부르짖었다. 그래서 「새 교회사 II」에서는 하나님이 개혁자들을 통해서 타락한 교회들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며 자기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어떻게 사람들을 사용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철의 장벽을 뚫은 믿음의 위대한 용사들,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용감한 사람들이었다. 여기서는 루터, 쾰빙글리, 칼빈,

낙스 등 몇몇 인물이 거론된다. 그렇지만 종교개혁은 그들 몇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이 앞장서서 활약은 하였지만 그들이 그토록 성공적인 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적 섭리가 너무나 절묘하게 역사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고찰할 수 있다.

나는 개혁자들의 활동에 앞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들이 미리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느낄 때마다 감탄과 경이를 금치 못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지 이미 50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현재 교회들 모습은 어떠한가, 종교개혁 당시의 성직자들처럼 대형교회가 마치 능력 평가의 기준치가 되어가고 있고 물질 위주의 모습이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현 교회들은 또다시 개혁을 맞이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을까. 내게는 이같은 연민이 이 책을 집필하는 동안 계속 엄습해 왔다. 나는 과거의 개혁자들의 개혁정신이나 그 과정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좋은 암시적 교훈을 시사할 것으로 믿는다. 그래서 독자들이 과거의 사건 파악에 눈길을 쏟기 보다는 개혁자들의 살아있는 그 투쟁혼을 읽을 수 있었으면 한다.

나는 1991년에 「새 교회사Ⅰ」을 썼었다. 배운 바탕이 짧고 전문적인 소양도 부족한 상태에서 나의 나뒀을 그대로 표현했을 따름이었다. 그런데 1권의 반응은 너무나도 의외였다. 1년 안에 3쇄를 매진하고 계속해서 2권에 대한 독촉과 격려를 받았었다. 그래서 속히 2권을 써야겠다는 많은 부담이 가중된 채 그 실현을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뒤늦게 2권을 내놓게 되니 기쁜 마음과 함께 죄송함을 느낀다.

여기서 몇 가지를 밝히고 싶은 것은,

첫째, 나는 「새 교회사Ⅱ」를 16세기 종교개혁에서부터 18세기 근세 교회사까지로 제한시켰다. 그 까닭은 다음에 「새 교회사Ⅲ」을 쓰기 위해서이다.

둘째, 「새 교회사Ⅲ」에 대한 계획은 이렇다. 「새 교회사Ⅲ」에서는 한국교회사를 쓰려고 한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 모국들의 배경을 비롯해서 한국선교 이후 100년의 역사를 쓰려고 한다. 한국교회사는

한국 자체로서의 독립성을 띠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의 선교 배경을 밑받침해야만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를 향한 선교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때 과거의 역사가 좋은 거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원리를 탐색해보려는 자세로 「새 교회사Ⅲ」을 구상중이다.

셋째,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 고마운 분들을 기억하고자 한다. 먼저 나의 학문의 눈을 뜨게 해 주셨고 나의 신앙의 길잡이로 안내해주신 김창엽 목사님께 감사드린다. 그분은 나의 리버티 신학대학원의 은사님이시다. 내가 쓴 1,2권의 많은 부분이 그분의 가르침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규장문화사 대표 여운학 장로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분은 나에게 특별한 호의와 배려를 해주고 계신다. 그리고 편집부 직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에 대해 항상 감사를 간직하고 마음의 빛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의 필요를 이해하고 여러 면에서 격려해준 분들이 떠오른다. 강의시작 전 기도 때마다 이 책의 조속한 완성을 위해 기도하던 성서침례신학교 학생들과 한양대학 학생들, 그리고 성결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있다.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책의 완성을 독촉함으로 나에게 큰 격려로 고무시켜준 독자들이 떠오른다.

그리고 강릉의 박병권 형제는 글을 쓸 수 있도록 환경을 알선해 주었다. 이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싶다.

저자의 기대와 희망이 있다면 이 책으로 하여금 독자들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들이 어디서 왜 시작되었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오늘 우리들이 섬겨야 되는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깨닫기 원한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혁자가 되어 온 교회 안에 새로운 개혁의 물결이 일기를 기대해본다.

이 책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쓰는 동안 많은 불편함을 참고 격려로 도와준 아내 귀영에게 감사하고, 아들 준희와 딸 은희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

1993. 8.

강릉 산장에서 정수영

차례

머리말

1부 종교개혁사

제1장 종교개혁 이전의 상황	
1. 세속적 상황 -----	19
2. 종교적 상황 -----	26
3. 대중의 신앙생활 -----	34
제2장 루터의 준비	
1. 루터의 준비 -----	40
2. 루터의 회개 -----	47
제3장 루터의 개혁	
1. 면직부의 역사 -----	53
2. 95개조 신조문 -----	56
3. 루터의 저작활동 -----	69
4. 루터의 파문 -----	77
제4장 프로테스탄트의 시작	
1. 독일사회의 동요 -----	85
2. 개신교도들의 동맹 -----	90
3. 루터파 교회조직 -----	95
제5장 루터의 공적	
1. 루터의 생애 -----	106
2. 루터의 사상과 공헌 -----	107
제6장 쾰른의 개혁	
1. 스위스의 정치적 조건 -----	115
2. 쾰른의 개혁 -----	117
3. 캐펠전쟁 -----	130
4. 쾰른의 유산 -----	132
제7장 재침례교 운동	
1. 스위스의 재침례교 운동 -----	139
2. 독일의 재침례교 운동 -----	145
3. 화란의 재침례교 운동 -----	163
4. 개혁신학과 재침례교도와의 유사점과 차이점 -----	168

제8장	칼빈의 개혁	
	1. 칼빈의 초기 생애 -----	173
	2. 칼빈의 사역 -----	178
	3. 칼빈의 제2차 제네바 사역 -----	196
	4. 칼빈의 공적 -----	212
제9장	영국의 개혁	
	1. 헨리 8세의 교회 -----	223
	2. 에드워드 6세의 종교정책 -----	234
	3. 메리의 치세와 카톨릭의 반격 -----	237
	4. 엘리자벳 여왕 하의 영국 -----	244
제10장	스코틀랜드의 개혁	
	1. 스코틀랜드의 정치사 -----	258
	2. 개혁의 준비 -----	260
	3. 존 낙스의 출현 -----	262
	4. 스코틀랜드 개혁교회 -----	264
	5. 개혁 후의 뒷마무리 -----	268
제11장	네덜란드의 개혁	
	1. 네덜란드의 정치상황 -----	271
	2. 국왕들이 행한 처사 -----	273
	3. 오렌지의 윌리엄 공 -----	279
제12장	카톨릭의 반 개혁운동	
	1. 종교개혁 기간의 교황들 -----	297
	2. 카톨릭 국가들의 반 개혁운동 -----	307
	3. 제슈잇 수도회 -----	315
	4. 트렌트 종교회의 -----	323
	5. 종교재판과 금서 목록 -----	331

2부 근대교회사

제13장	30년 전쟁	
	1. 전쟁 발생의 원인 -----	339
	2. 전쟁의 진행 -----	342
	3. 베스팔리아 평화조약 -----	347

4. 전쟁의 결과 -----	349
제14장 정교도 운동	
1. 정교도 운동의 역사적 모습 -----	351
2. 정교도 신학의 발전 모습 -----	368
3. 계약신학 -----	371
제15장 신비주의 운동	
1. 신비주의란 무엇인가? -----	381
2. 성경에서의 신비주의 -----	383
3. 역사 속에 나타난 신비주의 ----	385
제16장 경건주의 운동	
1. 경건이란 무슨 뜻인가? -----	400
2. 경건주의란 무엇인가? -----	401
3. 경건주의의 역사 -----	403
4. 경건주의의 영향 -----	414
제17장 존 웨슬레와 메도디스트 운동	
1. 웨슬레의 초기 생애 -----	418
2. 감리교의 출생 -----	423
3. 감리교의 특징 -----	430
제18장 초기 미국교회	
1. 영국 식민지 13개 -----	435
2. 대각성운동 -----	439
3. 노예제도와 남북전쟁 -----	455
4. 새로운 교파들 -----	457

교회사 제2부를 마치면서

참고문헌

색인표

1부
종교개혁사



종교개혁의 동기는 순수한 데서 출발했다. 그러나 개혁이 진척되면서는 인간들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여러 교파들을 만들고 말았다. 그래서 종교개혁운동은 각 교파들이 생겨나는 시발점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종교개혁을 결과적으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좋았던 동기가 어떻게 그렇게 되고 말았는가를 생각하며 우리는 개혁자들의 심정과 그 시대의 상황 자체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혁자 칼빈이 종말론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다고 해서 그를 무식한 사람으로는 볼 수 없다. 거기에 앞서 왜 칼빈이 그런 것을 중요시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시대적 상황 이해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개혁자들의 순수한 동기가 왜 오늘날 각 교파들이 난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이 점을 우리는 개혁자들의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므로 학문적 입장과 인간적 입장을 조화해가며 역사를 살피는 눈이 뜨이게 될 것이다.

우선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종교개혁을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넘어갈 필요를 느낀다. 즉, 종교개혁을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다섯가지를 말하고 싶다.

첫째, 종교개혁의 시기는 가장 적당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종교개혁이 성공을 하게 된 데는 시기가 좋았던 점을 들 수 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종교개혁은 갑자기 일어난 운동이었지만 개혁은 이미 전체 교회들의 열망하는 지속적인 희망이기도 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종교개혁이라는 성공적 결과가 있기까지는 이미 수많은 의인들의 죽음의 희생이 있었다.

예컨대 교회의 순수한 개혁을 외치던 위클리프(Wycliff, 1324-1384), 또 후스(Huss, 1369-1415)와 사보나롤라(Savonarola, 1452-1498) 등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순교적 희생은 종교개혁에 있어 밑거름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회의들이 교황권을 비롯한 교권주의에 강한 타격을 주었다. 피사회의(1409), 콘스탄스회의(1418-1419), 바젤회의(1431-1449) 등은 무모한 교황권의 횡포를 막고 교회 행정에 대한 새로운 개혁을 시도하도록 자극을 주었다.

이와 같은 교회들의 움직임이 연면하게 계속되어오다가 개혁자 루터에 의해서 개혁의 불은 당겨졌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모든 준비가 완료된 적당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들의 개혁이 어떻게 성취되어야 하는가 하는 암시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종교개혁은 모두 로마 카톨릭이라는 뼈대에서부터 발생하였다.

독일에서의 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신부요, 신학교 교수였다. 스위스의 개혁자 츰빙글리 역시 카톨릭의 신부였다. 또 칼빈도 신부 수업을 하다가 개혁자로 돌아섰다. 영국에서의 개혁 동기는 다소 인위적이긴 하지만 모든 개혁이 다 카톨릭에서 분리된 운동이었다.

종교개혁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나, 종교개혁 자체와 또 그 개혁의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 카톨릭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왜냐면 종교개혁이라고 할 때 종교란 카톨릭을 뜻하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를 제대로 알아야만 개혁의 성격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종교개혁 운동은 유럽에서 일어난 운동이기 때문에 독일, 스위스, 영국, 스코틀랜드, 화란 등에서 일어난 얘기들이 주로 핵심을 이룬다. 그렇다면 그 당시엔 과연 이들 로마 카톨릭 교회만이 존재하였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그렇지만은 않다. 그 외에도 회랍정교회, 시리아교회, 애굽교회 등 잘 알려지지 않은 교회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종교개혁은 전체 교회적 차원에서의 개혁운동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으로부터의 개혁운동이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종교개혁자들은 개혁 작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루터는 독일에서 독자적으로 개혁을 진척시켜 나갔고 쾰른의 역시 스위스 쾰른에서 개혁 작업을 펼쳤으며 칼빈 역시 제네바를 중심으로 개혁운동을 펼쳤다. 이들은 살아 생전에 함께 모여 신학적 일치점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연합운동은 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가 다 로마 카톨릭에 대해 공격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 카톨릭에게 고통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사전에 연합이란 없었다. 물론 그들이 그 당시 함께 연합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각종 교파로 난립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합을 무조건 찬성할 수도 없다.

1948년에 창설된 W.C.C.운동이 연합의 길치레는 가져왔으나 실상은 모두가 불목하고 지내는 현실을 바라보며 연합만이 최선이 아니며,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학적 통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

실을 자각해야만 한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종교개혁을 열망하는 마음만큼 사전에 갖추어야 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숙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종교개혁자들은 모두가 정치적 힘을 배경으로 사용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도 신중히 생각해봐야 한다. 루터는 개혁을 시작한 후 온갖 위협들이 그를 괴롭혔다. 그러나 루터가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그를 도와준 정치가가 있었다. 그는 독일 선제후 프레드릭(Fredrick the Wise)이었다. 루터의 개혁의 성공은 프레드릭의 협조가 크게 공헌을 한 것이었다.

또 쾰른의 역시 쥘리히의 시의회 힘으로 개혁을 안정시키려고 하였으며 칼빈 역시 제네바 시 정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그의 개혁을 성공시킬 수가 없었다. 칼빈의 개혁은 제네바 시 정부를 통한 신정정치(Theocracy)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던 노력의 결과였다.

영국에서의 헨리 8세가 사용한 힘도 역시 정치력이었고, 스코틀랜드에서의 존 닉스 개혁도 스코틀랜드라는 국가적 요청과 맞아 떨어진 찬스였다. 화란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점들을 살펴볼 때 오늘날의 모든 종교개혁의 성공적인 면은 순수한 신앙운동만이 아닌 세속정치의 힘을 선용한 결과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순수한 복음적 사고에 의아스러운 면을 갖게 한다. 개혁자들이 개혁이라는 운동을 성공함에 있어서 순수한 종교성만이 아닌 정치세력이라는 세속적 힘을 배경으로 하여 성공하였음을 생각할 때 과연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들의 과제가 남게 된다.

다섯째, 신앙적 순수성만을 고집하던 세력들이 있었다.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현재 전해져 오는 큰 세력들만을 연상하기 쉽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유럽 전체에서 일어났던 순수한 신앙개혁의 무리들이 있었다.

예컨대 재침례파(Anabaptists)가 있었다. 이들은 스위스에서, 독일에서, 화란에서, 모라비아 지방에서 일어났던 순수한 신앙 개혁주의자들이었다. 이들 중에는 후브마이어나는 정규신학 박사학위 소지자도 있었고, 공부는 했으나 성품이 거친 토마스 문저도 있었고, 공부를 많이 못한 메노 시몬 등도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순수한 신앙만 고집했지 자기들 운동을 어떻게 성공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조직력에 있어서는 전혀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은 한결같이 핍박만 당하다가 해체되어 버렸다. 이들은 정치력을 몰랐던 것이다.

또 보헤미안과 유그노들이 있었고, 기타 분파주의자로 낙인이 찍힌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순수한 신앙만 고집했지 그들을 밀어주는 정치적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역사 속에 희미하게 기억될 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혼란스러운 면을 감출 수 없다. 신앙은 순수할수록 좋다고 여겼고 그래서 종교운동도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수한 신앙이 역사 속에 기여한 기여도는 매우 제한적이고 희미했다. 그렇다고 순수함은 짓혀놓고 현실만 항상 타협해야만 하는가?

여기서 나는 십자가의 원리를 말하는 것으로 나의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십자가는 먼저 위에서 아래로 그어진 선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순수한 신앙을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는 위에서 아래로 그어진 선으로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옆에서 옆으로 또 다른 선이 그어져 있다. 이것을 나는 인간과 현실

을 고려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삶의 길잡이인 지혜의 방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거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미래의 좌표를 가늠하는 좋은 근거를 삼아야 할 것이다.

제 1 장

종교개혁 이전의 상황



종교개혁은 왜 발생하였는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 우리는 종교개혁을 교회 내 부패에 대한 반동적 사건이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너무나도 교리적으로 왜곡되었고, 도덕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올바른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분개해서 일어난 운동이 종교개혁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 내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종교개혁은 사회적인 원인들과 종교적인 문제들이 함께 맞물려서 연쇄적으로 함께 일어난 운동이었다는 점이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의 두 항목으로 나눠서 생각해보자.

1. 세속적 상황

종교개혁은 정치, 경제, 사회가 다함께 연결되었다.

(1) 정치적 상황

초기 기독교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였다. 그러나 7세기에 모슬렘교가 등장한 후부터는 기독교의 세력이 차츰 둘 이상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한때 기독교 국가들이던 팔레스틴, 시리아, 소아시아, 이집트, 그리고 북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모슬렘권으로 넘어간다. 모슬렘권에 피해를 보지 않은 나라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등이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이들 몇 나라에서 일어난 운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세계적 운동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언급하려고 하는 몇 나라들을 보면 모두 정치적으로 많은 파란이 일고 있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 영국

당시 영국은 귀족들간에 벌어진 장미전쟁(1453년경)으로 전 국가가 무질서 상태였다. 이때 헨리 7세(Henry VII, 1485)가 대중들의 불만을 해결하고 봉건세력을 타도하여 '튜더왕조(Tudor Dynasty)'를 확립한다.

그런데도 헨리 7세 통치기간 동안 옛날처럼 나라를 분할통치하던 시대로 돌이키려는 시도가 여러번 있었다. 그렇지만 헨리 8세가 1509년에 왕위에 오르면서 영국 상인들에게 자치권을 허락함으로써 결국 봉건적 형태의 복귀를 못하도록 끝을 낸다. 그후 엘리자베드 1세 때에는 영국을 완전 단일국가주의로 기틀을 마련한다.

이런 운동으로 과거 봉건주의 체제하에서 카톨릭이 득세하던 관행이 차츰 미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2) 프랑스

프랑스는 영국과의 100년 전쟁 후에 민족주의 정신을 창출해 냈다. 왕이 무기력해서 무능하다 할지라도 왕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또 루이 11세같은 비 양심적 군주라 할지라도 프랑스 국민은 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같은 민족주의는 타국의 교황권이 내정에 간섭하려고 하는 힘을 거부하는 경향으로 발전하였다.

3) 스페인

스페인인 국토의 많은 부분이 모슬렘의 지배를 받았었다. 7세기부터 시작된 모슬렘의 지배는 15세기 마지막 무렵까지 계속되었다. 그런데 15세기 말에 스페인은 다시 5개의 제후국으로 나누인다. 특히 신앙적 '군사 기사단'은 독립 군사 통치권을 행사함으로써 스페인은 무법천지가 되었다. 이 모든 혼란을 찰스 5세가 진압함으로써 개인이 전제정치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1인 국가체제가 이루어진다.

이같은 스페인은 개혁의 바람이 거의 미치지 않고 지나간다. 다만 스페인 사람 소수가 개혁국가로 가서 개혁운동을 하는 정도였다.

4) 이탈리아

15세기까지 이탈리아는 다섯 곳에서 소규모의 작은 제후국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었다. 베니스는 귀족들이 과두정치에 의해 다스려지는 상업적 공화국이었다.

다음으로 밀란은 두번째로 부유한 나라였고, 플로렌스는 가장 개화된 상업 공화국이었다. 그리고 나폴리는 이탈리아에서 중세 봉건적 체제가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던 곳이었다.

이탈리아에서 강력한 중앙 집권적 지도력을 행사하려고 한 곳은 중앙에 있는 로마시의 바티칸 국가였다. 바티칸의 교황들 중 이노센트, 알렉산더, 율리우스, 레오 등은 온갖 교활한 정책으로 세속적 권력을 장악하려고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한 자들이었다. 이들의 집요한 노력은 교황청을 단순한 세속권력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리하여 로마 카톨릭은 이탈리아의 정치적 국가로 우뚝 서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바티칸 국가의 야심은 더 많은 세력을 확장시키려다 종교개혁의 된서리를 맞게 된다.

5) 독일

오늘날의 독일이 아닌 이전의 독일은 대 로마제국의 후신이라는 강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영토도 북서쪽은 네델란드, 또 지금의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에 해당되는 지역이 모두 독일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넓은 나라가 각 지역으로 조각조각 나뉘어 있었다. 그래서 독일 전체를 이끌어가는 힘은 수세기 동안 선거제도에 의한 통일정치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1356년부터는 선거가 7명의 선제후(Prince-Elector)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 7명의 선제후는 보헤미아, 삭소니, 브란덴부르크, 라인, 마인쯔, 트리에르, 쾰른이었다.

독일이 명목상으로는 한 제국이었으나 실제적으로는 7개의 선제후에 의해서 완전히 나뉘어져 있는 상태였다. 이같은 상태에서 스페인 사람인 찰스 5세가 독일과 스페인의 황제가 되었다(1519).

찰스는 독일 말도 모르는 상태에서 황제의 위력을 발휘하려고 했다. 이때 부딪친 사람이 마틴 루터였다. 찰스 황제는 힘으로 루터를 제거하려고 했으나 삭소니의 선제후인 프레드릭의 반대로 뜻을 못 이룬다.

이와 같이 유럽 전체가 정치적으로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과 개혁을 저지하려는 기존 세력들간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을 무렵에 종교개혁의 과업이 성공하게 된 것은 사실은 정치적 개혁을 열망하는 힘이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2) 경제적인 상황

종교개혁 직전까지 유럽 토지의 1/3이 하나님의 이름 아래 교회에 등기권이 되어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의 구조적 제도를 통해 독일 총 수입의 2/5가 로마 바티칸으로 유출되었다. 이렇게 유럽의 경제는 교회

에 예속된 경제였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구조 속에서 각 도시들은 독립적인 경제체제를 위한 길드(guilds)조직으로 사업과 무역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런 구조적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유럽에 새로운 돌파구가 생겼는데, 그것은 신대륙의 발견이었다. 신대륙의 발견에 크게 공헌한 나라는 포르투갈이었다.

포르투갈의 헨리크경(Don Henrique de Portugal)이 무역선단을 조직하여 1460년에 아프리카 기니아(Guinea)를 발견하였고, 1484년에는 콩고(Congo)에 도착했으며, 1486년에는 희망봉을 도는 데 성공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콜럼부스(Columbus)가 대서양을 건너 바하마(Bahamas)의 여러 섬과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였다. 또 바스코 다 가마(Vasco da Gama) 선장은 인도의 칼리컷트(Calicut)까지 향해한다.

이와 같은 항해술의 발달과 신대륙의 발견은 중세기 동안 수도원 구역에 묻혀 있던 문화가 새로운 도시와 무역에 의한 경제 판도로 바뀌어지게 했다. 새로운 무역에 의한 경제발달은 부의 증대와 사치를 가져왔다. 따라서 전에 중세기의 종교생활은 눈에 보이는 육감적인 생활로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새로운 세력으로 새 기술을 개발한 집단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과거의 유럽 사회는 전혀 달랐다. 16세기 유럽에는 6천5백만 내지 8천만 인구가 살았다. 이들은 약 60여 명의 왕이나 군주 또는 대주교들이 통치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런데 새로운 경제생활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부르주아 집단이 등장하게 되었다. 새로운 집단은 인쇄술, 광업, 조선업, 기타 새로운 산업으로 자기들 세력을 부각시켰다. 이렇게 되자 과거 봉건제도 산하에서 적응하던 교회들도 새로운 자본주의적 새 집단들과 제휴관계를 맺어야만 하였다. 그래서 유럽사회는 기존 권력층과

새로운 부르조아들이 새로운 의존관계로 변해갔다.

이렇게 새로운 의존관계로 변모되는 추세에 가장 민감하게 앞장 선 사람들이 교황들이었다. 과거 한때 어떤 주교들은 실제로 봉건 영주와 같은 세력을 누리고 살았었다. 그런데 새로운 사회 변모와 함께 교황들은 자기들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이로 인해 교회는 도덕적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어 사회와 도덕가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게 되었다.

이같은 유럽 전역에 흐르고 있는 군중들의 분노는 가난한 농민들의 봉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는 수많은 농민들의 봉기가 계속되었다. 이같은 봉기의 저변에는 기존 권력층은 물론 새로운 지배층으로 부상한 로마 카톨릭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그 당시의 흐름이 종교개혁을 성공시키게 하는데 직, 간접으로 영향이 컸던 것은 사실이다.

(3) 사회적인 상황

새로운 부르주아 계층이 된 부유한 상인들은 그들이 번 돈으로 대성당 건축 후원금을 내고 도시민을 위한 대중 공회당을 지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도시민들은 새 공회당에서 무도회와 만찬을 즐기고 여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경제적 여유는 결국 도시인들로 하여금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했다. 도시인들의 사치스런 의복과 무절제한 남녀관계는 상대적으로 농민들을 크게 자극하였고, 그래서 농민들의 봉기는 더욱 자주 일어나게 되었다.

농민들이라 할지라도 지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했으나 대부분의 농민들은 끝없는 착취를 당하였다. 농민들의 봉기에는 시골지역의 농민들과 가난한 봉건 귀족들도 함께 가담하였다.

이들 반란자들이 부르짖는 외침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에 성직자들에 대한 증오의 목소리는 유난히 높았다. 그 이유는 대 십일조와 소 십일조와 관련한 각종 착취의 수탈에 대한 강한 반발이었다.

대 십일조란 토지, 목장, 삼림, 가축 등 생산이 가능한 원천을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서 십일조를 내야 하는 것이었고, 소 십일조란 토지에서 생산된 곡물이나 가축에서 생산된 실제 소득에서 다시 십일조를 내는 것이었다. 만약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 교회 절기에 참여할 자격을 박탈당하였고, 이단으로까지 몰리기도 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은 돈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정도였다. 세례에도 돈, 주교의 방문에도 돈, 결혼에도 돈, 참회에도 돈, 도유식에도 돈이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죽은 후에도 제대로 묻히지 못할 정도였다. 이렇게 종교가 물질 위주로 타락하자 교인은 종교의 봉사 기구로 전락하는 참상의 피해가 극에 달하였다.

그런데다가 15세기 말과 16세기 초에는 유럽 전역이 흉년으로 인해 농산물이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기근은 농민들이 봉기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곤 했다. 이같은 사회적 불안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게 되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본다면 종교개혁은 비단 종교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정치적으로는 유럽 각 나라들이 봉건 영주에서 단일국가주의로 옮겨지는 과정에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는 새로운 신흥세력에 의해 기존 판도가 붕괴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같은 와중에서 항상 피해만 당하던 농민들이 자기들의 생존권 확립을 위해 분연히 일어섰다.

이렇게 해서 유럽 전체 사회는 신앙의 힘만이 아닌 인간 본성적 힘이 개혁을 위한 기류로 흐르고 있었다.

2. 종교적 상황

종교개혁을 직접적으로 가져오게 한 원인은 교황권의 쇠퇴와 거기에 반한 인문주의의 융성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종교개혁의 상황을 고찰해 보자.

(1) 교황권의 쇠퇴

중세기에는 교회와 제국간의 투쟁 역사로 기록된다. 교회를 대표하는 교황은 종교적인 힘만이 아니라 세속적인 권력까지 행사하려고 황제들과 많은 각축전을 벌였다.

이같은 사실이 그레고리7세(Gregory VII, 1073-1085)와 이노센트3세(Innocent III, 1198-1216)에 의해 입증되었다. 그리고 뒤이어 이노센트4세는 「교령에 관한 주석」(Commentary on the Decretals, 1243-1254)에서와 보니페이스8세(Boniface VIII)가 펴낸 「우남쌍탐」(Unam Sanctam)에서 교황이 세속적인 권한과 영적 세계에 관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이같은 세속권에 대한 집착은 교황청이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겨 가는 분열 때에도 계속되었다. 즉, 교황 비오 2세(Pius II)가 펴낸 「저주와 과거」(1459)라든가 레오 10세(Leo X)의 「영원한 목자」(1516)에서 그대로 천명하였다.

교황 바울 2세는 보헤미아 왕인 조지 포디브로드(Podiebrod)를 이단의 죄목으로 퇴위시키고 왕권을 헝가리의 마티아스 코르비누스(Matthias Corvinus)에게 넘겨준다(1464).

교황 율리우스 2세(Julius II)는 나바르 왕을 출교시키고 나바르 영지를 아무도 손을 못대게 한다. 이러한 교황들의 앞뒤 안 가리는 세속권에 대한 집착을 아는 중세기의 군주들은 교황과의 마찰을 피하는 보

신정책을 쓰게 된다.

이렇게 해서 세속권을 장악한 교황들은 외적으로 그들의 권한은 상승되었으나 그들이 본질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도덕성은 형편없이 떨어졌고 교황권은 계속적으로 쇠퇴를 가져왔다.

여기서 교황권이 어떻게 쇠퇴하게 되었는가. 그 몇가지 사실을 지적해 보자.

중세기 교황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자처하면서 영적, 물질적 군주로 등장하였다. 이들이 말하는 영적이란 것은 토지, 집, 짐승, 산림 등이 교회에 속하기만 하면 모두 영적인 것이 된다는 것이었다.

또 교황은 자기의 영향권 아래 거주하는 신민들은 그 지역의 군주들에게 충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교황이 세속권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성직자들은 시민법적인 법률이나 세금 징수의 영역에서 모두 벗어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중세교회는 자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기묘한 방법들을 사용하였는데, 교황은 성직자가 사망할 경우 그가 관할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교황 마음대로 재 할당할 수 있었다. 이런 땅을 '성직록(Benefice)' 이라고 하였다. 이 성직록의 할당을 받기 위해서 거래와 흥정이 다반사였다.

또 어떤 곳에 성직이 공식일 경우 그 자리를 지명받을 사람은 그 대가로 미리 금품을 상납하는 '공석금(Medii Fructus)' 이란 제도가 있었고 성직 취임 후 1년 동안은 자기 수입을 교회당 수리나 작고한 전임자 후예들에 대한 위로금으로 내야 했다. 또한 조달비는 주교의 심방과 여행 경비조로 내야 했다.

그 외에도 십일조와 기부금(Subsidies), 특별 면제금(Dispensations) 등 온갖 공식 세금이 있었다. 이렇게 갖은 방법으로 돈을

수탈함으로 로마의 바티칸은 로마라는 유행어가 생겨났다. 로마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근원'이라는 라틴말인 'Radix Omnium Malorum Avaritia'의 첫 글자들을 모아서 'ROMA'라고 하였다.

이렇게 돈을 모은 그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되었고 해마다 그들에 의한 사생아가 늘어났다. 브란덴부르크 대 주교였던 알버트는 할례에 고급 주택 두 채를 두고 고급 창녀들과 살았다는 기록도 있다. 이런 생활에 빠진 성직자들의 지식수준은 최저상태였다. 대부분의 지방 사제들은 사제직에 필요한 라틴어와 기초적인 요리문답의 신학과 미사용의 제의식을 아는 정도였다.

15세기 말 로마 카톨릭에는 1,000명의 성직자들 중 대학에 가서 공부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어찌다가 학위를 가진 자는 마치 불세출의 학자 같은 대우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교황청의 업무는 날로 쌓여갔다. 그 이유는 교황들이 교권 강화와 재정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모든 재판들을 교황청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황청은 전 서방교회의 가장 높은 항소 법원이 되었고 따라서 경쟁력이 강한 소송인들이 모여드는 곳이 되어버렸다.

또한 교황청 안에 직원 자리를 놓고 교황들은 입찰에 붙여 관직을 팔기 시작하였다. 보니페이스 9세(Boniface IX, 1389-1404)는 관직을 가장 높은 입찰자에게 판 최초의 교황이었다.

또 식스투스 4세(Sixtus IV, 1471-1483)는 자기가 쓸 3중 보석관의 비용 마련을 위해 비서직을 여섯에서 스물 넷으로 확대시켜 그 자리를 판 대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도 했고, 그 외에도 알렉산더 6세(1492-1503)는 기금 마련을 위해 새로운 직책 8개를 만들어 돈을 받고 팔았다. 율리우스 2세는 교황청 교서 작성인을 101명으로 늘리고 이들로부터 많은 재원을 마련했다.

레오 10세(1513-1521)는 60명의 출납 사무원과 140명의 시종을 엄청난 값을 받고 채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값을 지불하고 산 자리는 개인적인 소유물이 되었다. 그래서 그가 그 자리를 다른 이에게 양도할 때는 돈을 받고 넘길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은 교황청의 착취는 화려한 로마 교황권을 유지하는 데 쓰여졌다.

그렇지만 교황청이 화려한 영화를 누리고 있는 동안 유럽 전체의 신도들은 심한 고통과 착취를 당해야만 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황권의 타락을 많은 작가들이 풍자적으로 비난하고 나서기도 했다. 그 대표적 예가 단테의 「신곡」이었다.

유럽 전체는 교황청 근무자와 성직자로 부를 누리는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교황청을 공격하였다. 종교개혁은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등장하게 되었고 결국 교황청은 그들이 심은 그대로 비난과 심판을 당하게 된다.

(2) 인문주의(Humanism)

인문주의를 Humanism이라고 한다. 이 말은 인간 자체를 다른 존재보다도 더 높이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최초의 인문주의는 고대의 학문을 연구하여 예전에 소홀히 취급했던 인간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자는 운동이었다. 이들 모두가 그같은 방법을 위해 고전에 좀더 심취하자는 데는 동일하였다.

그리고 고대의 학문적 영광을 복원하기 위해 인문 연구에 헌신하였던 인물들을 인도주의자라고 하였다. 이들 인문주의 연구는 십자군 전쟁 이후에 시작된다.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성지 탈환이라는 거룩한 목적의 전쟁에 출정했다가 진귀한 이방 보고들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보고들은 원시 초대교회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었다. 그래서 원시 교회들이 사용한 고대어들을 공부하는 새로운 붐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동기로 인해 시작된 고대 학문 연구는 16세기 경에 이르러서는 여러 종류의 인문주의자들이 생겨날 정도로 발전되었다. 그들의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카르투지요 수도회(Carthusians)-종교 규율 엄수파
- 베네딕트 수도회(Benedictines)-다뉴브강가 멜크중심파
- 도미니크파 수도회(Dominicans)-카제탄 중심
- 프란시스 수도회(Franciscans)-프랑스 중심
- 어거스틴 수도회(Augustian)-삭손지방 중심
- 공동생활 형제단(The Brethren of the Common life)-다소 신비

적 요소

이렇게 여러 종류의 인문주의자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자기들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개혁되기를 바라는 기대는 모두가 다 한 가지였다.

이들 인문주의자들 중에 종교개혁에 깊이 영향을 준 수도회는 형제단이었다. 형제단은 유명한 중등교육기관을 수십 개나 운영하였으며,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숙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배출된 대표적인 인물이 에라스무스(Erasmus)와 루터였다.

이들 형제단은 신비적인 성격이 강했다. 그래서 마이스터 엑카르트(Meister Eckart)나 토마스 아 켐피스(Thomas A Kempis)같은 신비주의자들을 배출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영교 운동을 추구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형제단의 대표적 인물인 에라스무스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데시테리우스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1466-1536) ●



로터담의 에라스무스, 위대한 미술가 알브레히트 뒤러, Albrecht Durer의 그림이다.

1) 그의 준비

에라스무스는 현재의 네덜란드인 독일령에서 1466년에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신부였고, 모친은 의사의 딸이었다. 그러나 그의 부친의 신분 이 노출될 수 없었으므로 유아기는 사생아로서 보내게 된다.

그는 자기가 사생아로 태어난 것을 평생동안 부끄럽게 여겼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인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 즉 그는 위대한 학자이긴 했

으나 누구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소심한 사람이었다.

그는 장성해서 폴란드의 번창한 상업도시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그의 사상에는 부르주아 가치관이 깃들어 있다. 즉 그 당시 부르주아들은 관용, 중용,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에게도 그런 가치관이 깃들어 있었다.

에라스무스는 한때 스콜라 신학을 공부하였다. 그런데 너무 추상적이고 쓸데없는 호기심이 편만한 신학에 염증을 느끼게 되면서부터는 그 당시 대중들의 인기를 끌던 고전학문으로 눈길을 돌리게 된다.

에라스무스는 신앙으로 인류의 도덕적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고전에 속하는 옛 사람들의 글을 통해서 인류의 운명을 개선하고 도덕적 갱신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 그의 사역

에라스무스는 1499년 영국을 방문하면서 거기서 성 바울대학의 학장

요한 콜렛(John Collet)을 만나게 되는데 그로 인해 그의 일생은 커다란 전환점을 갖게 된다. 즉 에라스무스가 전에는 단순한 지식인에 지나지 않았으나 콜렛의 영향으로 기독교 인문주의자가 된 것이다. 그 이후로 에라스무스는 도덕적 갱신을 통해 독일인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주려고 하였다.

그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개혁자의 사명을 감당하려 하였다.

기지와 풍자를 사용하여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저속한 신앙의 실상을 보여주려고 했다. 그리고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의 진정한 어리석음을 기지로 경멸해줌으로 깨우침을 주려고 하였다. 또다른 하나는 참된 기독교가 가졌던 초기의 순수한 신앙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줌으로써 그의 사명을 감당하려 했다.

이와 같은 그의 신념에 따라 그는 새로운 고전을 적용해서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실상들을 그의 심오한 학문과 결합시켜 묘사하였다. 그래서 그는 여러 권의 책을 쓰게 된다.

「기독교 병사의 지침서」(A Handbook of the Christian Soldier, 1503), 「기독교 원리의 강요」(Instituio Principis Chrisiani), 「어리석은 짓의 예찬」(Praise of Fally, 1511), 「신약성서 의역」(The New Testament, 1516), 「대화」(Colloquia, 1519)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라틴어로 된 책을 영어로 번역하여 보급하기도 했고, 또 라틴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 원문과 비교하여 새롭게 영어로 번역하였다.

이런 모든 작품들은 기존 카톨릭에 대해 강한 비판적 입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상은 이미 개혁자의 입장에서 있었다.

3) 그의 사상

「기독교 병사의 지침서」에서 그는 카톨릭이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음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다시 말하면 헬라, 로마에서 나오는 신화들 속의 우상들과 이름만 다를 뿐 미신인 것은 같다고 하였다. 그는 당시 카톨릭 교회가 얼마나 많은 미신들과 사신들을 섬기고 있는가를 작품으로 경멸하기도 했다.

또 「어리석은 것의 예찬」에서는 교황, 주교, 신학자, 수도사와 일반 평신도, 기독교인들은 순전한 바보들이라고 하였다.

「대화」라는 작품에서는 종교적 순례의 병폐를 잔인하게 풍자했다. 그는 로마로, 예루살렘으로 멀고 험한 여행을 다니면서 돈을 낭비하는 사람들을 비웃었다. 또 면죄부를 사는 사람, 거짓된 사면장을 들고서 뽐내는 사람, 연옥의 기간을 계산해내는 사람, 도둑질을 해서라도 현금만 하면 그것이 신앙이라고 믿는 것, 또 위증, 정욕, 방탕, 살인, 사기, 반역 등 고질적인 죄를 거듭 반복하는 자가 면죄부로 다 해결되는 것 등에 대한 헛점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렇게 에라스무스의 그 전체 사상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강력했다. 사실 루터가 면죄부를 공격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이전에 에라스무스에 의해 개혁사상은 이미 노출되고 있었다.

에라스무스는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종의 모든 운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대하였다. 에라스무스는 교리보다도 순종을 더 중요시하였다. 그는 교리가 분명해야 됨을 주장하면서도 의로운 생활이 전통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4) 그의 공헌

에라스무스는 혁명적 변화보다도 기존 전통과 관습을 개혁하고자 하는데 관심이 더 컸다. 그래서 그는 기존하는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아무런 반항적인 혁명의사가 없음을 밝히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런데 그가 바젤에서 세상을 떠난 후 교황 바올 4세는 그를 극렬한 이단으로 분류하였고 그의 모든 서적들을 금서목록에 첨가시켰다. 그렇지만 에라스무스의 인도주의적 활동에 크게 영향을 입은 루터는 용기있게 믿는 바대로 개혁을 결행한다. 하나님께서는 루터 이전에 에라스무스를 통해 미리 개혁의 길을 준비케 하셨던 것이다.

오늘날 수백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카톨릭이나 개신교를 막론하고 에라스무스는 위대한 지성과 아울러 위대한 감성을 소유한 인물이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나는 여기서 주로 에라스무스에 관한 사실을 말하였다. 그 이유는 종교개혁을 가져오게 한 여러 사람들, 예컨대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위클리프, 후스, 사보나롤라)과 또 독일의 신비주의자들이 있었지만 이 같은 모든 요소가 다 에라스무스에게 종합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에라스무스의 연구는 곧 그 당시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으로 그에 관한 사실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3. 대중의 신앙생활

이제까지는 소위 지도자들에 관한 상황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의 서민 대중들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는 데도 큰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되어진다.

이 당시의 설교는 어떠하였을까? 이 당시 대부분의 설교는 스콜라 신학에서 주제를 택해 가장 기술적으로 주해를 한 설교였다. 15세기 마지막 무렵에 가장 크게 알려진 설교가는 키에스부르크의 요한 가일러(John Geiler)였다. 그의 설교는 경건과 올바른 삶을 요구하는 교훈으로 가득차 있었다. 그는 그 당시의 악덕과 미신에 채찍을 가하였는데 유

물승배, 순례, 면죄부 판매, 그리고 수도원과 수녀원의 타락을 비난하였다.

그는 교황과 고위 성직자들의 사치스런 생활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고 또 성직록을 사고 파는 일을 규탄하였다. 그는 교황의 교령과 스킨라 신학의 조잡성을 풍자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는데 그의 이런 엄격한 도덕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설교는 당대에 꽤 유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설교는 죄인이 구원받는다든 복음적 메시지는 거의 없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는 이 당시 가장 유명한 설교자가 이 정도였다면 그 외의 다른 이는 어떠하였을까 하는 사실이다.

이 당시 교회는 지금 우리들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요소가 너무 일반화 되어 있었다. 즉 교회의 주요 행사가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여기는 호화로운 축제와 모든 종류의 즐기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래서 교회의 앞마당은 지역 공동체의 무도회와 각종 경기 및 연회들, 그리고 체육대회와 광대놀이 축제용으로 사용되었다.

중세교회의 흐름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하나는 교회가 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종교적 각성운동이었다. 이것은 주로 수도원과 평신도 운동에서 엿볼 수 있었다. 특히 평신도 운동은 이곳 저곳으로 누룩처럼 번져나갔다. 그런데 대부분의 평신도 신앙운동은 카톨릭 교회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받고 많은 핍박을 당하였다.

또 다른 흐름의 하나는 대다수의 사제들의 물질 위주의 탐욕적인 생활이었다. 이 당시 대다수의 사제들의 결혼과 축첩에 대한 소문은 끊이지 않고 계속 되었고 어떤 사제들은 여신도들과 난잡한 관계를 맺기도 했다. 또 술집에 자주 드나들거나 상당수의 사제들이 술집을 경영하기도 하고 대금업을 해서 수입을 늘려 나가기도 했다.

또 미사, 영세, 결혼 및 장례식에서 헌금이 각출되었다. 형식적으로는

자발적 헌금이라고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제가 제공한 봉사에 대한 수수료로 강요된 것이었다. 그런데다 십일조를 강제로 징수하자 많은 마찰이 생기기도 했다.

이렇게 성직자들이 소명이 아닌 자신들의 탐욕적인 생활을 위해 평신도들에게 압력을 가하자 평신도들은 종교생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매우 피상적으로 방관하며 살아가려고 했다. 그들은 종교생활이라는 것을 이생과 저생에서 미움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두는 마법을 익히는 정도로 간주할 뿐이었다.

이런 와중에서 평신도들이 예수에 대한 관념을 제대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 대부분은 편견에 싸여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자로만 인식했다. 그래서 그가 장차 오실 때는 악한 자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재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한 중보적 구세주라는 생각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이같은 편견 때문에 신자들은 살아 생전에 선행으로 인한 많은 공적을 쌓지 않으면 나중에 유죄판결로 엄하게 벌을 받는다는 두려운 마음이 저변에 깔려 있었다.

이같은 생각에 젖어있는 신도들을 다루는 성직자들의 입장은 물론 유리할 수 밖에 없었다. 평신도들은 카톨릭의 7성례와 각종 절기에 대해서 맹신적으로 순종해 갔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교회의 평신도들은 두려움에 근거한 미신적 신앙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미신적 신앙으로 마음에 안정을 얻지 못하여 자기 스스로 위안을 얻고자 하는 각종 성지 순례자들이 늘어갔다. 돈이 많은 이는 로마로 순례를 떠나고, 중산층이나 가난한 사람은 가까운 스페인이나 스위스로 순례를 떠났다. 이렇게 되자 경건한 여행자들을 위한 안내서가

유행하기도 했다. 로마로 가는 순례자를 위해서 쓴 「로마의 명소들」이란 책은 1500년 경에 라틴어로 19판, 독일어로 12판이 나왔다. 이 책은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말로 번역이 되기도 했다.

이 책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무관한 미신적인 요소들로 가득했다. 순례자들이 로마로 가서 '라테란(Lateran)' 교회에 예배하면 모든 죄와 죄책 처벌도 다 용서받는다는 안내문도 있었다.

또 성 베드로 성당의 높은 제단에 선한 뜻을 품고 순례만 하면 그에게는 어떤 큰 죄라 할지라도, 가령 부모를 살해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죄책과 처벌로부터도 자유롭게 된다고 하였다.

성 그로체(St. Groce)는 더 높이 평가하였다. 누구든지 성 그로체에 가려는 마음을 갖고서 순례의 길을 나선다면 그는 도중에 죽는다 해도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방문하기만 하면 연옥에서의 100년 동안의 고통받을 것도 다 탕감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이와 같은 책자들이 성행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대부분의 많은 대중들이 신앙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며, 성직자들 자체가 무식하였고, 품행이 단정치 못했으며, 사리사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권위주의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장차 있을 처벌을 해결하고자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지와 부패는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한 마틴 루터를 통해 무지를 깨우치고 잘못을 개혁하는 종교개혁을 시행하게 하신다.

우리는 이상에서 종교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교만한 성직자들에게서 눈길을 돌리셨다. 또 헌신하고 섬겨야 되는 목자들이 오히려 사리사욕을 위해 수탈하고 능욕함으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해야 했다.

이와 같이 종교가 당해야 하는 필연적인 결과로 인해 종교개혁은 시작되게 되었다.

제 2 장 루터의 준비



기독교 2천년 역사에서 마틴 루터처럼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된 인물도 별로 없다. 어떤 이들은 루터를 격렬하게 혹평한다. 그는 교회의 통일을 파괴한 자요, 주님의 포도원을 짓밟은 산 돼지와 같은 자요, 오늘날 수많은 교파주의를 만들게 한 장본인이라고 한다.

또 다른 이는 정 반대의 평가를 한다. 그는 순수한 복음전파를 위해 위대한 개혁을 성공시킨 성경적 진리의 수호자요,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운 승리자라고 한다.

루터 개인을 놓고 볼 때는 명석한 두뇌로 깊은 학문에 전념하였던 솔직한 학자였다. 그의 개성은 매우 거칠고 세련되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가 자기 신앙상 진리라고 확신한 것은 그 시대의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었다.

루터가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강한 신념이 첫째되는 요인이었지만 그 당시 새로 발명된 인쇄술은 그의 개혁 의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해 줌으로 빠른 시간내에 많은 지지를 폭넓게 얻을 수 있게 했다.

또 루터가 살고 있던 독일이라는 나라의 정치적 상황이 그가 교황이나 황제에게 즉각 정적당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이었고 그를 돕는 사람들의 세력하에 보호받을 수도 있었다. 이같은 모든 요인들, 즉 개인

적, 상황적, 정치적 여건들이 루터로 하여금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게 하였다.



루터

1. 루터의 준비

루터의 교육과 사역들을 개혁자로서의 길을 예비케 하였다. 여기서는 그의 출생, 교육, 수도승을 거쳐 대학 교수가 된 후 회개하기까지의 모습을 살펴 보자.

(1) 루터의 출생과 교육

1) 그의 어린 시절

마틴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에 독일 아이스레벤(Eisleben)에서 7남매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부친 한스 루터(Hans Luther)는 작은 농촌지방 출생이며, 그의 모친 마르가레테 지글러(Margarette Ziegler)는 도시민 출신이었다.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루터는 그의 부친이 광부로 전업함에 따라 광산촌인 맨스펠드로 이사를 하였다. 루터의 소년시절은 가난한 광산촌에서 어려운 가정환경 가운데 자라게 되었다. 가난에 찌들린 부모들의 힘든 모습을 보면서 자라났다.

어린 루터는 광산촌의 빈곤하고 조잡한 환경 속에서도 부모의 엄격하고 현명한 교육에 의해 상상력이 풍부하고 생각이 깊은 아이로 자랐다.

루터의 부모는 매우 엄격한 편이었다. 그래서 루터가 한때 장성한 후 우울증 증세와 신경 불안 증세로 괴로움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 원인이

엄격한 가정 분위기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2) 루터의 교육

루터가 처음 학교를 다닌 곳은 맨스필드에 있는 시골학교였다. 루터는 그 학교의 교사로부터 매우 엄한 교육을 받으면서도 잘 견디어냈다.

1497년 한 해 동안 마크테부르크에 있는 공동생활 형제회가 운영하는 학교를 다녔다. 그리고 다시 아이제나하(Eisenach)의 성 조지학교로 가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 이 학교는 숙박과 교육비의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었다. 루터는 교회당에서 소년 성가대원이 되어 의무적으로 봉사해야 했으며, 이같은 봉사료 교육비를 해결하게 되었다.

아이제나하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은 후 그 당시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에르푸르트(Erfurt)대학에 입학하였다. 여기서 1502년에 학사학위(B.A)와 1505년에 석사(M.A)학위를 취득하였다.

에르푸르트 대학은 1392년에 창설한 학교였다. 그 당시 많은 대학들은 황제나 제후들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에르푸르트 대학은 도시민들이 성금으로 세운 학교였으므로 학교에 대한 관심과 긍지가 대단한 전통으로 이어져 왔다.

이 대학의 학장은 독일 최고의 성직자인 마인츠의 대 주교였다. 교수들 역시도 상당수가 성직록에 오른 사람이거나 수도사였다. 그래서 그곳의 모든 선생들은 로마 카톨릭에 위배되는 사항은 가르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했다.

루터가 이 대학에 간 것은 법률을 공부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법률 공부에 앞서 예비적 단계로 교양과목 철학을 배우게 되었다. 루터는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 희랍어, 라틴어 등 고전어를 배우는 등 바쁜 학창시절을 보내었고 그의 밝고 사교성 있는 성격으로 항상 음악적 분위기 속

에서 살았다. 그래서 친구들로부터 음악박사 또는 철학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루터가 1502년 가을에 학사학위를 받을 때 석차는 42명 중 30등이었다. 그런데 1505년 1월에 석사학위를 받을 때의 석차는 17명 중 2등이었다. 이때 그의 아버지는 값비싼 법령집(Corpus Juris)을 선물하기도 했다.

루터의 아버지는 아들이 훌륭한 법률가가 되기를 기대했다. 그래서 1505년 5월에 법학대학원에 들어갈 때만 해도 큰 기쁨에 부풀어 있기도 했다. 그러나 그 기대는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렸다. 그해 7월에 루터는 아버지와 상의 한 마디 없이 에르푸르트시에 있는 어거스틴파 수도원에 들어갔다. 이것을 알게 된 그의 부친은 몹시 화를 냈으며 아들로부 터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루터가 이와 같은 갑작스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추측들이 있다. 여기서 이 점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2) 루터가 수도사가 되다

루터는 1505년 7월에 수도원에 들어갔다. 그의 이런 갑작스런 결정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었는지는 그의 생애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다음 몇 가지로 열거된다.

첫째, 루터가 대학시절 에르푸르트대학의 인기 교수였던 휴머니스트인 요한 베젤(John Wesel)의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둘째, 루터가 석사학위 직전 부활절 휴가 때 고향을 다녀오는 길에서 잘못하여 다리의 핏줄이 잘리게 되었다. 이때 많은 피를 흘리고 거의 죽을 뻔한 일이 있었다. 또 그 무렵 에르푸르트 지방을 휩쓴 전염병으로

급우들 중 하나가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거듭되는 생명의 위협을 통해 자신도 죽음에 대해 진지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기 몇 주전의 일이었다. 뜨거운 여름날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와 번개로 인해 쓰러지는 나무를 보고 심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동안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껴오던 그가 그날 천둥과 번개소리를 들으며 순간적으로 그는 죽음을 모면해주면 수도사가 될 것을 성 안나에게 서원하게 된다. 이것이 루터가 수도원 입단의 직접적 원인이었을 것으로 본다.

셋째,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간 것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엄격하게 자란 소년시절의 경험이 그를 수도사가 되도록 하였을 것이라는 것이다.

루터는 어린시절부터 종교적인 바탕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그것을 무시하고 법률가가 되기를 바랬다. 그렇지만 루터는 내세를 위한 준비를 제쳐놓고 이 세상에서 법률가가 되어 명예와 부를 추구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래서 루터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구원에 관한 관심과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고 수도원에 들어갔을 것이다.

이유야 어떤 것이었든지 1505년 7월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가게 된다. 거기서 1년여의 수련기간을 거친 다음 1506년 9월에 정식으로 수도회에 입문한다.

루터의 수도원 생활은 매우 엄격하고 철저했다. 루터가 배당받은 방은 가로 7피트에 세로 9피트 넓이의 난방시설이 없는 방이었다. 하나밖에 없는 창문 밖으로 수도사들이 묻히는 수도원 묘지가 있었다.

수도원 생활은 철저하게 단련된 금욕주의였다. 그곳에서 수도원이 정

한 정기적인 기도 말고도 루터는 많은 금식기도와 고행을 함으로 좀더 완전한 성직자가 되려고 노력했다. 수도원의 규율은 사소한 것이라도 지켜야 했다. 만일에 하찮은 규정이라도 어긴 것을 인식할 때는 즉시 고백과 참회를 해야만 했다. 그래서 루터는 너무 자주 고백과 참회를 하겠다고 고해를 요청하다가 그 당시 수도원 부원장이며 고해신부인 요한 슈타우핏츠(Johann von Staupits)로부터 죄를 모았다가 고백하라는 충고를 듣기까지 했다.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곳에서 마음에 평정을 얻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수도원에서의 끊임없는 금욕적 생활과 쉴 사이 없는 참회를 반복하면서도 그에게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다. 그가 자신을 더욱 엄하게 경계하면 할수록 그에게는 더 많은 고뇌와 참회가 있을 뿐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1507년에 루터는 사제로 임직을 받는다. 그리고 그해 5월에 신부로서 첫 미사를 집례한다. 루터가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2년여 동안 많은 참회의 기간을 보냈으나 내적 평안을 얻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슈타우핏츠의 천거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공부를 한 후 대학 교수가 된다.

(3)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인 루터

비텐베르크는 도시라기보다 대 규모의 촌락에 불과했다. 이 도시는 독일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크게 발전을 못하고 있었다. 그 주된 이유로는 주변 경관이 아름답지 못했고, 토양 역시 기름지지 않았다. 이 도시의 주민은 1513년경 3천 명의 주민과 356채의 집이 있을 정도였다.

16세기가 시작될 무렵 삭소니의 선제후였던 현자 프레드릭이 자신의

영지내에 대학을 세우기로 결심하였고 1502년 10월 18일에 맥시밀리안 황제의 특허를 얻어 대학이 시작되었다.

프레드릭은 교황청 총 대리인이며, 어거스틴파 수도원의 부원장인 슈타우핏츠와 함께 대학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래서 슈타우핏츠 자신이 교수이며 신학 교수단의 책임자가 된다. 이 대학의 초기에는 학생이 416명까지 등록했었다. 그러나 1505년 경에는 56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루터는 슈타우핏츠의 천거로 1508년에 비텐베르크에 있는 조그마한 수도원으로 파송되어서 그곳 대학을 돕게 되었다.

루터는 1508년에 비텐베르크 대학의 철학 강사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강의하였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정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학위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슈타우핏츠는 루터를 에르푸르트 대학에 보내 신학박사 학위 과정을 마치도록 한다. 그리하여 1512년에 루터는 성서박사(Bachelor of Divinity)라는 학위를 받게 된다.

루터는 1517년까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철학과 성경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생활을 계속한다. 루터가 대학 강사시절 중 1510년 11월부터 1511년 4월까지 약 5개월간 로마를 방문한다. 이것은 루터가 어거스틴파 수도회를 대표한 방문이었다. 루터는 모든 카톨릭인들이 동경하는 거룩한 성시 로마를 방문한다는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여겼다. 루터는 경건한 순례자의 심정으로 거룩한 도시 로마를 5개월 동안 두루 살펴보게 된다.

루터는 가장 유명한 성소들을 샅샅이 참배하였다. 특히 면죄부까지 약속된 라테란 성당의 성 크로체도 참배하였다. 라테란 성당 북쪽에 위치해 있는 거룩한 황금계단을 찾아 보았다. 이 황금계단은 교황 레오 4세가 고안하여 만든 것이었다. 이 거룩한 계단은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관을 받으실 때에 28개의 계단을 밟으며 온 인류의 죄짐을 지고서 오

르신 것을 재현시킨 계단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 계단을 '빌라도의 회랑' (Praetorium of Pilate)이라고도 한다.

이 계단을 예수께서는 걸어가셨으나 인간은 무릎으로 기어서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감격의 키스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카톨릭의 가르침대로 하면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며 참회를 한 자는 과거 선조들의 100년 전 죄도 다 용서받는다고 하였다. 루터는 이 계단을 27계단까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으나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마지막 한 계단은 맨발로 벌떡 서서 걸으며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루터는 다시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주를 위해 순교한 8만 명의 순교자 무덤이 있는 곳과 46명의 교황들 무덤을 참배했으나 그곳에서도 역시 어떤 감동도 얻지 못하였다.

그리고 로마 시를 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소문들은 너무도 부패가 만연한 도시라는 것이었다. 이런 개운치 않은 기분으로 사전에 교황을 면담기로 선약이 되어 있어서 교황을 만날 시간에 갔었으나 교황은 부재였다.

또 교황 율리우스(Julius II)는 침을 거느리고 있고, 알렉산더 교황은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소문도 들었다. 루터는 풍문만이 아니라 교회 제후들의 공개적인 죄악을 직접 목격하고는 분개하였다.

그러나 루터는 너무도 많은 의심을 품게 된 자신을 참회하려고 성당을 찾아갔으나 신부가 고해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1개월에 1회 정도는 강론이 실시되었는데 로마에는 5개월 동안 한번도 강론은 들을 수도 없었고 의식만 있을 뿐이었다.

루터는 로마를 방문하고 난 후 큰 실망에 빠졌다. 그가 다시 비텐베르크로 돌아왔을 때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였다. 1512년 10월 18일 루터는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정교수가 된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몸담고 있던 비텐베르크 조그마한 수도원의 부원장이 되는 기회를 얻기도 한다. 1515년에는 마이센(Meissen)과 튜링기아 지역에 있는 11개의 수도원 지역 대리인이 된다.

이렇게 하여 루터는 대학에서는 강의를 하고, 수도원들을 순회하면서 설교를 하였다. 그런데 이 무렵 루터에게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생활을 하면서 일어난 변화였다. 그것은 바로 루터의 회개였다.

2. 루터의 회개

루터가 회개한 시점은 어느 때일까. 여기에 대한 확인은 몇 가지의 가능성을 살펴봄으로 추측할 수 있다.

첫째, 루터가 회개한 시기는 여름날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로 인해 심한 공포감을 느껴서 성 안나에게 서원한 때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 뒤로 수도원에 들어가 계속 번민한 것을 보면 그때는 아니었던 것 같다.

둘째,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원의 모든 규정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며칠씩 금식과 하루 6-7회의 참회 때 회개가 이루어질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실 그때에도 루터의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었다.

셋째, 루터가 로마시를 방문하여 황금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느낀 강한 깨달음의 순간이 회개의 순간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뒤로도 루터는 계속 정신적 방황을 거듭하였다.

위에서 추측한 여러 경우에도 루터의 진정한 회개의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그렇다면 루터의 회개는 언제 이루어졌을까? 이에 대해 우리는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어느 때 그의 회개가 이

루어졌을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가장 유력한 정답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이제 루터가 카톨릭 신부에서 개혁자의 사상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루터의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시절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1) 초기 강사 시절(1508-1512)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강사로 지내면서 정교수가 되기 위해 에르푸르트 대학에 가서 학위 공부를 하였다. 이때 그가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배운 것은 주로 스콜라 신학이었다.

루터는 학교의 요구대로 옥감(Ockham), 다이어(d' Ailly), 가브리엘 비엘(Gabriel Biel)과 같은 대가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어거스틴(Augustine), 클레르보의 베르나르(Bernard)와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를 탐독하였다.

루터는 신학의 대가들을 연구하고 공부는 하였으나 그것을 대학에서 가르쳐야만 한다는 필요를 느끼지는 않았다고 한다. 루터 자신은 성경을 강의하려고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운 사람으로 알았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더 정열을 기울였다. 그가 처음에 가르쳤던 철학 과목은 점차 줄어 나갔다.

(2) 초기 대학교수 시절(1513-1514)

1512년에 신학박사 학위와 함께 대학의 정교수가 된 루터는 1513년 여름부터 처음으로 시편을 강의하였다. 루터는 히브리어에 대해서 별로 자신이 없었으므로 자신의 기호대로 라틴어역인 벌게이트 번역본을 사용하였다.

루터는 시편을 강해하기 전에도 수년 동안 성구집(Psalter) 내용인

시편들을 많이 암송해 왔다. 그 성구집들이란 주로 교회 절기를 맞추어 그리스도의 생애 중 중요 사건들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따라서 루터의 시편 강해는 주로 그리스도에게 초점으로 맞추는 기독교적인 해석이었다.

루터는 평범하게 전통적인 관례에 따라 시편을 강해해 나갔다. 그러던 중 시편 22편을 강해하다가 고뇌가 시작되었다. 시편 22편의, “내 하나님여 내 하나님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라는 말씀의 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나’가 곧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는 왜 하나님께 저버림을 당해야만 했을까. 지금까지 그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사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에 대한 그의 고뇌를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왜 처절한 고뇌를 당해야만 했는가.

루터는 자기 자신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그것을 통해 루터는 그리스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던 분이라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분이셨다는 친근감과 함께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

이전의 그리스도는 심판주요, 악을 벌하는 무서운 분으로만 이해했었으나 똑같은 고난을 겪은 우리와 같은 분이셨다는 데서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꼭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답을 찾지 못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해답과 확신을 얻은 것은 그후의 일이었다.

(3) 대학교수 시절(1515-1516)

루터는 1515년부터 1516년까지 로마서를 강해했다. 그는 로마서를 강해하던 중 그동안 의심스럽던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점들을 발견하게 된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 드디어 그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풀게 된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앞의 말씀이 있다. 이 말씀 속에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먼저 말씀하고 있다.

그 다음엔 결과가 나오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다. 루터는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했다. 여기 본문에 의하면 복음이란 ‘하나님의 의’와 ‘믿음’이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게 되었을 때 루터는 종래까지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종전까지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하나님이 세워 놓은 기준을 모든 인간들이 다 지켜야 되는 본질적인 의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그동안 겪은 경험에 의지해서 살펴보아도 인간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를 이룰 수 없었고 오히려 그로 인해 오는 죄의식과 번민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인간의 힘으로 완성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사실을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다 완성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것이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인간이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인간들의 공적과 상관 없이 덧입혀주는 의

였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는 인간들의 행위가 의로워졌거나 또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해 놓으신 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뿐이다.

수년 후에 루터는 그 당시를 이렇게 회고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정의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절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깨닫게 되기까지 밤낮으로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결국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순수한 은혜와 자비를 통하여 믿음에 의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바로 그 의를 가리키는 것임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각성을 얻은 즉시 나는 마치 새로 태어난 것과 같은 감격을 경험하였으며 천국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루터가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되었다. 루터가 전에 깨달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은 잘못을 심판만 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셨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다 신실하고 확고한 사랑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그의 의문은 풀리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의란 인간이 무엇을 성취해야 하고, 하나님은 그 후 인간의 성취에 따라 보상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었다. 인간이 하나님의 요구인 믿음을 가질 때 의롭다고 입혀주는 칭의는 값없이 거저 주는 선물인 것이다(엡 2:8).

루터가 이같은 진리를 깨닫고 난 후에도 여전히 개인적 연구생활과 영적 탐구는 계속되었다. 루터는 계속해서 신부이며 교수로 목회생활을

하였다. 1516-1517년에는 갈라디아서를 강해하고, 1517-1518년에는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명료한 그의 신학을 전개해 나갔다.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과 동료 교수들에게 감화를 끼친다.

그렇다면 루터가 회개한 시기가 어느 때였을까, 우리는 앞서 살펴본 대로 루터가 1515-1516년경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로마서를 강해하던 시기로 추정할 수 있다.

루터는 그가 새로 깨달은 진리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의 순회설교 때에도 표현하였다. 그렇지만 기존 로마 카톨릭의 전통적 가르침과 상치되는 부분을 문제로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루터가 카톨릭과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한 최초의 흔적은 1516년 중반 때쯤이다.

루터가 강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은 그가 그토록 감격해마지 않았던 이신득의같은 교리나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오히려 당장 현실적 문제인 면죄부 판매를 문제로 삼았다. 그는 면죄부 판매가 비 성서적이라는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하였다. 이러한 반대는 1516년 그의 설교를 통해 나타내기 시작한다.

루터의 이와 같은 영향은 루터와 그의 동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드디어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경향으로 나타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학적 흐름은 드디어 면죄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해야겠다는 결단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루터의 개혁 과정을 좀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제 3 장 루터의 개혁



지금까지의 루터는 순종심이 넘치는 수도사였으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부지런히 순종함으로 상급자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루터로 하여금 잠잠할 수 없게 만든 것은 면죄부(免罪符, Indulgence)에 대한 의분이었다. 사실상 루터의 종교개혁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면죄부에 대해 좀더 세심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1. 면죄부의 역사

면죄부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십자군 원정 때부터였다. 성지 예루살렘을 적군인 회교도의 손에서 탈환해야 한다는 거룩한 싸움인 십자군 전쟁은 11-12세기 때에 일어난 운동이었다. 이 당시 교황들은 십자군 원정에 참여한 자들이나 순례자들이 교회에 재산을 기증하면 이들에게 면죄가 약속되어진다고 했다.

그런데 면죄부가 좀더 교리적으로 발전한 것은 13세기 때 알렉산더(Alexander of Hales)에 의해서였다. 그는 '공로의 보화'(Thesaurus meritorious)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것을 후대의 신학자들이 더욱 확대시키고 정밀하게 발전시켰다. 그래서 '성인들의 보화'(The Treasury of Saints)라는 교리로 정착하게 된다.

이들 교리의 주장은 교회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고행(순례, 금욕, 금식)들을 그대로 따르는 자는 평범하게 고행 없이 살아가는 신자보다도

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자들이 행하는 선행들 역시도 그냥 사라지지 않고 모아져서 공동의 재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보다 성스럽게 살아간 다른 형제들의 선행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모든 인류들의 죄악을 다 씻어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성인들과 많은 순교자들의 선행이 후대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성인들의 선행은 그들이 죽은 후에도 하늘 창고에 보화로 축적되어져 있다는 이론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쌓여진 모든 공로들을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교황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황은 성인들의 축적된 보화를 죄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적 근거로 면죄부가 판매되기 시작했다. 이런 주장을 1457년 칼릭스투스(Calixtus) 교황은 연옥에서 고통받는 자들도 면죄부로 해방이 가능하다는 이론을 발전시키기도 하였다. 또 1476년에 내려진 교황의 교서 '살바토르 노스터(Salvator Noster:우리들의 구원)'에서 면죄부가 죄를 해방하는 대상은 산 자와 죽은 자 모두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물론 면죄부를 작성할 때는 진실한 회개와 고백을 요구하였다. 그렇지만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장사꾼들이 물건 파는 것처럼 되었다.

그 뒤로 1507년에 교황 율리우스 2세는 오늘날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할 기금을 조달하기 위해 또다시 면죄부를 발행하였다. 그리고 1513년에 교황 레오 10세가 또다시 재 발행하였다. 이 면죄부는 판매 축진을 위해서 판매 수입의 1/3은 판매한 사람이 차지하게 했고, 또 1/3은 그 지방 감독이 차지하고, 나머지 1/3은 교황청으로 보내게 하였다.

루터가 살고 있던 당시 독일에서의 면죄부 판매는 교황 레오 10세에 의해서 특정인에게 허가된 사항이었다.

독일의 정치적, 경제적 주도권을 잡고자 했던 '호헨졸레른' 가문 출신의 브란덴부르크의 알버트(Albert of Brandenburg)가 독일의 두 개의 교구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알버트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대 주교구인 마인쯔(Mainz) 교구를 수중에 넣을 야심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알버트는 그 당시 탐욕과 사치와 향락에 깊이 젖어 있던 교황 레오 10세와 흥정을 했다. 흥정 결과 알버트는 1만 루카(ducat)의 거금을 내고 마인쯔 교구를 사게 된다. 그러나 그 돈은 너무 막대한 금액이었으므로 교황은 알버트에게 그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교구 내에서 면죄부를 판매할 권한을 주었다. 그리고 면죄부 판매를 통해 얻어진 이익의 절반은 교황청에 헌납하도록 하였다. 알버트의 지휘하에 독일지방의 면죄부 판매책을 맡은 사람은 도미티크 수도회 출신의 수도사 요한 테첼(John Tetzel:1465-1519)이었다.

테첼은 알버트의 위임을 받아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다. 이 테첼은 당대에 유명한 웅변가였다. 그는 면죄부 판매를 위해서 온갖 감언이설과 속임수를 써서 면죄부를 선전하였다. 그와 수행하는 성직자들 또한 자기들이 팔고 있는 면죄부는 '죄인들을 세레보다도 더 깨끗하게 만들며, 타락 이전의 아담보다 더 순결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이미 사망한 사람들을 위해 면죄부를 살 때에는 헌금함 바닥에 동전이 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갇혀 있던 영혼이 화살처럼 솟아오른다.' 고까지 하였다.

이렇게 거짓된 교리에 의한 교묘한 선전에 대해 많은 지식인들은 분노를 자아냈다. 그런데도 독일 국민들은 이태리 교황청에 착취를 당하는 것조차 모르고 이들의 선전과 선동에 끌려가고 있었다.

이같은 현실을 지켜보던 루터는 면죄부 판매가 시민들의 도덕적 생활과 신앙에 타격을 준다고 판단하고 여러 주교들에게 이 사태를 중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면죄부 판매는 대 주교가 허락했다는 추천장 사본이 루터에게 입수될 뿐이었고, 그는 더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깊은 사고와 결단 끝에 종교적 분노로 95개조의 신조문을 쓰고, 그것을 발표하게 된다.

2. 95개조 신조문

(1) 작성·발표된 경위

루터는 기존 전통적 신앙에 대해 자기 입장을 밝혀야 할 필요를 느끼고는 최초로 97개 신조문을 작성한다. 이 97개 신조문에는 스콜라 신학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공격하였다. 이 신조문은 어디까지나 학문적 범주 내에서 토론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논문 발표가 대학 밖에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다시 95개조 신조문을 쓰게 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95개조 신조문이다. 루터가 이 95개조 신조문을 발표할 1517년 당시 그는 매우 온건하였다. 그는 비텐베르크 여러 수도원의 설교가로서 매 주일 설교를 하였다. 그렇지만 그의 설교는 차츰 그 당시 교위 성직자들에 대한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의 도덕적 타락을 통렬하게 비난하였다. 그런 그의 설교는 그 당시의 성직자나 교황에게 보내는 큰 도전장이 아닐 수 없었으나 그는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들의 행위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교황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해방시킬 능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교황은 그같은 힘을 예배당 건축같은 일을 위해 쓸 것이 아

니라고 했다. 순수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아무 대가도 받지 말고 교황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영혼구원을 위해서 세속적인 돈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교황의 권한을 타락시키는 파괴행위라고 하였다.

루터는 95개조 신조문을 작성하여 브란텐부르크 주교인 제롬과 대주교인 알버트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반응이 없었다. 그러자 루터는 이 신조문을 비텐베르크 '성인의 교회(The Church of all Saints)' 정면 문에다 붙여 놓았다. 이 교회당 문은 중요한 학문적 서류를 공고할 때마다 게시판으로 사용되곤 하였다.

루터가 95개조 신조문을 그곳에 게시한 것은 그 당시에는 공개적 학문 토론회 개최 공고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루터는 이 신조문을 1517년 10월 31일에 발표하였다. 그 이유는 그 다음날인 11월 1일이 '모든 성인의 날', 즉 만성절이라고 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이 날은 1년 중 도시민들과 이방객들이 가장 크게 운집하는 날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서 1517년 10월 31일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로 기록이 된다.

95개조 신조문의 원본은 라틴어로 쓰여졌다. 그런데 독일의 인쇄업자들은 원본과 독일어 번역을 곁들여 독일 전역에다 이 신조문을 살포하였다. 이 신조문은 2주 내에 전 독일로 퍼져 나갔고, 또 3주 후에는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다.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루터 자신도 너무 놀라게 된다.

그렇다면 이 95개조 신조문이 그토록 삼시간에 전 유럽으로 확산되도록 인기를 집중시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이 신조문은 통상적인 학문 토론이 아닌 뚜렷한 목적이 있는 먼

죄부 판매에 대한 도전을 제기하는 반박문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그 당시 모든 이가 신성 불가침으로 여기던 드높은 권좌에 있는 교황이 공격의 표적이었기 때문이다.

셋째, 마인쯔 대교구 감독인 알버츠는 94개조 논문으로 면죄부 판매에 대한 합법성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그의 면죄부 판매가 얼마나 비성서적이고 잘못된 것인가를 학문적으로 대응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루터의 95개조 신조는 이같은 그의 허구성을 학문적으로 명석하게 파헤쳐서 반대했기 때문이다.

넷째, 면죄부 판매대금의 2/3가 타국인 이탈리아로 빠져나가는 것은 모든 독일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이었다.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였다.

다섯째, 요한 테첼에 대한 개인적 증오가 크게 작용했다.

이와 같은 여러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그 신조문은 삽시간에 전 유럽으로 확산되는 대단한 반응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95개조 신조문의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루터가 쓴 95개조 신조문은 주로 로마 카톨릭 교리에 관계된 것들이었다. 여기서 그 내용들 전부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 중에서 몇 가지만을 살펴보기로 하자.

(2) 95개조 신조문 내용

1) 고해(Confession) - 7조에서 언급

카톨릭의 고해성사(告解聖事)에는 4개의 행습이 있었다. 하나는 지은 죄에 대한 통회이고(contritio), 두번째는 그 죄를 사제에게 고백하는 것(confession), 세번째는 고해받은 신부의 지시에 따라서 교회가 부과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실천함으로써 신에게 만족을 드리는 것

(satisfaction), 네번째는 사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면을 선언하는 것(absolutio)이었다. 이 같은 제도에 대해 루터는 자기 입장을 제시하였다.

2) 죄에 대한 참회 기간-8,85,87조에서 언급

고대 교회에서는 중죄를 지은 사람은 동료 교인과 교제를 차단시켰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재입회는 전체 회중이 운집한 가운데서 공개적인 고백을 함으로 가능했다.

또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금식, 광범위한 구제, 노예의 해방 등의 공개적 징표를 요구하였다. 그러한 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 회중들이 그가 참으로 회개했다고 인정할 때 다시 금 회중으로 맞아들일 수 있었다.

참회기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졌다. 그리고 전체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던 것이 나중에는 사제에게 개인적으로 고백하도록 바뀌어졌다. 그리고 회중 전체가 인정할 수 있었던 것도 차츰 사제가 적당하게 부과하도록 위임하였다.

이같은 제도가 8세기 경에는 슬퍼하는 기간, 공개적 죄의 고백, 회중으로부터 인정받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었다.

14세기 경에 이르러서는 죄에 대한 고백, 회중으로부터 인정, 슬퍼하는 기간이 생략된다. 그리고 15세기 경에는 면죄부로 인정을 대체시킨다. 이같은 제도적 허구성을 루터는 지적한다.

3) 면죄부-20-21,26,27,28,31,37,38,42,50,51,52,54,55,73,74,76,77,78,86,88,89,91조문에서 언급

면죄부에 대한 시작은 루터시대보다 천년은 앞서 거슬러 올라간다. 7세기 때부터 고행을 다른 것으로 대체시키는 행습이 있었다. 고행을 구

제금, 회사, 벌과금 등으로 경감시켜주는 것이 면죄부의 기원이 되었다.

이 면죄부에 대한 신학적 이론은 알렉산더, 보나벤투라,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등이 세웠다. 이들이 세운 이론은 이러했다.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를 번민하다가 사제를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사제가 사면을 선포하면 고백한 모든 죄책감은 제거된다고 했다. 그러나 사람에게 죄책감이 제거되었다고 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처벌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처벌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현세적인 형벌로써 이 지상에서 고통받아야 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처벌장소에서 받아야 할 고통이었다. 사제가 부과하는 고행은 현세적 처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현세에서 해결하지 못한 처벌은 연옥에 가서 완성을 본다고 하였다. 이같은 주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연옥에 대한 고통을 두렵게 여겼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참된 참회자에게 요구하는 통회의 종류로서 '아트리치오(Attritio)'와 '콘드리치오(Contritio)'가 있다고 했다. 콘드리치오는 사랑에 의해서 일어난 통회이고, 아트리치오는 두려움에서 일어난 통회이다.

그런데 아트리치오가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에는 너무나도 불완전한 지라도 사제가 성례전적 사면에 의해서 완전하게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같은 주장에 따라 아트리치오, 고백, 그리고 면죄부는 구원을 얻게 해주는 3대 핵심이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양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면죄부를 사야만 했다.

최초의 면죄부 발행권은 사제들에게 있었다. 그런데 사제가 이를 악용하자 그 발행권을 주교의 수중에 국한시켰다. 주교 역시 자신들의 특권을 남용하자 교황은 발행 권한을 로마의 주교나 로마의 주교가 인정

하는 대리인에게로 제한시켰다.

이같은 권한이 처음에는 절도있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13, 14세기에 이르러서 면죄부의 발행은 매우 무절제하게 남발되었다. 14세기 때에는 교황청에서 전쟁을 위한 군인 징집이나 병원 건립, 그리고 예배당 짓는 일과 다리나 도로를 보수하는 데도 면죄부가 발행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본 루터는 95개조 신조문에서 면죄부의 효용성에 대해 새로운 6개 항의 조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면죄부는 단순히 교회적인 처벌에 대해서만 사면할 수 있다. 면죄부는 하나님이 부과한 처벌은 사면할 수 없다.

둘째, 면죄부는 죄책감을 결코 제거할 수 없다. 교황 자신이라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다. 그 일은 하나님이 자신의 수중에 보존하셨다.

셋째, 면죄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을 사면할 수 없다. 이같은 주장은 십자군에게 주어진 면죄부가 개인의 죄책은 물론 사후의 처벌까지도 사면한다는 주장을 반대한 것이었다.

넷째, 면죄부는 연옥에 있는 영혼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 교회가 부과한 처벌은 오로지 산 자에게만 적용된다. 연옥에 있는 영혼에게 교황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기도밖에 없다. 교황의 관할권이 연옥에 미치지도 않고, 천국 열쇠의 권한도 미칠 수 없다.

다섯째, 참으로 회개하는 신자라면 면죄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은 것이며, 면죄부는 전혀 필요 없다.

여섯째, 축적된 공로의 보화란 옳게 규정된 개념이 아니다. 성인들이라고 해서 공로가 축적될 수 없다. 하늘나라의 창고에는 축적된 공로가 아니라 거룩한 은총과 하나님의 영광만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루터의 주장은 아주 평이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루터의 95개조는 평신도를 염두에 두고 그들의

측면에서 평신도의 영적 상황에 관해 호소하듯 표현하였다.

그 외에도 연옥에 관해(22-23, 35, 82조),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10, 13, 83조), 축적된 교회의 보화(56, 58, 59, 63, 64, 65, 66조), 교황의 권위(22, 25, 26, 33, 41조) 등으로 엮어진 전체 95개조 신조문들은 주로 카톨릭의 교리에 관계된 것들을 루터 자신의 견해로 제시한 것이었다.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크게 파문을 던진 것이 바로 면죄부에 대한 그의 주장이었다.

이 95개조 신조문이 알려지자 성황리에 팔리던 면죄부의 구매의욕이 식어졌고, 판매 중단이 위기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여기에 제일 크게 불만을 품은 사람은 요한 테첼이었다. 그는 이 이단자를 3주 내에 화염 속에 쳐 넣겠다고 나섰다. 또다른 도미니크파 신부들도 루터를 화형에 처해야 한다고 강단에서 설교하였다.

그리고 루터의 반대자로 오랫동안 싸워오던 도미니크파 수도원 소속의 '잉골슈타트(Ingolstat)' 대학 교수인 요한 엑크(John Mayr of Eck)는 루터의 95개조 신조문을 반박하는 글을 써서 부치기도 했다. 이렇게 하여 잉골슈타트 대학의 요한 엑크와 비텐베르크 대학의 루터가 면죄부를 놓고 신학 논쟁을 벌이게 된다.

(3) 면죄부 논쟁

루터는 이름 없는 한 수도사였다. 그런데 그의 95개조 신조문은 전 유럽을 온통 시끄럽게 했다. 이렇게 한 수도사의 건방진 행위로 사회와 교회가 소란스러워지자 당시 독일 황제인 맥시밀리안(Maximillian)은 교황 레오 10세에게 루터를 침묵시키도록 부탁하였다. 교황은 이 문제 수습을 루터가 소속되어 있던 어거스틴파 수도회에 해결하도록 지시하였

다. 이렇게 해서 어거스틴파 수도회원들은 연례 정기회의의겸 루터 문제 수습을 위한 대회를 소집했다.

1) 하이델베르크(Heidelberg) 대회(1518년 4월 15-18일)

루터가 소속된 수도회는 어거스틴파 은둔 수도회였다. 이 수도회 소속 수도사들은 매년 정례적으로 전체 수도사 대회를 실시해 왔다. 이번의 하이델베르크 대회 역시 연례 정기회의의였으나 루터는 크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까닭은 그가 발표한 95개조 신조문에 의한 파급효과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루터는 그곳에서 자신이 정죄를 받고 이단으로 화형에 처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진 채 참석하였다.

그런데 회의에 참석한 루터는 전혀 상상 밖의 반응에 놀라게 되었다. 그것은 자신의 95개조 신조문이 동료 수도사들 사이에서 격렬하게 논의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다.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루터의 행동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는 세력들이 더 많았다.

특히 젊은층의 수도사들은 루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이런 반응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거스틴파 수도회와 오랜 세월동안 경쟁관계에 있는 도미니크 수도회에 대한 감정도 크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본다. 그것은 도미니크 수도회의 요한 테첼이 면죄부 선전을 하면서 너무 감언이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같은 불만을 루터가 대표해서 적절하게 응수해준 것으로 이해하는 분위기였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기들의 대표적 의사를 표현한 루터에게 오히려 고마워하면 했지 정죄하는 일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문제였다. 그래서 오히려 루터는 자기가 소속된 수도회의 의사를 표현한 대변자로 인식되어 일개 무명의 수도사가 아닌 어거스틴파 수도회의 대표 신학자로 부상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2) 아우구스부르크(Augsburg)의 면담

교황 레오는 건방진 루터를 소속 수도회에 처리하도록 지시했으나 결과는 정 반대가 되었다. 이에 교황은 루터를 로마로 소환하여 면죄부에 대한 그의 견해를 해명하도록 출두케 하였다. 이같은 소환장은 7월에 발부되었고, 루터가 접수한 것은 8월이었다.

이 소환장을 놓고 루터가 그대로 로마로 간다는 것은 무덤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이때 루터는 독일 선제후인 프레드릭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루터는 선제후의 비서인 슈팔라틴(Spalatin, 1484-1545)을 통해 자기는 대학의 학문적 자유 보장을 위해 보호받아야 할 권한이 있고, 프레드릭은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고 요청한다. 이 사실을 보고 받은 프레드릭은 황제 맥시밀리안의 힘을 통해 루터가 로마로 소환되어 가는 것을 취소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이 당시 프레드릭은 왜 루터를 보호하려고 했는가, 그것은 자신이 세운 비텐베르크 대학이 오랫동안 존폐의 위기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루터가 이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부터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루터의 95개조 신조문 발표 후에 이 대학은 전 유럽에서 유명대학으로 급상승하게 되었다. 이렇게 대학의 명성을 높인 루터를 쉽게 로마로 보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프레드릭은 맥시밀리안 황제로부터 루터를 위한 황제의 면책 특권을 받아냈다.

다른 한편 로마 교황 레오도 독일 선제후인 프레드릭을 경솔하게 대할 수가 없었다. 독일 황제 맥시밀리안은 늙어서 오래잖아 다시 새로운 황제를 선제후들이 선출해야만 할 형편이었다. 그런 중에 프레드릭 선제후는 독일인들 사이에서 대단히 지혜가 많은 이로 존경을 받고 있어 차기의 황제로 기대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황은 자기 사

절로 추기경 카제탄(Cajetan)을 독일로 파견하였다.

황제 맥시밀리안은 아우구스부르크에서 독일 전체 제후들과 군주들이 모인 제국의회를 열었다. 여기에는 독일 제후 군주들만 아니라 교황청의 사절인 카제탄이 참석하게 되고 이곳에 루터가 참석해서 교황 사절인 추기경을 만나도록 하였다.

이때 프레드릭은 루터로 하여금 로마는 갈 수 없으나 같은 독일 영내 아우구스부르크의 제국의회는 참석해도 좋다고 했다. 프레드릭이 그렇게 허용한 것은 그가 이미 황제의 면책 특권을 받아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루터는 황제의 면책특권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100년도 안 된 과거에 존 후스(John Huss)가 황제의 면책특권을 갖고 콘스탄틴회의에 참석했다가 그곳에서 화형을 당해 죽고만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교황의 사절인 추기경은 아우구스부르크에서 루터를 만나서 그로 하여금 그의 주장을 철회하도록 종용할 계획이었다. 만약 루터가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그를 체포하여 로마로 압송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아우구스부르크에서 루터와 추기경 카제탄이 만나게 된다(1518년 10월). 여기서 추기경은 루터와 토론을 거부한 채 무조건 그의 의견을 철회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에 대해 루터는 자기의 잘못이 확실하게 증명될 수 있다면 자기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맞섰다. 이런 싸움이 있는 후 루터는 자기가 체포될 것임을 감지하고 비밀리에 그곳을 떠나 비텐베르크로 귀환하였다.

이렇게 되자 교황은 루터 문제를 조심스럽게 취급하게 된다. 교황청에서는 독일인으로 프레드릭 선제후의 교황청 주재 개인 대리인인 밀티쯔(Charles von Miltitz)를 파견한다. 이 밀티쯔는 프레드릭 비서인 슈

팔라틴과도 친구 사이였다. 밀티쯔가 독일에 돌아와 여러 사람을 접해 본 결과 루터의 면죄부 논쟁은 단순히 한 수도사의 견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독일 전 국민들 사이에 잔잔히 흐르고 있는 감정적 문제였다.

여기서 밀티쯔는 슈팔라틴의 중재로 루터를 만나게 된다. 이들 세 사람은 합의점을 찾고 루터가 서약을 하도록 설득을 시킨다. 밀티쯔는 첫째, 논쟁은 더이상 중지한다, 둘째, 루터는 교황에게 복종한다는 서약서를 쓴다, 셋째, 루터는 일반 백성들에게 교황을 존경하도록 한다, 넷째, 면죄부는 교회법이 제정한 것으로 고행을 사면하는 데 유용하다고 권장한다.

이같은 약속에 루터는 동의하고 약 6개월 동안 침묵을 지킨다. 그리고 오직 공부하는 데에만 몰두한다. 그 기간에 루터는 자기가 발견한 의인(義人)에 관한 자신의 확신을 재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교황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주장이 어떤 근거에서 비롯된 것인지 교령집을 연구하기 시작한다. 그는 교령집을 연구하다가 놀라움과 분노가 엇갈리는 가운데 교황의 절대권이 허위로 가득차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루터가 이렇게 놀라움과 분노에 차 있을 무렵 요한 엑크는 교황의 지상권을 놓고서 칼스타트와 논란을 벌이고 있었다. 이 논란은 자연히 루터와의 논쟁으로 연결된다.

3) 라이프찌히(Leipzig) 논쟁(1519년 6월 27일-7월 16일)

루터가 밀티쯔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러 달을 조용히 지내고 있을 때 평소 루터에 대해 불만이 많던 도미니크 수도회 소속이자 잉골슈타트 대학의 교수인 요한 엑크가 싸움을 걸어왔다.

엑크는 평화스런 분위기를 파괴하는 것 같은 인상을 보이지 않으려고 면죄부 판매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폈고, 그에 대한 반응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였다. 그래서 엑크는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인 안드레아스 보덴스타인 폰 칼스타트(Von Carlstadt, 1480-1541)를 공격하였다.

칼스타트는 루터와 같은 대학의 교수이며, 신학적으로 루터와 같은 입장에 있었다. 그런데 칼스타트는 대단한 학자이긴 했으나 성품이 너무 경솔하고 게다가 극단적인 결론을 잘 내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엑크와 칼스타트는 지상 논쟁을 펼치다가 급기야는 대면 논쟁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이 두 사람은 라이프찌히에서 토론을 하기로 합의한다. 두 사람간의 논쟁 제목은 칼스타트와 엑크간의 논쟁같았으나 사실은 루터를 겨냥하고 있는 도전이었다. 그래서 두 사람간의 논쟁처럼 선전은 되었으나 결국은 루터도 논쟁에 참가하게 된다.

논쟁 장소인 라이프찌히는 루터 입장에서 볼 때 적들의 소굴이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 총장은 논쟁 당사자들만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는 같은 대학 교수들인 칼스타트, 멜랑히톤(Melanchthon), 요나스(Jonas), 암스도르프(Amsdorf) 등의 교수들과 200여 명의 학생들도 함께 가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투구와 도끼와 창으로 무장을 한 호위병이 되어서 교수단을 싣고 라이프찌히로 향했다.

라이프찌히 대학은 많은 청중을 수용할 만한 강당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조지(George) 공작의 넓은 연회실을 빌려 그곳에서 토론하게 된다. 처음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엑크와 칼스타트 사이에 논쟁이 전개되었다. 이 논쟁에서 논쟁의 명수인 엑크는 수많은 교부들의 말과 교회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열심히 인용하며 칼스타트를 공격하였

다. 칼스타트는 엑크만큼 준비를 하지 않아서 논쟁의 양상은 엑크의 기선으로 기울어졌다.

다음으로 루터와 엑크 사이의 논쟁으로 계속되었다. 7월 4일부터 16일까지 논쟁은 계속되었다. 엑크는 전에 칼스타트 논쟁에서 승리를 거둔 신선한 기분으로 이번에도 영웅이 되겠다는 확신에 차 있었다.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두 사람의 차이점은 금새 드러나게 되었다. 루터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반면 엑크는 교회법과 중세신학에 보다 익숙했다.

이때 두 사람의 논쟁의 쟁점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엑크의 입장 ·

첫째, 교회회의 결정사항은 절대성을 가질만한 중대한 것이다.

둘째, 로마교회는 사도적 전승을 이어받은 수위 교회이다.

셋째, 교황은 절대 무오한 거룩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 루터의 입장 ·

첫째, 성경만이 최상의 유일한 권위가 있다. 교황이 성서보다 우월할 수 없다.

둘째, 진정한 크리스천의 생활은 성도의 교제에 있다.

셋째, 교회회의 결정이나 교회전승은 교회내 질서와 평화를 위해 참고사항으로 필요할 따름이다.

이와 같은 논리에 따라 루터는 성경에 기초를 둔 기독교가 모든 교황이나 종교회의들보다도 더 권위를 가진다고 하면서 콘스탄스 종교회의에서 종교회의의 이름으로 후스를 이단으로 정죄한 것은 종교회의가 저지른 대 오류의 표본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렇게 되자 종교회의의 신봉자인 엑크는 루터야말로 종교회의에서 이

단으로 규정한 후스의 교훈을 지지하는 이단이자 동의자라고 몰아붙이게 되었고 변증적 실전에 능한 엑크가 루터와의 논쟁에 승리를 얻은 것 같이 되었다. 루터는 우울한 예감을 안고 비텐베르크로 돌아오고 만다. 그러나 루터는 라이프찌히 논쟁으로 그의 생애가 놀랍도록 전환되는 계기가 된다.

이때를 기해 루터는 더이상 카톨릭의 영향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단언을 내린다. 그는 이제부터 보다 더 철저하게 성경적 신앙의 수호자로 나설 것을 결심한다. 앞으로 그에게 많은 대결과 위험들이 점철된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투쟁자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한다. 그래서 그는 좀더 구체적인 자기 주장을 확고히 펼쳐가게 된다.

3. 루터의 저작활동

(1) 당시 독일의 정치 분위기

루터가 개혁을 소신있게 전개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그 당시 독일 정치적 상황이 크게 도움을 주었다. 앞서 서론에서도 종교개혁의 시기가 너무도 알맞은 적당한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점을 말한 것이다.

그 당시 독일의 황제는 오랫동안 오스트리아의 가문에서 계승되어 왔었다. 그러던 것이 1519년 1월 12일 맥시밀리안 황제의 죽음으로 그 막을 내리게 된다.

새로운 황제는 선제후들에 의해 선출되어야 했다. 그 당시 황제 후보자로는 스페인의 찰스 1세와 프랑스의 프란시스 1세가 거론되었다. 이때 교황 레오는 찰스와 프란시스 중 어느 인물도 황제에 오르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 이유는 어느 세력이든 한쪽 세력이 강대해지는 것을 원하

지 않았기 때문이다.

찰스가 만약 황제가 된다면 스페인뿐만 아니라 이미 독일권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그리고 남부 이탈리아까지 그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유럽에서 가장 막강한 실력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프란시스 역시 달가운 인물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비대해지면 과거처럼 교황청이 프랑스의 아비뇽에서 억류된 것과 같은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황의 의중에는 독일 영주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던 독일인 삭소니의 선제후 프레드릭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 황제 선출은 몇 달간의 우여곡절을 거치게 되었다. 이때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자국민인 프레드릭을 선호하였다. 그런데 프레드릭은 스페인의 젊은 왕 찰스를 독일 황제로 지지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찰스가 독일 황제로 선출된다(1519년 6월 28일).

독일 황제로 선출된 찰스는 스페인의 어려운 국내 사정 때문에 즉각 취임하지 못하고 1520년 10월 23일에 아켄에서 황제의 대관식을 거행한다. 이로써 찰스는 스페인,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이탈리아 일부를 합병한 신성 로마제국의 황제가 된다.

일단 찰스가 독일의 황제가 되긴 했으나 사실상 그 자신이 독일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독일 국민과 친해질 수가 없었다. 게다가 독일의 정치는 황제 배후에 있는 선제후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그의 정치력은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속에서 독일 국민들은 선제후 프레드릭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프레드릭도 일하기가 훨씬 용이해졌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 찰스가 독일 황제라고는 하나 사실상 그 실권은 선제후들이 가지고 있었다.

(2) 저작활동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루터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의 소신을 발표하는 저작활동을 하게 된다. 사실 루터는 1516년부터 시작해서 1546년까지 무려 400개 이상의 논문을 썼다. 이것은 한 달에 평균 한 편씩 썼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렇지만 1520년도 한 해 동안에 쓴 4편의 논문은 그 당시 3개의 출판사를 매우 바쁘게 만들었다. 그 4편의 소책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선행에 대한 설교」(Sermon on Good Work)

1520년 5월에 발표된 이 소책자는 그 대상이 주로 일반 평신도였다. 이 책에서 그는 카톨릭이 말하는 선행에 관한 개념을 정면으로 거부하였다.

그 당시 카톨릭이 말하는 선행이란 통념적으로 교회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구제하는 것들을 말했다. 그렇지만 루터는 그런 카톨릭에서 말하는 선행이란 다른 이교에서도 얼마든지 다 가능한 일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기독교와 이교도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교도들은 그들 신의 노여움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선행을 실천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죄책감을 다스리기 위해서 선행을 할 수 있으나 기독교가 말하는 선행이란 단지 인간 편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요한복음 6:38-39에서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는데 그 신앙이 선행의 시발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감격의 발로로 실천되는 모든 것은 다 선행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느낄 때 믿음에 의한 행위들이 크거나 작든지 또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들의 근본이 신

앙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라고 하였다.

카톨릭에서 말하는 선행은 무엇을 행함으로 인한 보상을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하고, 고해를 하며, 구제와 순례 여행을 함으로 불안감이나 죄책감을 해소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참된 신앙은 불안감에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연합의식에서 실천되는 것이다. 고로 신앙에 의한 행위는 보상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즐거운 봉사인 것이다.

이같은 이론에 근거할 때 카톨릭의 선행은 선행이 아니다. 루터가 말하는 참된 선행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 의한 모든 행위인 것이다.

2) 「독일 귀족에게 고함」(The Address to German Nobility)

1520년 8월에 출판된 이 책은 출판된 지 몇 달 안에 4,000여 권이 팔려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수요를 충족시킬만큼 충분한 인쇄가 뒤따르지 못할 정도였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기독교 국가의 개혁을 존중하는 독일의 기독교 귀족들에게」(To the Christian Nobility of the German Nation Respecting the Reformation of the Christian Estate)라고 되어 있다.

이 책의 내용은 모든 개혁의지를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그때까지는 누구도 독일 사람들이 카톨릭에 대한 원한들을 명쾌하게 정리해주지 못하였다. 그러던 것을 루터는 이 책에서 독일 사람들이 품고 있던 개혁의 의지를 총체적으로 잘 정리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루터는 이 책에서 유럽의 각 국가들을 신비할 정도로 지배해온 카톨릭 사제들의 초자연적 권력의 맹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 굳게 갇혀져 있는 세

개의 큰 벽을 지적하였다. 이 벽이 외관상으로 아주 얇은 종이 벽같지만 실제적으로 가공할 만한 큰 위력의 벽이라고 하였다.

첫째 성벽은, 교황의 권한이 왕이나 제후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 권한까지도 지배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로마 카톨릭주의자들은 교황, 주교, 사제와 수도사는 영적인 신분에 속한 구성원들이며 그 반면에 제후, 군주, 노동자, 농민들은 영적 신분에 예속되는 세속적인 신분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루터는 영적 신분이란 단순한 허구일 뿐이라고 하였다. 참된 영적 신분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전체적인 연합체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을 모두 다 사제로 삼으신다고 했다.

루터는 여기서 만인제사장 이론을 전개한다(벧전 2:9-10). 그는 말하기를 길거리에서 신발을 꿰매는 노동자라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교나 교황과 똑같은 영적 제사장이 된다고 하였다.

성직자라는 직분이 평신도와 구별되는 것은 그 직분 자체가 특권이 아니라 다른 일보다는 특별한 종류의 일을 하도록 구별된 것뿐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평신도들도 신분상 다같은 제사장이지만 성직자는 직분상의 제사장인 차이뿐이라고 하였다. 만일에 교황, 주교, 사제들도 자신의 맡은 일을 게을리하면 그들도 부주의한 석공이나 농부처럼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였다.

여기서 그는 모든 신자는 영적 사제직을 공유하고 있다는 이론을 주장함으로써 교황청의 가공할 성벽을 분쇄시킬 이론을 정당화시켰다.

둘째 성벽은, 교황 이외의 어느 누구도 성서를 해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였다.

성서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겸손하게 깨우침을 추구하면 모든 신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가

갈 수 있다고 하였다.

세번째 성벽은, 교황만이 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견해라고 하였다.

성경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나 교회에게 말하라고 했다(마 18:17).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황의 간섭 없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소집함으로써 성경에 복종하는 의무를 지킬 수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고대에는 황제들도 교회회의를 소집하였는데 교회회의는 교회가 원하면 언제든지 열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교황만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것은 교황의 전권강화를 위한 횡포나 다름 없다고 하였다.

이렇게 세 권의 책에서 루터는 교황의 월권과 성직자들이 독신주의를 위하는 것, 성직과 세속직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교황만의 회의권 주장에 따르는 잘못들을 낱낱이 지적하였다.

이같은 잘못들이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타락시켰다고 했다. 그래서 루터는 새로운 신학교육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3) 「교회의 바벨론 포로」(The Babylonian Captivity of the Church)

1520년 10월, 대체적으로 바벨론 포로는 BC 605년부터 539년까지를 말한다. 그 뒤 AD 1305년부터 1377년까지 이탈리아 로마의 교황청이 프랑스 아비뇽에 억류되어 있던 시기를 또 '바벨론 유수기'라고 했다.

그런데 루터는 새로운 의미로서 이 말을 사용한다. 즉 로마 카톨릭 교회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성례전을 이용해서 포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루터는 1520년 10월에 발표된 이 책에서 카톨릭이 시행

하고 있는 7가지 성례전들을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그리고 성례전 중 세례, 성만찬, 참회제도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루터가 지적인 로마 카톨릭의 포로들을 보면 다음과 같았다.

① 주의만찬 때 일반 교인들에게 잔을 수여하지 않는 점을 지적.

고린도전서 11:26에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1414년 플로렌스 회의 이래 평신도들에게 잔을 주지 않았다. 그렇지만 사제는 떡과 잔을 다 취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성경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제와 평신도를 성례전에서 구분해 놓음으로 사제와 평신도 사이에는 등급적 구별이 있는 것으로 인식케 한 권위주의적 산물이라고 지적하였고 ‘성도를 얹어매고 있는 포로’ 라고 하였다.

② 화체설(Transubstantiation) 교리의 잘못을 지적.

화체설의 교리에 의하면 성찬식 때의 떡과 포도주의 변화는 떡과 포도주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제에게 위임한 특권적 힘에 의해서 떡과 포도주가 변화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포도주와 빵을 사제가 축복하면 곧 2천년 전 갈보리 언덕 위의 예수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루터는 이것을 마술적이고 이교철학의 산물이라고 하였다.

③ 미사(Mass) 교리의 잘못을 지적.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들의 죄에 대하여 단 한번의 희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다(롬 6:10). 그런데 매주 미사 때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반복되어야 한다는 미사의 교리는 성경의 진리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매 주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신도들도 매 주마다 사죄를 계속 받아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믿는 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말이 성립될 수 없다. 루터는 미사가 희생으로 드리는 제사행위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봉헌도 아니라고 했다. 더더욱 미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선행도 아니라고 하였다.

그 외에도 결혼을 성례전으로 규정해 놓은 것을 반대하였다. 결혼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성례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또 성직 수임식(Ordination)은 로마교회가 제작한 것이라고 하였다. 본래 임직식은 교회에서 전도자를 선택하는 의식이었는데 카톨릭에서는 수임식이라고 해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분리시키는 의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4) 「그리스도인의 자유」(The Freedom of the Christian Man)

이 책은 1520년 10월에 교황을 위해 쓴 책이다. 이 책은 주로 교황과의 화해를 위한 것이 주 목적이긴 했으나 내용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총체적으로 다룬 것이다.

루터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장하였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 중 가장 자유로운 주인이며, 누구에게도 예속받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 중 가장 충실한 종이며 누구에게든지 봉사한다.” (A Christian man is the most free Lord for all, and subject to none; a Christian man is the most dutiful servant of all, and subject to everyone.)

루터가 이 책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인가, 그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2중 본성이 있다고 하였다.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해방시키

는 영적, 내적 자유이다.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이고 덕행을 쌓음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으로부터 자유라고 하였다. 이렇게 내적으로 자유롭게 된 자는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지만 내적으로 자유해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살고 있는 현실은 외적인 것에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내적 자유를 향유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자유가 얼마나 고귀한가를 깨닫게 해 주기 위해서 모든 이웃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엔 양면성이 있음을 설파하였다. 그래서 신앙은 영적 노예상태에서 해방되는 것과 동시에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도 종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루터는 이런 글들을 보다 화해적인 어조로 썼다. 그리고 마지막 논문에서는 교황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이 포함되어 있다. 루터는 이 글들을 통해서 자기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교황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잘못된 교리와 그에 따르는 부패를 바로잡고자 하는 데 있지 교황 개인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확실히 밝혔다.

4. 루터의 과문

(1) 교황의 교서

루터가 개혁에 필요한 저작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교황은 '엑스우르 게 도미네(Exsurge Domine)' 라는 교서를 발행한다(1520년 6월). 교황은 이 교서의 작성을 엑크와 카제탄에게 맡긴 듯하다.

이 교서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된다.

“일어나소서, 오 주여 당신의 소송사건을 제기하소서.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주님을 힐문하는지 기억하소서. 산 돼지 한 마리가 숲 밖으로 뛰어나와 포도원을 망하게 하며, 들판의 야생 짐승들도 당신의 포도원을 먹어치웁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내용은 루터의 저작 속에서 41가지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이것들은 이단적이고 미친 것이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모든 신실한 자들은 루터의 책을 닦치는 대로 소각하라고 명한다. 그리고 루터 자신이 자신의 주장을 60일 이내에 취소할 것을 명했다. 만일 교황의 교서대로 행하지 않으면 루터는 이단으로 취급당할 것이며 시장에 의해서 체포당해 구금될 것이고, 이런 자를 숨겨준 도시나 마을들은 파문에 처한다고 하였다.

이같은 교서가 발행되자 교황청 특사인 지로라모 알레안더(Aleander)와 엑크는 루터의 저서들에 대한 화형식을 실시하였다.

그렇지만 독일 국민들은 교황의 일방적인 교서에 대해 여러 가지로 다른 반응을 하였다. 즉 독일의 많은 주교들 역시도 교황의 교서가 출판되어 일반 국민에게 보급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반대하였다. 그리고 교황 편에 서서 비열한 교서를 만들도록 협력한 엑크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조롱과 비난을 보였다.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에서도 교황의 교서가 현실을 모르는 교서라고 출판을 거부한다. 오히려 루터에게 확신을 가지고 일어설 것을 격려하는 서신들이 쇄도한다.

이때 루터는 「적그리스도의 저주스런 교서를 반대해서」(Against the Execrable Bull of Anti-christ)라는 소책자를 발행하여 교황의 교서에 맞선다. 뿐만 아니라 루터는 교황의 교서를 불태우는 교서 화형식을 거행한다.

그는 성서를 위배하는 교서는 하등 가치가 없음을 천명한다. 그리고 교황청 현장과 스콜라 신학을 포함해서 교서를 함께 불태우는 일에 비텐베르크 학생들이 증인으로 참석해 줄 것을 공고한다.

1520년 12월 10일 오전 9시.

엘베강과 성벽 사이에 있는 엘스터 문밖의 공터에서 수많은 학생, 교수, 도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서 화형식이 거행되었다. 루터는 교서를 커다란 모닥불 속에 던지면서 “네가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화염 속에서 너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하였다.

한편 교황청에서는 일개 수도사가 교황의 교서를 불태웠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1521년 1월 3일에 교황은 루터를 파문한다는 파문교서(bull of Excommunication)를 발행하고 루터가 법 외에 있는 이단자임을 선언한다. 이제 교황의 파문장에 대한 집행 여부는 독일의 황제 손에 좌우되게 되었다.

신성 로마제국의 황제임을 자처한 독일의 새 황제 찰스는 1521년 1월 22일에야 최초의 의회를 개최한다. 그가 독일 황제 자리에 오르자마자 닦친 문제가 루터에 관한 문제였다.

찰스는 21살의 젊은 나이로 루터문제를 위해 1521년 4월 16일에 보름스(Worms) 의회를 소집하게 된다. 황제는 루터로 하여금 보름스의 회의에 출두하여 신성 로마제국의 황제 및 제후들 앞에서 그의 의견을 진술하라고 한다.

이렇게 하여 열리게 된 보름스 의회는 이미 교황청에서 특별대사를 보내 루터로부터 사죄를 받도록 사전에 치밀하게 음모되어 있었다.

이때 교황청의 수행원은 수석공증인 마리노 카라키올리(Marino Caraccioli; 1469-1530)와 루터의 범법성을 확보할 책임을 맡은 제롬 알레안더(Jerome Aleander)였다.

루터는 이미 교황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선고를 받은 사람이므로 황제 앞에서 자기 변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독일 국민들과 선제 후 프레드릭은 루터가 일방적으로 판결을 받지 않고 양자간의 주장을 다 들은 다음에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프레드릭 선제후가 루터를 옹호하고 나섬으로 보름스 의회는 루터가 자기 소신을 밝히는 것을 허용하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루터는 보름스 의회로 나가게 된다.

(2) 보름스 의회(1521년4월)

루터가 보름스 의회에 출두해야 된다는 소식이 퍼지자 독일의 모든



Worms Cathedral

국민들은 루터의 보름스 행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루터가 보름스 성으로 갈 준비를 할 때 루터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은 루터의 보름스 행을 만류하였다. 그렇지만 루터는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이 자기에게 구름떼같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진리를 위해 가겠다고 하였다.

이때 루터는 자기의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류트(현악기 일종)에 의한 음악으로 자신을 달래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되시니' 라는 찬송을 지었다고 한다.

루터가 보름스 성에 도착하는 행렬은 마치 임금의 행렬과도 같았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와 교황을 대적하고 독일을 위해 우뚝 선 용기있는 루터를 향해 열렬한 환호를 해 주었다. 이렇게 해서 루터는 1521년 4월 16일에 보름스 의회에 나타나게 된다.

보름스 의회에는 찰스 황제와 그의 동생 페르디난드가 참석하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선제후들과 제국의 대제후들이 좌정했다. 뿐만 아니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 타국 사람들도 루터문제의 결과를 보기 위해 수없이 운집하였다.

황제와 제후들과 각국 특사들이 모인 청문회 첫날 사무관이 루터에게 물었다. 루터 앞에 수북히 쌓인 책들을 가르키며, "이것이 내가 쓴 책이냐?" 라고 루터에게 묻자, "예."라고 대답한다. 두번째 질문은 "너는 이 책을 취소하겠느냐?" 라고 서기관이 묻자 루터는 "내가 예, 혹은 아니오를 대답하기 전에 설명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자 서기관은 "예, 아니오 둘 중에서 하나만 대답하라"고 한다. 루터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응수한다. 이 책들은 신앙과 영혼에 관한 문제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응수한다. 그래서 24시간의 시간 여유를 주기로 하고 첫날이 넘어갔다.

둘째 날에는 5천 명이 넘는 독일 사람들과 외국인들이 루터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이 날은 4명의 추기경도 함께 했다. 이 날도 전과 같이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었다. 이때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들에는 세 가지 영역에 관계된 것들이 있다. 첫째, 종교와 도덕적인 것, 그것을 나는 취소할 수 없다. 둘째, 교황과 교회에 관계된 것, 그것 역시 취소할 수 없다. 셋째, 개인에 관계된 것, 그것에 대해서

는 내가 너무 과격했다고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매우 죄송스럽게 여긴다.

그리고 성서의 증언이나 명백한 이성에 의해서 본인이 틀렸다고 증명되지 않는 한 취소하기가 불가능하다. 본인은 교회 회의나 교황의 결정을 신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교회 회의나 교황의 결정은 오류일 뿐 아니라 성경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로잡힌 바 되었다. 이러한 양심을 거스리면서 행동하는 것은 정직하지도 못하며, 또 안전하지도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 끝을 냈다. “나는 여기 굳게 섰다. 그리고 절대로 변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는 승리의 몸짓을 하며 회의장을 떠나 자기 숙소로 돌아왔다. 다음날 황제는 루터가 제국으로부터 파문당해야 마땅하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독일의 모든 제후들은 황제의 제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오히려 협상을 모색해야 된다고 고집하였다. 그리하여 루터와 협의할 위원회를 구성하여 루터와 여러 차례 만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자 위원회에서는 4월 26일부터 3주 동안 안전기간을 허락해주면서 그 기간 안에 보름스를 떠나 비텐베르크로 돌아가도록 명령하였다.

루터가 보름스를 떠나 비텐베르크로 돌아오는 도중인 5월 4일 저녁이었다. 루터의 일행이 길을 가고 있을 때 갑자기 일단의 무장 기병들이 알렌슈타인 근처에서 매복해 있다가 루터를 납치해 갔다.

이 기병들은 프레드릭 선제후가 보낸 무사들이었다. 이들은 루터를 프레드릭의 별장인 발트부르크에 은신케 하였다.

다른 한편 루터가 회의장에서 나간 후에도 협상 위원들과의 협상 때

문에 루터에 대한 황제의 집행 영장은 지연되고 있었다. 그러자 교황청 특사로 파견나온 알레안더가 루터에 대한 황제의 칙령 영장을 찰스에게 건의하게 되고 루터에 대한 황제의 칙령이 내려진다.

(3) 루터에 대한 칙령

루터에 대한 황제 형 집행의 영장을 알레안더가 기안을 하고, 프랑스 프란시스 1세와 독일의 찰스 5세가 서명을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루터는 이단자이다. 루터를 어느 누구라도 도울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어느 누가 루터를 죽인다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를 체포하는 자는 황제에게 돌려야 한다. 루터의 모든 저작품들은 다 불태워져야 한다. 그리고 루터의 책은 더이상 발행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황제의 칙령 때문에 루터는 죽는 날까지 많은 제약을 받으며 지내게 된다. 또한 루터에 대한 칙령이 선포됨으로 루터를 반대하던 세력들은 아주 만족하게 여겼다.

이렇게 루터는 1521년 1월 3일에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하였고, 5월 26일에는 황제로부터 체포당해야 한다는 칙령을 받았다.

이에 대한 각 나라의 반응도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헨리 8세는 영국 내에서 루터의 모든 서적을 소각하라고 명령하였다. 스코틀랜드 의회에서도 루터의 서적이 잠입해 들어오는 것을 혹독한 처벌로 금했다.

그런데 독일은 어떠했나, 독일에서는 공개적으로 황제의 칙령을 무시해버렸다. 오히려 루터의 책은 전보다 더 활기를 띠며 출판되었다. 뿐만 아니라 금지된 서적들이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폴란드 등으로 상품

을 실은 짐짝 속에 숨겨져 반출되어 나갔다.

그렇지만 루터의 생애 중 황제의 칙령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이긴 하였으나 많은 짐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루터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개혁작업을 진행시켜간다.

제 4 장

프로테스탄트(Protestants)의 시작



루터가 보름스 의회에서 돌아오다가 발트부르크(Wartburg) 성 안으로 피납되어 온 후로는 계속 은둔생활을 하게 되었다. 루터는 여기서 10여개월 동안 서재에 파묻혀 더 많은 연구를 한다. 그러는 동안 독일사회와 정치는 여러 면에서 달라져가고 있었다.

1. 독일사회의 동요

(1) 과격한 개혁운동

루터가 발트부르크에서 은둔하고 있는 동안 세상 사람들은 루터가 적에 의해서 피살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루터는 없지만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나선 사람이 둘이 있었다.

그들 둘은 다 어거스틴파 수도사였는데 한 사람은 루터와 같은 대학의 교수였던 칼스타트(Carlstadt)였고, 다른 한 사람은 가브리엘 쯔빌링(Zwilling)이라는 수도사였다.

칼스타트는 수도사인 몸으로 귀족의 딸과 결혼을 했다. 그는 독신생활의 모순을 비난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몸으로 실천해 보이려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수도원의 서약, 성직자들의 구별된 의복, 미사가 희생의 반복이라는 것 등을 맹렬히 공격하였다. 그리고 미사 때 신자들에게 잔을 주지 않던 관행을 무시해 버리고 떡과 잔을 다 주는 새로운

미사를 집행하였다.

썬빌링은 더 과격하였다. 그는 교회당 내의 제단, 성상, 화상들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사란 우상숭배적 행습이라고 불같이 비난하였다. 흥분한 군중들은 1521년 크리스마스 전야에 교회 예배당을 침범하여 등을 부수고, 사제들을 위협하며 찬양 대신 민요를 불렀다.

그러나 이보다 더 비텐베르크 시민들을 더욱 흥분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비텐베르크에서 남쪽으로 64마일 정도 떨어진 쾰비카우(Zwickau)에서 예언자로 자처하는 세 사람이 찾아온 것이 동기가 되었다. 그 세 사람이란 쾰비카우 시의 성 마리아(St. Mary) 교회의 설교자인 토마스 뮌쩌(Thomas Münzer)와 방직공으로 일하고 있던 니콜라우스 슈트르코(Stroch), 그리고 마르크스 토마이 셔투버너(Stubner)였다.

이들 세 사람이 비텐베르크에 찾아와서 이 도시에서 천사의 환상을 보았다고 군중들을 선동하며 열광케 하였다. 칼스타트는 이렇게 전 시민들이 열광적으로 흥분하고 있는 것을 사용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개혁안을 강압적으로 요청하였다. 칼스타트는 사회생활과 공중예배에 관한 개혁을 서둘렀다. 그가 요청한 개혁 내용은,

첫째, 시민을 위한 공동 금고제도를 제안한 것이었다. 공동 금고에는 교회 재정, 노동자의 길드에서 나온 수입, 그외 특별 자금의 수입을 전부 넣게 하였다. 그리고 그 관리를 두 사람의 행정관과 두 사람의 시민, 그리고 한 공증인에게 일임하도록 했다. 사제에 대한 봉급이나 수도사에 대한 지원금도 거기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둘째, 종교생활에 관한 개혁도 제안하였다. 즉 교회 예배당 신축을 금지하고 미사를 간략하게 축소하고 성찬식 때 잔과 떡을 참여자가 직접 받게 하였다. 그리고 예배당 내의 화상과 입상 사용을 반대하였다. 이같은 급작스런 변화들로 많은 노년층들은 크게 위협성을 느끼고 염려를

하게 되었다.

여기에 가장 크게 자극을 받은 이가 선제후 프레드릭이었다. 그는 칼스타트의 파괴적 위험성에 염려되어 루터로 하여금 다시 온건한 활동을 해 주기를 기대하였다.

(2) 기사전쟁(Knights War)

비텐베르크 시에서는 계속하여 소동이 벌어졌다. 시 의회에서는 루터의 귀환을 간청하여 루터는 발트부르크 성채생활을 청산하고 시로 돌아온다(3월 6일).

시에 돌아온 루터는 칼스타트의 과격한 개혁을 좀더 온건한 개혁으로 선회시킬 필요를 느꼈다. 그는 아직 회심하지 못한 약한 형제들에 대한 사랑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칼스타트와 루터 사이에 약간의 대립이 생긴다. 그로 인해 그들은 훗날 서로 결별하게 된다.

이 무렵 1522년부터 23년까지 그 유명한 기사전쟁이 일어난다. 기사들은 전쟁 때 나라의 어려움을 지킬 수 있는 필요한 존재들이다. 그렇지만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효용성을 잃게 된다. 이들 기사들이 효용성을 잃고 난 후 그들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달라진다. 한 부류는 농사를 짓거나 부동산 관리자로 전환한다. 또 다른 부류는 보다 강력한 영주들의 수하에 들어가 관리자가 된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자들 중 소수가 산적으로 변해서 강도와 약탈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 기사전쟁이란 바로 이런 산적으로 변한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기사전쟁의 대표자는 프란츠 폰 식킹겐(Franz von Sickingen)이었다. 프란츠는 자기 영지 내에 있는 광산의 수입과 상인들의 마차를 약탈

하여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재산을 이웃 황제들에게 빌려주기도 하였다. 그는 또 프랑스 왕의 요구로 1천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로레인 지경까지 원정, 약탈하기도 하였다.

이 프란츠가 1522년 8월 27일에 '기사 반란'이라는 전쟁을 일으킨다. 그의 표적은 반 봉건적 존재인 트리에르 대 주교였다. 그의 구호는 사제의 압박에서 신음하고 있는 인민들을 해방시켜 자유를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속셈은 대 주교의 영지를 탈환할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반란은 독일사회를 불안하게 하였다. 프란츠 세력이 3인의 영주들의 힘에 의해 다음 해 1523년에 진압되기도 하지만 기사전쟁으로 인한 독일사회의 불안함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3) 농민전쟁

기사전쟁이 끝나자마자 더 참혹한 난리가 발생한다. 그것은 1524년 5월부터 시작해서 1526년 7월까지 남부와 중부 독일 전역을 휩쓴 농노들의 반란이 그것이었다. 이들 농노들은 독일의 반 이상 지역에 약탈을 일삼는 횡포로 크게 유린하였다.

이들 농노들의 반란은 그 당시 독일사회가 전체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혁명적 풍조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즉 루터가 주장하는 기독교적 자유가 곧 사회 해방인 양 착각을 한 전체 분위기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농민전쟁의 요인은 몇 가지의 복잡한 이념들이 작용하였다. 일반적인 큰 오해는 루터의 개혁정신을 마치 사회 해방으로 그릇 오해한 것이 큰 원인이었다.

그 외에도 재침례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마치 초대

교회의 공산 사회적 운동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한 원인도 있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원인은 농노들이 세속적인 봉건주의 지배를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다. 곧 종교적 계급구조를 쳐 부수고자 하는 반항심리로 크게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들 농노들은 세바스찬 룿저(Sebastian Lotzer)가 대변한 '12개 조문'에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같은 요구사항 자체는 지나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한번 시작된 난리는 군중심리에 의해 폭도들로 변했다. 그래서 방화, 약탈, 사형(私刑, lynching), 살인 등이 자행되었다. 이로 인해 바인베르그(Weinberg) 성민들은 학살을 당하였고, 헬펜슈타인 백작은 창에 찔려 죽었다.

투링기아 지방의 농노들은 에르푸르트시를 약탈하고 파괴하였다. 독일의 중부지방에서만 40개 이상의 성들과 수도원들이 파괴되었다.

이때 가장 난폭한 농노들은 뮐하우젠(Mühlhausen)에 본거지를 둔 광신자 토마스 뮌쩌(Thomas Müntzer) 수하에 있던 농노들이었다. 이 뮌쩌는 천년왕국의 지상실현을 꿈꾸는 종교적 극단주의자였다. 그는 모든 인간들이 평등한 대접을 받고 모든 재산들이 다 공동 소유가 되는 천년왕국이 곧 도래한다고 선동하였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배계급을 살해하고 기존 질서들을 파괴해야 한다고 선동하였다.

이같은 뮌쩌의 폭도를 진압하기 위해서 1525년 5월에 삭소니의 게오르그 공과 아이제나흐의 필립 백작이 연합하여 수천 명의 농노들을 살해하고 수백 명을 사로잡는다. 그리고 이 운동을 주도한 뮌쩌는 사지가 절단당하는 능지처참형을 받는다.

이와 같은 독일 농노들의 반란은 타국에도 영향을 끼쳤다. 플란더즈(Flanders), 프랑스, 영국, 보헤미아 지역에서도 농노들이 일어났다. 이 무렵 루터는 농노들의 반란에 대한 자기 견해를 밝힌다. 처음에는 농노

들에 대해 자제를 권면하는 입장에 선다. 그가 '난동과 혁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진실한 권면' 을 작성하였다.

여기서 그는 무력은 합법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론을 제시하였다. 그래도 농노들의 반란이 거칠어지자 '농노들의 12개 조문에 대한 답변과 평화를 위한 호소' 를 발표한다. 두번째 글에서는 영주들과 주교들을 비판하고, 또 한편으로는 농노들에게도 주의를 주었다.

그런데 루터 자신이 농노분쟁을 조정하려고 투링기아 지방까지 갔다가 너무 과격한 약탈과 방화사건을 목격한다. 여기서 루터는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한다. 그리하여 '강도질과 살인을 자행하는 농노 집단들에 대하여' 라는 팜플렛을 발행한다(1525년 5월).

여기서 그는 반란자들은 억압하고 목을 매달아 강경하게 탄압해야 된다고 적극 주장하였다. 물론 사태 수습 후에는 다시금 농노들에 대해 관대하고 자비롭게 처벌하도록 요청하는 글을 쓴다. 그렇지만 한때 그의 농민들에 대한 심한 주장은 그로 하여금 일대 오점이 되었고, 그 후로도 계속 그 일을 후회하게 된다.

농노 반란 후에도 농노들의 신분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에게 부과된 채무는 더 늘어났고 많은 영주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끝났다. 그리고 반란이 끝난 후 농노들 사이에는 루터가 자기들 배반자가 아니냐는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루터가 계속 농민들에 대한 관심을 펴므로 오해는 진정시킬 수 있었고 대 규모의 사람들이 루터의 복음주의적 종교를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끝까지 루터를 오해한 사람은 재침례파에게 합류한다.

2. 개신교도들의 동맹(프로테스탄트의 시작)

농민전쟁이 끝난 후 독일의 종교개혁에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 즉 지금까지 로마 교황청에 대해서 우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던 일부 제후들이 루터에 대해서 뚜렷한 반대의 입장으로 돌아선다.

그 이유는 종교개혁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앞뒤 가리지 않는 사회 혁명적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후들 중 로덴의 공작 안토니는 복음주의적 설교가들이 말로 소요를 선동하는 자라고 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

또 슈바비아 동맹에서 헌병 사령관직을 담당했던 '아이킬리' (Aichili)는 루터파 설교자들을 공격해서 약탈한 뒤에 40여 명의 목사들을 교수형으로 죽였다고 한다.

이같은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이 교황청에서는 농민전쟁이야말로 루터가 불러 일으킨 것처럼 악선전을 하였다. 그리고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은 과거 화란에 있었던 극단적인 후스파와 같은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의 부활이라고 공박하였다.

이와 같이 농민전쟁 후 제후들 가운데는 로마 카톨릭을 지지하는 숫자가 증가되었으며 동시에 결속력도 강화되었다. 로마 카톨릭에 동조하는 제후들은 1525년부터 상호 방위를 위해서 하나로 뭉치는 연맹을 형성한다.

이 동맹 형성에 있어 영향력이 컸던 사람은 삭소니의 공작 조지, 마인츠와 브란덴부르크의 선제후, 그리고 부룬스빅의 공작 헨리 등이었다. 이들은 동맹을 맺은 후 자기들 연맹은 루터파들의 힘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황제에게 보고하였다.

이렇게 되자 개신교를 지지하는 제후들도 자신들이 침해를 받을 경우 서로 도와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여기 개신교의 지도자로서는 삭소니의 요한, 헤세의 필립(Philip of Hesse), 오토 공작 일가, 에르

네스트, 그리고 부른스빅-뤼네베르크의 프란시스와 만스펠트의 백작 등이었다.

이렇게 독일의 종교계는 같은 영 안에서도 영주들의 신앙과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르게 두 부류로 나뉘어졌다. 이같은 독일의 흐름을 국회에서 조정해 보려고 의회가 소집된다.

(I) 제1차 스페이어르(Speier)의회(1526년)

독일황제 찰스 5세는 1521년 4월 16일에 보름스에서 의회를 소집한 후 루터를 출두케 하였다. 그때 황제는 루터를 죄인이라고 칙령을 내렸다. 그 뒤에 황제가 계속 독일에 머물러 있었다면 자신이 내린 칙령에 따라 루터를 불리하게 집행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그의 모국인 스페인의 내란과 거기에다 프랑스군의 침략, 터키군의 집요한 공격으로 인해 스페인 수습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독일황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다시 1526년에 스페이어르에서 의회가 소집되었다. 그는 밖으로 스페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안으로는 독일의 종교문제를 수습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서 모인 스페이어르 의회는 로마 교황청에 대한 적개심이 그대로 누적된 채 모이게 되었다.

왜 로마 교황청에 대해 적개심을 갖게 되었는가, 농민전쟁 이후 그에 대한 원인 분석이 현실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다 똑같은 지주들 중에서 일반 세속 지주들 밑에서 소속된 농민들보다도 성직자 계열에 속하는 지주들 밑에 소속된 농민들의 생활이 훨씬 더 열악하고 형편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직자 계열의 지주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무자비하게 농민들을 착취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 분명한 증거는 농민전쟁 때 농민들의

반향이 세속 지주들보다는 성직자 계열의 지도자들에게 더 험악하고 거칠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회적 흐름은 누구나 쉽게 깨달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제1차 스페이에르 의회 소집 때에는 성직자 계열에 동조하던 회원들은 미묘한 감정 문제로 인해 의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에 반해 루터를 동조하던 회원들은 대다수가 참석하였다. 이들은 개혁을 찬성하는 회원들이었으므로 종교개혁에 유리한 결정들을 하게 된다.

제1차 스페이에르 의회에서는 개신교에 유리한 의회였다. 여기서 결정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제에게 결혼을 허용할 것.

둘째, 평신도에게도 잔을 수여할 것.

셋째, 예배에서 라틴어와 더불어 자국어인 독일어를 사용할 것.

넷째, 교회 성일들의 숫자를 대폭 삭감할 것.

다섯째, 성서해석에 있어서 성서는 성서대로 해석한다는 원칙을 적용할 것.

여섯째, 각 제후들은 하나님과 황제에 대해서 소신대로 행동할 것.

일곱째, 평신도들은 영주의 종교 선택에 따라 신교이든 구교이든 따르도록 할 것.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상당 부분에서 종교개혁이 승리를 거둔 듯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신앙을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후나 영주가 선택한 신앙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신앙은 여전히 세속 권위자의 손에 달려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제1차 스페이에르 의회가 끝난 후 대부분의 북부 독일은 거의가 루터파 일색이 되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로마 카톨릭 제후

들은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2) 제2차 스페이에르 의회(1529년)

제1차 스페이에르 의회에서 로마 카톨릭의 입장이 불리하게 정해진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카톨릭 제후들이 다시 뭉쳐서 일어났다. 그들은 제2차 스페이에르 의회에서 루터파 측을 공격하려고 오랫동안 버르고 있었다.

이때 황제가 나서서 전권 위임 대표를 카톨릭측 제후로 지명한 뒤 그를 통해 1차 스페이에르 의회에서 정한 루터파 위주의 법령을 황제의 권위에 의해 폐지한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1차 때의 각종 결정 사항들을 투표로써 취소시키고 루터파에게는 어떠한 관용도 베풀 수 없도록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서 결정시킨 내용들을 보면,

첫째, 개혁운동은 어떠한 면으로든지 더이상 발전시킬 수 없다.

둘째, 과거 보름스 의회에서 채택한 황제의 칙령은 그대로 준수되어야 한다.

셋째, 카톨릭 지역이 더이상 개신교 지역으로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 이 말은 당시 북부 독일엔 개신교가 강했고, 남부 독일은 카톨릭에 머물러 있었는데 남부의 어느 곳도 이젠 더이상 개신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넷째, 개신교도들이 사는 곳에 카톨릭인은 살 수 있어도 카톨릭 지역에서 개신교도들은 살 수 없다.

다섯째, 개신교도들이 목사를 세울 때는 반드시 카톨릭에 의논해야 한다.

이와 같이 카톨릭 입장에 유리한 일방적인 결정을 하였다.

이 법령을 본 신교도들은 항거를 불러 일으켰다. 그러자 황제의 명령도 저항하는 나쁜 무리라는 뜻으로서 프로테스탄트(Protestant)라는 이름이 그들에게 붙여진다.

이들 항거자들은 법적인 절차를 걸쳐서 공식적으로 항거 서류를 채택하였다. 이들은 이미 한 의회에서(1526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결정된 사항들을 뒤늦게 다른 의회(1529년)에서 다수의 횡포에 의해 취소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개신교파 제후들은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은 법령에는 자신들이 순응할 수 없다는 강력한 선언을 한다.

아울러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나, 황제에 대한 순종이나를 선택하라고 중요당하자 자신들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택하겠다고 선언한다.

이렇게 해서 개신교도들은 자신들의 방어를 위해서 서로 연합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개신교도 동맹은 신교 동맹군(League of Schmalkald)을 결성하여 미리 전쟁에 대비를 한다.

3. 루터파 교회 조직

개신교도들이 동맹군을 결성하여 로마 카톨릭 세력과 대결도 불사하겠다고 한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었다.

삭소니의 선제후 요한, 브란덴부르크의 후작 조지, 공작 에르비스트, 브룬스빅-뤼네부르크의 프란시스, 헤세의 백작 필립, 안할트의 제후 볼프강 등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항의서에 가담한 도시도 14군데나 되었다.

이들은 항의서를 채택하여 황제와 독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자기들을 공격하면 모두가 단합하여 공동방어로 대응하도록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한 채 루터가 돌아가는 추이를 지켜보고 있을 무렵에 스위스 취리히(Zurich)에서는 쾰링글리(Zwingli)가 개혁운동을 슬기롭게 진행시켜 나간다는 소식이 퍼졌다. 쾰링글리의 개혁은 북부 독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루터파 교회보다도 더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소문이 전해졌다. 이같은 소문에 남부 독일의 도시들은 쾰링글리 개혁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때 독일의 종교개혁에 있어 가장 유능한 정치지도자 헤세의 필립(Philip of Hesse) 백작은 개신교 진영의 공동동맹이 독일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는 서둘러 독일의 루터파 신학자와 스위스의 쾰링글리와의 사이에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신앙협의회를 마련한다. 그것이 그 유명한 말부르크 회의였다.

(I) 말부르크(Marburg)회의(1529년)

필립 백작은 말부르크에 위치한 자신의 성에서 독일과 스위스의 신학자를 초청한다. 그러나 이때 루터나 멜랑히톤은 쾰링글리를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 생각에는 쾰링글리보다는 학식이 많은 로마 카톨릭 신학자를 만나는 것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그와 반대로 쾰링글리는 루터를 만나기를 강력하게 원했다. 쾰링글리가 단숨에 말부르크에 달려옴으로 신앙협의회는 1529년 10월 30일에서 11월 5일까지 계속되게 된다.

이때 루터를 동행한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이었다. 쾰링글리를 동행한 사람은 스위스 바젤과 취리히에서 온 사람들이었으며, 프랑스 슈트라스부르그에서 온 헤디오(Hedio)와 부처(Bucer) 등도 있었다. 이들 두 진영에서 온 신학자들이 개신교 신학에 관한 제 문제들을 협의하였다. 이 협의회를 이름하여 말부르크 대담(Marburg Colloquy)이라고 한다.

여기 말부르크 대답에서는 15개의 신학적 조항들이 논의된다. 루터와 쾰빙글리는 이들 15개 조항 중 14개 조항에는 피차가 다같은 기독교 신앙으로 천명하고 서명을 하였다. 그런데 단 한 개의 조항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는데 그것은 성만찬에 관한 견해였다. 그들은 성만찬에 관한 견해에서 중세 신학자들이 주장한 화체설에 대해선 둘 다 공통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들 두 사람의 견해가 달랐던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성만찬 때 놓인 떡과 포도주라는 성물과 어떠한 관계를 갖느냐 하는 데 있었다. 루터의 경우에는 중세 신학자들의 화체설의 오류만 제거된다면 나머지 카톨릭 의식은 그대로 존속해도 괜찮다는 생각이었다.

루터는 성만찬의 최우선적인 용도는 성찬 참여자에게 그리스도를 직접 만져보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광받으신 그리스도의 몸이 지역적인 임재(local presence)로서 그것은 빵과 포도주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성찬 참여자가 그리스도 몸의 연장인 성물에 접촉하게 되면 지금도 성도들이 하늘의 그리스도와 교제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지역적 임재는 사제의 도움 없이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편재성(ubiquity)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은 어디에나 자연스럽게 있기 때문에 결국 성찬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에 있게 되는 것이다. 루터의 이와 같은 주장을 동체설(Consubstantiation)이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쾰빙글리는 주의 만찬이 다만 기념적인 의식이라고 주장하였다. 주의 만찬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한번 바쳐진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다.

주의 만찬 때 성물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죄의 용

서는 성물에 참여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 그리스도가 이룩하신 사역의 은혜는 성찬식을 통해서 획득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 획득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므로 성물에 대한 참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항상 새롭게 갱신되는 연합을 상징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두 사람의 이론은 서로 대적할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해야 할 이론이었다. 그러나 루터는 성만찬에 관한 의견차이로 인해서 형제애로 묶여질 수 없다고 결별을 선언한다. 그래서 독일과 스위스의 개신교간의 연합을 꿈꾸던 필립 백작의 꿈이 달성되지 못한다.

이러한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필립은 다시 남쪽의 독일 도시들과 북쪽 루터파 제후들간에 연합을 위해 또다른 협의회를 마련한다. 그것은 1529년 슈바바하(Schwabach) 협의회였다. 그러나 이때도 남쪽 독일에서 파견되어 온 대표들은 루터의 굽히지 않는 태도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만다. 이렇게 해서 필립 백작의 독일 개신교와 스위스 개신교를 연합하려던 노력이나 독일 내 국민들의 연합을 모색해보려던 두 번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만다.

여기서 우리는 루터와 쾰링거의 결렬은 두 사람만의 결렬이 아닌 것임을 깨닫게 된다. 역사는 이들 두 사람간의 결렬을 크게 아쉬워 한다. 이같은 역사는 오늘날도 계속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2) 아우구스부르크(Augusburg) 신앙고백(1530년)

말부르크 대담이 결렬된 후 개신교도들은 신앙의 어려운 문제들을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착잡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 무렵 찰스 황제가 9년 만에 독일로 돌아온다. 그는 1521년 보름스 의회 후 오랜만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찰스는 1530년 4월 8일에 아우구스부르크에서 모든 선제후, 그리고 제후, 군주들을 모이라고 소집하였다. 여기서 그는 종교문제에 있어서 타협적인 태도를 취하려고 한다. 그는 개신교도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제시하고 어떤 점에서 카톨릭과 차이가 있는지를 지적하도록 한다.

여기서 루터파들은 '신앙에 관계된 자신들의 견해서' 라는 것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것을 훗날 '아우구스부르크의 신앙고백' 이라고 한다. 이 선언문은 그 자체가 교리를 완벽하게 설명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그야말로 자기들의 견해와 선언문이었다.

이 고백서는 주로 멜랑히톤이 작성하였다. 루터는 이때 자기에게 내려진 금지령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고 멜랑히톤이 주역을 맡았다. 이 고백서는 멜랑히톤이 작성한 후 삭소니의 선제후, 그리고 그의 아들 요한 프레드릭, 브란덴부르크의 후작 조지, 튀네부르크의 프란시스와 공작 에르네스트, 헤세의 필립 백작, 안할트의 제후 볼프강, 그리고 뉘른베르크와 로이트링겐 시에서 파견된 대표들이 서명하였다. 이 고백서가 6월 25일 의회 앞에서 낭독되었다.

아우구스부르크 고백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다.

첫째 부분은 신앙고백에 서명한 자들의 견해를 밝혔다. 여기서 그들은 자기들이 중세 교회와 어느 정도까지 공통되어 있는가를 밝혔다. 그래서 서방의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의 가르침에 어느 정도 충실한가를 밝혔고, 또 쓰빙글리같은 과격한 개신교도들과도 어떻게 다른가를 말했고, 재침례교도들의 가르침과의 다른 점도 지적하였다. 이렇게 해서 멜랑히톤은 자신들의 믿는 바가 전 기독교회뿐 아니라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념과도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두번째 부분은 서명한 사람들이 황제에게 항거하는 이유으로써 잘못된

병폐들을 지적하였다. 즉, 성직자들에게 강요된 독신제도, 미사가 되풀이되는 희생이라는 견해, 고백의 필요성, 수도원의 서약, 그리고 교황이 영적 권위와 세속적 권위를 혼동해서 사용하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멜랑히톤은 여기서 성자숭배, 연옥설, 화체설, 만인 제사장설 등 논쟁이 될만한 문제는 삭제하였다.

이 고백서가 선언문 형식으로 의회 앞에서 발표되었을 때 황제와 카톨릭 입장을 따르는 다수파들은 고백서를 거부하였다. 그래서 쌍방간에 서로 자기들 입장을 제시하는 반박서가 제출되었다. 이런 모든 반박서는 1531년 4월까지 취소하도록 유예기간을 준다.

그렇게 되자 루터파 제후들은 카톨릭의 횡포에 맞서지 않고 의회를 떠나버렸다. 그러자 나머지 카톨릭 주의자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령을 통과시켰고 황제는 그 법령을 공포한다(1530년 11월 19일).

루터파 제후들이 의회를 떠난 후 카톨릭에 유리한 법안이 통과된 것을 안 개신교 제후들은 황제령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을 의논하게 된다. 이들은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독일 남서쪽 국경도시인 '슈말칼덴(Schmalkalden)'에 모여서 '슈말칼트' 동맹을 결성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태로울 때는 스스로 방어는 물론 동맹간에 공조체제를 형성하도록 한다. 이 동맹에는 북부 루터파만이 아니라 남부 독일의 도시들도 가입하였고, 덴마크도 가입을 희망하였다.

이렇게 되자 찰스 황제도 개신교도들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일 수가 없었다. 결국 황제는 1532년에 뉘른베르크에서 다시 의회를 열어 전에 개신교도들에게 불리한 결정을 한 것을 무효화한다. 그리고 어느 제후국도 신앙상의 견해차로 야기되는 문제들을 더이상 제안하지 말자고 제안한다.

로마 카톨릭주의자들은 황제가 이같은 제안을 하지 말도록 종용했으나 찰스는 독일 국내의 당면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 당시 터키족이 비엔나와 오스트리아, 네델란드인들을 위협해 왔으며, 프랑스와도 화해가 안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개신교도들은 황제를 믿고 터키전투에 참전하여 침략을 격퇴시킨다.

이렇게 해서 개신교는 상당 기간 안정 속에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1530년 멜랑히톤이 의회에 제시한 것은 루터교가 공식적으로 출발하게 되는 원년이 되었다.

(3) 종교전쟁(1546년)

1532년 뉘른베르크 의회 이후 1546년 종교전쟁이 발발하기까지 독일 내 투쟁의 역사는 매우 복잡하였다. 그동안 1540년과 1541년에 황제의 제의로 개신교도와 카톨릭간의 협의를 가졌으나 별 효과가 없이 끝났다. 이렇게 오랫동안 종교간의 갈등이 계속되자 드디어 황제는 개신교에 대한 강경책을 쓰기 시작한다.

찰스 황제는 개신교를 완전히 소탕해버릴 계획적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였다. 그는 교황으로 하여금 트랜트 종교회의(The Council of Trent, 1545-1563)를 열게 하였다. 그리고 그 회의에 개신교도들을 초청하여 화해의 수단으로 의견조정을 시도하자고 하였다. 이 작전에 칼빈이 직접 참석해서 자기의 개혁의지를 밝히고 돌아온다.

그리고 개신교 대표자들을 차례로 초청해서 의견 경청을 듣는 것처럼 하되 내용상으로는 개신교도들간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개신교도들이 분열에 의해 힘이 미약해졌을 때 전쟁으로 끝을 내자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 황제의 개신교도들을 분열시키려는 작전에 처음으로 이용되는

이가 슈말칼텐 연맹의 대표자 헷세의 필립이었다. 필립은 19세가 갓 지난 때 삭소니의 공작 조지의 딸과 결혼하였다. 여기서 그는 7남매의 자녀를 낳았다.

그런데도 필립이 아직 복음에 선명하지 못했던 때라 그 당시 흔히 볼 수 있는 귀족들의 난혼(promiscuity)에 젖어 살았다. 필립이 루터주의로 복귀한 뒤에도 그의 여색을 즐기는 방종의 습관을 끊지 못했다. 그래서 그의 양심의 가책 때문에 13년 동안 단 한번 성만찬 참석을 하였을 뿐이었다.

그 후에도 그는 간음죄로 인하여 고민을 하였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혼을 하면 자기를 자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첫 아내에게 동의를 얻고 다시 맞을 새 신부의 어머니와도 동의를 얻었다.

뿐만 아니라 루터와 멜랑히톤의 동의도 얻었다. 루터는 단혼이 그리스도가 추천한 방식이나 구약 족장들의 선례를 들어 중혼에 동의하면서도 그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비밀에 붙이자고 충고하였다. 그래서 필립은 17살 된 처녀와 중혼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필립의 중혼 소문이 퍼지자 루터는 선하고 강력한 거짓말로 계속 비밀로 할 것을 권하지만 필립이 동의하지 않았다. 이 소문은 로마 카톨릭의 군주들이나 개신교도들의 군주까지도 큰 충격을 주었다. 필립은 이중결혼으로 인해서 자신의 명예뿐 아니라 루터와 멜랑히톤, 그리고 개신교 전체에게까지 큰 먹칠을 하고 말았다.

찰스 황제는 이 기회를 틈타서 개신교도들의 동맹관계를 흐트러 놓으려고 필립에게 어려운 공약을 강요한다. 또한 필립 백작에게 이중결혼죄로 재판을 받아야 하며, 제국의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필립은 공개적 모욕을 당한 상처로 인해 친구들을 멀리하고 두문불출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이 복잡한 와중에서 1546년 2월 18일에 루터는 63세로 운명을 한다. 찰스 황제는 이때야말로 개신교도들을 섬멸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였다.

1546년 찰스 황제는 교황 바울 3세, 자기 동생 페르디난드공, 바바리아의 윌리암공, 삭소니의 모리스(삭소니는 공작령 삭소니와 선제후령 삭소니로 양분되어 있었다. 현자 프레드릭이 다스렸던 삭소니는 선제후령으로 루터파 신앙의 본산지였다. 그러나 공작령 삭소니는 루터파를 가장 대적하는 곳이었다.), 기타 소규모 영주들을 거느리고 진격을 개시하였다.

이 진격은 찰스 황제가 전쟁을 시작한 지 1년이 못가서 남부 독일을 다 휩쓸었다. 황제는 자기 휘하에 스페인의 보병을 끌어다 전쟁을 하였다. 그는 남부 독일의 개신교 도시들을 함락시켰다. 그후 북쪽으로 계속 진군하여 1547년 4월 24일에는 뮐베르크(Mühlberg)에서 루터파군을 대파하기에 이른다. 여기서 삭소니의 선제후 존 프레드릭과 헤세의 필립을 사로잡는다. 그리고 5월 19일에는 비텐베르크를 함락한다.

1548년 6월에 황제는 세 사람의 신학자(카톨릭, 에라스무스, 루터주의자)로 하여금 '아우구스부르크 협정(Augsburg Interim)'이라 부르는 신앙고백을 작성케 하였다.

찰스 황제는 이 신조를 독일인에게 강요하였다. 그러나 황제의 강요가 백성들에게 먹혀들어가지 않았다. 독일 국민들은 황제가 스페인 군대를 끌어들여 독일을 스페인화 하려는 오만한 처신에 반기를 들기 시작한다.

1548년부터 1552년 사이에 황제의 인기는 급격하게 상실되고 그의 체제는 무정부 상태로 치달았다.

이러한 와중에서 삭소니의 모리스(Maurice of Saxony)는 각종 수법

을 동원하여 슈말칼트 동맹의 영수 자리를 차지하였다. 이 모리스가 1546년에는 황제군에 붙어서 루터파 군대를 공격했었다. 그런데 황제의 인기가 퇴락하자 다시 루터파의 총 지휘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 모리스는 찰스 황제의 제국군을 포위하고 항복을 받아낸다. 찰스 황제는 모리스 군대에 체포 위기를 간신히 넘기고 가까스로 피신을 할 수 있었지만 이때 당한 수모는 평생 크게 작용한다.

1552년 8월에는 파사우(Passau)에서 평화회의가 열린다. 여기에는 독일 제후들이 모이게 되어 이때 헤세의 필립과 존 프레드릭이 석방된다. 이때부터 제국 전체에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다. 찰스 황제는 자신이 개신교를 무력으로 분쇄하려고 하였으나 역부족임을 인식하고는 루터파 교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만다.

1552년 2월에 다시 의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 의회는 아우구스부르크에서 모였다. 여기서도 종교문제로 인해 전쟁까지 벌어지게 된 그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해 보려고 했다.

의회는 몇 달간에 걸친 논쟁 끝에 절충안을 마련하였는데 그것은 루터파도 합법적인 종교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카톨릭도 동등한 종교로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아우구스부르크 의회는 루터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 루터교는 오랜 투쟁 끝에 안정을 찾게 된다.

한편 찰스 황제는 1555년부터 급격하게 의욕을 잃고 모든 것에 지치게 된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지배권을 넘겨주게 되는데 독일은 그의 동생 페르디난드에게 양도하고, 네델란드, 이탈리아 일부, 스페인은 그의 아들 필립에게 넘겨준다. 그리고 자신은 스페인의 산 제로니모 드 유스테 수도원 별장에서 은거를 한다. 그곳에서 그는 인생의 무상함에 젖어 번

뇌하며 고민하다가 1558년 9월에 사망한다.

독일의 새로운 황제 페르디난드는 자기 형의 종교정책을 거의 전면적으로 포기하고 온건정책을 쓴다. 페르디난드의 후계자 맥시밀리안 2세 역시 온건한 종교정책을 써 프로테스탄트주의는 계속 확장을 거듭한다. 그런데도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 지도자들 사이에 사소한 정치적, 군사적 분쟁이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 이 분쟁들은 다음 세기의 30년 전쟁으로 연결된다.

제 5 장 루터의 공적



2천년 교회사에 보기 드문 위대한 신앙적 영웅 루터는 63세를 일기로 그의 생을 마쳤다. 그의 한평생은 가난, 시련, 핍박, 투쟁으로 점철된 인생이었다. 한 인간이 세상에 왔다가 가고 나면 그가 남긴 발자취가 있기 마련이다. 여기 특이한 삶을 살아간 루터의 생애를 더듬어 보자. 그리고 그가 남긴 긴 여운으로써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산 메아리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1. 루터의 생애

루터는 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수도사요, 대학 교수요, 개혁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여기서 살아간 그의 인생 연표를 한번 살펴보자.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독일 아이스레벤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는 한스 루터였고, 어머니는 마르가레테 지글러였다.

루터는 아버지가 광산촌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소년기는 '맨스필드'라는 광산촌에서 자랐다. 14살 때(1497년) 마그테부르크의 라틴학교에 입학하여 공동생활을 1년간 하였고 다시 1498년에 아이제나하 성 조지학교로 가서 3년 동안 교육을 받는다.

1501년 당시 독일의 명문학교인 '에르푸르트(Erfurt)' 대학에 입학

1502년 가을에 B.A. 학위를 받음

1505년 1월에 M.A. 학위를 받음. 5월에 법학대학원에 진학, 7월에 어

거스틴과 수도원으로 입단, 사제 임직

1508년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

1511년 로마 방문

1512년 10월 신학박사 학위

1515년 마이센, 튜링기아 지역의 수도원 지역 대리인

1515-1516년 루터의 회개

1517년 10월 95개조 신조문 발표

1519년 라이프찌히 논쟁

1520년 4대 저작

1521년 4월 보름스 의회에서 증언, 5월 교황의 파문

1524-1526년 농민전쟁

1525년 수녀출신 캐더린 폰 보라(Katherine von Bora)와 결혼, 3남
1녀를 둬

1526년 제1차 스페이에르 의회

1529년 제2차 스페이에르 의회

1530년 아우구스부르크 신조

1546년 종교전쟁

1546년 2월 18일 사망(당시 63세)

루터는 둘째 아들과 딸이 그의 생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의 부인 역시 남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는 지나친 과로와 심장병으로 고향 아이스레벤에서 운명하게 된다.

2. 루터의 사상과 공헌

루터에 관한 사상을 다 살펴본다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하기에 제한된

지면 안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금도 그에 관한 연구가 계속 새롭게 발굴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동안 발견되어진 사상들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루터의 사상

여기서는 그의 주요한 특징들을 살펴보겠다.

1) 의인(義認)의 교리(롬 1:17)

이것은 루터의 대표적인 신학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루터가 깨달은 이 진리는 평생 고뇌와 고투 끝에 얻어진 깨달음이었다.

루터가 볼 때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해서 (about) 믿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것은 신앙이라기보다는 지식에 속하는 것이다.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을 믿는(in) 것이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한다. 이같은 믿음은 하나님 속으로 투신하는 것을 말한다 고 했다.

카톨릭에서는 개인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해야만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런 잘못된 신앙 개념 속에서 허덕거리다가 은총이란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들이 믿을 때 선물로 덧입혀주는 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의는 인간들의 행위가 의로워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원했기 때문에 주

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루터는 이 확산 때문에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투쟁할 내적 힘을 유지할 수 있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과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수한 것도 사실은 여기서 얻은 힘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 만인 제사장론(벧전 2:9)

중세기 카톨릭교회의 가장 큰 악은 사제의 중재(mediation of a priest)라는 개념이었다. 중세기 기독교인들은 막연하게나마 성례전을 집행하는 사제가 임직의 효능 때문에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신비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믿고 있었다.

사제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중재해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런데 이같은 중재적 사제직은 인간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가로막는 장애로 존재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개인적으로 자유를 추구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했다. 그런데 중세교회는 이 통로를 성례전이란 제도와 사제 중재직이라는 삼중적인 방어벽으로 가로막고 있었고 사제들의 소유영역으로 제한시켜버렸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죄 문제로 인해 고민할 때 그 문제의 해결방법이란 것이 부도덕한 생활로 가득찬 사제에게로 가서 고해를 하는 정도로 마무리짓게 했다. 그리고 사제들은 하나님의 값없는 사죄의 은총을 돈을 받고서 선심을 썼다.

이같은 큰 악에 대해 루터는 모든 신자의 영적 사제직을 큰소리로 외쳤다. 성직자는 그들이 하는 일이 특별한 기능을 감당하도록 선택되었다는 점에서 평신도와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은 똑같다.

이같은 만인 사제직 사상 역시 루터가 크게 깨우친 사상이었다.

그런데 만인 제사장 사상이 과거에 없던 것을 루터가 창안해 낸 것은 아니었다. 과거에 이미 있었던 것을 중세교회가 없애버린 것을 루터가 다시 되찾아 놓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는 종교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 원리가 되었다.

3) 성서에 대한 권위

루터 이전의 로마 카톨릭에서도 성경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말하는 성경이란 신구약에다 외경을 포함한 것이었고, 또 신구약의 원어로 쓰여진 성경이 아닌 라틴어 번역성경을 뜻했다.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이란 것도 신구약 전체를 일관하고 있는 성서적 사고에 의한 성경 지식이 아니었다. 그들은 성경을 단편적으로 좋은 교훈집을 집합시켜 놓은 경전 정도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개혁자들이 말하는 성경의 개념은 달랐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신실한 자라면 하나님과 더불어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성서였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는 교황이 주는 것이나 교회 회의가 제정해서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권위가 있는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교황의 어떤 지시나 교회 회의의 어떤 결정보다도 성서가 깨우쳐주고 이성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훨씬 더 권위를 가져야 한다고 믿었다.

루터는 9살 소년이 성서를 가지고 있다면 성서가 없는 교황보다도 하나님의 진리를 더 많이 안다고 주장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중세교회는 성경해석의 독자적인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루터가 수도원에서 고민을 하며 성경 속에서 진리를 깨달으려고 할 때 수도원 선배들은 성경 읽는 것을 제재시켰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것

은 불안만 더 조성할 뿐이라고 하였다.

왜 성경을 읽는 것이 불안을 조성시킨다고 생각했을까? 그것은 독일어와 벌게이트 성경 서문에 독자들은 성경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방법과 다르게 해석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루터는 성경해석의 독자적인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터의 이같은 주장은 후에 다시 수정되고 만다. 루터의 사상은 초기 것과 말기의 것이 현저하게 다른 부분이 많다. 그에 관한 연구는 좀더 세심한 신학사상사에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4) 교회관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적인 요소와 인간적인 교제의 요소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신적인 요소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과 개인의 개인적인 교제를 뜻한다. 그리고 인간적인 요소란 예수와 개인적 관계를 형성한 인간들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짐을 뜻한다. 교회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항상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중세기 교회는 전반적으로 두 개의 교회관이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맞서서 흘러갔다.

사실 교회는 한 편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고 있는 교제로서 외적인 조직이나 가시적인 것들과 전혀 무관한 요소가 있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 속에 존재하는 거대한 사회로서 다른 사회처럼 가시적인 정치적 결속력으로 묶여져 있어야 한다.

그런데 중세교회는 상반된 두 개의 교회관이 서로 배타적인 모습으로 지속되었다. 중세교회에 지속된 교회관은 가시적이고 교권적인 국가 교회였다. 이런 교회관이 수립된 배경은 멀리는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해

서 로마교회의 교회법 전문가들이 법률학적 변증론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었다.

이들이 믿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을 왕으로 삼고 엄격한 군주제적 헌법을 가진 가시적인 국가라야 했다. 이런 교회에 대한 개념은 순전히 정치적인 것이었다. 이 개념이 국가 조직과 같은 힘에 의해 가시적인 일들을 많이 해낼 수는 있었으나 경건하고 성스러운 교회를 세속 국가 정도로 격하시키고 말았다.

이에 루터는 이런 중세적인 교회관을 본질적인 교회관으로 개혁시켰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지상에서 오직 유일한 우주적 교회라는 사상을 반대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써 신앙적 현시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한다고 했으며 교회 내에서는 개개인의 신앙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일정한 종류의 말씀의 사역과 성례전의 집행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카톨릭의 가시적, 교권적 교회관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루터가 처음에는 독립 개교회의 존엄성을 주장했었다. 그렇지만 후에는 루터교회가 국가교회가 되고 말았다. 이 점에 있어서도 그는 사상적 변모를 느끼게 한다.

5) 성례전

잘 아는 바와 같이 루터는 동체설을 주장하였다. 그는 카톨릭의 화체설만 제거하면 카톨릭이 주장하는 의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믿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루터의 동체설은 카톨릭에서 약간 변형된 것으로 이같은 사상 때문에 다른 개혁자인 쾰링과 갈라지고 만다.

(2) 루터의 공헌

루터가 개혁자로서만이 아니라 여타의 다른 공헌은 어떤 점이 있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성경 번역사업

루터가 1521년 보름스 의회에 출두했다가 귀환길에 발트부르크 성채에서 10여개월 은둔생활을 하였다. 이때 그는 라틴어 성경을 헬라 원문과 참조하여 독일어로 신약성경을 번역하게 된다(1522년).

그 뒤 구약은 멜랑히톤과 협조하여 1530년에 번역을 완료한다. 루터의 성경 번역은 대중이 쉽게 성경에 접할 수 있게 해준 커다란 공로였다.

2) 찬송가의 보급

루터는 카톨릭 교회의 의식위주의 집회에 새롭고 참신한 예배 이미지를 도입하기 위해 찬송가를 많이 보급하였다. 그는 자신이 직접 작사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등의 찬송시를 37편이나 쓰기도 했다. 루터는 오늘날 개신교 예배시 즐겨 부를 수 있는 찬송가를 보다 많이 부를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3) 가정생활의 재건

루터 이전에는 사람들이 결혼은 해도 부인에 대한 이해가 매우 저급하였다. 로마시대로부터 내려오는 부인에 대한 관념은 너무나도 편견 일색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결혼제도가 1522년 '결혼생활에 관하여'

란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결혼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4) 루터교의 창시자

루터 자신이 루터파 교회의 창시자가 되기를 본인은 원치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엄연히 창시자가 되었다. 루터의 영향력이 널리 여러 나라로 퍼지기는 했지만 독일 밖에서는 스칸디나비아로 한정되었다. 그리고 스웨덴으로도 깊숙이 파고들어 갔다.

5) 저술가

루터의 저작은 무려 4,000여 편에 이른다. 그는 실로 보기 드문 저술가였다.

6) 기타

루터는 대학 교수로서, 또는 순회 설교자로서 지역문제의 해결사로서 다양한 공헌을 하였다. 루터가 이렇게 다양한 공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협조자 멜랑히톤(Melanchthon, 1497-1560)을 만났기 때문이다.

제 6 장

쯔빙글리(Zwingli)의 개혁

종교개혁의 3대 지도자하면 루터, 쯔빙글리, 칼빈을 대표적으로 든다. 루터는 독일을 중심으로 개혁을 하였고, 쯔빙글리는 스위스를 중심으로 개혁을 하였다. 그러나 쯔빙글리의 개혁의 여파를 타고 스위스에서 개혁을 성공시킨 사람이 칼빈이다.

칼빈은 쯔빙글리의 개혁의 여세에다가 루터의 개혁사상을 혼합하여 개혁교회의 종합사상을 완성하였다. 이에 이 장에서는 쯔빙글리의 개혁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스위스의 정치적 조건

쯔빙글리나 칼빈이 활동했던 스위스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개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위스의 정치적 조건을 알아야 한다.

쯔빙글리 시대의 스위스는 명목상으로는 아직도 신성 로마제국에 속해 있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랫동안 정치적 독립을 향유하고 있었다. 이들 스위스는 원시적인 튜톤족 유형의 행정체제, 혹은 마을로 이루어진 연방체제를 조금 확대한 소규모적인 공화국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여러 자치주들(cantons)이 모두 독립체였으나 전체는 한 나라의 공동적인 연맹으로 묶여져 있었다.

스위스가 이러한 독립된 자치주들로 구성된 연방국의 역사를 가진 것

은 13세기부터였다. 이들은 1291년에 봉건 영주들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하고자 '영원한 동맹'을 결성하였다.

이때의 자치주는 '슈비쯔(Schwyz)', '우리(Uri)', '운터발덴(Unterwalden)' 등 3개의 삼립 자치구였다. 이와 같은 자치주는 점차 발전하여 쾰빙글리 시대에는 13개의 자치주들로 발전하였다.

그 13개의 칸톤은 위의 3개 외에, '루저른(Luzern)', '취리히(Zurich)', '베른(Bern)', '글라루스(Glarus)', '쭈그(Zug)', '프라이부르크(Freiburg)', '바젤(Basel)', '샤프하우젠(Schaffhausen)', '솔로투른(Solothurn)', '아펜젤(Appenzell)'이었다.

이들 13개 자치주들은 상호 방위조약 및 공동문제를 의논하기 위한 연맹의회(Diet)라는 기구가 있었다. 그렇지만 각 자치주들은 각자 자치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므로 의회는 실권이 없었다. 그런데 이 스위스는 신성 로마제국의 통치형식을 1648년까지 유지한다. 1648년 '웨스트팔리아 화약(Peace of Westphalia)'에서 스위스의 법적 독립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스위스의 교회 행정체제 역시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다. 프랑스쪽을 향하고 있는 스위스는 로마나 갈리아(Galia) 선교사들에 의해 기독교회가 형성되었고, 독일쪽을 향한 스위스는 아일랜드 설교가들에 의한 기독교가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되자 바젤과 로찬은 베상송에 속한 교구였고, 콘스탄스는 마인쯔의 교구로 취리히와 그 주변 교구 속에 들어갔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스위스 사람들은 모든 교회적인 사항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웠으며, 교회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의식이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어 있었다.

16세기가 시작되면서 단순했던 스위스가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스위스에서 실시되고 있는 용병제도 때문이었다. 스위스는 돈을 받고 타국에 가서 대신 전쟁을 치루는 용병제도가 있었다.

스위스 자치주들은 자신들에게 최대의 금액을 지불하는 곳으로 군대를 보내서 싸우게 한 후 돈을 벌게 하였다. 이러한 용병들은 자신들의 도시도 아닌 곳의 전쟁에 나가 생명을 내놓고 싸워야 했다.

이들은 전쟁에서 번 돈으로 고향에 돌아와서는 난폭한 생활과 부도덕한 생활을 즐겼다. 이들의 영향으로 스위스 전 연맹에 속한 주민들의 타락을 가속화시켰다.

스위스의 보병을 거래하는 커다란 세력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교황청이었다. 이들 두 나라는 스위스 안에 여러 자치주에다가 상주 대리인을 고정적으로 배치하였다. 이들 대리인들은 자치주로 하여금 자기들에게 용병을 파견하도록 선동할만한 지도급 인사를 포섭하여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복잡한 시대 상황 속에서 개혁자인 쾰빙글리가 등장한다. 쾰빙글리가 태어난 시대는 이와 같이 나라 안팎이 어수선한 때였다.

2. 쾰빙글리의 개혁

(1) 그의 준비

스위스의 개혁자 울리히 쾰빙글리(Ulrich Zwingli)는 1484년 1월 1일(루터보다 54일 뒤)에 태어난다. 그가 태어난 곳은 빌트하우스 혹은 빌덴하우스(Wildhaus or Wildenhaus)라 불리는 조그마한 마을이었다. 이 마을은 해면보다 3,600피트나 높아 과일이 잘 맺히지 않을 정도의 고원지대였다.

그의 아버지 이름 역시 울리히였다. 쾰빙글리는 아들 여덟에 딸이



울리히 쾰빙글리(Ulrich Zwingli,
1484-1531)

둘인 10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빌트하우스 촌의 서기였다. 그래서 그는 자기 힘이 미치는 한 자식들을 최고의 학교에 보내고자 노력하였다.

그의 삼촌 바톨로뮤 쾰빙글리(Bartholomew Zwingli)는 교구의 사제였다. 쾰빙글리는 자기 삼촌이 베젠학교의 교장이 되자 8살 때 삼촌 학교에 입학하였다. 바톨로뮤는 쾰빙글리가 조숙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고 10살 때 바젤로 전학하여 성 데오도르(St.Theodor) 학교에서 3년간 공부하게 한다.

그곳에서 쾰빙글리는 라틴어, 변증법, 음악 등을 공부하였는데 쾰빙글리는 얼마가지 않아 선생의 실력을 따라잡을 정도였다. 그래서 그는 다시 13살 때 베른학교로 전학을 한다. 여기서 2년간(1496-1498) 공부하는 중 개혁자요, 인문주의자인 뷔플린(Heinrich Wölflin)의 영향을 받는다.

뷔플린은 쾰빙글리에게 고전에 대한 사랑과 음악의 즐거움을 가르쳤다. 베른에 있던 도미니크 수도회에서는 쾰빙글리의 비범한 자질을 알아차리고 자기들 수도원에 들어올 것을 적극 권장하였다. 이것을 안 가족들은 그를 강제로 빼내어 대학 교육을 받도록 비엔나로 보냈다.

그는 비엔나에서 2년간(1500-1502) 대학생생활을 한다. 여기서 고전 문학과 음악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쌓으며, 좋은 친구들을 만난다. 쾰빙글리와 일생 동안 절친했던 하인리히 로리티(Heinrich Loriti), 그리고 루터의 적대자 요한 엑커를 만난다. 쾰빙글리는 독일에 대한 언짢은 감정과 스스로 충실한 스위스인이기를 자부하여 다시 바젤로 돌아온다. 바젤에 돌아온 그는 1504년에 B.A.를, 1506년에 M.A. 학위를 마친다.

(2) 그의 사역

1) 첫 목회지 글라루스(Glarus, 1506-1516)

쾨빙글리는 1506년에 글라루스 교구의 사제가 되어 10년간(1506-1516) 사제로 지낸다. 이 기간 동안은 쾨빙글리로 하여금 내적 자기 실력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우선 쾨빙글리는 각 분야에 대해 넓게 공부를 하였다. 그는 기하, 지리, 철학, 신학, 언어학, 고전 등 각 분야를 골고루 공부하였다. 특히 헬라어 공부는 더욱 많이 해서 바울서신을 헬라어로 암기할 정도였다.

히브리어 공부와 교부들의 저술도 넓게 섭렵하였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은 그를 가리켜 '우리 시대의 키케로'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글라루스의 민중들과도 가까이 함으로 대중들의 실체를 가깝게 파악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쾨빙글리는 두 차례에 걸쳐 자기 지역 출신의 용병들과 함께 종군신부로써 출전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한번은 1513년에 있었던 노바라(Novara) 전투였고, 다른 한번은 1515년의 밀란 교외에서 벌어진 마리그나노(Marignano) 전투였다.

첫번째 원정은 승리로 끝났으나 자기 교구 내 용병들이 피정복자를 약탈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실망하게 되었고 두번째 원정에서는 스위스의 젊은이들이 육체적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죽고, 영적으로는 부패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후 쾨빙글리는 설교를 통해 용병제도의 모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런데 스위스와 프랑스 사이에 맺은 조약으로 인해 스위스는 재정적 도움을 얻는 대신 프랑스에 충성을 바쳐야 할 의무가 있었다. 스위스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쾨빙글리는 용병제도를 계속

비판하였다. 이에 그의 그런 행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친불주의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쾰빙글리를 글라루스에서 몰아내었다.

2) 제2 목회지 아인지델른(Einsiedeln, 1516-1518)

아인지델른은 유명한 순례지이며, 수도원 이름 역시 잘 알려진 곳이었다. 쾰빙글리는 이곳에 사제 자리가 주어지자 곧바로 받아들였다. 그는 글라루스와는 공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그곳 교구 일을 돌볼 수 있는 조치도 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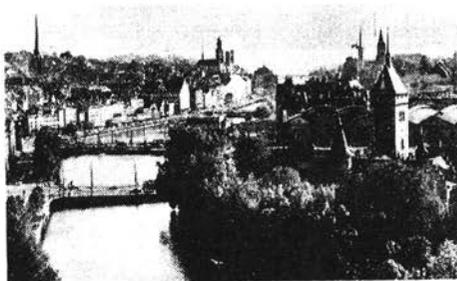
이곳 아인지델른 수도원에는 성 처녀의 검은 조상(Black Image of the Virgin)을 보려고 수많은 순례자들이 찾아들었다. 쾰빙글리는 이곳 수도원을 순례하는 자들에게 전면 속죄된다는 면죄부에 대해 비판을 시작하게 된다.

1518년에는 이곳으로 면죄부를 판매하기 위해 왔던 프란시스파 수도사 베르나르딘 삼손(Bernardin Samson)의 행위를 중단시키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쾰빙글리의 회심은 이 무렵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순례나 선행이 구원에 관계된다는 로마 카톨릭의 관념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설교를 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서 그런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자신있게 설교하였다. 쾰빙글리의 친구들은 그가 더 넓은 지역에서 활동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의 주선으로 취리히의 대성당의 시민사제(Peoples Priest) 자리에 취임하게 된다.

3) 제3 목회지 취리히(Zürich, 1519-1531)

쾰빙글리가 취리히로 옮겨 가려 할 때 그에게는 그를 방해하는 두 가지 소문이 돌고 있었다. 하나는 그가 음악 애호가이기 때문에 경박하고 성실치 못할 것이라는 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가 부도덕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이에 대해서 쓰빙글리는 자기가 부도덕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였다. 그는 처녀도 아니고, 좋은 가문의 정숙한 여인도 아닌 여자의 유혹에 넘어간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취리히. 1518년 쓰빙글리는 취리히 대성당에서 주임 사제로 일했다.

이 소식을 접한 취리히 교회 참사원들은 첩과 여섯 명의 자녀들이 있고, 수많은 성직록을 받고 있던 스와비안 출신의 다른 사제보다는 쓰빙글리가 더 깨끗하다고 결정하여 쓰빙글리는 취리히의 그레이트 민스터(Great Minster) 교회에 부임하게 된다.

쓰빙글리는 1519년 첫 주일부터 설교를 시작하였다. 그는 강단에 헬리어 성경을 놓고 본문을 직접 해설하는 강해설교를 하였다. 쓰빙글리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6년에 걸쳐 신약성경 전부를 강해하였다.

이같은 쓰빙글리의 설교는 대성공이었다. 사람을 끄는 인품, 다정다감하고 예리한 판단력, 아름다운 음성과 뛰어난 웅변 등 설교가로서 갖추어야 하는 좋은 점들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의 설교는 대단한 주목과 인기를 끌게 된다.

쓰빙글리는 그의 설교를 지방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접근시키려고 금요일에는 시장터에서 설교를 하였다. 그래서 그의 명성은 각 지역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설교를 통해서 종래의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연옥과 성도의 중보기도 교리를 부정하였다. 프란시스코파, 도미니코파, 어거스틴파 수도회는 그의 견해에 반대를 제기하나 크게 영향을 미

치지는 못했다.

① 제1논쟁(1522년 4월)

이같은 과정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난다. 그것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육고기(flesh meat)를 먹을 수 있다고 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이 일로 인해 쾰빙글리는 시의회 앞에 출두하게 된다. 이때 쾰빙글리는 「음식에 관한 선택과 자유」(1522년 5월)라는 글을 써서 그들을 방어하였다.

이 무렵 한 정치적인 사건이 쾰빙글리의 개혁에 도움을 주게 되는데 그것은 1521년 5월 '루쩌른(Luzern)' 칸톤에서 모인 스위스 의회였다. 그때 스위스 의회는 '취리히' 칸톤의 격렬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취리히에서 프랑스에 보낼 용병 16,000여 명을 징병하도록 결의하였다.

그런 의회의 결정에 취리히는 항거를 끝까지 고수한다는 입장에서 징병을 허락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다른 칸톤의 자치주들의 부추김과 취리히 칸톤의 자금의 손실을 들어 쾰빙글리를 이상론자라고 몰아세우고 드디어 취리히 주민들 중 6,000명이 교황청 용병으로 가입하기 위해 떠난다. 시의회에서는 그들을 만류했으나 듣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이 전투에 나갔다가 소수만이 가까스로 돌아오고 큰 희생을 당하게 된다. 이 사건 후 취리히는 앞으로 외국을 위해서는 어떤 봉사도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이것은 취리히와 교황청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쾰빙글리가 취리히에서 개혁운동을 하기가 훨씬 쉬워졌다. 이때 쾰빙글리는 「아르케텔레스」(Archeteles, 처음과 끝이라는 의미)를 출판한다(1522년 8월).

이 책에서 쾰빙글리는 자신이 행한 모든 일,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교회와 정치에 관한 모든 견해를 밝혔다. 이 책은 쾰빙글리의 적대

자들을 흥분하게 하였다. 그 까닭은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교회 종교회의나 교황의 도움 없이 오직 성령의 도움만이 필요하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불씨가 되어 쾰빙글리는 공개토론에 의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제의받게 되고 이렇게 하여 쾰빙글리는 여러 차례의 논쟁을 거듭한다.

② 제2논쟁(1523년 1월 29일)

쾰빙글리가 이때 준비한 것은 '67개 조문(Sixty-Seven Articles)'이었다.

이 공개 토론회는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약 600명이나 시민 회관에 모였다. 자치주의 모든 성직자, 사제들이 다 참석했으며, 스위스의 다른 지역에서도 수많은 저명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사회는 한때 쾰빙글리의 친구이기도 했던 존 페이버(John Faber)가 보게 되었다. 그는 콘스탄스 주교를 대신해서 논적으로 등장하였다. 쾰빙글리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성경을 펼쳐놓고 자기의 견해를 진술하였다. '67개 조문'은 토론 제목으로 초안되었다.

처음 6개 조항에서는 자기가 신앙하는 긍정적 교리들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복음의 의미 선언과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알리고 자신의 무죄성을 통해 인류를 사망으로부터 해방하여 하나님과 화해시킨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의 교제라는 의미를 지닌 교회의 본질 등을 말했다.

그리고 나머지 조항들은 교회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인위적 규칙들을 반박하였다.

그 반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교황만이 대제사장적 직분이라는 것.
- 둘째, 기념의 의미로서가 아닌 희생으로서 실시되는 미사.
- 셋째, 성자들의 중보를 요청하는 기도들.
- 넷째, 사람이 선행으로 공로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
- 다섯째, 의무적인 금식.
- 여섯째, 순례가 권장되는 것.
- 일곱째, 수도원의 규칙.
- 여덟째, 사제들의 독신 강요.
- 아홉째, 파문의 오용.
- 열째, 면죄부 판매.
- 열한째, 고행 및 연옥에 관한 교리.
- 열두째, 사제제도.
- 열셋째, 종교 내에서 국가의 역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쓰빙글리는 로마 카톨릭의 광범위한 모든 규범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이 논쟁에서 쓰빙글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장은 중세교회가 원래의 교회를 변질시켜 놓았다는 이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시 순수한 신약교회의 모습으로 복원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쓰빙글리는 이 논쟁에서 대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취리히 시의회는 칸톤 내의 모든 신부들에게 쓰빙글리의 가르침을 실행하도록 명하였다.

③ 제3논쟁(1523년 10월 26-28일)

제2 논쟁에서 쓰빙글리가 승리를 거두긴 했으나 아직도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감지한 쓰빙글리는 다시 공개토론회를 요구한

다. 이번의 주제는 미사 및 성상숭배에 관한 문제였다.

이 때에도 약 800-900명의 성직자와 평신도들이 참석하였다. 이중에 350여명이 성직자였다.

a. 첫날의 논쟁(1523년 10월 26일)

이 날의 주제는 성상(Images)에 관한 문제였다. 쾰빙글리는 교회 내에 성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상과 그림을 교회에서 철거시킬 것이지만 소요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자고 하였다.

이때 개혁에 강한 뜻을 가진 재침례파들이 시의회에 나타났다. 그들이 주장하는 개혁은 루터파처럼 국가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고, 개혁파들처럼 카톨릭에서 약간의 개혁만을 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하였다.

b. 둘째날의 논쟁(1523년 10월 27일)

이날 토론의 주제는 미사에 관한 문제였다. 이 주제는 격렬하게 논의되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1215년 라테란(Lateran) 종교회의에서 화체설 교리를 공식화 하였다.

이 화체설 교리에 의하면 성찬식에 사용되는 예품(Element)인 빵과 포도주가 외형(Accidents)은 그대로 남아 있으나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어 왔다.

따라서 미사도 이를 집행하는 사제가 갈보리 언덕 위에서 만인을 대속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에 대해 쾰빙글리는 성경에 기초하여 볼 때 화체설 교리가 잘못되었으며, 미사가 희생의 되풀이라는 것도 비성서적임을 주장하였다. 그는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그리고 미사도 그리스도의 희생이 계속 되풀이된다고 하는 것은 그

리스도의 만인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미사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와 영적인 고통을 상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미사의 무용론이 대두되었다. 그런데 시장은 이 문제는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므로 시간을 두고 더 연구하자고 보류하였다.

④ 제4논쟁(1525년 1월 17-18일)

이 날의 논쟁 주제는 유아세례에 관한 문제였다. 앞서 1523년 10월 논쟁 때에는 스위스의 재침례파들이 시의회에 나타나서 철저한 개혁을 주장한 바 있었다. 그때 이후로 시의회에서 볼 때 수많은 세례 청원자들 중 대다수가 유아세례에 관해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시의회는 쾰빙글리로 하여금 이 문제를 재침례파들과 공개토론을 하도록 명하였다. 그래서 유아세례에 관한 공개논쟁이 있게 된다.

쾰빙글리가 논쟁을 해야 할 스위스 재침례파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여기는 세 사람의 대표자가 있었다. 콘라드 그레벨(Conrad Grebel), 펠릭스 만쯔(Felix Manz), 수사 요르그(Brother Jorg; 이 요르그는 푸른 외투라는 뜻의 블라우 록이라고 했다.)

이들은 스위스 형제단(Swiss Brethren)을 이끌고 있었다. 이들은 카톨릭과 루터파 및 개혁파들이 시행하는 유아세례를 반대하고, 성인 침례만을 인정하였다. 침례란 자기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신앙적 자각을 한 성인들에게 중생의 상징으로써 베풀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무런 자의식이 없는 유아에게 성인 부모들의 신앙 고백만을 믿고 그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은 침례의 참 뜻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아무튼 쾰빙글리는 자신만만하게 재침례교도들을 공격하려고 논쟁을 벌였다. 그들 사이 오고 간 논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썬빙글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이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유아세례가 필요하다.

□ 재침례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나, 성경(요 1:12)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였다.

◇ 썬빙글리: 구약에는 난 지 8일 만에 어린 유아에게 할례를 실시했다. 따라서 신약의 유아세례는 구약의 할례와 유사하다.

□ 재침례교: 구약의 할례는 택한 백성의 기호로 실시했다. 신약의 침례는 영접한 자에게 신앙고백적 선언으로 실시한다. 신약 때는 선민이 있을 수 없다.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침례는 유사성이 없다. 구약의 할례는 남자에게만 실시하였다. 신약의 침례도 남자에게만 실시해야 하느냐?

◇ 썬빙글리: 신약의 사도들도 유아세례를 실시한 암시가 있다. 사도행전 16:30-33에 '권속'이란 말에는 어린 유아도 포함되어 있다고 믿는다.

□ 재침례교: 사도행전 16:30-33은 뜻이 분명하다.

30절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라고 물었다.

31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복음을 전했다.

32절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고 했다. 여기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다, 그들은 들었다.

33절은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에게,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Houshold)이 다 침례를 받은 후"라고 되어 있다.

누구든지 그가 비록 나이가 어린 소년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다면 침례가 가능하다. 문제는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무의식의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잘못이다.

◇ 쓰빙글리 : 너희들이 재침례를 주장하는데 재침례란 말이 신약 어디에 있느냐?

□ 재침례교 : 사도행전 19 : 1-5에 보면 아볼로가 시행한 잘못된 침례를 바울이 다시 재침례를 주는 기록이 나온다. 그러나 재침례란 침례를 두번 받으라는 뜻이 아니다. 물로 뿌려서(Sprinkling) 세례를 시행하는 것이 성경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것이므로 물에 잠기는 침례를 다시 받으라고 주장하는 것이다(롬 6 : 1-6).

◇ 쓰빙글리 : 성경에서 죄가 된다고 말하지 않은 것은 사람이 시행을 해도 죄가 될 것이 없다.

□ 재침례교 :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들을 교부, 감독, 교황들이 너무 많이 말함으로 교회가 타락되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은 하지 말아야 옳다.

◇ 쓰빙글리 :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셨다(마 18 : 13). 그러므로 그들에게 유아세례를 주면 더 복이 된다.

□ 재침례교 :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셨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있을 수 없다. 예수께서 축복하신 것을 사람이 축복한다고 해서 더 큰 복이 될 수 없다.

◇ 쓰빙글리 : 부모들은 자녀들을 거룩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전 7 : 14). 그것은 유아세례로 가능하다.

□ 재침례교 : 부모가 자녀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주의 교양과 훈계(딤후 3 : 16-17)로 모범을 통해서 가능하며, 유아세례로는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논쟁 후 쾰름과 제임스 사이는 원수처럼 멀어진다. 쾰름이 시의회의 힘으로 제임스파들을 집요하게 추적한다. 그리하여 쾰름은 제임스파들을 국가의 법 질서를 교란시키는 자라고 하여 쾰름에서 추방시킨다.

그리하여 제임스는 다른 곳으로 전전하다 흑사병에 걸려 사망한다. 그리고 만츠는 산 채로 물에 처넣어 익사시킨다. 그리고 블라우록는 붙잡혀 화형에 처해진다. 제임스파는 이렇게 하여 개혁자의 손에 죽게 된다.

그렇다면 그들 제임스파는 과연 국법을 교란시킨 자들이었는가? 그리고 그들은 극형에 처해 죽어야 할 정도의 중죄를 지었는가, 이들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견해는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역사는 아직도 굴절된 채 흐르고 있다. 우리는 이들에 관한 사실을 다음 장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⑤ 제5논쟁(1529년 10월)

이 논쟁은 루터와의 사이에서 벌어진 성례전에 관한 논쟁이다. 이 논쟁은 말부르크 논쟁이라고도 불려진다. 이 모임의 주선은 독일의 필립(Philip of Hesse)백작이 독일과 스위스간의 개신교 연합을 기대하면서 주선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쾰름은 성만찬이 그에 참여하는 신자들에게 이미 믿음으로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확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에 반해 루터는 “이것은 나의 몸이라”(마 26 : 26)고 한 말을 문자적으로 믿어야 한다고 응수한다. 이에 대해 흥분한 쾰름은 요한 복음 6장에 있는 생명의 떡에 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세웠다(요 6 : 51). 그리고 “자, 바로 여기 당신의 목이라도 부러뜨릴만한 논거가 있지 않느냐?”고 쾰름이 외치자, 루터는 “당신이 지금 스위스가 아니라

독일의 헤세에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 좋을 걸, 독일에서는 그렇게 쉽게 목이 부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지.” 하며 쏘아부쳤다.

이와 같이 쾰빙글리는 논쟁과 토론으로 그의 개혁을 이끌어갔다. 결국 너무 과격하게 서두르다가 중도에 하차하고 말았지만 그는 풍부한 식견과 뛰어난 웅변술로 그의 개혁을 잘 진척시켜 나갔다.

3. 쾰핑(Kappel)전쟁

쾰빙글리는 자기와 견해를 함께 하지 않는 재침례파들을 가차없이 죽였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적대자인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는 전쟁을 동원해서라도 적을 진압하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개혁자의 좋은 동기가 방법에 있어 좋은 이미지를 남기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1) 제1차 쾰핑전쟁(1529년 6월)

취리히에서 벌어진 쾰빙글리의 개혁운동은 스위스 전체에 신교도 개혁운동에 촉매역할을 한다. 베른(Bern)시는 1528년 1월에 쾰빙글리와 오에코람파디우스(1482-1591), 부처(Bucer) 등과 장장 19일간에 걸친 공개토론을 한 후에 개신교측 진영에 서게 되었다.

바젤은 전에 베른전쟁에 참여하고 돌아온 오에코람파디우스에 의해 개혁이 진행되었다.

쾰빙글리의 출신지였던 세인트 갈(St.Goal) 지방에는 바디안(Vadian, 1485-1551)이 개혁을 지도하였다.

글라루스(Glarus) 지방에는 발렌틴 추디(Tschudi)가 개혁을 진행시켜 갔다. 또 쾰빙글리의 영향은 샤프하우젠, 콘스탄스, 멤밍겐(Memmingen), 기타 남부 독일지방 도시들로 번져 갔다.

이렇게 스위스의 전역이 교황으로부터 멩예를 벗어버리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했다. 그렇지만 산림지역의 칸톤(Froest Cantons)들은 계속 카톨릭교회에 남아 있고자 하였다.

이들 3개 지역의 칸톤들은 취리히가 득세하는 것에 큰 질투를 느꼈으며, 자기들이 연맹 내에서 누리던 지도적 위치를 계속 고수하고자 원했다. 그래서 이들 지역 칸톤들은 루케르네와 쥐그 칸톤들과 합세하여 오스트리아와 동맹을 맺게 된다.

결국 스위스의 총 13개 칸톤 중 취리히를 중심한 개신교측 칸톤이 8개가 되었고, 로마 카톨릭측 칸톤이 5개로 양분된다. 이때 쾰빙글리는 다른 칸톤들의 원조도 없이 캐펠로 진군하였다. 그런데 다같은 스위스인들끼리 종교 차이로 치열하게 싸운다는 것은 피차 원치 않았다.

전쟁터에서 만난 양측은 빵과 우유 등 농담을 교환하며 치명적인 전투를 피하였다. 이들은 상대방을 형제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리히 군대는 반대자들이 제시한 평화조건을 수락하였다. 이 조약을 캐펠의 제1차 평화조약이라고 한다. 이 캐펠 평화조약은 내면적으로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킬 불씨를 남긴 채 전쟁을 마무리 짓게 한다. 쾰빙글리는 이 전쟁 3개월 후에 말부르크스 대담에 참석한다.

(2) 제2차 캐펠전쟁(1531년 10월)

앞서 제1차 캐펠전쟁 때에는 쌍방간에 평화조약을 체결함으로 전쟁을 끝맺었는데 쾰빙글리는 제1차 전쟁 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칸톤들과 동맹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를 느낀다. 그래서 취리히 외에 베른과 바젤, 그리고 스트라스부르크와 동맹관계를 맺게 된다.

1531년 1월에 모인 스위스 전체 칸톤들의 연맹 의회에는 상호간의 비난과 반격이 난무하였다.

취리히는 계속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베른에서는 자기들 영토를 통해서 산림 자치구로 가는 포도주, 소금, 그리고 철 등의 통과를 저지시키는 것으로 대항했다. 산림 칸톤 3개 자치구에서는 로마 카톨릭의 지원군을 합세하여 8,000명으로 취리히를 공격해 들어왔다.

이때 취리히 군대는 1,500명으로 응전한다. 쾰빙글리는 취리히의 적은 군대를 거느리고 종군목사로 참전하였다. 중과부적의 심한 열세에 몰린 취리히군이 퇴각하는 모습을 보던 쾰빙글리는 전장의 한 가운데로 뛰어들어 죽고 만다. 전쟁터에서 쾰빙글리의 사체를 발견한 적군들은 이를 조각내어 태우고 그 재를 공중에 산산이 뿌리고 만다.

취리히의 전사자들은 400명 이상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는 26명의 시의회 의원들과 25명의 목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취리히 측이 아직도 상당한 예비인력이 있음을 안 카톨릭 칸톤들은 더이상 공격을 계속하지 않는다. 여기서 제2차 캐펠 평화조약(1531년 11월 20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쾰빙글리가 전사당하자 취리히는 스위스 개신교의 자치주들 사이에서도 지도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주도권은 제네바에 있는 칼빈에게로 넘어간다.

이렇게 해서 스위스의 종교개혁은 독일처럼 나라 전체가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카톨릭과 개신교들이 자치주를 중심으로 공존하는 관계로 마무리가 된다.

4. 쾰빙글리의 유산

쾰빙글리는 1484년 1월 1일에 태어났다. 그리고 그는 1531년 10월 11일에 캐펠 전쟁터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고 만다. 그는 47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당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영원히 역사에 남게 된다.

(1) 신학적 특색

첫째,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이성의 힘을 많이 활용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이성이란 세상을 연구하는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이성을 뜻한다.

둘째, 쾰링글리는 칼빈 이전의 이중 예정론을 믿었다. 루터가 믿는 예정론은 인간이 너무 무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예정이라는 체험적 예정론을 말했다. 그러나 쾰링글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물들과 사건들을 미리 알고 결정하신다는 이성적 논리의 결론으로 예정론을 말했다. 그래서 쾰링글리는 단호하게, 하나님이 어떤 이는 구원으로 예정하셨고, 어떤 이는 유기로 예정하셨다고 했다.

셋째, 쾰링글리의 대표적 신학은 성례전 신학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그는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는 하나의 상징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었다.

넷째, 그가 남긴 '67개 조문'은 기독교의 서론과 같은 귀한 진리들을 남겼다.

(2) 스위스 국가에 큰 공헌을 하였다.

첫째, 그는 종교적 우월주의와 정치적 적극 행동주의가 혼합된 종교적 율법주의가 남기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다. 이같은 경향은 교회사 속에서 가끔 일어났던 일이었다. 그는 남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신이 먼저 죽는다는 교훈을 남겼다.

둘째, 스위스 국민들은 종교적 전쟁의 쓰라림이 어떠한가를 절실히

체험하였다. 그 후로 스위스 국민들은 종교전쟁에 말려들어가는 일이 없이 초연한 위치를 유지하였다.

(3) 인간적인 모습

그는 1522년부터 부유한 취리히 도시의 미망인인 안나 라인하르트(Anna Reinhard)와 성직 결혼(Clergical marriage)으로 살림을 차렸다. 성직 결혼이란 결혼식을 치루지 않고 교회 재판소의 판결을 따라 부부가 되는 것을 뜻한다.

쯔빙글리는 당시 사제들이 사실혼을 하고서도 공개적 예식을 하지 않음으로 사제의 아내가 창녀로 인식되고, 자신의 자녀들이 사생아로 불리워지는 현실을 크게 개탄하였다.

그는 수백 수천 명의 사제들, 수도사들, 수녀들 가운데 제대로 정절을 지키는 자가 없음을 폭로하였다. 그래서 그는 결혼을 했고, 결혼을 적극 장려하였다. 쯔빙글리에게는 후계자이며, 사위이기도 한 '하인리히 불링거(Heinrich Bullinger, 1504-1575)가 있었다.

제 7 장

재침례교(Anabaptists) 운동



기독교 2천년 역사에서 재침례교도들만큼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무리들은 없을 것이다. 이들은 카톨릭에 의해서도 죽임을 당하였고, 개혁신교도들에게서도 죽임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기록이나 평가마저도 가장 왜곡되고 굴절된 상태로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들 재침례교도들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재인식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여기서 이들 재침례교도들의 순수한 신앙과 정열적 삶의 진솔한 면들을 살펴봄으로 그들에 대한 올바른 성격 규명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재침례라는 용어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교회사 책에 보면 '재세례파'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원래 쓰인 아나뱃티스트(Anabaptist)라는 말의 뜻이나 역사적으로 이 운동을 펼친 사람들을 제대로 안다고 하면 재세례라는 말은 쓰지 않았을 것이다.

원래 쓰인 아나뱃티스트는 두번째,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제 살펴보려는 아나뱃티스트들은 이미 받은 유아세례나 성인세례가 성경적 근거가 없으니 다시 침례를 받으라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여기에 대한 논증은 「새교회사 I」(p.36-42)에 언급하였다. 그렇기 때

문에 세례를 두번 받으라는 뜻을 가진 재세례란 용어는 적당하지 않은 말이다.

둘째, 이들 재침례교도에 대한 지금까지의 기록들이 문제가 많다고 하는 사실이다.

예컨대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들은 독일의 토마스 뮌쩌(Thomas Müntzer)가 그 사회 혁명운동의 기수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 엥겔스(Engels), 마르크스(Marx), 레닌(Lenin) 등으로 계승되었다고 설명한다.

또 독일의 역사가요, 종교 사회학자였던 에른스트 트뢰치(Ernst Troeltsch, d,1922)는 재침례교도들을 완전주의와 성결(holiness)을 목표로 지향하는 분파(sects)주의자였다고 한다.

또 역사가 알브레흐트 릿츨(Albrecht Ritschl)은 경건주의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재침례교도들은 엑스타시(ecstasy)를 추구하는 영적 수도자들과도 같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회사의 대가인 필립 샤프(Philip Schaff)는 재침례파를 과격한 복음주의자들이며, 극단의 프로테스탄트(Ultra Protestants)라고 하였다.

그 외에도 스피츠(Lewis W.Spitz)는 과격파 개혁자들이라고 하였고, 린제이(Thomas M. Lindsay)는 경건한 기독교 공동체의 직접적인 계승자들이었고,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 조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 자들이라고 하였다.

또한 래토레트(Kenneth S.Latourette)는 재침례교도들은 높은 수준의 도덕을 요구하며 열렬한 선교열을 가진 급진적 개혁주의자들이었다고 하였다. 그 외에는 재침례자들을 이단이라고 서술함은 물론이고, 이

들에 대해 편파적으로 설명한 기록들이 주종을 이룬다.

그렇다면 재침례교도에 대한 견해가 왜 이렇게 다양할까. 그것은 루터나 쾰링거, 칼빈의 개혁은 한 사람의 단일체제로 개혁운동이 전개되었지만 재침례교도들은 한 사람의 운동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 의해 일어난 운동이기 때문이었다. 이들이 일어난 장소도 어느 한 곳이나 한 나라가 아니었다. 그들은 스위스, 독일, 화란, 모라비아 등 유럽 전 지역에서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각 운동은 자발적이기는 했으나 다양했다. 그들의 운동이 자발적이었다는 말은 순수했다는 뜻이나, 다양했다는 말은 조직력이 없어서 큰 일을 못했다는 뜻이다.

재침례주의자들은 개혁의 방법이나 수단에서 보다 순수한 신앙적이기를 원했다. 그런데 너무 심한 핍박으로 변질된 그룹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재침례교도들의 운동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중세생활의 양대 흐름을 제대로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곧 신앙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이다. 이 두 가지 흐름은 모든 개혁자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있었다. 루터의 경우를 보자.

그가 처음에는 면죄부 반대라는 신앙적 문제로 개혁을 시작했다. 그러나 신앙문제를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교황권과 싸워야 했고, 황제와도 싸워야 했다.

이때 루터는 슈말칼트(Schmalkald) 동맹이라는 사회운동으로 그의 개혁 과업을 수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신앙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완성은 세상의 힘인 무력으로 완성했다.

쾰링거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취리히에서 설교와 논쟁을 통해 개혁을 시작했으나 논쟁만 가지고는 개혁을 완성할 수 없었다. 스위스의 다른 자치주들과 정치적 연합을 해서 전쟁으로 개혁을 완성하려다 실패하

고 말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칼빈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제네바에서 제네바 시의회의 협력 없이는 그의 개혁을 완성할 수 없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나 영국, 화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렇지만 재침례교도들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종교와 정치의 엄정 분리라는 대원칙 때문에 신앙운동을 사회운동과 연결시킬 수 없었다. 그래서 순수한 신앙운동만 고집하다가 수없는 희생만 당하게 된 것이다.

지금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종교와 정치가 엄정 분리라는 큰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결과는 카톨릭의 공헌도 아니고, 더구나 개혁교회의 공헌도 아니다. 이것은 분명 수백만 이상의 재침례교도들이 피를 흘려 희생하여 얻어진 결과라고 본다.

셋째, 재침례교도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재침례교도들 중에는 신앙운동만 아닌 사회운동으로 치달리다가 세인의 비웃음을 자아낸 비극적 무리들도 있었다. 그들이 순수 재침례교도들인가, 아니면 그 당시 과격한 운동을 빚은 자들과 재침례교도와 어떤 연관성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연구 과제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 두 사이(순수 재침례교도와 과격한 사회주의성 무리들)가 연구할 과제이지 이 두 사이가 하나라고 단언한다는 것은 지극히 비역사적 자세이다. 내가 믿기에는 이 두 사이에는 엄연한 구별이 있다. 그것을 이 장에서 밝히려고 한다.

그런데 거의 모든 이가 구분 없이 다 같은 것인 양 취급하고 있다. 이들 재침례교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있는 여러 갈래의 각기 다른 성격들을 알 필요가 있다. 불링거라는 썬빙글리의 사위는 재침례

교도 안에는 13개의 서로 다른 분파가 있다고 하였다. 재침례 운동이 여러 나라 여러 곳에서 일어났는데 그 운동들의 성격을 대략 분류하면 여섯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① 복음주의적 재침례교도(Evangelical Anabaptists)
- ② 명상적 재침례교도(Contemplative Anabaptists)
- ③ 혁명적 재침례교도(Revolutionary Anabaptists)
- ④ 영적 복음주의 재침례교도(Evangelical Spiritualists)
- ⑤ 영적 이성주의(Rational Spiritualists)
- ⑥ 영적 혁명주의(Revolutional Spiritualists)

이제 이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다른 성격의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는지를 각 나라별로 살펴보겠다.

1. 스위스의 재침례교 운동

(1) 이들의 기원

스위스 재침례교도의 기원이 어느 때인지에 대해 어떤 이는 쾰빙글리의 제자 때부터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왜냐하면 스위스 재침례교 지도자들이 한동안 쾰빙글리 밑에서 헬라어를 공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스위스 재침례교도들은 쾰빙글리가 아인지델른(Einsiedeln)으로 오기 이전부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은 중세기 왈도파(Waldenses)의 후손들일 가능성이 훨씬 많다. 이들에 대한 정확한 기원을 찾기는 매우 힘든 일이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에도 재침례교파와 비슷한 기도회 모임들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드러난 이들에 관한

기록은 주로 종교재판을 통해 이단으로 취급하여 사람들을 처형시킨 종교 재판관들의 기록이었다. 이같은 기도모임의 공동체는 14세기 말에도 있었고, 15세기 초반부터 종교개혁 시기와 그 이후까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우리가 발견한 것은 1514년 바젤에서, 1515년 스위스에서, 1518년 마인쯔에서, 그리고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있었다는 문헌이 나와 있다. 그리고 1524년에는 형제단같은 모임이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삭소니, 프랑코니아, 슈트라스부르크, 그리고 보헤미아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침례교도의 기원이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을 규명하기는 심히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는 이들이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역사 속에서 자기 정체를 드러낸 것이 쾰빙글리와 성경공부를 위한 헬라이어 공부 때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스위스 재침례교 형제단은 10월 논쟁(1523년 10월의 성상논쟁과 미사논쟁) 때 공식적으로 시의회 앞에 나타났다. 이들은 시의회 앞에서 참된 개혁은 자기들이 걷고 있는 모습대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것이 시의회로 하여금 쾰빙글리와 재침례교도들 사이에 공개토론을 하게 하였다.

스위스 재침례교도들이 쾰빙글리와 유아세례에 관한 논쟁을 한 후 그 뒤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후 상황을 살펴보자.

(2) 10월 논쟁 이후

앞서서 쾰빙글리와 재침례교도간에 유아세례에 관한 논쟁을 우리는 살펴본 적이 있다. 그 논쟁을 주선한 시의회는 논쟁의 결과를 어떻게 판정하였는가. 시의회는 모든 이들은 자기들이 이미 유아세례를 받은 자였고, 쾰빙글리 역시 유아세례가 성서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래

서 시의회에서는 쾰빙글리의 의견이 옳다고 결정하였다. 지금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갔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시의원들이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것은 모든 어린이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를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쾰빙글리가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는 사람들은 1525년 2월 1일 이후로 체포하겠다는 부칙을 정하였다.

그렇지만 재침례교도들은 시의회가 쾰빙글리의 사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정한 유아세례법을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1525년 1월 21일에 만츠의 집에서 성인세례 의식을 거행했다. 이것이 스위스 형제교회가 최초로 시작되는 날이다.

취리히 시의회에서는 재침례교도들이 성인침례를 실시했다는 보고를 받고서 2월 8일 이후로 재침례를 받는 모든 사람은 은화 1마르크의 벌금형에 처하며, 그 이후로도 계속 재침례를 시행할 경우는 추방형에 처한다고 하였다.

시의회에서는 재침례주의자들 중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을 구속하였다. 그들에게는 벌금형, 추방형, 수감형, 그 어느 것도 그들의 사상을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알고는 시의회는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경각심을 일으키려고 했다. 이를 위해 두 사람이 선발되었는데 하나는 만츠였고, 다른 하나는 블리우룩이었다.

블리우룩은 취리히 시민이 아니었으므로 사형선고를 집행할 수 없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채찍질로 매질을 한 다음 도시 밖으로 추방시켰다.

취리히 시민인 만츠는 1527년 1월 5일에 취리히 시민과 그의 어머니

가 지켜보는 앞에서 사지가 묶인 채 강제로 식사를 당했다. 이때 쓰빙글리는 그가 죽는 것은 침례문제가 아니고 시의 법을 어긴 반역행위 때문이라고 역설하였다.

그 외에도 그레벨(Grebell)은 감옥 속에서 인간 이하의 고문을 견디지 못하여 탈옥했다가 1526년 8월에 흑사병에 걸려 이름 모를 곳에서 객사를 당한다. 이제 스위스 재침례파 지도자들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3) 스위스 재침례교 지도자

1) 콘라드 그레벨(Conrad Grebel, 1498-1526)

① 그의 생애

그레벨은 취리히 시의원인 제이콥 그레벨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바젤대학에서 글라레안(Glarean) 파수에게 인문주의 교육을 받고 인문주의에 심취한다. 그후 다시 비엔나 대학으로 가서 3년 동안 공부한다. 이때 바디안(Vadian)이란 교수 밑에서 많은 감화를 받는다. 바디안 교수는 후에 그레벨의 누이와 결혼한다.

그는 비엔나 대학생활 중 부도덕한 생활로 인해 성병을 얻는다. 그는 비엔나의 환경을 옮겨 보려고 파리대학에 가서 2년 동안 공부한다. 그런데 국제적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느껴지는 심적 타격과 성병으로 인한 자책감 때문에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귀향을 한다.

그리고는 1520년 취리히 쓰빙글리 문하에서 헬라어를 배운다. 1521년에는 부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분이 낮은 여자와 결혼을 한 후 1522년에 함께 공부하던 다른 10명의 학생들과 성경공부를 하다가 회개를 한다. 그후 그는 스위스 형제단에 가입하여 지도자가 된다.

② 그가 한 일

그는 28세의 짧은 나이로 죽었기 때문에 업적은 별로 없다. 굳이 있다고 하면 10월 논쟁 때 시의회 앞에 나타나서 개혁을 주장한 일과 최초로 스위스 형제교회를 만츠 집에서 개척하는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다(1525년 1월 21일).

그레벨은 1525년 1월 이후 가정방문 정도의 전도를 하다가 11월에 쾰빙글리에게 체포되어 내란 선동죄, 종교단체 저해자, 유아세례 반대론자라는 죄명으로 종신 징역선고를 받는다. 1526년 3월에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탈출했다가 그 해 여름에 흑사병으로 객사하고 만다.

2) 펠릭스 만츠(Felix Manz, 1498-1527)

① 그의 생애

만츠는 취리히의 카톨릭 사제의 사생아로 태어났다. 그는 부친의 도움으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했다.

만츠 역시 쾰빙글리에게 헬라어를 배우다가 그레벨을 만난다. 만츠는 쾰빙글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서로 다름을 보고 실망하여 쾰빙글리를 떠난다.

② 그가 한 일

만츠 역시 29세의 짧은 나이로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가 남긴 업적은 거의 없다. 굳이 있다고 하면 1525년 1월 21일에 자기 집에서 최초의 스위스 형제교회를 시작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당일 유아세례가 아닌 성인침례를 주고 받는다.

이들은 만츠의 집 목욕탕에서 관수(affusion)에 의한 세례를 실시했으나 그해 4월에 시틀(Sittle) 강에서 다시 침수에 의한 침례를 실시한다. 이때 침례를 받은 이는 그레벨, 만츠, 블라우록, 르볼린, 브로스 등

취리히 시와 즐리칸 농가의 성도 35명이었다.

만츠는 쾰빙글리의 추격을 피해 세인트 고울, 베른, 바젤 등지로 피신을 하다가 나중에 쾰빙글리에게 체포된다. 그래서 1527년 1월 27일에 익사형을 당한다. 쾰빙글리는 너희 침례주의자는 물을 좋아하니 물이나 실컷 취하라고 익사형을 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오, 주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위탁하나이다.”라는 말로 최후를 마쳤다.

3) 죠지 블라우록(George Blaurock, 1491-1529)

① 그의 생애

그의 본명은 '카제이콥(Cajacob)' 이었다. 그런데 그가 푸른 코트를 즐김으로 'Blue-Coat' 란 뜻인 'Blaurock' 이란 별명을 얻었다.

블라우록은 만츠나 그레벨보다 7년 연상이었다. 그는 독일인으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 라이프찌히 대학을 졸업한다. 대학 졸업 후 1519-1522년까지 사제생활을 한다.

그는 자기 신앙의 궁금증을 안고 고뇌하다가 쾰빙글리를 찾는다. 그런데 그에게서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 그런데 1525년 1월 초 성경공부 인원이었던 만츠와 그레벨을 통해 자기 갈길을 발견하고 함께 해결점을 찾는다.

② 그가 한 일

그는 재침례교도가 된 후 1월 29일에 쾰빙글리를 찾아간다. 거기서 그는 쾰빙글리에게 참다운 개혁자다운 설교를 하라고 진언한다. 이 일로 그는 설교 방해자가 되어 투옥된다.

그래서 2월 24일에 취리히를 떠나는 조건으로 석방된다. 그는 바젤, 베른시를 다니며 순방설교를 한다.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쾰빙글리는 다시 블라우록을 체포해 매로 친 후 국외로 추방시킨다. 그는 스위스에

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그리스로 가서 천 여 명을 개종케 한다. 이것을 안 쓰빙글리는 다시 블라우룩을 체포하여 1529년 9월 독일령 가까운 클라우센(Claussen)에서 목베어 처형을 시킨다.

(4) 스위스 재침례교도의 신앙

스위스 재침례교는 이들이 전부가 아니라 이들은 대표 지도자로 희생이 분명하게 밝혀진 자들이다. 이 외에도 무명으로 죽은 이들은 수천을 능가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믿다가 그렇게 희생을 당했는가. 그들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자.

1) 믿는 자의 침례

즉 세례를 두번 받으라는 뜻이 아니다. 주님을 영접한 자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다. 구원받은 자는 주님과 연합의 뜻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

2) 영혼의 자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종교와 정치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 신앙이 짐이 되거나 무거운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3) 교회와 국가로부터 완전 분리

4) 세상의 사악한 악으로부터의 분리

5) 중생한 자만이 교회 회원이 됨

6) 훈련과 양육을 받는 생활 : 교회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징계 사용

7) 목사는 세상으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함.

2. 독일의 재침례교 운동

독일의 재침례교 운동은 후세인들에게 가장 많은 오해를 남겨주었다.

이들을 순수 신앙 운동가들과 사회운동을 결집인 운동가들로 구분할 필요
요가 있다.

(I) 순수 신앙 운동가들

1) 마이클 새틀러(Michael Sattler, 1490-1527)

① 그의 생애

새틀러는 프라이부르크(Freiburg) 근처에서 태어났다. 그는 프라이부르크 대학 공부 후 수도사가 된다. 그는 수도원에서 성경공부와 루터의 저작들을 탐독하다가 전통적 카톨릭 교리에 불만을 품게 된다. 그는 브레이크스가우(Breisgau)에 있는 성 베드로 수도원의 부원장으로 있었다.

그는 수도원 부원장직을 버리고 복음 사역을 위해 취리히로 갔다. 거기서 스위스 형제단에 가입한다. 그런데 쾰빙글리의 재침례교도에 대한 탄압으로 취리히를 쫓겨난다.

그는 스트라스부르크에 피신을 했다가 다시 오스트리아 흑삼림(Black Forest) 지방의 호르브(Horb)로 이주를 하였다. 여기서 그는 성공적인 사역을 이루어 나간다.

1527년 독일과 스위스 재침례교도들 사이를 연결하는 쉘라이타임(Schleitheim) 집회를 주재한다. 저기서 그 유명한 '쉘라이타임 신앙고백(Schleitheim Confession)'을 작성한다.

이 쉘라이타임 신앙고백서는 현존하는 침례교 신앙고백의 최초의 고백서가 된다. 쾰빙글리는 이 신앙고백에 대한 반박문을 썼고, 칼빈도 오랜 후에 이 고백문에 대한 자기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 고백서를 작성 배포한 것이 유죄가 되어 오스트리아 당국에

의해 체포된다. 새틀러는 '엔지샤임(Ensisheim)'에서 재판관을 받게 되었는데 여기서 그는 혀를 잘리고 빨갱게 달은 쇠에 살은 두 조각 난 후 다시 성문 밖으로 끌려 가서 다섯번에 걸쳐 살이 찢어진 후 화형을 당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은 각종 위협에도 굴하지 않으므로 물에 빠트려 억 사당했다. 이것이 1527년 5월 17일의 일이었다. 참으로 이들은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이다.

② 그의 신앙

여기서는 그가 남긴 쉐라이트임 신앙고백서와 그가 재판관을 받은 기록을 그대로 옮겨 보고자 한다.

a. 쉐라이트임 신앙고백서 주요 요점

첫째, 회개 및 개심을 경험하고 자기들의 죄가 그리스도에 의해 다 소멸되었다고 진실로 믿는 이들에게 침례를 베푼다.

둘째, 일단 재침례교의 신앙을 받아들인 후 침례까지 받은 이가 실수하거나 죄를 지었을 경우 그것이 비록 부주의의 결과였다 하더라도 징계를 시킨다.

셋째, 성찬식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는 우선 침례를 받아야 한다.

넷째, 침례를 받은 이들은 사단이 이 세상에 심어 놓은 악과 죄악으로부터 스스로 성별해야 한다.

다섯째, 교회와 목사는 바울이 명했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좋은 평판을 듣는 인물이어야 한다.

여섯째, 교인들은 여하간 이유를 막론하고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일곱째, 누구도 맹세할 수 없다.

b. 새틀러가 재판관에게 재판받은 기록문

(여기는 재판관이 묻고 새틀러가 대답한 내용이다.)

첫째, 당신은 제국의 명령에 불순종해도 좋다고 해서 체포되었다.-“나는 제국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 한다고 했다.”

둘째, 당신은 화체설이 성경에 위배된다고 했었는데-“성경에는 단지 기념일 뿐이라고 했다.”

셋째, 유아세례를 반대한 것은?-“성경에는 믿는 자에게 침례를 주라고 했다.”

넷째, 성례전 중 도유식(Uncion)을 반대한다고 했는데-“사제가 시행하는 기름이라고 해서 보통 기름과 다른 신비적 힘을 발휘할 수는 없다.”

다섯째,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교리를 반대한 것은-“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로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중보자같은 특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와 다를 바 없다.”

여섯째, 미사를 반대하는 이유는-“잔과 떡은 두 가지다.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므로 모두 필요한 요소이다. 미사 때 잔만 주는 것은 성경적으로 잘못이다.”

일곱째, 맹세를 반대하는 이유는-“주께서 마태복음 5 : 34-37에 무엇이든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다.”

여덟째, 당신이 결혼하여 부인을 얻은 것은 사제로서 잘못이 아닌가-“나는 결혼하지 않고서 부도덕한 생활을 하는 수도사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다. 결혼제도는 하나님이 친히 세운 제도이다.”

아홉째, 한 나라의 국민으로 전쟁을 반대하는 이유는-“로마 카톨릭 교회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터키인을 죽여야만 평화가 온다고 했다. 그러나 성도는 전쟁이 없이도 이미 평화를 소유하고 있다.”

여기 새틀러야말로 그 당시 재침례교도들이 무엇을 믿었는가를 확실

하게 보여준 최상급의 증언자였다. 이 새틀러는 진실한 신앙 때문에 부정직한 신자들에 의해 순교를 당했다.

2) 발타사르 후브마이어(Balthasar Hubmaier, 1485-1528)

① 그의 생애와 교육

후브마이어는 아우구스부르크에서 5마일 떨어진 바바리아(Bavaria)에서 가난한 조각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프라이부르크(Freiburg) 대학에서 B.A.와 M.A. 학위를 받았다.

그의 생활이 너무 신실하고 순결함으로 친구들은 그에게 의학공부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는 잉골슈타트 대학에서 28세의 젊은 나이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1513년 9월 29일).

후브마이어는 잉골슈타트 대학 교수가 되었다(1512-1516년). 그는 또 그 도시의 유명한 고등학교의 교장이 된다(1515년). 그리고 그는 레겐스부르크(Regensburg)의 주교좌 성당의 설교자이기도 했다(1516년).

그러나 후브마이어는 대학을 떠난다. 그 주된 원인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잉골슈타트 대학은 루터와 숙적인 요한 엑크가 있어서 그의 신학을 따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오스트리아 발트슈트(Waltshut) 지방에서 은거를 한다. 여기서 그는 비어있는 유대교 회당을 사용하며 강한 개혁적 설교를 한다. 이 무렵 너무도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수도승들은 폭동을 일으킨다.

후브마이어는 개혁정신을 가진 에라스무스, 글라레안(Glarean) 등을 만나 교제를 나누었으나 그들은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 그래서 취리히의 쾰빙글리를 찾아간다. 그는 거기서 10월 논쟁을 목격한다. 논쟁을

목격한 후 자기 소신을 밝히는 18개항의 논문을 발표한다. 이때의 주요 내용은 중생, 미사, 의식, 성상, 의롭게 됨 등에 관한 논문이었다. 쾰빙글리는 후브마이어의 글을 보고 모조리 불태워 없앤다.

후브마이어는 쾰빙글리가 개혁의 의지는 강하나 신학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한다. 그래서 1525년 쾰빙글리와 재침례교도와의 논쟁 때 재침례교도 입장을 취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신자들을 위한 기독교 침례」(The Christian Baptism of Believers)라는 책을 발행한다. 이 책은 신앙고백이 선행되어야만 침례를 베풀 수 있다는 재침례교 입장을 밝힌 책이었다.

취리히 시 당국은 그를 즉시 체포하여 그의 주장을 철회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러나 후브마이어는 풀려나오자마자 이번에는 더 적극적인 설교를 하였다. 그가 1525년 4월 16일에는 3일 동안에 300여 명의 회개자를 만들고, 그들 모두에게 침례를 실시하였다. 이때 사용한 침례도구는 소 젓통(milk pail)이었다.

후브마이어가 다시 체포되어 그의 주장 철회를 강요당하자 취리히 시민들은 쾰빙글리의 비접함을 질타하였다.

후브마이어는 취리히를 떠나 콘스탄스, 아우구스부르크, 레겐스부르크 등을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방랑 설교자가 되었다. 그리고 모라비아 지방의 니콜스부르크(Nikolsburg)에 자리를 잡는다. 여기서 그는 1526-1527년 1년 사이에 1,200명의 회개 결심자를 낸다. 이때 주로 루터파 교인들을 재침례교도로 개종케 하였다.

함스부르크 정부에서는 이제까지 평화롭기만 하던 자기들의 영토 내에 종교적 혼란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다. 게다가 쾰빙글리는 모라비아 영주들에게 후브마이어는 광신적 공산주의 선동자라고 사주하여 그를 체포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고 한다. 순진한 리히텐슈타인

(Liechtenstein) 영주들은 후브마이어를 체포하여 페르디난드 공의 관리들에게 넘겨준다.

후브마이어는 관리들에게 체포되어 1528년 3월 10일에 비엔나 교외에서 화형을 당한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다뉴브 강에 빠트려 익사당했다. 이때 비엔나에서만 105명의 재침례교도들이 극형으로 처형을 당한다.

② 그의 신앙

후브마이어의 재침례교 사역은 불과 3년(1525-1528)밖에 되지 않는다. 그가 좀더 오래 활동을 했더라면 침례교의 역사는 다르게 기록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신앙은 그가 남긴 작품에 의해 관측된다.

첫째,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이다.

둘째,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셋째, 침례는 반드시 회개에 의한 거듭남과 하나님께 순종하여 새 사람, 새 생활을 할 자에게 준다.

넷째, 주의 만찬은 잔과 떡을 함께 쥐야 하며 구원받은 성도에게 기념의 만찬이 되도록 한다.

다섯째, 목사는 제사장(중보자)이 아니라 복음 전파자이다.

여섯째, 교회는 국가와 분리되어야 한다.

일곱째, 믿는 자의 대체사장권은 개인적 특권이다.

여덟째, 교회훈령이 필요하다.

3) 한스 덴크(Hans Denck, 1495-1527)

한스 덴크는 저명한 인문주의자로 바젤의 '에라스무스 모임'의 일원이었다. 그는 1523년 뉘른베르크에 있는 '세발두스(Sebaldus)' 학교의

교장이었다.

1524년 말에 그는 이단으로 고소되어 도시에서 쫓겨나는 추방형을 당했다. 이후로 뎅크는 떠돌아다니는 전도자가 되었다.

그의 가르침은 신비주의적 색채를 짙게 나타냈다. 그는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본성의 빛, 즉 내적인 말씀(Inner Word)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것에 의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길을 충실하게 견도록 지도했다. 뎅크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수천 명이 침례를 받았다.

이들의 믿음을 보면, 사랑, 믿음, 그리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박아야 한다는 것이며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와 겸손을 나타낼 것, 이웃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것, 빌려주기, 꾸어주기, 나눠주기 등으로 서로 도울 것, 혼자 독차지하지 말고 함께 공유할 것, 서로 형제로 부르는 것에 다른 것은 가르치지 말 것 등이었다.

이 뎅크는 1526년 8월에 재침례교 지도자들을 위한 집회를 소집하였다. 그런데 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들 국법 위반자로 다 처형을 당한다. 뎅크도 1527년에 처형을 당했다.

4) 한스 후트(Hans Hut, 1485-1527)

후트는 서적을 제본하고 판매하는 직업을 가진 자였다. 1526년 오순절 때 침례를 받고 설교자가 되었다. 그는 아우구스부르크 지방의 재침례교도들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가 니콜스부르크에서 일하고 있는 후브마이어나와 논쟁을 한 적이 있다. 후브마이어나는 자기와 자기 가족이 위험한 순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당방위로서 무력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여기에 반해 후트는 기독교인은 어떠한 폭력에 대해서도 절대 대항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했다.

한스 후트는 철두철미한 무저항 이론을 고집하였다. 후브마이어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분명하게 느낄 때에는 군인으로서는 전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후트는 기독교인은 칼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영적인 출교에만 관련해서 강권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싸우거나 살해를 해서는 안되므로 국가의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한스 후트는 1527년 니콜스부르크에서 체포를 당했다. 그런데 비엔나로 도주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후 서쪽으로 린즈, 멜크, 스테이어 지방을 순회하면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다.

그는 그리스도가 곧 재림하여 최후의 심판이 닥칠 것을 설교하였다. 그는 방종과 공산주의를 설교했다는 죄목으로 다시 체포되었다. 그는 아우구스부르크에서 투옥이 되어 있던 중 탈주를 기도하다가 살해를 당한다.

5) 그 외의 순수 신앙 운동가들

제이콥 후터(Jacob Hutter)는 모라비아의 니콜스부르크에서 비폭력 공동사회를 조직하였다. 대부분 공인이나 농부들로 이루어진 약 1만 5천 명의 형제단원을 약 80개 지역에 200명 정도로 나누어 공동 집단을 이루었다.

이들은 형제간의 사랑과 평등을 추구하였다. 또한 가난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에게 큰 관심을 쏟았다. 그래서 신약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고자 하였다. 그것이 자발적 공동생활인 후터 공동체들이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 정부에서는 1526년에 후터를 화형에 처한 후 후터 공동체를 강제 해산시켰다.

오늘 우리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국법의 보호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사실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 당시 국법은 이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국법 파괴자로 모두 처형당하게 된다.

한때 쾰링의 친구였던 스위스 사람 루드비히 헤처(Ludwig Hetzer, 1500-1529)는 인문주의로 수련을 쌓고 독일신학 등 신비 학문에 심취한 자였다.

이도 역시 취리히 재침례교에 연루되었다고 추방을 당한다. 그후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뎅크와 함께 구약의 예언서를 독일 말로 번역을 하였다. 그것이 발각되자 1529년 간통혐의로 처형을 시킨다.

(2) 사회 운동성향의 재침례교 운동

이제부터는 재침례운동에 대해 부정적이고 좋지 못한 인상을 남겼던 사람들을 살펴보자.

1) 토마스 뮌저(Thomas Münzer, 1490-1525)

뮌저가 과연 재침례교도였는가, 여기에 대한 유일한 근거로 그가 유아세례를 배격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도 재침례교도였다고 한다. 그가 재침례교도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장차 밝혀질 일이다.

① 그의 초기 생애

뮌저는 오스트리아 스톨부르크(Stolburg)에서 1490년에 태어났다. 그는 할레 대학 라이프찌히 대학,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 등 여러 곳에서 공부를 하였다. 그는 남을 설득하기도 잘 했지만, 선천적으로 과격하고 극단적인 것을 좋아하는 기질을 갖고 있었다.

② 그의 사역

그의 최초의 사역은 오스트리아 벤티츠에서 교구의 채플린

(chaplain)으로 출발한다. 그런데 그 역시 루터처럼 카톨릭의 화체설을 반대했으므로 다시 루터교 교구 안에 있는 쾰피카우의 루터교 목사가 된다.

쾰피카우에서 루터교 목사로 목회 도중 순수한 교회를 표방하며 루터교와 인연을 끊는다. 그리고 순수한 교회란 성령에 의한 혁명적 교회라고 선포한다. 그리고 세상 전쟁의 종식을 위해 다윗 왕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열광주의적 급진적 주장을 함으로 쾰피카우에서 추방을 당한다. 그는 뮐하우젠으로 도망을 간다. 거기서 그는 칼의 복음(Gospel of Sword)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칼의 복음이란 기독교가 이상적으로 실천해야 될 목표를 사회정화라고 하면서 이 목표를 위해서는 이에 이로, 칼에는 칼로라는 싸움을 통해 쟁취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런 그의 주장은 결국 가난한 농민들에게 잘 먹혀 들어갔다.

이 당시 유럽 전역은 10년을 주기로 해서 산발적인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 있던 때였다. 이런 상황에서 뮐쩌의 이같은 선동은 결국 시의회를 장악하게 된다. 이 무렵 스위스 재침례교도 지도자인 그레벨, 만츠 등이 뮐쩌의 잘못을 책망하고 시정하도록 한다.

그렇지만 뮐쩌는 그들의 말을 수용하지 않는다. 그는 계속해서 칼의 복음을 외쳤다. 그리고 지방에서 산발적인 농민들의 반란을 부추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여 그 유명한 농민전쟁은 1525년 5월부터 1526년까지 전 독일의 절반 가량을 휩쓸게 된다.

그후 뮐쩌는 국가에 체포되어 고문을 당한 후 사지가 찢기위 죽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해 사라졌다. 그 뒤부터 농민전쟁은 뮐쩌의 전쟁이라는 불명예가 따르게 된다.

③ 그에 대한 평가

우선 독일 사람들이 내린 뮌쩌의 평가는 무엇인가, 독일 사람들은 뮌쩌가 농민반란의 선동자라고 본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집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농민반란이 그 당시 유럽 각 국가의 전체적 흐름이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그 모든 농민 반란의 주모자가 일개 한 도시의 목사 혼자 힘으로 가능했을까 하는데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뮌쩌가 재침례교도였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독일의 제후들은 제1차 스페이에르(1526년) 의회에서 재침례교도에게 사형형을 내리도록 의결하였다.

그러나 뮌쩌가 과연 재침례교도였는가, 우리가 스위스나 독일의 순수 신앙 운동가들이나 화란에 있었던 재침례교도들과 비교해 볼 때 그는 순수한 재침례교도들과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었다. 그 차이란 다른 재침례교도들은 모든 궁극적인 권위의 근거를 오직 성경에만 두었다. 그런데 뮌쩌는 어떠한가, 그는 성경의 권위보다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계시를 성경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리고 또 큰 차이가 있다. 모든 재침례교도들은 그들이 비록 억울하게 추방을 당하고 극형에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무저항으로 묵묵히 순교를 당했다. 그 어느 누구도 시 정부나 국가를 대항하여 싸운 이가 없었다.

그런데 뮌쩌는 칼의 복음을 갖고 최전선에서 투쟁을 했다. 이런 점에서 큰 차이를 발견한다. 그렇지만 역사는 지금까지 뮌쩌가 농민전쟁의 주모자요, 재침례교도였다고 전해오고 있다.

특히 뮌쩌와 스위스 재침례교 지도자와의 연관성을 들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쩐지 석연치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어쩌면 이 당시 재침례교도들은 로마 카톨릭도 거부하고, 루터의 개혁도 거부하고,

쓰빙글리의 개혁도 거부하는 등 유럽사회에서 외로운 고아였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작용했을지도 모른다.

2) 뮌스터 왕국(Kingdom of Münster)

① 뮌스터의 개혁 시작

뮌스터라는 곳은 네덜란드 국경에서 얼마 되지 않는 베스트팔리아 지방의 도시이며, 한 교구의 이름이었다. 뮌스터는 독일령이었고, 이곳의 통치자는 로마 카톨릭의 주교였다. 이 주교는 독일제국의 제후였으며, 그는 종교만 아니라 세속 제후의 권한을 갖고 자신의 주권국을 통치하였다.

이 뮌스터 부서에는 모든 정부의 주요 직책을 카톨릭 성직자들이 다 맡고 있었다. 이곳에는 모든 세입과 세출에 따른 세금징수를 성직자들이 다 하였다. 따라서 이곳의 모든 땅은 성당에 소속된 부유한 참사들이 독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곳 시민들은 성직자들의 통치 아래 시달리며 살고 있었다.

시민들의 불만은 때때로 도시 반란의 형태로 분출되었다. 이러한 반란은 1525년, 1527년에 부유한 도시민이었던 베르나드 크니퍼돌링에 의해 등장하였다. 그리고 1529년에는 끔찍한 기근과 역병에 뒤따라 반란이 일어났다.

이 뮌스터 시에는 종교개혁의 바람이 늦게 불었다. 1529년 도시 성곽 밖의 성 모르시(St. Maurice) 교회 소속인 젊은 목사 베른하드 로트만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는 초기에 루터 사상에 매력을 느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설교했다. 뿐만 아니라 재침례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공동체 내에서의 가난한 대중을 위한 관심을 계속 강조하기도 했다. 이것이 화

근이 되어 그도 재침례주의자라는 오해를 받고 설교를 못하도록 저지당한다.

로트만은 유아세례를 반대함으로 카톨릭에서나 루터교 측에서 크게 신경을 쓰게 되었다. 그러나 로트만 자신이 공개적인 금욕생활과 자비를 넘치게 베풀었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은 빈부를 막론하고 막대했다.

그의 설교를 들은 이들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용서해 주었으며, 사람들은 로트만에게 많은 돈을 맡겨 구제에 사용하도록 했다. 로트만은 강압적인 공산주의를 말하지 않았으나 예루살렘의 원시 기독교를 가능한 따르려고 했다. 이렇게 되자 신앙으로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뮌스터로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② 멜키오르 호프만(Melchior Hofmann)의 예언

호프만은 스와비아 출신의 모피공(leather dresser)이었다. 그는 직업상 유럽 동부 및 라인할트를 왕래하였다. 그러다가 루터의 설교에 매력을 느끼고 루터교인이 되었다.

1529년 경에는 다시 쾰른으로 갔다. 거기서 그는 다니엘 12장에 관한 종말론적 주해서를 저술하고 각종 광기 어린 예언을 남발하였다. 그로 인해 쾰른으로부터 추방을 당했다.

그후 그는 스타라스부르크에 피신을 하였다. 여기서 재침례교로 알려진 카스파르 슈벡켄펠트(Caspar Schwenckfeldt, 1458-1543)에게 영향을 받으며 더욱 극단적인 예언을 하게 된다.

여기서 그는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결과 스타라스부르크가 마지막 날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때 그의 열정적 설교에 감동된 이들은 새 예루살렘의 꿈을 안고 스타라스부르크로 몰려들었다.

그리고 자기는 6개월 동안 투옥될 것이며, 그후에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가르쳤다. 스트라스부르크에서는 이 달감지 않은 자를 감옥에 가두고 1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게 하다가 죽고 만다.

그런데 그의 예언을 믿던 사람들이 그의 투옥까지는 실현되었으나 6개월 후 세상의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실망한다. 이때 호프만은 새 예루살렘은 스트라스부르크가 아니라 윈스터라는 주장을 하게 된다.

이 당시 윈스터는 한참 로트만의 개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을 때였다. 그런데다 호프만이 새 예루살렘은 윈스터라고 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다.

③ 윈스터 왕국의 주창자들

a. 얀 마티스(Jan Matthys)

마티스는 폴란드 출신의 제과공이었다. 그는 뭉짜가 세우려던 다윗 왕국을 자기가 세우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건설할 천년왕국을 위해서 택함받은 자들은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 칼을 휘둘러서라도 천년왕국을 예비해야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마티스의 예언에다가 감동적 설교가인 로트만이 합세하였다. 그리고 그 지방의 유지이며, 큰 직물상인 크넵퍼돌링크(Knipperdollinck)까지 가담함으로 이들 세력은 삼시간에 크게 확장되었다. 그래서 1,400명이 재침례를 받기도 했다.

이때 라이덴의 존(John of Leiden)이 도착한다. 존은 유명한 네덜란드의 사도 얀 북켈슨(Jan Bockelson)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다.

존은 당시 25세의 젊은이로 미남이요 구변이 능한 사람이었다. 그는 얀 마티스에 의해 재침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로서 열성적으로 전도한다. 그는 초신자의 열심으로 1534년 2월 8일에 크넵퍼돌링크와 윈스터 시가를 뛰어다니며 모든 이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전했

다. 이때 종교적 히스테리에 감염된 수많은 남녀들이 소리를 지르고 땅 위에 구르는 광태를 연출하였다.

바로 이런 여세로 그들은 시청과 시장을 장악하였다. 이때 놀란 중산층의 루터란들이 도시를 많이 떠나갔다. 그 대신 전국의 무산 대중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었다.

2월에는 완전히 재침례파로 구성된 시의회가 구성된다. 얀 마티스는 그곳에 남아 있던 카톨릭과 루터란 신자들을 추운 겨울에 성 밖으로 추방시킨다. 이곳을 떠나기를 거부하는 이들은 시장에서 대중이 보는 앞에서 다시 침례를 받아야만 하였다.

얀 마티스는 독재자의 위치에 올라 공포정치를 시작하였다. 모든 현금과 재산은 국가가 소유하게 되었으며, 모든 주택들은 항시 개방되어 공동 소유가 되었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서적들이 불태워지고 노동자들은 자기들 필요에 따라 현물로서 임금을 받았다. 병사들에게는 공동 식당에서 식사가 지급되었다.

바로 이러한 때 성 밖으로 물러간 주교의 군대들이 계속 성을 포위하고 자기 손에 들어오는 재침례교도들을 잡아 죽였다. 이때 얀 마티스는 구약의 기드온처럼 소수 정예의 군인들을 뽑아 주교의 군대와 싸우려 갔다. 이때 얀 마티스는 물론이고 모든 군대가 주교군에 의해 살해되고 만다. 이 얀 마티스의 사후에 라이덴의 존이 후계자로 계승한다.

b. 라이덴의 존(John of Leiden)

그는 네덜란드의 사도 얀 북켈슨(Jan Bockelson)으로 행세한다. 폴란드 지방의 한 시장과 농부출신 여자 사이에 서자로 태어난 존은 민중 선동가였을 뿐만 아니라 광기에 찬 과대망상가였다. 그는 5월 초 도시의 거리들을 나체로 질주하고 3일간에 걸쳐 입신(Trance) 상태에 들기도 하였다.

존은 권력을 장악한 뒤 시장 한복판에서 왕국을 통치하였다. 로트만은 여기서 '배상' '복수의 선포' 등을 작성한다. 그리고 그는 궁정 용변가로 임명되고 크넵퍼돌링크는 수상직을 맡았다.

존은 환상을 통해 일부 다처제를 수립하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마티스가 남긴 미모의 젊은 미망인을 비롯하여 15명의 여자를 거느렸다. 존은 아내들 중 하나를 여왕으로 임명했다.

1533년에 시작된 윈스터 왕국은 1535년 1월부터 반년만에 걸친 제국 군대와 싸움 끝에 드디어 6월 24일에 성이 무너지고 만다. 반년 동안 포위상태에서 성 안의 주민들은 벌레와 시체까지 파먹는 지경에 이르렀다.

존은 사로잡힌 채 서커스의 곰처럼 끌려다니며 구경거리가 된 후 1536년 1월에 크넵퍼돌링크와 함께 사형을 당하게 된다. 이때의 사형법은 쇠를 빨갱게 달구어 지저서 죽였다. 이들의 시체는 새장에 넣어 윈스터의 람베르트 교회 탑 위에도 매달아 놓았다.

윈스터의 생존한 주민들은 카톨릭에 합류하고 만다. 이로써 윈스터 왕국의 수치스런 이름은 독일 사회에서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 불쾌한 역사로 전해져 온다.

④ 윈스터 왕국에 대한 뒷 이야기

윈스터 왕국이 일부다처제를 실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에 대한 불쾌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러나 그들이 왜 그런 결과까지 가게 되었는가 하는 상황 인식도 함께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모든 기록은 윈스터 왕국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거기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증언이나 제국의 군대가 고문으로 인해 억지로 진술을 받은 고백서들을 중심해서 역사로 전해오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포위공격을 당하는 뮌스터의 재세례파. 카톨릭과 루터파의 연합군이 기성교회에 대한 재세례파의 위협을 없애버리고자 했다. 최후의 습격 후에 방어자들은 학살당했고, 지도자들은 잔혹한 고문으로 죽었다.

그런데 또 다른 자료는 뮌스터 왕국이 포위를 당해서 멸망당하기 몇 주일 전에 재침례자들의 생활을 기록한 문서가 발견되었다. 그것은

「뮌스터의 평 기독교인의 신앙과 삶의 고백」이라는 문헌이었다.

이 자료는 「Die Geschichtsquellen des Bisthums Munster」라는 책 2권 pp.445에 수록되어 있다.

이 문서는 자기네들을 중상모략하고 있는 원수들에 대한 답변 형식의 내용이었다. 그 내용을 보면 1534년 7월 어느 날 안 북켈슨이 로트만을 통해 12명의 장로들을 모이게 했다. 그곳에서 그는 일부다처제 실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말했다. 안 북켈슨은 뮌스터 성내 구성원이 남녀간에 큰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지적했다.

뮌스터 시는 전국에서 신앙의 도피처로 그곳을 찾아올 때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와 남편을 두고 온 부인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 당시는 남한 사람에게 여자 세 사람 꼴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으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 구약처럼 일부다처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관해 로트만과 다른 설교자들은 즉각 반대하였고, 이 문제로 8일간을 계속 토론하였다.

결국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 제도가 선포되었다. 성민들은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일부다처제가

선포된 후에도 그들의 생활은 여전히 순수했고, 도덕적으로 악화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안 복켈슨이었다. 그는 15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다. 이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복켈슨이 제일 좋아한 디바라라는 여인은 안 마티스의 젊은 미망인이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윈스터 지도자들의 딸로 그의 부모들이 성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거나 가까운 친척들이었다. 이들은 복켈슨의 그늘 아래 생활했으므로 모두 아내라고 하였다.

하여간 윈스터 왕국은 3년여 동안 영웅적으로 잘 지속되었다. 그런데 마지막 몇 달을 참지 못하고 일부다처제라는 것으로 명예를 더럽히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독일에서 재침례파라고 하면 농민전쟁을 일으킨 뮌쩌와 일부다처제로 윈스터 왕국을 건설하려다 망한 언짢은 역사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인식을 하게 되었다.

3. 화란의 재침례교 운동

윈스터에서 처참한 최후 사건을 치르고도 재침례교도의 운동은 고개를 숙일 줄 몰랐다. 화란에서는 메노 시몬스(Menno Simons)에 의해 흐트러진 재침례교 운동이 새롭게 시작된다. 이 메노 시몬스의 수고와 노력으로 근대의 모든 침례파 교회가 존속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화란에서 침례파 운동은 활발하였다. 이제 화란으로 눈길을 돌려 보자.

(1) 메노 시몬스(Menno Simons, 1496-1561)

1) 그의 생애와 개종

메노 시몬스는 네덜란드 지방에서 태어났다. 그는 사제교육을 받았다. 라틴말을 훌륭히 구사했으며, 회랍말도 배웠다. 그리고 1524년에는 카톨릭 사제로 임직되었다. 그가 임직을 받은 지 1년 후 미사의 효력에 대해 의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는 이때부터 루터의 작품들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고향인 서 프리즈란드(West Friesland)에서 한 침례파 성도가 경건하고 장엄하게 순교의 처형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 광경을 지켜본 메노 시몬스는 자기의 경우 죽는 순간 그렇게 될 수 있을 까에 대한 깊은 충격을 받게 되었다. 그때부터 성경을 좀더 원어에 접근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메노 시몬스는 스스로 공부하면서 자기가 카톨릭의 사제로 있었지만 유아세례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회의와 의문을 갖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들자 그가 한때 관심을 가져보려 했던 루터파에 대한 기대도, 쾰빙글리나 칼빈의 이론에도 모순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자기 나름대로 침례는 오직 믿는 자의 성인 침례만이 성서적 권위를 갖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윈스터 왕국에서 보여준 것 같은 열광적인 재침례파들을 옹호한 것은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뭉쳐처럼 무력을 사용하는 폭력적 행동도 반대했다. 그래서 그는 행동의 결단을 못 내리고 그냥 사제로 머물러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사제의 직분을 갖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자신이 온갖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웅적 삶을 살았던 재침례파에 비해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러던 그가 1536년 1월 30일 공개적으로 로마 카톨릭교회 사제직을 철회한다고 선포하였다.

그는 카톨릭에서 떠나는 표시로 옴베 필립스(Obbe Pillips)에게 다시 침례를 받았다.

필립스는 호프만의 영향으로 재침례교도가 된 사람이었다. 메노 시몬스는 얀 마티스에 의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의 오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성서연구를 더 많이 하였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자기가 과거의 인연을 끊음으로 해서 많은 핍박이 따를 것도 깊이 각오하고 있었다.

2) 메노 시몬스의 사역

1536년부터 시몬스는 화란 재침례교 연맹(Dutch Anabaptist Fellowship)에 가입하였다. 그는 4가지 성격의 목회지침을 마련하였다.

① 개교회 자치교회

메노 시몬스가 개혁교회들을 관찰해 볼 때 그들은 모두가 국가에 연관을 갖고 있었다. 루터교회는 루터파 제후들과 연대해서 개혁을 하고 있었고 쾰빙글리나 칼빈 역시 시의회라는 정치세력과 연대해서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런 모습들이 좋은 점도 있었지만 교회가 국가의 지원을 받을 때 본래의 교회 모습을 성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교회는 국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개교회 중심의 목회를 천명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개교회 조직만이 성경적이고, 신약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었다.

② 자발적인 교회

메노 시몬스는 국가 교회가 강요하기 때문에 따른다든가, 교회 조직

의 힘으로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 행위를 갖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것은 순수한 신앙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중생한 사람이 성령에 인도되어 자발적인 평화와 봉사 생활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다.

③ 분리주의 삶

메노 시몬스는 평범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이전과 다른 삶으로 변화될 것을 주장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닌 세상 모든 곳에서 성별된 삶을 나타내 보일 것을 요청했다. 그는 맹세하는 것, 병역 의무, 세속 정부의 참여 등을 거절했다.

④ 성경연구 중심의 목회활동

메노 시몬스는 자기 자신이 성경연구를 깊이 했음은 물론이고, 모든 성도로 하여금 성경 연구를 생활화 하도록 독려했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사역은 재침례교라 하지 않고 사람들은 메노가 이끄는 무리라는 뜻으로 메노나이트(Mennonite)라고 하였다. 이같은 그의 신조는 기본 교리서(Book of Fundamentals)에 잘 요약되어 있다. 이 교리서는 후에 1539년에 출판되었다.

그는 이미 죽음의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네덜란드와 독일을 왕래하며 핍박을 겪어야만 했다. 그는 독일로 가면 카톨릭과 루터교의 위협을 당해야 했다. 왜냐하면 독일에서는 재침례교도는 체포하여 사형시키도록 의회에서 국법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화란 역시 독일의 법이 적용됨으로 어디를 가든지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다.

시몬스는 마침내 덴마크의 홀스타인(Holstein) 지방의 한 귀족의 영토 안에서 안주하게 된다. 그 영토의 주인인 덴마크 귀족은 재침례교도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담대하고 영광스럽게 죽는 모습에 크게 감명을

받았었다. 그래서 메노 시몬스를 보호하였다. 메노 시몬스는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다. 그는 계속해서 네덜란드와 독일을 왕래하며 선교 활동을 하였다.

3) 메노 시몬스의 공헌

그가 죽을 무렵 그는 광범위한 저술들을 남겨 놓았다. 그리고 그는 뛰어난 재침례교 지도자로서 여러 면에서 공헌한 바가 많다.

① 네덜란드와 북부 독일에 재침례교 신앙을 뿌리 내리도록 하였다.

네덜란드는 상당히 많은 수의 침례교를 확산시켰다. 영국에서 종교의 핍박으로 화란에 피신해 지내던 사람들이 훗날 영국 침례교의 조상이 된다.

② 메노나이트를 세계로 수출하였다.

핍박을 받아도 무력으로 저항하기를 거부하는 메노파는 스위스로 남부 러시아로 흩어졌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관용적이었던 미국 펜실베이니아로 건너갔고, 남아메리카까지 정착하였다. 그래서 메노나이트는 20여 개의 상이한 분파가 있으나 지금 세계적으로 100여만 이상의 신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

③ 메노나이트는 좋은 사회봉사로 인식을 남겼다.

메노파는 어디를 가도 근면하고 절약의 모범을 보이면서 특히 많은 사회봉사를 통해 많은 이들의 찬사와 존경을 받게 되었다.

④ 국가와 종교의 분리라는 현대적 원칙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 공헌을 하였다.

루터교회나 개혁신교회는 국가 정치가들과 연합을 해서 자기 교파를 형성하였다. 그렇지만 메노나이트들은 결코 국가와 함께 공동보조를 취하지 않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종교는 국가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⑤ 개인종교의 자유라는 원칙을 이룩하였다.

루터파는 개인의 신앙이 자기 자유의사에 의해 선택되지 않았다. 자가 살고 있는 영주의 신앙을 따라 자기 신앙도 동화되어야 했다. 개혁교회는 시의회라는 정부가 정한 종교를 시민들은 무조건 따라야만 했다. 그렇지만 메노나이트들은 국가가 추방하고 극형에 처한다 해도 자기 개인의 신앙은 자기 개인이 선택해야 된다는 신앙의 자유를 순교를 통해 증명해 보였다.

이렇게 개인종교의 자유의 원칙은 그후 미국의 헌법과 민주주의와 프랑스 혁명을 통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들이 민주주의 나라에서 국가의 제재 없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은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천만이 넘는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간 희생의 결과인 것이다.

⑥ 메노파들은 세족식(Footwashing)이라는 관습을 남겼다.

이제까지 스위스, 독일, 화란의 재침례교 운동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개혁교회들과 재침례교가 어떻게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르고 어떤 점이 서로 비슷한가를 비교해 보겠다.

4. 개혁신학과 재침례교도와의 유사점과 차이점

(1) 유사점

- 1) 성경을 최종 권위로 인정
- 2) 삼위일체 신앙
- 3) 믿음으로 의롭게 됨
- 4) 만인 제사장 신앙

- 5) 가정생활의 재건(독신주의를 배격하는 점)
- 6) 교황의 무오성 거부
- 7) 성경 해석의 자율성 보장
- 8) 로마 카톨릭 교회만이 우주적 유일교회라는 주장 반대
- 9) 연옥설 거부
- 10) 정부의 권위를 인정(카톨릭은 자기들이 지배해야 된다고 함)

(2) 차이점

- 1) 주의 만찬에 대한 견해의 차
 루터교-동체설
 쾰빙글리-상징설
 칼빈-현현설
 재침례교-기념설
- 2) 세례(침례)에 대한 견해의 차
 루터교-세례로 중생
 쾰빙글리와 칼빈-세례는 중생됨의 상징
 재침례교-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한다는 신앙고백적 선언(롬 6:1-6)
- 3) 세례, 또는 침례식의 형태
 카톨릭, 루터교, 개혁교회-세례, 즉 살수(Sprinkling)
 재침례교-침례, 즉 침수(Immersion)
- 4)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루터교-국교
 쾰빙글리, 칼빈-국가와 연합

재침례교-국가와 분리

5) 교회 행정

루터교-감독 정치

쯔빙글리, 칼빈-위임 정치

재침례교-회중 정치

6) 교회 회원의 기준

개혁교회들-세례받은 자

재침례교-중생한 자

7) 교회생활

개혁교회들-열심있는 출석

재침례교-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체험

8) 봉사생활

개혁교회들-의무사항

재침례교-자발적인 순종과 헌신

이렇게 볼 때 재침례교도들은 다같은 개혁 교도들이 아니었다. 개혁파(칼빈과 쯔빙글리)에서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재개혁한다는 뜻에서 개혁교리를 강조하며, 개혁파라고 부른다.

그러나 재침례파는 루터파, 개혁파 이상의 개혁을 하여 성경적 신약 교회로 돌아갈 때까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재침례교도의 이상과 정신을 이어받은 침례교회들은 자기들이 개혁교파 중에 하나가 아닌 것임을 주장한다.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의 역사적 사실들이 증명하고 있다.

재침례교도들이라고 해서 왜 오래 살고 싶지 않았겠는가, 그들도 루

터파나 개혁교회들처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기가 믿는 바 성경의 진리가 그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고초를 다 당했다.

그들은 그렇게 고초를 당하면서도 전혀 의심이 없었다. 그 까닭은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삶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들도 과거 지나간 역사를 배우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의식과 자세를 깊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꼭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잘못 살아간다면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가 과거 여러 선배들을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를 평가할 것이다.

제 8 장

칼빈의 개혁



오늘날 개신교의 신학을 집대성한 인물은 의심할 여지없이 칼빈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은 종교개혁을 했던 모든 사람들의 신학을 잘 다듬고 정리해서 체계화시켜 놓은 사람이다.

칼빈은 루터보다 한 세대 늦게 태어났다. 칼빈이 갓 태어났을 때 루터는 이미 수도원에서 4년 동안 번뇌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루터가 95개 신조문을 발표했을 때 칼빈은 여덟 살이었다. 이렇게 뒤늦게 태어난 칼빈은 이미 앞서 이룩해놓은 여러 선배들의 사상과 체험들을 충분히 다듬을 수 있었다.

칼빈은 자신의 뛰어난 실력과 천부적 기질로서 과거 교부들의 신학과 개혁자들의 신학, 그리고 자기의 것을 다 용해해서 종합적인 신학을 만들어 놓았다. 칼빈은 루터적인 것과 쾰링거적인 것이 서로 차이가 있을 때는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리고 비단 개혁자들 것만이 아니라 다른 지도자들(스트라스부르크의 부처같은 사람이나 파렐같은 이)에게서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도 채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신학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까닭으로 그의 신학은 개신교 모두에게 다 적합하였다.

그리고 칼빈신학의 독창적인 면도 있다. 예컨대 루터는 칭의의 깊은 교리(The Doctrine of Justification)를 발견하였다. 그런데 루터는 너무나도 오랜 번민과 고통을 통하여 발견한 진리였기 때문에 항상 이 교

리가 그의 신학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칼빈은 칭의의 교리를 수용하고 난 뒤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칼빈은 성화론(The Doctrine of Sanctification)을 발전시켰다. 물론 칼빈에게서 종말론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루터는 막연하고 원리적인 것을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칼빈은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이 문제를 다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루터도 필요했고, 칼빈도 필요했다. 칼빈이 다루지 않았던 영화의 교리(The Doctrine of Glorification)는 후대에 다른 이가 완성해야 될 과제로 남겨진 것이다.

분명히 칼빈은 위대한 학자였다. 오늘날 우리가 쉽게 누리고 있는 많은 신학적 깨우침은 그가 55세의 짧은 나이로 세상을 하직하면서까지 건강을 돌보지 않고 연구한 결과인 것이다.

우리는 칼빈의 인간적 약점과 실수도 알고 있다. 그도 역시 공로 못지 않게 실수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렇지만 그 실수 때문에 그의 공로가 더 돋보이는 것이다.

1. 칼빈의 초기 생애

(1) 유년시절

칼빈은 1509년 7월 10일에 출생하였다. 그가 태어난 곳은 프랑스 파리의 북동부 피카르디(Picardy) 지방의 노용(Noyon)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제랄드 코뱅(Gerald Cauvin)이었고, 어머니는 잔느 라 프랑스(Jeanne la France)였다.

칼빈(Calvin)이라는 성은 그가 프랑스인이었기 때문에 라틴말로

Calvinus였고, 영어로 Calvin이라고 한다. 그의 불어 본명은 장 코뱅 (Jean Cauvin)이었다.

칼빈은 4남2녀의 가정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제랄드는 자기 아들을 귀족처럼 자라게 해주고 싶었다. 제랄드는 그의 조상들이 오이제 강의 뱃사공으로 비천한 가문이었다는 것을 모면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칼빈의 아버지 제랄드는 직업이 소송 대리인으로서 당시 노용 성당 참사회의 공증인 직을 맡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 상위권에 속하는 안정된 집안이었다.

칼빈이 태어난 곳은 성당의 그림자가 받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제랄드는 자기 아들이 예외범절이 바른 프랑스 귀족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칼빈은 어려서 드 몽트모르(De Montmor)라는 귀족의 집에 기거하도록 하면서 그 집에서 항상 격식있고 세련된 프랑스 신사로서의 체모를 갖추도록 배려하였다. 칼빈의 부친은 일찍부터 자녀교육에 큰 관심을 갖고 투자하였다.

(2) 칼빈의 교육

칼빈의 아버지 제랄드는 자신이 성당 참사회 공증인 직에 있었기 때문에 성당의 재정에 관해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래서 칼빈이 겨우 11살 되던 해에 성당에 부속된 '라 제시느(La Gesine)' 제단의 사제직(Chaplaincy)에 임명케 했다. 물론 안수는 받지 않았다. 그러나 사제를 표시하는 삭발식(tonsure)은 거행하였다.

제랄드가 이렇게 한 것은 성당에서 나오는 성직록의 재산이 사제에게 분배됨으로 여유있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당시의 관습대로 그의 부친은 성직록에서 나오는 봉록 일부를 아들 대신 미사를 집전할 대리인에게 떼어주고 나머지는 칼빈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젊은 칼빈은 1523년 14살 때 드 몽트모르 가문의 세 아들과 함께 파리로 유학을 가게 된다. 파리에서 19살 때까지 교육을 받는다. 칼빈은 이곳에서 자기 삼촌과 함께 살면서 '콜레지 라 마르세(College de la Marche)' 대학에 다녔다. 당시 라틴어의 최고 권위자이던 마투린 코르디에(Mathurin Cordier)에게서 라틴어를 배운다.

칼빈은 그후 보다 학술적이며, 종교적인 학교인 콜레지 드 몽테이유(College de Montaigu) 대학으로 전학하여 1527년까지 수학을 한다. 이때 교제한 친구들은 드 몽트모르의 삼형제와 프랑스 국왕의 주치의의 아들인 미셸과 니콜라스 콕(Michel and Nicholas cop)과 그들의 사촌 형제 피에르 로버트(Pierre Robert) 등이었다.

이들 학생 시절의 친구들이 평생동안 칼빈을 돕는다. 칼빈은 1527년에 고향 성당의 참사회에서 그의 학문의 진보를 이룩한 업적으로 포상을 받는다. 그것이 세인트 마야틴 드 마르트빌(St. Martin de Marteville)의 사제보로 임명 받은 것이다.

칼빈은 이 자리를 2년 후 노용에 가까운 폰 레벡크(Pont l' eveque)의 사제보 자리로 바꾸었다. 그는 아직 사제로 안수받지 않았으나 앞으로 사제가 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이 무렵(1528년) 드 몽테이유 대학을 떠난다.

1528년 3월 칼빈은 부친의 권유에 따라 오를레앙의 유명한 법과대학으로 전학을 한다. 칼빈의 아버지 제랄드 코벵은 심적 변화를 일으켜 아들에게 법과대학으로 전학을 하라고 권유한 듯 하다. 그는 자기가 일하고 있던 노용의 교직자와 말다툼을 하여 두 개의 유언집행 사건에 있어서 자기 주장을 꺾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였다. 그것이 결국 그가 1531년에 파문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는 사건이 되었다.

제랄드는 이와 같은 성당과의 불협화음으로 아들에게 장차 교회 내에

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희망이 상실됨을 알았다. 그래서 세속적 출세를 위해 그는 아들 칼빈에게 법률계에 투신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칼빈은 부친의 권유에 따라 오를레앙으로 가서 1년간 법률공부를 한다. 이 무렵 칼빈은 고전문학에 대한 인문주의 연구에 심취한다.

1529년 가을에는 이탈리아 출신의 법률학자 안드레아 알치아티(Andrea Alciati)에게서 교회법을 배우기 위해 '부르주(Bourgus)' 대학으로 옮긴다. 여기서 칼빈의 후계자인 테오도레 베제(Theodore de Beze)를 만난다.

1531년에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으로 혼자서 자신의 길을 개척해야 했다. 그는 아버지의 권유 때문에 법률공부하던 것을 이제는 자기 소원대로 저술가가 되는 길로 전환할 수 있었다. 그는 다시 파리의 콜레지 포르테(College Fortet)로 옮긴다. 여기서 인문주의자 교수들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였다. 이때 칼빈은 희랍어와 히브리어를 배운다.

1532년 4월에 칼빈은 갓 23세의 나이로 자비를 들어서 최초의 저서를 출판하였다. 그것은 세네카의(Seneca) 「데 클레멘티아」(De Clementia)(관용에 관하여)를 학문적으로 주석한 것이었다. 이 책은 상당히 현학적 내용의 책으로 칼빈의 박학한 지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 책에서 칼빈은 그 당시에 가능했던 모든 고전적 문헌을 총망라해서 자세하고 폭넓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55명의 라틴 저자들을 적절하게 인용하기도 했다. 이 책의 서문에서는 그 당시 프랑스 공공 재판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각종 형 집행의 부조리들을 과감하게 공격하였다. 그리고 참된 관용으로 프랑스 왕도 선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계몽조의 내용을 담았다.

세네카에 관한 저서를 출판한 후 다시 오를레앙 지방에 1년 정도 머물다가 1533년 10월에 다시 파리로 돌아온다.

(3) 칼빈의 개종

칼빈의 개종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 그 자신이 이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루터와는 달리 칼빈은 자기 자신의 영적 갈등에 관해 거의 글을 남기지 않았다.

다만 당시의 상황적 증거로 판단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추측할 따름이다. 1533년 10월에 파리로 돌아온 칼빈은 파리 시내 소규모의 개신교도 무리들의 모임에 가담한다. 그때 칼빈은 그 무리들 가운데서 복음주의 설교를 듣게 된다. 그 모임은 비밀리에 모이는 집회였다. 이때 무리들은 칼빈에게 성경을 해석해 달라는 부탁을 자주 하였다.

1534년 칼빈은 고향 노용으로 돌아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 마련해 주었던 교회 내의 모든 직분을 포기하였다. 당시 여기서 들어오는 것이 그의 전체 수입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단을 내린다.

칼빈에게는 니콜라스 콕(Nicholas Cop)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성 파르보(St. Barbe) 대학의 교수이며, 학장이었다. 학장은 재직 기간 중 매 년마다 대학에 보내는 메시지를 발표해야 했다. 콕은 친구인 칼빈에게 연설문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했다.

칼빈은 이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마 5:3)라는 주제의 ‘기독교 철학(Christian Philosophy)’을 전개하였다. 메시지의 내용은 복음주의적 진리를 대변한 것이었다.

‘마음이 비어 있는 가난한 사람이 믿음을 가져올 수 있다. 공적이거나 행위를 중히 여기면 마음에 자만이 생겨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요지였다. 칼빈은 이 메시지를 자신의 것과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사상을 접목시킨 것이었다.

이 연설문 발표 후 연설문의 저자를 국회 앞에 이단으로 고소하라는 왕실의 명령이 내려졌다. 한편 이 연설문의 저작자가 칼빈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칼빈은 파리를 떠나 이리 저리 피신을 해야 했다. 칼빈은 고향으로 내려갔다. 거기서 종교적 평화를 교란시킨 자라는 죄목으로 얼마 동안 투옥되었다.

칼빈은 석방되자마자 미사를 반박하는 글을 쓴다. 이 미사 반박문의 여파는 대단히 충격적이었다. 1534년 10월 18일 과격파 프로테스탄트들은 플래카드 사건(The Affair of the Placards)으로 폭발한다. 그들은 '교황 군주제 아래 실시되는 미사의 잘못된 사용에 관한 조문'으로 시작되는 벽보들을 파리 및 다른 도시에 붙이게 하였다. 이에 분개한 프랑스 왕 프랜시스 1세는 수백 명의 프로테스탄트들을 투옥하고 이중 35명의 개신교도들을 처형시켰다. 그리고 프랑스 내 모든 이단들을 섬멸하겠다는 칙령을 반포하였다. 이때 칼빈의 친형제 하나가 처형되었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칼빈의 개종은 1533년에서 1534년 사이로 추측이 된다.

2. 칼빈의 사역

(1) 제네바 이전

칼빈은 프랑스에서 전개되는 개신교에 대한 핍박을 보며 프랑스를 떠돌아 다니다가 1535년 바젤로 도피한다. 바젤에 머물면서 「기독교 강요」(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의 저술을 서둘렀다.

이때 칼빈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를 말할 때, 자기 동생의 처형 당함이크게 작용했다고 했다. 칼빈에게는 형과 두 남동생, 그리고 여동생 둘이 있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실 때에 너무나도 값진 내 동생의 죽음의 의미를 의롭지 못한 자들 앞에서 옹호하며 또한 똑같은 위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놓여 있으므로 이들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칼빈은 이 책을 국왕 프란시스 1세에게 헌정하였다. 그리고 프랑스 왕이 개신교도들을 잘못 이해하고, 추방하고, 처형시킨 사실이 개신교에 대한 잘못된 견해라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왕이 계속 의로운 무리들을 박해할 경우 하나님께서 직접 복수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와 같은 동기에서 칼빈은 겨우 26세의 젊은 나이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다. 칼빈은 여기서 간결한 문장으로 개신교의 신앙 내용을 밝히려려고 했다. 그의 의도는 개신교의 신앙과 중세 교회의 가르침 사이를 과감하게 비교해서 설명하였다.

칼빈은 서방 기독교 전체가 다같이 숭상하는 신앙고백, 즉 사도신경(Apostle's Creed)을 표준으로 삼고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보다 훨씬 더 참된 정통주의(Catholics)임을 증명하려고 했다.

「기독교 강요」는 이렇게 해서 시작된다.

칼빈은 이 책을 1536년 바젤에서 초판을 발행한다. 초판은 전체가 140페이지의 6장으로 구성되었다. 이 책은 작은 크기로서 그 당시 흔히 사용되던 포켓용 정도였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제1장-율법(10계명의 해설), 제2장-신앙(사도신경 해설), 제3장-기도(주기도문 강해), 제4장-성례(세례와 성만찬), 제5장-잘못된 성례들(견신례, 고해, 도유, 서품, 결혼), 제6장-기독교인의 자유, 교권, 시민으로서의 자유.

이 책은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새로 입교한 교인들을 교훈하기 위한 교재의 역할을 하였다. 칼빈은 이 책을 일생 동안 여섯 번에 걸쳐 보완하고 개정하여 완성시킨다. 즉, 처음 6장으로 된 책이 마지막에는 4권 80장으로 이루어진다. 칼빈은 결국 「기독교 강요」를

일생 동안 쓴 셈이다.

칼빈은 이 책을 쓴 후 자기 동생 안톤과 여동생 마리를 데리고 스트라스부르크로 피신해 가던 도중 제네바에 들른다. 여기서 파렐에게 붙잡혀 그의 사역이 시작된다.

(2) 칼빈의 첫 제네바 사역(1535-1538)

칼빈은 「기독교 강요」 원고를 1535년 8월에 마무리를 하였다. 그런데 인쇄는 1536년 3월에 완성하였다. 그 뒤 이탈리아를 잠시 방문한다. 그리고는 자기의 꿈인 학문 연구의 삶을 위해 스트라스부르크로 향하고 있었다.

그가 이탈리아에서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던 길이 국부적인 전쟁으로 인해 지름길이 차단되어 있었으므로 제네바를 통해 가기로 하고 하룻밤을 제네바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런데 그 밤에 제네바 개혁자 파렐이 찾아와서 칼빈을 강제적으로 제네바 사역을 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칼빈이 사역하게 된 제네바라는 곳과 파렐이라는 인물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제네바(Geneva)

이 도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간의 서부 스위스 쪽에 위치하고 있다. 제네바는 레망(Leman) 호숫가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명목상으로는 신성 로마제국과 프랑스 왕국의 통치 아래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스위스 연방국의 국경 도시였다.

칼빈 당시 스위스는 13개의 칸톤이라는 자치주가 있었다. 제네바는 그 13개의 칸톤 중에 들지 못하는 소도시였다. 그러나 베른 칸톤과 인접

해 있으므로 베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이 도시는 오래 전부터 도시의 현장이 있었다. 1387년 선포된 도시 현장은 도시 성 안에 3개의 서로 다른 권위를 인정하였다. 하나는 도시의 군주 혹은 제후로서 주교가 있고, 두번째는 성의 소유자로서 백작이 있고, 마지막으로 자유 도시민이 있었다.

이 세 부류의 서로 다른 권위들은 복잡한 갈등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성의 소유자인 백작 가문은 백작직을 세습적으로 소유하였다.

사보이 가문의 백작은 백작이라고도 하고, 비둠네라고 불리면서 도시의 총독으로 가장 높은 사법관이었다.

시민들은 민주적으로 조직되었다. 시민들은 1년에 1회씩 공인된 시민 총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서 그들은 자기들을 다스릴 통치자와 대표자가 될 만한 4사람의 특별 평의원을 선출하였다. 이들 특별 평의원들은 주교와 비둠네에게 도시의 권익과 권리를 옹호하겠다는 직권 서약을 한다. 그리고 이들이 도시 행정을 총 책임지고 실무를 담당한다.

그런데 이들 세 부류의 분산적인 권위 당국자들은 삼각관계에서 갈등을 자주 빚었다. 일반적으로 보면 시민들과 주교가 연합해서 사보이 가문의 총독을 반대하는 편이었다. 이같은 전통이 1444년까지 이어져 왔다. 그런데 1444년 부터는 새로운 양상이 벌어진다.

그것은 사보이의 백작 아마데우스 8세(Amadeus VIII)가 교황에 선출되었으나 그는 은자가 되기 위해서 교황직을 버린다. 그리고 자신의 교황직을 사용해서 제네바의 주교직을 소유한다. 이렇게 하여 제네바의 주교직은 사보이 가문의 일원이 차지하게 된다.

이로써 제네바의 권위 체제는 셋에서 둘로 압축된다. 이렇게 되자 사보이 가문에서 총독직은 총독직대로 계승했고, 주교직 역시 세습적으로

계승하였다. 그러자 시민들의 권한이 점차로 무시되어 갔고 오랫동안 박해를 받아야만 했다.

이러한 박해 중에 제네바 시민들은 가까이 있는 스위스의 자치주로 눈을 돌린다. 그래서 자치주 중에서 인접한 프라이부르크와 베른과 제휴할 것을 요청한다. 그 결과 프라이부르크와는 1519년에, 베른과는 1526년에 동맹을 체결한다.

이들 두 개의 자치주들은 사보이 가문의 독재를 견제하려고 전쟁을 일으켜서 사보이 부대를 소멸시킨다. 그리고 연합군은 주교가 제네바의 군주직을 계속하되 총독의 권한은 크게 축소시켜 도시민의 특권을 존중한다는 것으로 협상한다(1530년 10월).

이날부터 제네바는 다른 자치주들의 모델을 따라서 조직된 200명의 의회, 혹은 시민 총회에 의해서 다스려졌다. 여기 200명 의회는 제네바 도시 전체의 중대사는 반드시 이 시 의회를 통과해야만 하였다.

예컨대 종교개혁을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라든가 면죄부 판매를 허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 시 의회 관장 권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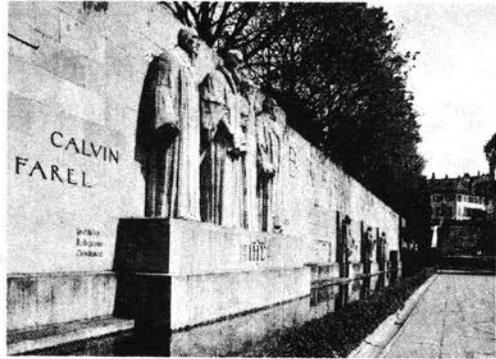
다음으로 25인으로 구성된 소 위원회(Little Council)가 있어서 일부 행정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총회에서는 4인의 평의원(Syndics)과 시 재정관(City treasurer)을 선출하였다.

이같은 제네바에 개혁의 바람을 몰고 온 사람이 있었다. 그는 파렐로 1532년 가을에 제네바 시의 가정집에서 개혁에 관한 설교를 하였다. 시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그와 그 친구들을 즉각 시외로 추방하였다.

2) 파렐(William Farel)

파렐은 프랑스 사람이었다. 그는 파리 왕실대학에서 공부를 한 후 르

모안(Le Moine)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베른 자치주의 설교자로 일하게 된다. 베른 자치주는 독일어 사용권의 스위스에 속했으나 프랑스어 사용 지역도 상당히 많았다.



파렐

파렐은 베른에서 1527년 3월부터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설교한다는 조건으로 설교자가 된다.

파렐은 베른 의회에서 복음 전도자로 인식되었다. 파렐은 호위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광범위한 설교여행을 한다. 그런데 로잔에 있는 카톨릭 주교는 파렐의 사상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를 추방하려 했다. 그러나 베른의 주민들은 주교를 쫓아내고 베른이 개신교로 바뀌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파렐은 서부 스위스의 프랑스어 사용권 지역에서 개신교의 지도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파렐이 1532년 가을에 제네바 시에서 설교를 했다가 추방당한 일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제네바에 대한 선교열을 식힐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기의 수제자인 프로망(Antoine Froment)을 제네바로 보냈다(1532년).

프로망은 제네바에 가서 프랑스어 교사로 둔갑하였다. 그는 광고(현 수막)를 통해 프랑스어를 읽고 쓰기를 배우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든지 오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의 가르침으로 학생들이 이익을 얻지 못한다면 수업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수업 내용에 복음주의

적 가르침을 뒤섞었다.

이로 인해 많은 개종자들을 이끌어 냈다. 이들 가운데는 영향력 있는 시민의 부인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었다. 복음주의자들의 숫자는 매일 같이 증가하였다. 이 무렵 제네바 의회는 매우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제네바의 최고 군주는 제후요, 주교가 최고 통치자였다. 그러나 제네바 시의 범법자 처벌 행정은 200인 회와 특별 평의원의 관장 사항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통치자는 명목뿐이었다. 주교는 물론 카톨릭으로 남아 있기를 원했다. 그런데 주민들은 점차 복음주의자가 늘어나고 있었다.

1534년 12월에 베른의회는 파렐을 제네바 의회로 파송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제네바 주교는 베른의회의 결정을 거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교는 제네바 전 시민에게 성경 읽는 것을 금지했으며, 모든 성경은 독일어든 프랑스어든 압수해서 소각하라고 명령하였다.

이같은 베른과 제네바와의 갈등은 더욱 확대되기만 했다. 드디어 1535년 6월에 파렐과 비레(Viret)는 장기간에 계속된 교리논쟁을 하였다. 여기서 파렐은 무능한 카톨릭 측의 대변자들을 물리친다. 그 해 8월에 파렐의 설교를 들은 제네바 시민들은 중앙 성당을 점유한다.

그리고 교회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창을 부수고 성자들의 조각들을 우물 속에 빠트려 버렸다. 이때부터 카톨릭 성직자들이 제네바를 떠나게 된다.

1536년 1월 개신교인 베른에서는 사보이 가문을 완전 격퇴시키고 이 도시를 독립시킨다. 그리고 1536년 5월 21일 스위스의 직접 민주정치에 따라 각 가족들의 남자 가장들이 대 성당에 모여 총회를 소집한다. 여기서 제네바는 복음주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다. 이것이 쾰빙글리가 취리히에서 실시한 바 있는 국가와 교회 형태의 제도이다.

개신교는 제네바 시가 수백년의 압제에서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개혁파 신앙이 확립되었다. 그렇지만 제네바에는 너무도 산적된 문제가 많았다. 그것은 전 시민에게 깔려 있는 부도덕성이었다. 과거 수백년 동안 방탕한 주교들의 독소와 난폭하고 부도덕한 성직자들의 파행은 도시의 도덕성을 무너뜨려 놓고 말았다.

새로 수립된 제네바 개혁을 위해 파렐은 온 정열을 다 쏟았다. 그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조직하였다. 그래서 도시 주민들의 도덕적인 생활에 불을 붙여주려고 갖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의 역량은 한계가 있었다.

그는 눈앞에 전개되는 미래에 집착하는 탁월한 지도자였으나 자제력이 부족했다. 그는 유식한 신학자였으나 이론 전개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계속 오해를 남겼다.

그는 조금도 사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개척자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내와 자식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69세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신앙을 위해 남편과 재산을 잃고서 겨우 목숨만 연명해 가는 가난한 과부를 만났다. 그는 이 과부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불쌍한 모녀에게 가정과 보호를 베풀어 주었다.

그는 자기 생애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하는 조국 프랑스로 돌아가서 개척자의 삶을 마무리 하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서는 제네바에 대한 개혁작업이 너무 힘에 넘치는 일이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찾고 있었다. 이런 순간에 칼빈이 제네바에서 도착해서 하룻밤을 묵고 간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때 파렐은 칼빈을 만나게 된다.

칼빈은 1536년 바젤에서 「기독교 강요」 초판 출판을 마치고 스트라스부르크로 가기 위해 제네바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

에도 그 하룻밤이 칼빈의 인생 계획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만다. 이때 파렐은 칼빈에게 제네바에 남아서 자기와 함께 개혁작업을 해 주기를 호소하였다.

그렇지만 칼빈은 자기가 학문 연구에 몰두하기 위한 계획을 이유로 거둬 사양했다. 파렐은 자기의 간청이 칼빈을 움직이는 데 별 효과가 없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칼빈을 향해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다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학문 연구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함을 선언하오. 당신이 만일 주의 사업이 이처럼 급박하게 요구되는 때에 우리와 함께 동참하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저주할 것이오. 왜냐하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고 당신 자신을 추구하기 때문이오.” 이와 같은 엄포에 칼빈은 많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그래서 칼빈은 파렐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제네바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

3) 칼빈의 제네바 사역

① 성경교사 칼빈

칼빈이 제네바에서 사역을 시작한 1536년은 그의 나이 27세였다. 그리고 파렐은 칼빈보다 20년 연상이었다. 칼빈을 제네바 시 의회 지도자들에게 소개하였으나 지도자들은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기는 듯 했다.

칼빈의 인상은 거만스러우면서도 창백한 얼굴에 검은 머리털을 가진 연약한 청년 사상가 정도로 인식되었다.

파렐은 칼빈이 목회자직을 갖기 원했으나 그는 학문을 가르치는 교수로 활동했다. 칼빈은 성 베드로 성당에서 바울서신들을 매일 가르쳤다. 칼빈은 제네바 시의 주민들에게 쉽게 강한 인상을 심어 주었다.



칼빈

이 무렵 칼빈에게 커다란 도전과 함께 그의 능력이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다. 그것은 1536년 10월 로잔느에서 가진 카톨릭 측과의 논쟁 사건이었다. 베른 자치주에서는 10월 첫째 주간 동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는 337명의 사제, 13개 수도원의 관계자들, 또 25명의 수도원장, 2명의 성당 참사회원들을 초청하였다. 여기서 파렐과 비레가 제시하는 10개의

복음주의 논제를 마음껏 논박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초청한 337명의 사제들 중 174명만 모습을 나타내고 그 가운데서 4명만이 토론에 참석하기로 했다가 한 사람만이 개신교와 논쟁에 맞서게 되었다.

이때 개신교측의 연사는 파렐과 비레였다. 칼빈은 단지 참석자로서 그곳에 있었을 뿐이다. 토론회는 로잔느 인근 주변 마을로부터 몰려온 수많은 주민들로 거대한 성당을 가득 메웠다. 토론회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되었다.

목요일이었다. 카톨릭의 한 사제가 세심하게 준비된 서류들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들은 옛 교부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데 개신교는 교부들을 경멸하고 등한시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개신교는 자기들의 권위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말로 공격을 하였다.

이때 칼빈이 일어섰다. 칼빈은 교부들의 글을 조금도 살펴보지 않고

교부들을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풍자적으로 꼬집었다. 그리고 그는 준비된 서류도 없이 교부들을 하나씩 인용하였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주제가 키프리안의 제2서신집과 제3서신집에 있는 내용이며… 터툴리안은 마르시온의 오류를… 논박했으며, 마태복음에 대한 불완전한 주석을 내린 장본인을 흔히 성 요한 크리소스툼이라고 하지만 그의 열한번째 설교의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으며… 성 어거스틴은 그의 23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으며… 어거스틴은 요한복음서에 대한 설교에서 그의 여덟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등으로 열거하였다.

이같은 사건이 있은 후 칼빈에 대한 시의원들의 시각은 전혀 새로워졌다. 그 후에 1537년 3월에는 재침례교도들과의 논쟁이 있었다. 이때에는 양측의 논쟁이 너무 쟁쟁했다.

그래서 제네바 200인 의회에서는 논쟁을 중지시키고 과격한 개혁을 주장하는 재침례교도들을 도시 밖으로 추방시킨다. 칼빈과 파렐은 재침례교도들과의 과격한 논쟁의 뒷마무리를 21개 조문을 작성함으로 끝을 낸다. 그래서 '신앙의 교훈과 고백(Instruction and Confession of Faith)'으로 발표한다.

② 교회의 조직과 예배에 관한 활동

칼빈이 제네바의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교회의 조직과 친근한 교육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교회 개혁안을 만들어 소의회를 통해 200인회로 전달하였다.

여기서 교회 예배와 의식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자. 이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네 가지 사항이었다. 그것은 주님의 거룩한 만찬, 공중예배에서의 찬양, 어린이의 종교교육, 결혼에 관한 문제였다. 이것을

좀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

a. 주의 만찬에 관한 사항

칼빈은 매 주일마다 성찬이 거행되는 것이 사도시대 교회의 관례였으므로 매 주마다 실시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카톨릭이 매주 미사로 성찬의 뜻을 혼탁시켜 놓았으므로 그대로 하기는 문제가 따른다고 보았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매 주일마다 설교가 행해지고 있는 세 교회, 즉 성 베드로, 성 제르베, 드 리브 교회에서 한 달에 한번씩만 성찬식을 집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불합당한 사람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출교에 관한 치리제도를 제시했다. 칼빈은 도시를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서 충분히 인정을 받을 만한 가치를 지닌 인물을 그 구역에 배치했다. 그는 그 구역 안에 사는 이들 중 공개적인 죄악생활을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손상시키는 이는 목회자에게 보고케 했고 목회자는 그런 자에게 만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경고에 따르지 않는 자는 출교를 시킨다는 규정을 하였다.

b. 회중의 찬양문제

교회 내 예배 때 찬양의 너무 갑작스런 변화는 곤란했다. 그래서 우선은 어린이들을 선발해서 회중 앞에 노래케 함으로 회중들이 따라 부르도록 하면서 점진적으로 익숙케 했다.

c. 어린이 종교교육

교리의 순수 보전을 위해서 어린이들에게 일찍부터 자신들의 신앙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교육시킨다. 그래서 간략한 요리 문답이나 1년 중 일정한 계절에 어린이들을 위한 요리문답 교육을 실시한다.

d. 결혼 규율

이것은 교황청이 악하고 비성경적인 법으로 곡해시켜 놓았으므로 추후 다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규범을 제정한다.

여기까지는 교회 행정에 관한 조항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이 조항은 소위원회에서나 200인 의회에서도 대체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말할 출교의 치리에 관한 문제였다. 이것 때문에 칼빈은 유명해졌고, 또 이것 때문에 칼빈 자신이 큰 시련을 당한다.

③ 제네바 교회의 규범

칼빈은 제네바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초기 3세기 동안까지 교회에서 지켜진 치리와 출교제도를 재 도입해야 된다고 했다.

칼빈은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난 그대로를 고집했다. 즉 어떤 이가 잘못을 범했을 경우 우선 형제의 사랑으로 권면한다. 그 후에도 개선의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에 알린다. 교회에서 공개했는데도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고질적인 상습자는 목사가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회중 가운데서 축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구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신자들의 도덕생활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이같은 출교와 치리제도를 200인 의회에서 결정시켜 주기를 바랬으나 의회는 오히려 칼빈에 대한 불평이 날로 강해졌다.

칼빈의 개혁에 반동적 경향을 보이던 반대파의 세력들이 그들의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수많은 제네바 시민들은 칼빈이 본래 프랑스인이라는 사실과 시내에 프랑스 난민들의 숫자가 증대되는 것에 반감을 품고 있었다.

여기에도가 로잔느(Lausanne)에서 목사직을 맡고 있던 피에르 카르디(Pierre Cardi)가 칼빈과 비렐을 중상모략하기 시작했다.

또 제네바 시의원 선출을 1538년 2월에 실시했는데 여기서 칼빈을 반대하던 대적들이 선거에서 승리하여 시 의회의 요직을 맡았다. 반대당 중에는 장 필립페(Jean Phillippe)가 지도자가 되어 개혁을 반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목사들이 시민의 도덕문제를 취급하는 것과 강제로 신앙고백을 시키는 것 등을 반대하였다.

한편 칼빈과 파렐을 배척하기로 소문이 나있던 사람이 4명의 특별 평의원으로 선출되어 이들은 시 의회와 시민들과 합세하여 그들을 비난하고 대적했다.

여기에도가 베른시 의회까지 칼빈을 곤란케 했다. 그것은 베른시 정부가 주동이 되어 예배와 성례의식의 규범을 만들고자 하였다. 베른시로서는 제네바가 주동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들은 모든 세례는 교회의 입구에 있는 돌 분수대에서 베풀 것이며, 성찬식에는 무교병을 사용할 것과 1년에 4차례의 종교축제일(성탄절, 신년, 수태고지, 승천일)을 연례적으로 지킬 것을 정하였다.

그리고 베른에서처럼 제네바에서도 그대로 따르기로 강요하였다. 칼빈과 파렐은 이러한 요구를 제네바 안에 받아들이기를 꺼려해서 유보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베른에서는 칼빈과 파렐이 자기들 결정을 따르지 않으므로 설교 정지를 명했다. 이때 제3자인 엘리 꼬로우(Elie Corout)에게 설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때 시 의회는 그를 구금시켰다.

칼빈과 파렐은 제네바 소위원회의 설교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1538년 부활절에 설교를 하였다. 이렇게 되자 200인 의회에서는 그 다음날 총회를 열었다. 그리고 앞으로 3일 이내에 칼빈과 파렐은 짐을 챙

겨서 제네바를 떠나도록 명했다.

칼빈은 이때 51일 동안 밤낮으로 겪었던 위협과 협박을 오랫동안 기억하였다. 그는 대로상에서도 모욕을 당했다. 어떤 난폭한 자는 칼빈을 론(Rhone) 강에 처 넣겠다고 협박을 했다.

200인 의회는 5월 26일 다시 총회로 모여서 목회자들을 다시 부르지 않기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세 사람의 설교자에 대한 추방령을 재 확인하였다. 세 사람의 목회자(파렐, 칼빈, 꼬로우)는 제네바 지경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모두 추방을 당한다.

(3) 스트라스부르크에서의 사역(1538-1541)

칼빈은 제네바를 개혁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3년 여간의 고투를 하였다. 그러나 쓰라린 상처만 안고 제네바를 떠나게 된다.

이때 파렐은 뉴사델 교회 목사로 초청이 되어 갔다. 칼빈은 바젤에 가서 은신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개혁을 주도하던 마틴 부처(Martin Bucer)가 칼빈을 초청한다. 스트라스부르크에는 약 400명의 프랑스 난민들이 있었다. 부처는 칼빈에게 그들을 위하여 목회를 해 달라고 부탁한다.

이곳 스트라스부르크는 어떤 곳인가. 지정학적으로 독일의 남 서부의 국경지대의 도시였다. 그래서 프랑스인이 정치적, 종교적 망명을 위해 피신을 하기는 아주 알맞는 곳이었다. 칼빈 역시 망명객으로 그가 목회하기에 걸맞는 도시였다.

칼빈 역시 전로부터 부처를 동경하고 있었으므로 그의 제의를 받아들인다. 그래서 1538년 9월 8일 난민교회에서 첫 설교를 시작함으로 그의 스트라스부르크에서의 사역이 시작된다. 칼빈은 부처의 온건주의와 프

로테스탄트의 연합에 대한 열망에 깊이 감동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부제의 목회 스타일과 프랑스어식 예배의식을 자기의 것으로 많이 도입한다. 이것이 훗날 칼빈주의 예배의식의 원형이 된다.

교회음악에 관하여 칼빈은 영창이나 오르간 음악보다는 시편을 찬송으로 부르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래서 그 자신이 18편의 시편을 골라서 음악에 맞춘 찬송을 편집하기도 하였다.

칼빈의 스트라스부르크의 사역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일주일에 4차례, 즉 주일 낮 2회, 밤 1회, 수요일 1회의 설교를 하였다. 그리고 당시에 명성을 떨치던 야콥 슈트름 중등학교에서 신학을 강의하기도 하였다. 또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였다.

여기서 다시 「기독교 강요」를 개정 보완한다(1539년). 그리고 「로마서 주석」을 집필하고, '주님의 성 만찬에 관한 논문(Tract on the Lord's Supper)'을 집필한다. 여기서 칼빈은 부제의 영향을 받았음이 역력히 드러난다.

즉 루터가 동체설로, 쯔빙글리가 상징설로 서로 의견이 달라 화합을 못했던 것은 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칼빈은 중도노선인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주장했다. 칼빈은 예물 위에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임재한다고 했다. 이것을 흔히 현현설이라고 한다.

그리고 칼빈은 개혁자로서도 활약한다. 1539년 찰스 5세가 개최한 프랑크 푸르트의 기독교 재 연합을 위한 회의에 부제와 함께 참석한다. 1541년에는 레겐스부르크 회의에도 참석한다. 여기서 멜랑톤과 깊이 사귀게 된다.

칼빈의 스트라스부르크의 생활은 매우 분주하고 유쾌하였다. 그는 음악가들과 시인의 협조를 얻어서 회중찬송을 만드는 즐거움을 누렸다.

칼빈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특히 기념될 만한 일이 있어 있게 된다.

그것은 1540년 8월 초순에 재침례교도였던 리제 출신의 과부 이델레트 드 뷔어와 결혼을 한 것이다. 그런데 그 과부는 전의 남편의 자녀를 셋이나 거느리고 있었다. 그리고 칼빈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난다. 그 아이는 1542년 7월 28일에 미처 달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났다가 며칠 후에 죽고 말았다.

루터가 전직 수녀를 취해 부인으로 맞아들였고, 쾰빙글리 역시 유력한 미망인을 아내로 맞이했었다. 그런데 칼빈은 가난하고 자녀가 셋이나 있는 미망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칼빈은 결혼조건으로 '겸손하고 소박하고 평범하고 인내심이 깊어야 하고, 내 건강을 돌볼수 있는 여자'를 원했다. 그래서 이델레트와 결혼했는데 그녀는 1549년에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먼저 사망한다. 그 이후로 칼빈은 혼자 지낸다.

다른 한편 목사들이 떠난 제네바는 어떠하였는가. 파렐과 칼빈을 추방시킨 제네바는 외적으로는 달라지지 않았다. 행정관들은 신앙 조항을 더 강화하는 조처를 내렸고 재침례자들, 교황주의자들을 정죄했다.

도시의 사치를 단속하는 법을 정하고 교회 훈련법을 범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정죄를 선포한다. 그리고 모든 가정들에게 교회 참석을 강요하였다. 이렇게 해서 종래의 생활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시 의회와 특별 평의원들은 새로 불러들인 목회자를 자신들의 종으로 취급하면서 자기네들이 교회 문제에 관해서 내린 모든 결정을 순순히 지킬 것을 강요했다. 그들은 신앙을 마치 정치적인 사무로 간주하였다. 이렇게 되자 도시의 도덕성은 날로 악화되어 갔다.

1539년 2월의 선거에서 특별 평의원들은 재선출되지 못했다. 이때부터 제네바 시 의회에서는 칼빈을 다시 모셔와야 한다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무렵 카톨릭 측에서는 다시 제네바를 차지하고자 하였다. 1539년 5월 카아펜트라스에 있던 추기경 야코포 사돌레토(Jacopo Sadoletto)가 제네바 시민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말하기를 “1500년간의 긴 역사를 가진 로마 카톨릭 교회에 비해 이제 25년 밖에 안 되는 개신교도 우리의 말은 위험 천만이다. 그동안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교회 회의들과 칙령들을 인도하셨다. 오랜 전통 위에 세워진 교회라야 권위가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든 새로운 말은 위험 천만이다. 그들에게는 신학도 없고, 전통도 없기 때문에 성서를 왜곡하여 해석함으로써 통일성이 없는 신교도들의 분쟁과 분파를 낳고 있다. 제네바 시민은 지금 위기에 접어들었다. 전체 교회와 운명을 같이하여 교회의 칙령을 따르든가, 아니면 분열과 계락을 일삼는 인간들을 따르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사돌레토 추기경의 편지를 받은 제네바로서는 대책이 없었다. 그래서 제네바는 편지를 베른시 의회로 이첩했다. 베른시 의회는 그 편지를 칼빈에게 넘기고 빠른 시일 안에 응답해 주도록 하였다. 칼빈은 그 편지의 응답을 엿새 동안에 작성해 보내줬다.

이 사건이 있는 후 제네바 시민의 여론은 더욱 더 칼빈에게로 쏠렸다. 그리고 제네바 시 의회 중 가움파(파렐을 지지하는 파를 이렇게 불렀다.)가 더욱 칼빈을 옹호했다.

1540년 1월 19일에 제네바 시 의회는 칼빈을 다시 초청하기로 결정한다. 즉, 200명 의회는 요한 칼빈 선생의 목회 수락을 얻어내기 위해 가능한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의결한다. 이 결정에 따라 루이 듀포(Louis Dufour)가 다시 제네바로 초청하는 서한을 갖고 스트라스부르크를 찾아간다.

편지를 받은 칼빈은 전에 받은 쓰라린 상처를 기억하고 현재 즐거운

사역장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다. 이때 파렐 목사가 또 벽력같이 칼빈에게 쏘아부쳤다. 제네바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이 함께 접하는 요지이므로 세계 선교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래서 칼빈은 이번에도 파렐에게 설득당하고 만다. 그리고 전에 칼빈을 대적해서 반대하던 장 필립페(Jean Philipe)는 살인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처형을 당한다.

이렇게 해서 1541년 9월 13일에 칼빈은 다시 제네바로 돌아온다. 제네바를 떠났다가 다시 3년만에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3년 전의 칼빈이 아니었다. 보다 원숙한 경지의 지도자로 다듬어져 있었다. 이렇게 해서 칼빈은 두번째 제네바 사역을 하게 된다.

3. 칼빈의 제2차 제네바 사역(1541-1564)

(I) 평온한 5년(1541-1546)

1) 제네바로 귀환

칼빈은 제네바를 떠난 지 3년 4개월만에 다시 제네바로 돌아온다. 이때 그의 나이는 32세였다. 그는 과거 파렐 밑의 조수가 아니라 책임적인 지도자로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며 귀환하였다.

칼빈이 제네바로 입성하는 날 칼빈은 과거 제네바 시 의회가 자기에 행한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자기는 제네바 시민의 종으로서 굳게 봉사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리고 모든 시민이 '교회 규범'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할 것과, 20일 이내로 교회 법규를 제정하되 자신을 시 의회의 고문역으로 보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1541년 9월 16일에 초안이 작성되어 소의회와 60명의 의

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명의 의회를 거쳐서 결정시켜 줄 것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해서 칼빈이 내놓은 '제네바 교회 규범'은 1541년 11월 20일 양 의회와 총회에서 인준되었다.

여기 말하는 '제네바 교회 규범(Ecclesiastical Ordinances of Geneva)'은 '교회에 관한 칙령'이라고도 한다.

이 교회 법규가 오늘날 장로교에서 말하는 당회 기능을 말한다. 그래서 1541년 11월 20일은 장로교가 탄생된 날이다. 오늘날 장로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날이다.

2) 교회 규범의 내용

칼빈은 여기서 교회 내 직분과 치리기관을 제시하였다.

① 교회 직분

칼빈은 교회 내의 직분을 4가지로 규정하였다.

a. 목사

목사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목양을 하는 목회자들이다. 목사의 자격 심사는 소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성직자회에서 시험하도록 하였다.

시험 방법은 첫째로, 후보자가 성경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해석 능력이 있는지, 전래된 신앙을 알고 있는지를 시험했다.

둘째로, 후보자의 걸음걸이와 대화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며, 또한 선생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여기서 사람들을 교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시험하였다.

셋째로, 교회 교인들로부터의 청빙으로 회중들 앞에서 설교 시험으로 인준 여부를 판가름하게 했다.

이상의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목회자들의 안수례에 의해서

엄숙하게 구별하여 세웠다.

b. 교사

칼빈이 목사와 교사를 구분한 것은 에베소서 4:11에 '목사와 교사'라는 말에 근거를 두었다고 한다. 교사의 직무는 매우 중요했다. 교사가 복음의 정통성을 잘 가르쳐야 했고, 건전한 교리 육성을 위해 신중해야 했다. 그래서 교사는 어학, 변증학, 철학, 과학 등에 상당한 식견을 요하는 교육을 거친 자라야 했다.

교사는 지원자가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목사회에서 재가를 받아서 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그는 진리의 훈련을 받은 후 시의원 두 사람의 보증을 받아야 했다.

c. 장로(the Elder of Presbyters)

칼빈은 디모데전서 5:17-18을 근거로 장로직을 부활시킨다고 했다. 장로제도는 구약 모세시대부터 초대교회 이전까지 계승되어 왔었다. 그런데 사도시대로부터 장로제도가 폐지되었다. 사도들은 자신들을 장로라고 했다.

그리고 기독교 1500년이 흐른 칼빈시대까지도 성직자들을 감독 또는 장로라고 불려왔다. 그런데 칼빈은 교회 정치와 행정의 효과를 위해서 다시 구약시대같은 장로제도가 부활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장로가 따로 구분되는 장로제도가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을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한다.

장로들은 목사들을 도와 신도들의 영적 문제를 관할하도록 했다. 장로 선택은 평신도들 가운데서 뛰어난 12명을 뽑아서 12명의 장로들을 두었다. 그리고 목사들과 장로들을 합하여 치리법원 또는 장로법원(governing consistory)을 조직하였다. 이 치리법원을 후에 당회(Presbytery)라고 하였다.

d. 집사(Deacons)

집사들은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돌아보고 구제와 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그리고 시 재정관은 봉급문제를, 시의원들은 각종 시설관리를 감독하도록 했다.

② 교회 치리기관—장로법원(Consistory System)

칼빈은 이전부터 줄기차게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치리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교회 치리기관으로 치리법원, 또는 장로들로 모이는 장로법원을 만들었다. 장로법원의 구성은 곧 당회가 되었다. 그래서 당회는 5명의 목사와 12명의 장로로 구성하였다. 평신도 장로 숫자가 더 많아도 당회는 항상 칼빈의 의견을 따랐다. 그런데 이 당회라는 장로법원과 시 의회와는 항상 갈등과 대립을 거듭하였다.

장로법원은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모였다. 이때 시정 실무자가 참석하여 한달 기간 중 경찰역할을 하는 이들로부터 제보가 들어온 것을 보고하도록 했다. 여기서 장로법원은 규정 위반자, 이단성 여부, 목사에 대한 반항 여부, 반 도덕적 윤리문제 등을 토의한다.

그래서 죄질이 경미할 때는 장로법원에서 처리하고, 죄질이 큰 것은 소위원회를 걸쳐 처결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최종 제재는 출교(excommunication)를 선고하고 시 정부로부터 시민권을 박탈하도록 했다.

이같은 장로법원이 교회의 영적인 문제가 아닌 일반 시민의 범죄까지 손에 미치자 시 의회로부터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칼빈은 양보하지 않았다.

칼빈은 그가 소유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주로 도덕적인 문제를 취급하는 장로법원을 사실상 주관하였다. 이 장로법원에서는 도시 내의 각종

부도덕한 사건을 감시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1542년 2월 16일자 장로법원의 회의록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하다.

한 여인은 카톨릭의 책 「성자들의 생애」라는 책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어서 출두했고 어느 이발사는 사제에게 삭발식을 해 주었다고 고소되었다. 어느 금속공은 미사에 쓸 잔을 만들어 주었다고 적발되었고 어떤 이는 교황을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가 적발되었으며 이러한 사소한 것들까지도 모두 재판을 하였다.

칼빈은 제네바 시민 1만 3천명을 주일날 모든 예배에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했다. 그 방법으로 제네바 시를 네 교구로 나누었다. 그래서 주일 낮에 3회의 예배를 실시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 세 번의 예배 중 한번의 예배라도 참석하면 그것은 문제가 안 되었다. 그러나 예배에 한 번이라도 참석하지 않으면 그는 장로법원에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강제적 공포 분위기는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계속해서 여기 저기서 불만과 반항이 터졌다. 칼빈은 그가 대학시절 법률을 공부했기 때문에 세속적인 문제들에 관해서도 시의원들과 평의원들의 자문에 응했다. 그래서 '치리법원'은 세속적인 문제도 다 취급했다. 마술, 이단, 간음, 신성모독, 난동 등 공공질서에 관한 모든 문제가 다 취급되었다.

어떤 시민은 자기 개를 칼빈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해서 감옥에 가기도 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좋은 일만 유지되진 않았다.

1543년 시 의회에서는 장로법원에서의 제명 동의권을 취소하도록 제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칼빈의 생애 중 또다시 험악한 시기가 찾아온다.

(2) 험악한 9년(1546-1555)

이 시기는 칼빈이 결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때이다. 칼빈의 사역이 1547년 12월 경에는 종지부를 찍는 것 같았다. 이 부분을 많은 개혁교회 관계자들은 생략해 버리거나 또는 미화시키는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칼빈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 약점들을 가졌다고 하는 데 우리가 더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칼빈을 너무 지나치게 미화일색으로 만든다면 그에게 가리워서 우리 주님이 숨겨지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크게 두 종류의 반대가 있었다.

1) 일반적인 반대

① 피에르 아모오(Pierr Ameux)

1546년 1월이었다. 트럼프 제조업자인 아모오는 제네바 200인회 의원이었다. 이 사람이 칼빈을 비난하고 나섰다. 그가 사업적으로 파산지경에 이른 개인적 문제도 있었지만 칼빈을 쓸데없이 시 정치에 간섭하는 내정 간섭자라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악당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자라고 하였다.

이때 장로법원에서는 아모오로 하여금 의회 석상에서 칼빈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다. 아모오가 자기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였으니 그 처벌 역시 공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모오에게 속옷만 입고(추운 겨울에) 양초를 켜둔 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시가를 행진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장로법원은 다시 칼빈이 바라는 대로 판결해야 했다. 이 일로 인해 모든 시민들은 칼빈에 대한 적개심을 갖기 시작했다.

② 그레이트(Gryet)

1546년 6월이었다. 목사들을 비방하는 글과 칼빈의 설교에 대한 시정을 요망하는 글이 성 피에르 교회의 강단 위에서 발견되었다. 그 글의 주모자가 누구인가, 칼빈은 의회로 하여금 그를 색출하도록 했다.

그래서 평소 회의주의에 빠져 있고, 불신양인의 서적을 휴대하고 다니던 그레이트를 의심하였다. 결국 이 자를 체포하여 고문하고 참수해 버렸다.

③ 프랭코스(Francois)

이 사람은 나이 70이 된 노인이었다. 그는 자기의 장수를 다른 이들과 더불어 즐기곤 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흥이 돋자 댄스를 허용하였다. 이것을 장로법원에서 알고는 그를 부도덕한 댄스 파티를 연 사람이라고 파문을 선고했다.

이때 시 의회에서는 그가 70 고령의 노인임을 참작하여 처벌을 완화해 주도록 칼빈에게 건의를 했다. 그러나 칼빈은 더욱 완강했다. 칼빈은 그 노인과 그 가족들까지도 처벌을 내렸다.

칼빈은 이 일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즉 전에 칼빈이 스트라스부르크에 있을 때 그를 후원하여 칼빈을 다시금 제네바로 귀환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 중에 아미 페린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페린은 1553년에 특별 평의원이 되었다.

그런데 칼빈이 처벌한 70 노인은 바로 이 페린의 장인이었다. 뿐만 아니라 칼빈은 페린의 아내와 사위까지도 치리하였다. 이렇게 되자 전에 칼빈을 좋아하던 페린이 이제는 칼빈을 대적하기 시작했다. 이 페린은 칼빈의 콧대를 꺾으려고 장로법원이 가진 파문권을 폐지하고 이를 다시 의회에서 소유하도록 주동하였다.

④ 헨리 2세(Henry II)

프랑스 왕 헨리 2세가 개신교도들을 핍박하였다. 그러자 제네바 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헨리 2세에게 불복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선포하였다.

이와 같이 칼빈을 반대하는 반대자와 대적자들이 수없이 늘어났다. 이 외에도 수많은 처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 처벌로 인해 4년 동안 58명이 처형을 당해 죽고 76명이 시외로 추방되었으나 기록되지 않은 것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2) 교리적인 반대

① 카스텔로(Sebastian Castellio)

카스텔로는 프랑스 마틴 시에서 출생하여, 리용대학에서 수학하였다. 이 카스텔로는 서로 다른 신앙을 용납하지 못하고 세르베투스를 처형한 칼빈의 행위를 비난하다가 수난을 당했다.

카스텔로는 1541년에는 칼빈과 함께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가르치기도 했다. 그런데 그는 그 당시 대다수가 좇던 견해를 따르지 않음으로 성직에는 임명을 받지 못하였다.

그는 「지식과 무지에 대한 의심과 확신의 기술에 관하여」(On the art of doubting and being sure, of knowing and being ignorant)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여기서 그는 지식을 얻는 근원으로 경험, 계시, 이성 세 가지가 있는데 처음 두 가지는 마지막 이성의 제어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이 칼빈에게는 계시도 인간의 이성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문제가 제기되었다.

칼빈은 성경은 이성의 도움 없이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했고, 카스텔

로는 성경을 믿되 무조건이 아닌 인간의 지식과 양식으로 검토된 후 믿는 것이 더 확고하다고 주장했다.

그후 1554년 칼빈은 「마이클 세르베투스의 과오에 대항한 정통 삼위일체 교리의 수호」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같은 해에 카스텔로는 「이단들에 관하여, 과연 그들이 박해를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과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저술했다. 이 책은 그후 133판을 거듭해 장기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책 속에서 카스텔로는 재침례교도들에 대한 핍박을 비난하였다.

“그들은 가련하게 참살당했다. 무기를 들고 대항하지 않는 자들까지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는가, 보다 잔인한 것은 책을 썼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살인하는 야만성은 영원까지 존속할 것이다.”고 하였다.

이런 글을 보고 칼빈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칼빈은 카스텔로가 솔로몬의 아가서에 대한 정경성을 의심하는 자요, 그리스도가 음부에 내려갔다는 전통적 신앙을 부인하는 자라고 고발하였다. 카스텔로는 이단으로 재판관을 받던 중 1556년에 사망하였다.

② 볼세크(Jerome Hermes Bolsec)

볼세크는 파리 태생으로 카멜라이트파 수도사였다. 그런데 볼세크는 자기 신앙에 회의를 품고 종교개혁에 공명하였다. 그래서 수도사직을 버리고 제네바에서 그리 멀지 않은 베이니 촌으로 도망을 갔다. 거기서 그는 의원을 개업하였다. 그러면서 칼빈과 친교를 나누었다.

볼세크는 의원 생활을 하면서 여가에 신학을 취미삼아 가끔 성직자 신학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성직자 토론회란 칼빈이 매주 금요일마다 목사들만 대상으로 신학과 목회에 관한 토론회를 실시한 것을 말한다.

볼세크가 성직자 토론회에서 방청하던 중 칼빈의 예정 교리가 난해한

것임을 표명하였다. 1551년 10월 16일 금요일 성직자 토론회가 있었다. 이때 볼세크는 예정론에 관해 이견을 제시하였다.

볼세크의 이론에 의하면 칼빈이 주장하는 예정론에 따르면 하나님은 죄의 저자가 된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어떤 이는 구원으로 선택하시고, 어떤 이는 형벌로 유기하신다면 하나님을 마치 전권을 휘두르는 독재자로 모시는 결과라고 하였다.

그리고 볼세크는 각 사람은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 개인적 신앙의 책임이 따르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여기에 대해 칼빈은 매우 불쾌하게 여기고 언성을 높여서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 등을 인용하면서 예정론 교리의 진실됨을 강조하였다.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칼빈은 볼세크가 악의로 남을 비방하는 이단이라는 죄목으로 소위원회에 고발을 하였다. 갑작스럽게 구속된 볼세크는 너무 당황했다. 그래서 볼세크는 제네바 시 의회는 칼빈이 장악하고 있으므로 다른 도시의 도움을 얻으려고 했다.

볼세크는 베른, 바젤, 취리히 등의 타 도시 개혁교회 목사들에게 자기 입장을 설명하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했다.

이때 대부분의 목사들은 내용보다는 볼세크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회답을 보내왔다. 그러나 칼빈은 그 회신들을 고려하지 않고 소위원회로 하여금 볼세크를 제네바에서 추방시켰다. 볼세크는 다시 프랑스 카톨릭으로 귀의하였다. 그리고 칼빈에게 복수라도 하듯 악랄한 험담에 가득 찬 전기를 남겼다. 이 전기는 1557년에 출판되었다.

③ 트롤리에트(Jean Trolliet)

전직 수도승이었던 트롤리에트는 제네바에 와서 다시 신학교육을 받고 1552년에 목사가 되었다. 그런데 트롤리에트 역시 칼빈의 예정론에

의의를 갖고 있었다. 그런 중에 불세크에 대한 편파적 재판을 보았다. 그래서 트롤리에트는 재판의 편중성에 대해 불평을 하였다.

칼빈은 이 사실을 1552년 6월에 소위원회에 고소하였다. 여기서 트롤리에트는 잘못을 사죄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다. 트롤리에트로 하여금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는 건전한 책이며, 전혀 논란할 필요가 없는 바른 교리의 책이라고 선포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칼빈은 사상적으로 온건하고 진실한 목사라는 것을 선언하도록 했다. 그런 후 트롤리에트를 목사직에서 파직시켰다.

④ 미카엘 세르베투스(Michael Servetus)

칼빈의 생애 중 가장 큰 실수로 거론되는 문제가 바로 세르베투스의 문제이다. 세르베투스는 스페인에서 왕실 공증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특출한 지적 능력을 받았으며, 원래 법학과 의학을 공부하였다. 그것도 만족하지 않아 유럽 전역을 돌아다녔다.

툴루즈(Toulouse), 볼로냐(Bologna), 바젤(Basel), 스트라스부르크, 파리, 리용 등 명문학교는 다 거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네바에서 최후를 마쳤다.

세르베투스는 프랑스의 툴루즈에서 법을 공부하는 동안 성경 속에서 나사렛 예수를 역사적 인물로 체험하게 되었다. 그의 이 감동적 체험이 신앙의 중심이요, 목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는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 등에 관한 정통적 교리에 관해 반기를 들었다.

그에 의하면, 삼위일체 교리의 위(persons), 본질(substance), 실체(essence) 등의 말은 성경적 용어가 아닌 헬라철학에서 나온 개념들을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덮어 씌운 것이라고 하였다.

이같은 용어들은 회랍의 철학적 용어인만큼 추상적이고, 사변적이며,

인위적인 것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였다. 이 이론은 잘못 설명될 때 머리 셋을 가진 지옥의 문지기 켈레페스를 연상하게 된다고 하였다.

당시 20세의 젊은 나이로 개혁가들(루터, 쾰링거, 부처 등)에게 자기 견해를 설득하고자 '삼위일체의 오류에 관하여(On the Errors of the Trinity)' 라는 논문을 발표한다(1531년).

그리고 자기 논문을 각 개혁자들에게 우송하였다. 그것은 개혁자들 모두로부터 강한 반대와 반발이 쏟아졌다. 루터는 사악한 책이라 하였고, 쾰링거는 악한 문서이므로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멜랑톤은 미숙한 글로 불완전한 표현이라고 했다. 카톨릭에서는 이단에 회부하여 처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이 책은 거의 모든 지방에서 정죄를 받고 유통이 금지되었다.

세르베투스스는 자신의 입장을 보다 명백히 밝히기 위해 1533년에 다시 「기독교의 복원」(The Restoration of Christianity)이라는 책을 썼다. 이 책은 양으로 보면 방대하지만 내용으로는 산만하였다.

이 책에서 세르베투스스는 참된 기독교의 교리는 성서에서 직접 찾아내야 하고, 역대 교회 회의에서 제정된 모든 교리들은 다 파기해야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재설, 유아세례, 의인의 교리, 인간의 완전타락 등을 모조리 부정하였다.

그리고 이 책 속에서 자기가 배운 의학 지식으로 폐의 혈액순환을 주장하였다. 만약 세르베투스스가 죽지 않았다면 현대 초기 생물학에서 개혁자의 위치를 차지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세르베투스스는 이 책 때문에 체포령이 내려진다. 그래서 그는 무슈 드 빌레뉴페(M.de Villeneuve)라는 가명으로 변장한 채 떠돌아다녀야 했다. 그러나 그는 비엔나에 들렀다가 체포되어 수감되었으나(1553년 4

월 4일) 다행히 담을 넘어 도주하였다.

한편 리용 시에서는 세르베투스가 없는 중에 궤석재판을 연다. 여기서 칼빈은 전에 세르베투스와 불쾌한 서면 논쟁을 했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세르베투스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공한다. 재판은 세르베투스를 분살형을 내리도록 하였다.

세르베투스는 사면초가의 위협을 피해 조용히 나폴리에 가서 병원을 개업하고자 하였다. 세르베투스는 나폴리로 가던 도중 제네바에 들르게 되었다. 이때 전에 칼빈과 서면논쟁을 통해 여러 번 교제를 나눈 적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그래서 몰래 칼빈의 설교를 들으려고 교회로 갔다. 그런데 그의 정체는 쉽게 드러나서 체포되고 만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영적 지도자로서 확고한 위치를 누리고 있을 때였으므로 세르베투스의 체포는 그의 오랜 숙적을 처치하는 데 절호의 기회였다. 칼빈은 그의 비서 폰테인을 고발자로 삼아 세르베투스를 투옥시켰다. 그의 죄목은 신성모독죄였다.

칼빈은 세르베투스를 2개월 13일 동안 지하실 감옥에 가두고 온갖 방법으로 그의 개심과 수정을 요청하였다. 이때 세르베투스는 바뀐 입을 옷도 주지 않고 벌레가 우글거리는 곳에서 인간 이하의 학대를 당했다.

1553년 9월 26일에 제네바 시 의회에 의한 재판이 열렸다. 재판은 그에게 사형을 시키고 그의 저서와 함께 분살을 시키도록 선고가 내렸다. 드디어 1553년 10월 27일에 제네바의 삼켄 사형장의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해서 죽는다. 이때 칼빈은 화형 대신 참수형을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세르베투스가 죽는 것은 국법을 어졌기 때문이었다'

이때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세르베투스가 남긴 말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라고 하였다. 그가 죽고 난 다음 세르베투스에 대한 말이 많아졌다. 그는 분명히 무신론자도 아니

고, 더구나 이단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는 일종의 자유주의 경향을 가진 사상가였다. 이 사람은 성격이 안하무인격으로 많은 이들과 충돌을 많이 하는 논쟁형의 사람이었다.

그는 전통적인 교리인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정하다가 칼빈에 의해 화형을 당했다. 이렇게 해서 칼빈은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생명들에게 씻지 못할 악을 저질렀다.

프랑스와 스위스의 개신교도들은 1903년 11월 1일에 속죄의 비석(monument expiatoire)이라는 추모탑을 건립하였다. 이 비석은 16세기에 개혁자에 의해서 희생된 세르베투스를 위로하는 추모의 탑이었다.

지금 이 추모탑은 제네바 동편 불란서령인 안누마스에 세워져 있다. 이 안누마스는 알프스 몽블랑 봉우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르베투스의 동상과 추모탑이 있다.

그 동상의 4면에 여러 가지 내용의 글이 기록되어 있다. 정면에는 '1519년 9월 29일 아라공주(나바라주) 뷔르누(투테라)에서 출생하여 자유 신앙의 사도요, 자유 사상의 순교자인 미카엘 세르베투스는 칼빈에게 고발되어 1553년 10월 27일 제네바에서 산 채로 분살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비문 후면에는 '각국에서 모인 기부금으로 된 미카엘 세르베투스의 동상을 세울 것을 제네바 시 참사회가 거부했으므로 위원회는 이것을 안누마스에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1903년 10월 25일 안누마스 시장 J. 큐르사, 조역 베레, 조역 물랄산'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비문 좌우에는 세르베투스가 감옥 안에서 인간 이하의 고문으로 고생한 내용들을 묘사하였다.

칼빈이 세르베투스를 공개적으로 화형시킨 다음에는 그 이후로 아무도 그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칼빈의 권위는 스위스의 다른 칸톤의

신학자들까지도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칼빈을 후세인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미국의 저명한 교회사 학자 몰란드 베인톤은 '카톨릭에 의해서 허수아비가 대위지고, 개혁신의자들에 의해서는 실체가 화형을 당했다.'고 하였다.

그 누가 말하기를 '민주주의의 원조를 칼빈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 하나 아무리 보아도 칼빈은 민주주의와는 먼 사람이었다.'라고 했다.

우리는 몽테뉴(Motagne)가 말한 것처럼 모든 인류는 세바스티안 카스텔로에게 큰 빛을 지고 있다는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들 복음적인 합리주의자들이나 재침례교도들이나 자유 사상가들은 전통적 교리를 거부하므로 희생되어 사라졌다. 그렇지만 현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온갖 고상한 자유들은 그들의 희생 위에 피어난 결실들이었다.

당시 국가의 힘을 배경으로 한 집권 세력들은 정통 신앙수호라는 이름으로 모든 소수파들을 토벌하고 그들의 사상을 뿌리채 뽑아 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다 실패하고 말았다. 오히려 종교의 자유 사상은 마침내 승리를 거두어 인류의 진정한 양심 속에 영원히 흐르고 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발악을 한 폭력자들에게 말없이 심판을 하고 있다.

3) 즐거운 9년(1555-1564)

세르베투스를 처형시킨 이후의 제네바는 극히 평온해 보였다. 외면상으로는 시 의회가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제네바 시정을 이끌어가는 힘은 칼빈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었다.

칼빈은 이러한 정부를 신정정치라고 불렀으며, 이러한 정부 형태를 구약에서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그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제네바 시의 정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정치' 라는 구호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은 성령의 조명 아래 누구든지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칼빈의 해석만이 절대적이었다.

그리고 제네바 시정은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장로법원'이 장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자 제네바시는 유럽 전체에서 개혁자들의 지상천국이 되었다. 그리하여 유럽 각국에서 종교적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 도시 제네바로 향해 모여들었다. 그래서 1557년 10월 14일에는 영국인 50명, 이탈리아인 25명, 불란서인 200명, 스페인인 4명에게 제네바 시민이 될 수 있는 특례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렇게 되자 제네바 시 의회나 시민들도 차츰 칼빈에 대한 허물을 누그러뜨리기 시작했고 칼빈에 대한 권위가 부상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558년에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가 제네바로 망명와서 칼빈에게 배운다.

1559년에는 칼빈의 평생 소원이던 제네바 학당을 개관하였다. 이 학교의 교장은 칼빈의 제자 베제(Theodore Beze)였다. 그리고 가장 저명한 학자들을 제네바로 초청해서 시 의회로 하여금 교수로 채용케 하였다. 이 학교의 소문은 점차 드러나게 되었다.

칼빈은 1564년 2월 6일에 최후의 설교를 했다. 그에게는 수많은 해 동안 과로와 피곤과 교회를 위한 근심 때문에 고질적인 여러 가지 병들을 많이 갖고 있었다.

칼빈은 1540년 뷔어 부인과 결혼했다가 1549년에 사별한 후 평생을 혼자 지냈다. 그래서 그의 건강도 더 돌보지 못했다. 그는 극히 간소한 저녁식사 후 밤 늦게까지 연구에 몰두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자리에서 움직이기 전에 전날 밤에 읽었던 내용을 소화하고 기억하기 위

해 명상을 했고 전날밤에 읽었던 내용들이 다 기억에 떠오르면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계속적인 철야연구와 뛰어난 기억력으로 충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건강을 잃고 요절하게 만드는 많은 병을 가져왔다.

그는 특히 만성적인 위궤양으로 더 고생을 하였다. 이렇게 무리를 하던 그가 1564년 5월 27일에 5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다.

칼빈은 그의 제자 베제의 품에 안기어 임종하였다. 그의 유언에 따라 플랭 빨레에라는 일반 묘지에 묘비를 세우지 않은 채 매장되었다.

칼빈은 완강한 고집, 성급함, 갑자기 폭발하는 분노, 충동성과 너그러운 것과 개방성의 부족 등 모든 인간적인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중간 키에 창백한 인상이었으며, 검은 머리와 수염을 지니고 있었다. 의복은 소박하였으며, 음식도 약간만 먹었고, 잠도 적게 자는 편이었다.

그는 굉장히 재치가 있었고, 관찰력이 뛰어났으며, 특히 놀라운 천부적인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극히 드물게 명랑할 때가 있었는데 그의 특기는 동음이어를 이용해서 웃음을 자아내는 데 소질이 있었다.

보통 때 그의 태도는 엄숙했으며, 어조는 단순하고 직접적이었다. 그의 어법은 심숙고한 후에 심각하게 말을 꺼냈다. 그는 죽어서 더 많은 영향력을 남기게 되었고, 그의 영향력 역시 전 세계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다.

4. 칼빈의 공적

(1) 기독교 강요

1) 이 책의 역사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일생동안 썼다.

제1판은 1536년 스위스 바젤에서 출판되었다. 초판의 양은 총 140페이지 정도였다. 그리고 내용도 모두 6장(章)으로 구성되었으며 나온 지 9개월만에 매진되었다.

제2판은 1539년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출판되었다. 제2판의 양은 1판에 비해 부피가 두 배나 되었다.

제3판은 1541년 제네바에서 프랑스어판으로 출판되었고,

제4판은 1543년 제네바에서 라틴어판으로, 1545년에는 프랑스어판으로 출판되었다.

제5판은 1550년 제네바에서 라틴어판으로, 1551년에는프랑스어판으로,

제6판은 1559년 제네바에서 라틴어판으로, 1560년에는 프랑스어판으로 출판되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1559년(프랑스어는 60년) 판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제1초판이 6장이던 것이 마지막 6판에는 4권 80장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일생 동안 거의 30년 동안에 걸쳐 기독교 강요를 완성하였다. 여기서 칼빈의 신학적 핵심은 본질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그의 신학은 계속 완성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칼빈의 신학적 입장이 계속 발전되어 갔는가, 아닌가는 이 강요의 여러 판들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2) 이 책의 중요성

① 최초의 복음적 교리에 의한 조직신학과 같은 책이다.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 중세기 카톨릭 교회의 조직신학 책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Summa Theological)이었다.

아퀴나스는 제1권, 신론 119장(1265년), 제2권, 인간론 189장(1269-1272년), 제3권, 그리스도론 90장을 쓰다가 1274년에 세상을 떠난다. 그가 죽은 다음에 제4권, 성례전, 교회론 등을 보충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퀴나스에게 돌렸다. 그래서 중세교회는 모든 신학교에서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 성경 다음가는 교재였다.

그 후에 루터의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있으나 규모도 작고, 내용도 제한적이었다. 그런데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는 과거 교부들을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의 것과 자신의 것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사상 속에는 방대한 자료들이 집약되어 정리되었다. 이 책은 복음적인 최초의 조직신학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② 이 책은 미국 건국 초기에 막강한 영향을 미쳤다.

미국 건국 초기의 청교도들이나 필그림단(Pilgrims)들의 사상적 기초는 이 기독교 강요에 의해 사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었다. 고로 미국의 교육,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분야가 이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지금의 미국을 과거와 같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200여년 전의 미국은 분명히 청교도들의 큰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③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 사상은 이 기독교 강요에서부터 유래되었다.

오늘날 카톨릭이 아닌 개신교의 모든 것에 거의가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없다. 심지어 알미니안(Arminian)도 칼빈의 영향에 의한 반동에서 생긴 것이다.

3) 이 책의 내용

여기서는 개요만 살펴보겠다. 칼빈 자신이 쓴 최종판이 1559년 판이

라고 하였다. 칼빈 사후에 기념집으로 1564년에 다시 나온 것이 있다. 1559년 라틴어판 결정판은 모두 4권 8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제1권(창조주 하나님)

여기서 창조와 인간론, 그리고 하나님과 계시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흔히 칼빈의 사상이라고 하면 예정론을 기억한다. 그러나 칼빈 사상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Sovereignty of God)'이다. 그 사상을 창조론에서 다룬다. 1권에서 창조론, 그리고 원죄론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② 제2권(구속주 하나님)

여기에서는 인간의 구원을 이룩하기 위해 구속의 사역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루어졌는가를 말한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원의 방법으로 율법을 주셨다.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세 직분(예언자, 제사장, 왕)의 완성자로 오셨다.

③ 제3권(성령이신 하나님)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성령의 열매들은 무엇인가를 취급한다.

이 부분에서 성령의 역사에 의한 기도에 관한 것을 대단히 많이 언급한다. 그리고 가장 많은 문제를 불러 일으킨 선택에 의한 예정론을 말하였다. 여기서 칼빈은 이중예정(Double Predestination)을 말한다.

④ 제4권(거룩한 교회)

여기서 교회론, 성례전, 시 정부에 관하여 다룬다. 칼빈은, 교회는 가시적인 기관과 동일시 될 수 없고, 모든 선택된 자를 포함하는데 죽은 자와 산 자들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보편교회(The Catholic Church)는 불가시적이며, 가시적 교회는 어디에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신성한

사회(The Holy Community)는 교회와 국가를 구비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는 법을 제정하되 사랑의 법과 일치해야 한다고 했다.

(2) 칼빈의 신학 개요

여기서는 그의 특징적인 것만 지적해 보겠다.

1)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초월적인 절대주권은 칼빈신학의 기본 중심이다. 칼빈의 좌우명은 '하나님의 면전에서(Coram Deo)'였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나 항상 하나님의 면전에서처럼 살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인간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Soli Deo Gloria)',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Ad Majorem Dei Gloriam)'이란 말 속에서 그의 사상이 나타난다.

칼빈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다 돌리기 위해 모든 우주만물과 인간이 존재한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에게만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 칼빈신학의 전체적 핵심을 이룬다.

2) 예정과 예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될 것이다.

흔히 예정론은 칼빈이 맨 먼저 주장한 것으로 오해를 하는 이가 있다. 그러나 예정론은 오래 전부터 조금씩 발전되어 온 것이다.

첫 단계는 2-3세기 때 영지주의자들이 숙명론과 비슷한 예정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랍 교부들은 자유의지에 입각한 예정으로 대응했다.

두번째 단계는 서방교회 교부인 어거스틴이 선택에 의한 예정을 말했다. 엄밀히 말해서 예정론 교리의 창시자는 어거스틴이다. 여기에 맞선

것이 펠라기우스의 자유의지론이다.

세번째 단계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예정론을 좀더 발전시켰다.

네번째 단계는 칼빈의 예정론이다. 칼빈의 사후에 예정론에 맞서는 알미니안주의가 자유의지에 입각한 예지 예정론을 주장한다.

여기 칼빈은 과거의 예정론과는 좀더 다른 예정론을 말했다. 그는 그 유명한 '이중 예정론(Double Predestination)'을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같은 운명으로 창조하지 않고 어떤 이는 영원한 생명에, 어떤 이는 영원한 저주에 미리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작정을 한 시기가 어느 때인가. 여기에 대해 두 가지 설이 더 따른다.

하나는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예정되었다는 것을 선택설(Supralapsarian)이라 하는데 이것을 극단적 칼빈주의라고 한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그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정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후택설(Inpralapsarian)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인간이 하는 행동을 보고 예정했다는 알미니안에 가까운 주장을 수정 예정론(Sublapsarian)이라고 한다.

칼빈의 예정론은 이중 예정설이 대표 주장이다. 하나님의 선택이 타락 이전이나, 이후나 하는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칼빈의 이같은 이중 예정설에 근거하여 후에 돌트(Dort)에서 전 세계 칼빈주의자들이 총회로 모인다. 이들은 1618년 11월 13일부터 1619년 5월 28일까지 장장 154일 동안 회의를 거듭하여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을 제정한다.

그 5대 강령이라는 것은,

첫째, 전적인 타락(Total Depravity)

둘째, 무조건적인 선택(Unconditional Election)

셋째, 제한된 구원(Limited Atonement)

넷째, 불가항력적인 은혜(Irresistible Grace)

다섯째, 성도의 견인-보존의 확실성(Perseverance of Saints)

이 사상은 그후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회의를 거듭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Westminster Confession)를 만든다. 여기에 총 33개 장과 대소 교리문답이 제정된다.

이 모든 내용들이 칼빈의 이중 예정론에 기초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장로교의 고백서이다. 그런데 칼빈의 이중 예정설이 적법한 주장인가에 대해 현대신학에서는 거의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물론 개혁주의 신봉자들은 그대로 믿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정론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성경에 분명히 예정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신약성경에 여섯번 나온다(행 4:28; 롬 8:29-30; 고전 2:7; 엡 1:4-5, 11 등). 그러므로 예정론 자체는 성경의 개념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되고 있는 예정론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어디까지나 믿는 성도들에게 국한시켜 이해되어야 할 주장이다. 즉,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그의 과거와 현재를 믿음의 눈으로 성찰해 봤을 때 고백되어지는 감격을 뜻한다. 이것은 장차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추측을 불러 일으킬 내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예정과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되었으므로 두 가지는 다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3) 국가와 교회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4권에서 시 정부와 국가에 관해 말했다. 칼

빈이 믿는 교회와 국가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그는 장로법원이 라는 치리기관을 설치하여 모든 시민들의 생활을 철저히 감시, 감독 하였다.

칼빈은 초대교회가 실시한 치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칼빈은 시민들의 의복 사치,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호사스러움, 저주와 맹세, 노름, 춤, 가면 무도회 등 모든 도시민의 생활을 제재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치리는 어디까지나 회중과 목회 안에서 한정시켰다. 그렇지만 칼빈은 치리와 출교의 범위를 세속 도시민 전체에게 적용 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치리는 교회 내의 문제로 국한시켰다. 그렇지만 칼빈은 치리 방법으로 세속 권력인 시 의회 권력의 힘을 빌려서 강화시키려고 했다.

칼빈의 이와 같은 발상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그것은 중세 카톨릭 교회가 종교적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속 권력까지 장악했던 그것과 유사함을 보게 된다. 중세교회의 교황은 영적 문제로 만족하지 않고 세속 권력들도 모두 장악하려고 했었다.

칼빈도 교회 장로법원에서의 치리행사를 도시민의 모든 생활까지 장악하였다. 이 점을 살펴볼 때 칼빈의 국가와 교회간의 관계에 대한 사상은 강력한 중세기적인 발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칼빈의 개혁은 제한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교회 직분에 관한 사상

칼빈은 전에 없던 새로운 장로제도를 만들었다. 성경에 장로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구약 때부터 시작된 장로제도는 신약 초기 복음서 시대 까지도 계승되어 왔다.

그런데 사도시대 때부터는 장로직의 개념이 달라진다. 즉, 장로는 곧 감독을 뜻했다(행 20 : 17-28; 딤후 1 : 5-7; 벧전 5 : 1; 요일 1 : 1; 요이 1 : 1; 요삼 1 : 1).

그렇지만 칼빈은 교회 행정에 필요하므로 구약의 장로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로직의 부활 근거로 딤후 5 : 17-18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일을 하고 값을 받는 장로를 말한다.

이 본문은 말씀도 가르치는데 수고하고 다스리는 일에도 수고하므로 존경을 배나 하라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잘 다스리는 장로'는 다스리는 일만 따로 하는 장로를 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칼빈은 성경에 없는 제도라도 교회 행정에 필요하면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칼빈은 목사나 장로를 모두 같은 장로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그 주장에는 성경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5) 칼빈의 성례전 사상

칼빈은 성례전을 정의하기를 "성례전은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약함을 붙들어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의 선의의 약속을 우리의 양심 가운데 인 찍어주는 징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서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는 것이다."고 했다.

칼빈은 성찬이나 세례를 사죄와 은총의 수락을 입증하는 표징이요, 인장이되, 우리가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영적 체현(靈的體顯)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성례전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양심에 인을 치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됨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6) 칼빈의 경제 이론

칼빈이 현대 산업사회에 크게 기여한 점이 있다. 그것은 그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대금업을 믿었기 때문이다. 고지식하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으려던 재침례교도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

그래서 잠 28 : 8, 출 22 : 25, 레 25 : 36 등을 근거로 이자에 대한 문제를 타부시켰다. 그 결과 그들은 현대 생활에 항상 낙후되었다. 그렇지만 칼빈은 대금업에 대한 것을 확실히 믿었다.

그의 영향으로 현대 자본주의자들은 용기를 갖고 현대문명을 개척하였다. 칼빈의 이러한 이론은 꼭 성경에만 있어야 믿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성에 의한 현실 이해에도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믿어진다.

제 9 장

영국의 개혁



우리는 그동안 유럽대륙 안에서 이루어진 종교개혁의 역사, 주로 독일교회, 그리고 쾰링거와 칼빈에 의한 스위스와 프랑스 일부의 개혁교회들의 개혁사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급진적이고 과격한 개혁파, 또는 분파주의로 알려진 재침례교도의 운동도 살펴보았다.

이제는 또다른 형태의 개혁운동을 살펴보자. 그것은 영국에서 일어난 개혁운동이다. 영국의 종교개혁이 대륙보다 시기적으로 늦은 것은 아니다.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 그런데도 영국교회의 개혁은 대륙에 비해 전혀 형태가 다른 개혁을 하였다.

우리는 영국교회의 개혁운동을 단지 영국 자체의 것만으로 국한시킬 수가 없다. 영국은 그들의 개혁 과정에서 보다 많은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영국의 개혁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파급된다. 즉 청교도 운동, 분리주의 운동, 독립주의자들...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류와 연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18세기 이후의 기독교를 알려고 하면 반드시 제 16, 17세기 영국의 기독교를 알아야 한다.

영국은 교회사적으로, 선교적 측면에서 영어를 전 세계에 공급한 문화적인 면에서 가히 세계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영국은 어떻게 해서 이처럼 많은 영향력을 세계에 미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영국 교회들의 오랜 역사를 알 필요가 있다.

영국은 오래 전에 이미 개혁적인 요소를 드러내고 있었다. 잘 알다시피 중세 카톨릭 교회를 가장 찬란하게 꽃피게 한 것은 스콜라 신학이다. 그런데 이 스콜라 신학의 종말을 가져오게 한 사람들이 바로 영국인이다.

역사에서는 이들을 후기 스콜라 신학자라고 한다. 그들은 존 둔스 스코투스(John Duns Scotus:1266-1308)와 윌리엄 옥캄(William Occam:1280-1347)이다.

이들 다음으로 본격적인 개혁작업을 한 사람이 있다.

위클리프(John Wycliff:1300-1384)는 가난과 청순한 신앙 운동을 펼쳤다. 그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을 '롤라드(Lollards)'라고 했다. 위클리프는 비카톨릭적 요소 때문에 사후에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그 유해가 불태워 분살되었다(1428년).

그 다음에 윌리엄 틴데일(William Tyndale:1494-1536)은 신약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였다. 그 당시 카톨릭은 라틴어 성경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법을 어기고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틴데일을 카톨릭은 가만 두지 않았다. 틴데일은 대륙으로 피신하여 성경 번역책을 영국으로 반입시켰다. 이로 인해 그는 유죄로 체포되어 처형된 후 그 시체는 화장당했다.

이와 같은 종교개혁에 대한 전 국민적 염원이 오랜 세월동안 연연하게 흘러오고 있었다. 이같은 국민의 정서 위에 헨리 8세라는 독특한 군주에 의해 영국의 개혁은 시작된다.

1. 헨리 8세의 교회

(1) 헨리 8세의 가계와 가정

헨리 8세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가계와 가정관계를 알아야 한다.

1) 헨리 8세의 가계

헨리 8세는 어떠한 가문의 출신인가, 이것이 그의 인생과 연결된다.

17세기 초 이전까지는 대영제국은 둘로 나뉘어져 있었다. 잉글랜드는 튜더 왕조가 지배하고 있었고, 스코틀랜드는 스튜어트 왕조로 분리되어 있었다. 그것이 나중에 제임스 1세(James I :1603-1625)에 의해 한 왕조로 대영제국이 된다.

튜더 왕조는 헨리 8세의 아버지인 헨리 7세(Henry VII:1457-1509)가 창건되었다. 헨리 7세는 튜더 왕조 창건을 위해 그의 재위기간 동안 거의 평화가 없었다.

어렵게 창건한 튜더 왕조의 기반을 위해 헨리 7세는 국제적 혼인 외교 정책을 쓴다. 그래서 그의 장남인 14세의 아아더(Arthur)를 스페인의 페르디난드(Ferdinand) 왕과 이사벨라(Isabella)의 딸인 16세의 아라곤의 캐더린(Catherine of Aragon)과 결혼을 시켰다. 뿐만 아니라 헨리의 딸 마가렛은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4세에게 출가시키고, 또 다른 딸은 프랑스의 루이 12세에게 주었다.

그런데 헨리 7세의 장자 아아더가 캐더린과 결혼한 지 6개월만에 죽고 만다(1502년). 이때 헨리 7세는 캐더린이 가지고 온 지참금은 물론이고, 스페인과의 전략상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빼앗기기 싫었다. 그래서 아아더의 친동생과 장차 헨리 8세가 되는 캐더린을 결혼시키기를 원했다.

이때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법은 죽은 형의 아내를 맞는 것이 위법이었다. '혈연관계의 계율(Law of Consanguinity)'에 의하여 이 법은 레위기 18 : 6-18에 의거하여 5촌 내지 6촌 관계에서는 결혼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또 레위기 20 : 21에도 형제의 아내를 취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헨리 7세는 교회법을 특별하게 면제받을 수 있도록 교황청의

특별면제를 요청했다. 그러자 교황 줄리우스 2세(Julius II)는 교회 법을 무시하고 특별 윤허를 내렸다.

이렇게 해서 헨리는 겨우 12살 때 그의 형이 남긴 미망인 캐더린과 7년 연상의 상태에서 결혼하게 된다(1509년). 이때 두 사람의 결혼 주례를 캔터베리 대주교인 와함(Warham)이 섰다.

2) 헨리 8세의 가정

① 첫번째 부인 캐더린

헨리 8세는 그의 아버지가 죽던 해(1509년) 왕위에 올랐다. 그는 캐더린과의 사이에서 여러 명의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다 죽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이는 딸 메리(Mary)였다.

메리가 10살 되던 해는 1526년으로 그의 연상 아내 캐더린이 41살이 되었다. 헨리는 캐더린으로부터 왕자를 얻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섰다. 헨리는 그가 형의 아내를 맞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그의 의심은 앤 불린에게 쏠리는 관심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다. 앤 불린은 캐더린의 시녀였다. 그런데 헨리와 그와의 사이에서 임신 소식을 듣게 된 헨리는 그녀로부터 왕자를 얻을 기대가 커졌다.

그래서 헨리는 새로운 돌파구를 얻고자 했다. 헨리가 즉위한 처음 2년간은 대주교 와함이 국사를 처리했다. 그후 교활하고 잔인한 추기경 월시(Cardinal Thomas Wolsey; 1471-1530)가 득세하여 헨리 치세의 절반을 차지한다. 월시는 백정의 아들이었으나 주교가 되었다.

헨리는 월시를 장상(chancellor : 현재의 수상)으로 임명했다(1515년). 또 교황 레오 10세는 월시를 캔터베리 대 교구의 교황 대리인으로 임명하였다(1518년).



영국 종교개혁의 과정이 회화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헨리 8세는 계승자인 그의 아들 에드워드 6세를 가리키고 있고, 교황은 기운이 없어지고 있다. 개혁자인 대주교 토마스 크랜머는 고문의 자격으로 왕자 옆에 앉아 있다.

월시는 장상으로 국가의 세력과 캔터베리 대리인으로서 교회의 세력을 장악했다. 이 월시가 교황 클레멘트 7세로부터 헨리와 캐더린과의 결혼 무효재가를 얻어내기 위한 공작을 개시했다.

이 당시 이같은 결혼 취소, 혹은 무효령은 그다지 드문 일이 아니며, 당시의 교황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러한 칙령을 흔히 발하고 있었다.

그래서 월시는 이번의 경우는 원래 교황 줄리우스 2세가 교황의 특별 사면령을 내려 결혼하게 되는데 헨리와 그의 형수 캐더린과의 결혼은

불법적인 결혼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헨리와 캐더린의 결혼은 처음부터 진정한 결혼이 성립되지 못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월시의 외교 노력으로 교황 클레멘트 7세가 그렇게 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교황의 권한을 위임받은 캄펙기오(Campeggio) 추기경이 영국으로 파견되었다.

그런데 사태는 이상하게 번져갔다. 당시 스페인의 찰스 5세는 캐더린의 조카였다. 그래서 캐더린은 자기 조카에게 자기 결혼이 무효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애원을 했다. 이 당시 찰스 5세는 교황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던 때였다.

찰스 5세는 군대를 파견하여 로마 교황을 습격했다. 캐더린의 조카였던 찰스로부터 압력을 받은 교황은 이제 다시금 결혼을 무효화시키기를 거부하게 되었다.

캄펙기오 추기경은 로마로 귀환하고 만다. 이렇게 되니까 헨리는 월시 대주교를 체포했고, 그는 재판 도중 죽게 된다. 그리고 다음 인물로 토마스 크랜머(Thomas Cranmer: 1489-1556)가 등장한다. 이 크랜머는 근면하고 학식이 있는 신앙심 깊은 개혁 공로자이다.

② 두번째 부인 앤 불린

새로운 종교 자문인 크랜머는 헨리 왕에게 결혼에 관한 문제를 주요한 카톨릭 대학들에게 의견을 청취하도록 제안하였다. 헨리는 곧 파리 대학을 비롯하여 오를레앙, 툴루즈, 옥스포드, 캠브리지 대학에 그의 결혼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그때 모든 대학들은 헨리와 캐더린의 결혼이 처음부터 불법이었다는 회답을 해 왔다. 오직 루터만은 정당한 결혼이라고 했다. 이때부터 헨리는 과감하게 로마 카톨릭과 결별하는 정책을 수행하기 시작한다.

헨리는 로마를 위협하여 자기 종교담당 자문인 크랜머를 캔터베리 대주교에 임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영국 내의 성직자들을 교황의 권위 아래 두지 않고 국왕의 권위 아래 두도록 법령을 고쳐나갔다.

1553년 1월에 비밀리에 캐더린과 이혼한 지 거의 6년이 지난 후 다시 비밀리에 앤 불린과 결혼한다. 그리고 헨리는 대주교 크랜머로 하여금 캐더린과의 이혼이 적법이고, 또 앤과의 결혼이 적법임을 공포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앤 불린이 6월에 정식 왕후가 된다. 그러자 교황은 헨리를 파문시켰으나 헨리는 교황의 파문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리고 9월에는 앤에게서 엘리자벳 공주가 태어난다.

그리고 1543년에는 그 유명한 '수장법(the Act of Supremacy)'을 통과시킨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영국 국교회가 탄생된다.

③ 세번째 부인 제인 시모어(Jane Seymour)

헨리는 앤 불린에게서 왕자를 기대했었다. 그런데 딸 엘리자벳 하나만 얻었다. 헨리는 앤 불린의 아름다운 살결과 검은 눈동자에 반했었다. 그런데 그에게서 왕자를 얻을 소망이 깨졌다. 그러자 그녀를 간음의 누명을 씌워 처형시킨다(1536년). 이로써 앤은 1천일 동안의 짧은 영화로 끝을 맺었다.

헨리는 세번째 여인으로 제인 시모어를 맞이했다. 헨리는 이 여인에게서 에드워드라는 아들을 얻었다. 그런데 세번째 부인이었던 제인 시모어는 출산 후 건강회복을 못하고 1537년에 사망한다.

④ 네번째 부인 클리브스의 앤(Anne of Cleves)

제인이 죽은 무렵 때마침 헨리는 스페인의 찰스와 프랑스의 프랜시스 왕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다. 이때 헨리는 독일과 유대를 맺고 위협

에서 보호를 받으려고 독일 여인과 정략결혼을 한다.

독일 여인은 삭소니 지방의 존 프레드릭의 처제 '클리브스의 앤 (Anne of Cleves)' 이었다. 헨리는 이 여인과 결혼을 했다가 후에 그 여인의 효용가치가 없어지자 이혼을 한다.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중매를 한 크롬웰을 처형시킨다.

⑤ 다섯번째 부인 캐더린 하워드(Catherine Howard)

헨리는 캐더린 하워드를 다섯번째 부인으로 맞이했다. 그런데 이 왕비가 너무 보수적이어서 카톨릭과 가까웠다. 그래서 개혁자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 이 왕비 역시 헨리의 미움을 받고 참수당했다.

⑥ 여섯번째 부인 캐더린 파(Catherine Parr)

헨리는 여섯번째 왕비로 캐더린 파를 맞이한다. 이 왕비는 헨리가 죽고 난 후까지 오래도록 지낸다.

이렇게 헨리는 여섯 명의 왕비를 둘 정도로 정력적인 사람이었다. 이 같은 군주는 세계사 속에 희귀한 인물일 것이다. 그런데 이토록 집요한 자녀의 욕심을 가졌던 헨리였지만 모든 여인으로부터 얻은 자녀가 오직 셋뿐이었다. 그들 세 자녀가 헨리 다음의 영국 왕이 된다.

헨리가 죽고 난 후(1547년) 맨 먼저 왕이 된 사람이 유일한 아들 '에드워드' 이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의 재위기간은 매우 짧았다. 그 다음에 두번째 왕이 된 이가 '피의 여왕' 으로 소문이 난 메리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세기 가까이 처녀 여왕으로 재위한 엘리자벳이 있다. 영국의 교회는 헨리 8세로부터 시작해서 엘리자벳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 속에 이루어진다. 이제 그들의 교회 정책을 살펴보자.

(2) 헨리 8세의 교회정책

헨리는 보기 드문 학자적 소양을 갖춘 인물이었다. 그는 재주있는 언어학자였고, 상당히 유식한 아마추어 신학자였다. 그런가 하면 고집이 세고 기회주의적이며 자기 본위의 철저한 이기주의자였다.

헨리가 얼마나 이기주의자였느냐 하는 것은 그의 수많은 여인들 관계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상당한 기회주의자였다. 헨리는 루터가 쓴 「교회 바벨론 포로」라는 글을 읽고 그에 대한 반박문을 썼다.

헨리가 쓴 반박문은 '일곱 성례식을 변호하기 위한 논문' (Assertio Septem Sacramentorum)이었다. 헨리는 이 반박문을 교황 레오 10세에게 헌정하였다. 교황은 헨리의 논문을 받은 후 헨리에게 '신앙의 수호자' (Defender of the Faith)라는 칭호를 하사했다(1521년 10월).

헨리가 이처럼 로마 카톨릭에 대해 충성을 했는지 아첨을 했는지 잘 모를 일이다. 그러던 그가 캐더린과의 이혼문제를 로마 카톨릭이 도와주지 않을 때 카톨릭과 결별을 한다.

헨리의 교회정책에는 그를 돕는 두 세력이 있었다. 하나는 개혁을 주창하는 의회 지도자 토마스 크롬웰(Cromwell)과 캔터버리 대 주교 토마스 크랜머(Cranmer)이다. 이들은 개혁파에 속했다.

또다른 보수세력이 있었는데 노포크의 공작(Duke of Norfolk)과 윈체스터의 주교인 스텐폰 가디너(Stephen Gardiner)가 여기에 속해 있었다.

헨리는 이들 개혁파와 보수파 사이에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헨리 8세가 수행한 업적들을 살펴보자.

1) 1534년의 '수장법(the Act of Supremacy)'

이것이 소위 말하는 영국 국왕을 영국의 모든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

는 법률이다. 이 법으로 시작해서 영국교회는 오랜 카톨릭과의 관계를 결별하고 영국의 독자적인 교회로 출발한다. 이 법이 오늘날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의 탄생이 되는 때이다.

이 법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모든 첫 수입을 교황에게 수입세라는 명목으로 보내던 것을 비롯하여 교황에게 보내는 각종 헌금을 봉쇄시킨다.

둘째, 로마의 주교에게 베드로의 축제일에는 각 세대당 1페니씩 보내던 제도를 금지한다.

셋째, 교황에게 특별 사면권을 신청할 수 없도록 금지, 그같은 특별 면제권은 영국 내 교회에서 구하도록 한다.

넷째, 계승법(The Act of Succession)을 통과시켰다. 계승법이란 '헨리와 아라곤의 캐더린과의 결혼은 무효다.'는 것을 합법화한 것이다.

다섯째, 수장법(The Supremacy Act)을 통과시켰는데, 영국 국왕을 영국교회의 수장(Supreme head of the church of England)으로 지명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반역법(The Treasons Act)인데, 왕의 적법한 칭호(영국교회의 수장)를 부인하는 자는 반역죄에 해당하며, 왕을 이단 혹은 분리주의자로 부르는 자도 반역으로 포함시켰다.

이와 같은 수장법은 국왕이 교회에 대한 통수권을 규정하고 또한 국왕이 교회를 검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못박는 법이었다. 그리고 이 법은 왕과 그의 가족들을 반대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반역법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해서 튜더 왕조 하에 국교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일단락 되었다.

그렇지만 국왕의 지존법에 대해 반대하던 세력이 많았다. 그들은 국왕의 지존법을 반대하다가 희생되고 말았다. 희생자 중에 유명한 이는

전직 총리이며, 헨리의 개인 친구였던 토마스 모어와 로체스터 주교인 추기경 존 피셔가 있다. 이중에 토마스 모어는 죽은 지 400년 후 1935년에 로마 카톨릭의 성자로 봉하였다.

2) 1536년 「10조문(Ten Articles)」

이것은 '기독교의 안정을 위해서 대왕 폐하께서 마련하신 신조'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이것은 영국교회의 최초의 교리적 신조를 내놓은 것이다. 이 10조문의 5개조항은 교리, 나머지 5개조항은 성례전을 다루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카톨릭의 7개 성례 중에서 세례, 성체(성만찬) 참회에 대한 언급만 한다. 그리고 성상들은 교회 내에만 둘 것과 마리아는 중보 기도자로서 존경할 것 등을 언급하였다. 여기서 영국교회는 가시적인 개혁의 모습을 드러낸다.

3) 1537년 「주교서(Bishop's Book)」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지도서(The Institution of a Christian Man)'라고도 한다. 이 내용은 교인들과 하위직 성직자들을 위한 기독교 기초 교리서와 같은 것이다.

내용은 4부로 나뉘어져 있다. 사도신조, 7성례전, 10계명, 주의 기도, 그리고 아베 마리아에 대한 해석으로 이루어졌다.

이것들은 영국의 대주교와 주교들에 의해서 출판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교의 책'이라고 한다. 그러나 헨리가 나중에 자신의 생각대로 개정한다.

4) 1537년 영어 성경번역

이보다 앞선 영어 성경의 번역은 틴데일(Tyndale) 때 이루어졌다. 틴데일은 성경번역을 국내에서 못하고 네덜란드에서 완성한다. 그는 성경을 번역하여 국내로 반입시키다 처형당한다. 그런데 이제 영국교회의 사정은 달라졌다. 마일스 커버데일(Miles Coverdale)에 의해 과격하다는 틴데일 성경을 개정한 영어 성경이 나온다.

헨리 왕은 모든 교회가 영어성경 한 권을 교회 내에 비치토록 명령하였다(1537년). 이것이 다시 개조되어 1539년에는 「대성경」(The Great Bible)으로 나온다. 이 성경 서문을 크랜머가 기록했다고 해서 크랜머의 성경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영어성경이 개 교회에 비치되었다는 것은 개혁교회의 기반을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

5) 수도원의 해체

헨리는 그의 선친이 남긴 막대한 재산을 다 탕진하였다. 궁정에 돈이 떨어지자 크롬웰은 수도원을 사찰하였다. 그 결과 소규모의 수도원은 해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큰 수도원을 사찰해 본 결과 너무 미신적 요소가 잡다했다.

성 베드로의 머리털과 수염, 성 스테반이 맞아 죽은 돌, 순교자 성 도마의 머리카락과 뼈, 성모 마리아의 젖과 다른 두 개의 뼈가 담긴 조그마한 수정 유리병 등..., 온갖 물품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성물이라고 반입해 들어와서 군중들에게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다.

그래서 크롬웰은 국회의 법을 따라 모든 수도원을 폐쇄시키고 그 재산을 왕 앞으로 귀속시켰다(1538년). 이렇게 함으로써 카톨릭 교회는 핵심을 이루는 중추적인 힘을 잃고 만다. 물론 교황 바울 3세는 헨리에 대한 파문을 거듭 내린다.

6) 1539년의 '6조문(The Six Articles)'

이 법률은 크랜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내용은 다시금 카톨릭으로 접근하는 내용이었다. 즉, 화체설을 지지하며 성찬 때 떡만 주는 1종 성찬을 지지하고, 성직자의 독신제 반대는 물론 이미 한 결혼도 무효로 헤어져야 한다.

이같은 극단적 회귀는 수많은 사람들을 크게 괴롭혔다. 그래서 6조문은 '6개 가죽끈이 달린 피문은 채찍'이란 악명 높은 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크롬웰이 실권을 쥐고 있을 때는 이 법의 실제적인 실시를 가로 막았다. 그런데 크롬웰이 1540년 7월 28일에 참수를 당한다. 그 이유는 크롬웰이 독일 삭소니의 '클리브스의 앤'을 헨리에게 증매해서 네 번째 부인이 되게 했는데 그 앤이 헨리와 결혼하기 전에 로레인의 공작의 아들과 약혼을 했었다는 이유로 처형시켰다(7월 9일). 그래서 크롬웰을 재판도 없이 처형시킨다.

헨리는 1547년 1월 27일에 사망한다. 그의 마지막 임종은 크랜머가 지켜보았고, 크랜머에 의해서 장례식이 치루어진다. 그만큼 헨리는 크랜머를 한결같이 신뢰하였다. 헨리는 죽었으나 그는 영국이 카톨릭과 결별하고 영국 국교회로서 개혁을 진행할 수 있는 모든 지지를 형성한 후 죽는다. 그의 뒤는 그의 유일한 아들 에드워드가 계승한다.

2. 에드워드 6세의 종교정책

(1) 에드워드 6세(Edward VI, 1537-1553)

헨리 8세는 그의 후계자로 그의 세번째 아내인 제인 시모어가 낳은 아들 에드워드 6세에 의해 계승된다.

에드워드 6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1547년 1월 28일) 그는 겨우 9세였고, 항상 나약했으므로 16세도 못된 1553년에 죽었다. 태어날 때부터 병약한 체질인데다가 과중한 공부로 그의 건강이 더 나빠졌다.

에드워드는 어려서부터 라틴어와 헬라이어 및 불어를 배워서 13살 때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헬라이어로 읽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키케로의 작품을 헬라이어로 번역할 수 있을 정도였다.

에드워드 6세가 차기 임금에 오를 것을 알고 있던 모든 당파들은 그를 수중에 넣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에드워드 6세가 왕위에 오른 처음 3년간은 그의 삼촌인 개혁교도 에드워드 시모어(Edward Seymour)가 실권을 쥐고 있었다. 그리고 후에는 책략과 지모에 능했던 와윅 지역의 백작 존 더들리(John Dudley)가 집권하였다. 이 사람은 노덤벌랜드(Northumberland) 공작이라는 직위를 획득하였다.

(2) 에드워드 6세의 종교정책

에드워드 6세의 치세기간은 전체가 6년 반이었다.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업적을 보면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1) 훈령(Injunctions: 1547년 7월)

이 법은 전에 발표된 '6조문'이 너무 카톨릭적이던 것을 철폐하도록 하는 훈령이다. 이 훈령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성경을 인쇄하고 배포하던 제한법을 모두 폐지시켰다. 이교도들이 처형받던 법도 폐지하였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주교들이 세속 권력과 관할권을 찬탈한 사실을 설교하도록 하였고, 예배 때 복음서와 서신서를 영어로 낭독할 것과 기도문을 행진 때 암송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가장 큰 훈령은 새로운 연보법(Chantries act)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모든 연보는 국왕의 수하에 들어가게 하였다.

그리고 그중 성찬식(떡과 포도주)을 배풀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성직자의 결혼을 허용(주교들의 53대 12로 찬성 결정)했다.

그리고 설교집이 만들어져 배포되었다. 이 설교집을 만들게 된 동기에는 매우 한심한 사연이 있다. 그것은 1547년부터 1551년까지 영국인 성직자들이 어느 정도 설교가 가능한가를 파악하려고 조사를 하였다.

여기서 전직 로마 카톨릭의 성직자들의 무식이 그대로 드러났다. 311명의 성직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해봤다. 그중 171명은 십계명의 내용을 잘 몰랐고, 277명은 자신이 펴 들고 있는 성경이 무슨 책(출애굽기인지 전도서인지)이며, 무엇을 말하는지 몰랐다. 10명은 주의 기도를 반복하지 못했으며, 27명은 주의 기도의 저자가 누구인지 말하지 못했다.

이같은 보고서는 영국교회가 종교개혁 이전에 소위 성직자라는 카톨릭의 사제들이 얼마나 무식했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영국교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설교집이 만들어져 배포된다.

2) 제1기도서(the First Prayer Book)

이것은 좀더 세부적인 예배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이 기도서의 주된 책임자는 크랜머였다. 이 책은 영국교회의 여러 지파와 후에 생긴 앵글리칸 교회들을 결속하는 역할을 했다. 이 기도서에서 영국인은 최초로 자기 말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되었다.

이 무렵 독일과 스위스로 종교적 망명을 했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뿐만 아니라 대륙에서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영국으로 피신해 들어오기도 하였다. 이 중에 유명한 이는 스트라스부르크의 마틴 부쩌로 그는 영국으로 피신해 왔다가 세상을 떠난다.

3) 제2기도서(the Second Prayer Book, 1552년)

이 기도서는 제1기도서의 부족한 것을 보완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의 영국교회에서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공동기도서의 대부분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

여기 이 기도서에서 우리가 특히 기억할 대목이 있다. 그것은 과거 카톨릭식의 용어나 사상을 현저하게 많이 제거하였다는 점이다.

즉, 중재적인 미사라는 사상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제단(altar)이라는 용어를 삭제시키고 탁자(table), 또는 상이라고 했다. 여기서 '강대상'이라는 말도 연유되게 된다.

또 과거는 성직자를 '사제(the Priest)', 우리나라에서는 '신부(Father)'라고 한다. 그렇지만 '목사(a Minister)'라고 불려진다. 그리고 목사의 의복에 관한 조항들이 제정된다. 목사의 의복은 중백의(the Surplice)로 제한된다.

이렇게 개혁이 진척되던 중 에드워드가 사망하게 된다. 1553년 7월 6일에 그는 건강 악화로 사망한다. 그러자 그의 후계자로 메리가 여왕으로 승계한다.

3. 메리의 치세와 카톨릭의 반격(1553-1558)

(1) 여왕 메리의 통치 시작

에드워드가 죽고 난 후 그의 승계자에 관해 논란이 많았다. 그러다가 결국 메리가 여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된다(1553년 여름). 이 메리는 헨리 8세와 아라곤의 캐더린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소녀시절에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여성이라는 칭찬을 받으면서 자라났다.

그런데 그녀가 17세 때 그녀의 전 생애 동안 지워지지 않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된다. 그것은 자기 아버지 헨리 8세와 국회, 그리고 영국교회들이 그녀를 불법한 사생녀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부터 그는 수치심에 쌓여 지울 수 없는 낙인과 함께 고독 속에 살아간다.

그런데 메리가 37세 되었을 때 영국은 그를 여왕으로 환호했다.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여윈 얼굴과 쉰 목소리의 나이 든 여인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의 검게 빛나는 눈동자만이 한때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웠는가를 말해줄 뿐이었다.

그녀는 평생 사랑에 굶주려서 사랑받고자 스스로 선택한 남자 스페인의 필립과 결혼한다. 그녀의 우상이었던 필립은 몇년 동안의 결혼생활을 통해 그녀에게 싫증을 느끼게 된다. 그토록 애타게 바랐으며, 열정적으로 기다렸던 자식은 태어나지 않았다. 그는 한 인간으로 불행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가장 증오스런 '피의 여왕(Bloody Mary)' 이라고 이름 지어졌다.

메리 여왕은 왜 그같은 소리를 들어야만 되었을까. 우리는 그의 입장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메리는 평생 로마 카톨릭 신자로 살기 원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만일 영국 국교회를 사실대로 인정할 경우 그녀가 가진 왕위 계승자로서의 무자격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영국 국교회를 인정하는 경우 자기 아버지 헨리 8세가 주장하던 대로 자기 어머니 캐더린과의 결혼이 무효가 된다. 그럴 경우 메리는 사생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 신분 회복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가 차지한 왕위 계승의 적법성 유지를 위해서도 영국 교회법을 따를 수 없었다. 그녀는 개인적인 확신과 정치적 필요에 의해 영국 국교회를 다시금 로마 카톨릭으로 회복시켜야 할 입장이었다.

그녀는 재위 초기에 조심스럽게 일을 추진했다. 메리는 도량이 넓은 편이었으나 개신교를 반대하는 데는 잔인함을 넘어서 거의 광신적이였다.

메리는 1553년부터 1558년 11월 17일까지 약 5년 동안 치리했다. 이 기간 동안 그가 화형시킨 사람은 282명이였다. 그의 감옥에서 굶겨 죽은 사람들까지 합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될 것이다.

(2) 메리 여왕의 종교정책

1) 신앙에 관한 포고문(Proclamation about Religion)

전임 에드워드 왕이나 영국 의회는 다같이 왕권을 카톨릭 교도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영국의 국민들 생각은 달랐다. 헨리 8세가 비록 독재자이긴 하지만 그에게서 가장 가까운 혈통이 메리라고 부르짖었다.

그래서 새로 왕위에 오른 메리가 제일 처음 한 일은 모든 국민이 조용한 성품과 기독교인의 사랑의 행위로 함께 모여 살자고 권면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명령으로 강요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것은 의미심장한 위협이였다. 그리고 개신교도들의 문헌을 왕의 허락 없이 백성들이 읽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선언도 했다.

2) 새 종교법 개정

메리는 국회를 통해(1553년 10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종전에 제정한 모든 종교법을 번복하게 하였다. 그래서 헨리 8세와 아라곤의 캐더린과의 결혼은 유효하며, 메리 자신을 적법한 왕위 계승자로 고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에드워드 6세 때 만들었던 모든 종교법을 폐기하였다. 그

래서 공공 기도서를 폐지하고, 성직자의 결혼 허가를 취소하고, 두 종류의 성만찬 참여를 철회했다.

3) 여왕의 결혼(1554년 7월 25일)

메리는 자기 결혼의 상대자로 스페인의 필립을 지정했다. 필립은 그의 외종 4촌이었고 장차 찰스 5세의 후계자로 양위될 예정이었다.

메리가 스페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할 때 하원에서는 외국인과 결혼하지 말도록 간청하는 서한을 전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처에서 난동이 발생하였다. 켄톤지방에서는 스페인에 대한 적대 감정 때문에 4천 명의 군중들이 런던 성문까지 접근하였다가 격퇴당한다.

그런데도 메리는 필립과 결혼을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오래 가지 못하였다. 그들 사이에 소생이 없으리라는 사실이 점차 확실해지자 남편은 메리 곁을 떠난다.

이렇게 남편에게까지 무시당해야만 하는 실망 속에서 메리는 프로테스탄트들을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잘 아는 크랜머가 대주교에서 쫓겨나고 투옥된다. 또 성경을 번역했던 커버데일, 존 로저스 등이 추방당한다. 이들은 맨 먼저 처형당한다(1555년 2월 4일). 그래서 프랑스, 독일 등지에서 망명해 왔던 개신교 지도자들은 다시금 대륙으로 안전을 찾아 도피를 한다. 그리고 메리는 토마스 와이어트 경을 포함한 여러 개신교 지도자를 처형시키기 시작한다.

4) 영국을 다시 교황청에 순종케 함.

영국은 그때까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출교당한 땅이었다. 그래서 메리 여왕은 다시 교황청의 화해를 받으려고 한다. 이때 교황 줄리우스 2

세는 영국인 추기경 레지널드 포올을 특사로 파견한다.

이 포올은 헨리 8세와 메리와 가까운 사이였다. 그런데 포올은 헨리 8세가 캐더린과 이혼하려는 것을 반대하고 헨리의 영국교회 수장이라는 주장법을 반대하였다. 그로 인해 영국에서 위협을 느끼자 로마로 가서 추기경이 되었다.

이 포올을 교황의 특사로 영국에서 받아들여려고 하면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었다. 그것은 이미 선왕들이 교회 소유의 토지들을 귀족들에게 판매해서 개인 소유가 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국이 다시 카톨릭으로 복귀하려면 그 토지들을 환원해야 한다고 할 때 국민들의 저항이 따르게 되었다. 그래서 메리 여왕은 영국 전체를 카톨릭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교황청이 영국 수도원의 토지쯤은 포기하도록 설득했다.

이렇게 해서 폴이 영국으로 되돌아와 국회에서 상하 양원의 의결로 다시 카톨릭으로 복귀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헨리 8세, 에드워드 6세 때 제정된 반 교황적 법률들이 모두 취소되었다. 따라서 영국은 과거 헨리 7세 시대 성향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폴이 켄터베리 대 주교가 된다 (1556년).

5) 이단 법과 박해의 부활

1555년부터 시작된 개신교도들에 대한 박해는 갈수록 험악해졌다. 저명한 개혁파 주교들과 신학자들을 체포해서 여러 감옥에 분산, 수감시켰다.

추기경 폴은 교황청 특사의 권한을 살려 이단을 심문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죄수들을 심문하도록 했다. 맨 먼저 요한 로저스(John Rogers)가 화형되었다. 그의 수많은 순교자들의 수가 너무 많았다.

순교자에 관한 많은 기록은 존 폭스(John Fox)가 쓴 「순교자들의

책」(Book of Martyrs)에 수록되어 있다. 이 책 속에는 신앙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고자 허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용기있는 장면들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이 중에서 크랜머의 순교 장면은 너무나도 감동적이다. 그는 캔터버리 대주교였으며, 헨리 8세를 도와 개혁을 주도하였고, 에드워드 6세 때는 기도서 작성에 공헌한 신실한 목자였다.

그런데 크랜머는 1555년 10월 1일에 정죄받아 현재의 벨리올 대학 앞에 있는 옥스포드의 브로드 스트리트에서 화형을 당했다.

그를 고소한 사람은 메리 여왕과 필립이었다. 그리고 고발된 내용은 간음, 위증, 이단이었다. 간음이란 그가 사제로서 결혼했다는 것이고, 위증은 그가 사제로서 교황에게 순종을 서약한 후 파기했다는 것이고, 이단 죄는 화체설을 부인했다는 것이었다.

크랜머는 치욕스런 예식을 통해 직함을 박탈당하고 사형판결을 받는다(로마에서 판결한 후 지시함).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그의 형 집행 전에 정교한 정신적 고문을 가했다. 그래서 일련의 철회를 제시하면서 크랜머에게 군주의 명령에 따라서 서명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때 크랜머는 군주의 명령으로 강요되므로 궁극적 권위를 느끼면서 일반적으로 서명을 해 나갔다. 서명 요청 조항은 모두 7개였다. 처음 4개 조항은 별 거리낌 없이 서명하였다. 그러나 나머지는 심한 양심의 가책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런 뒤에 1556년 3월 21일 성 메리 성당 내 강단의 맞은 편 위에 올려졌다. 그는 마지막 말을 시작했다. 먼저 집권자들에게 진실한 순종을 바칠 것과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살도록 권면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는 전에 자기가 행한 7개 조항의 서명은 단지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이며, 행여 목숨을 구할 수 있을까 해서 마음에 없는 서명

을 했다고 했다. 그리고 자기가 행한 모든 서명을 철회한다고 했다. 아울러 내 손으로 쓰고, 서명한 이 손이 우선적으로 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교황을 비난하고 지금까지 자기의 저술들이 신념을 대변하는 것임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그는 활활 타는 불 속에서 손을 먼저 태우고 난 뒤 자신이 불 속으로 싸여 들어갔다.

이와 같은 크랜머의 순교는 그의 죽음의 불꽃이 더욱 널리 퍼지게 하였다. 그래서 잔악한 로마 카톨릭주의자들의 반동을 불살라버리고 드디어 영국을 개신교 국가로 만들었다.

크랜머는 헨리의 대신들 가운데서 오직 그만이 메리를 여왕으로 삼아야 한다고 고집했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추대한 그 여왕에 의해서 화형을 당했다. 그는 자신이 무너지더라도 공화국이 바로 서기를 바랐던 인물이었다.

한편 폴은 캔터버리 대 주교가 되었다. 그리고 필립이 공식 중일 때 여왕의 주된 자문관 역할을 했다. 메리 여왕은 전에 폐기한 카톨릭 법을 복구 실천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런데도 국내상황은 호전되지 않았다.

거기에다 새로운 교황 바울 4세는 나폴리 사람으로 메리의 남편인 필립을 증오했다. 그리고 추기경 폴도 싫어했다. 메리의 마지막 몇년은 더 어려움을 겪었다. 그녀가 그토록 헌신적으로 섬겼던 교회와 교황은 그녀의 애원을 거들떠보지 않았다.

메리가 세인트 제임스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의 남편인 필립은 거의 방문하는 일이 없었다. 또한 그에게 자녀도 없었고 가까운 친척도 없었다. 오히려 그가 저지른 수많은 적대자들에 의해 증오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모든 것에 지치고 원성에 싸인 메리는 1558년 11월 17일에 죽고 만다. 그가 죽고 난 다음 영국은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

4. 엘리자벳 여왕 하의 영국

(1) 엘리자벳이 여왕이 되다(1558-1603)

메리의 뒤를 이어 그의 이복동생 엘리자벳이 왕위에 오른다. 찰스 5세는 메리가 살아 생전에 그녀의 배다른 동생 엘리자벳을 처치하도록 여러 차례 종용하였다. 그러나 피에 젖은 메리였지만 그와 같은 가혹한 조치는 취하지 못했다.

엘리자벳은 헨리 8세와 앤 불린 사이에서 태어났다. 엘리자벳은 25세 때 왕위를 차지한다. 그녀는 노련한 경험을 가진 세상 물정에 밝은 여인이었다. 그녀는 약간 큰 키에 바랜듯한 붉은 머리를 가졌다. 그리고 올리브색의 안색과 꿩눈을 듯한 눈길에다 우아한 손과 기품있는 성격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녀의 그런 성격은 교활하고, 계산에 밝고, 냉정하며 요염한 여성의 역할과 냉철한 행정가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었다. 그는 신속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자신감에다 파비안적 전략(Fabian tactics)을 실행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에드워드나 메리에 비해서 훨씬 더 자기 아버지의 뒤를 잇기에 적당한 인물이었다.

엘리자벳은 프랑스어, 라틴어, 이탈리아어를 구사할 수 있던 그 당시의 현대 여성적 요소를 두루 갖추었다. 그녀는 또 교묘한 화술에도 뛰어났다. 그래서 많은 남성들에게 혹시 결혼의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심을 잔뜩 갖게 함으로써 상대를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였다.

엘리자벳은 전 생애를 처녀의 몸으로 지냈다. 그는 자기 자신의 결혼보다는 전 영국의 안정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다.

엘리자벳은 45년 동안 재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전 생애 동안 고르게 건강한 편이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얼굴이 점점 말라 갈

쭉해졌으며, 이빨도 누렇게 변색되고 고르지 못했다. 그녀는 이런 것을 감추려고 거대한 붉은 가발을 자주 사용하였다.

그녀는 자기가 왕이자 여성인 것을 이용하여 계속 사랑의 유희를 즐겼다. 그녀의 말년에는 궁정의 젊은이들 가운데 에섹스 백작(earl of essex)을 사랑했다. 그런데 에섹스는 버릇이 없고 군사 지휘자로 실수를 많이 한 것이 결국 그녀 최후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에섹스는 버릇없이 굴다가 반역죄로 기소를 받고 참수당한다. 이 일로 그녀는 말년에 깊은 우울상태에 빠져들곤 했다.

1602년 9월 7일, 그녀는 60회 생일을 축하받았고 1603년 3월 23일 영원히 잠들게 되었다.

(2) 엘리자벳의 국정 수습

엘리자벳은 윌리엄 세실(William Cecil)을 가장 가까운 정치 고문으로 선택하였다. 세실은 소머셋(Somerset)과 노덤벌랜드 등을 모셨고, 메리 여왕 때도 국정에 참여했었다. 이 세실이 처음에는 국무상, 후에는 재무상을 역임했으며 후에 버글리 경(Lord Burghley)이라고 불리웠다. 세실은 항상 침착과 중용을 추구하는 온건한 프로테스탄트였다.

1) 1559년 4월의 국회(수장법;the Act of Supremacy)

엘리자벳은 1559년 1월 15일에 왕관을 썼다. 그리고 4월 국회에서 수장법을 통과시킨다. 과거 메리 여왕이 임명한 주교들의 성직자 회의는 거의가 카톨릭 교리를 믿고 있었다. 그렇지만 과거 헨리 8세가 주장하던 영국 왕이 영국 교회들의 머리가 된다는 그 법으로 다시 회복시켜야만 했다.

즉, 헨리는 국왕을 '교회의 지고한 머리(Supreme Head of the

Church)라는 칭호를 법으로 제정했었다(1534년). 그런데 메리의 반동으로 이 법을 폐기하고 말았다. 그것을 다시 엘리자벳이 복구시킨 것이다(1559년).

이 수장법은 영국 국왕 하의 모든 관리들, 재판관들, 성직자들은 국왕이 모든 것의 수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서약을 해야 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직을 박탈당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군주나 고위 성직자를 받드는 고양 행위는 반역으로 다스려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것은 곧 메리 여왕 때 주장된 모든 카톨릭 법안의 취소를 뜻했다.

영국교회에 대한 교황청의 통치를 폐지시키고 교회에 대한 최고의 통치자가 영국 왕이라고 선언하였다. 이때 모든 주교들은 국왕의 수장법에 서약하기를 거절했으며, 이들은 자동적으로 주교직을 박탈당했다. 이렇게 되자 영국교회는 주교가 하나도 없게 되었다.

여기서 새로운 주교좌에 대한 주교의 임명 문제가 논의되었다. 전에 처럼 국왕의 임명제로 하면 간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참사와 수석 사제 중 국왕이 지명한 공천위원들이 천거한 사람을 국왕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캔터베리 대 주교가 임명되었다. 전의 대주교 포올은 메리 여왕 임종 후 12시간 후에 그도 임종을 했다. 그래서 새 대주교로 메튜 파커(Matthew Parker)가 임명된다. 이 사람은 엘리자벳 어머니의 목사였고, 엘리자벳의 가정교사였다.

엘리자벳은 파커 대 주교의 도움으로 성직자들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공식적인 주교들 자리가 채워져 나갔다. 이렇게 해서 수장법은 조용하게 처리된다.

그런데도 수장법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다. 이를 위해서 국왕의 시

찰 방문(1560년)이란 게 생긴다. 국왕의 시찰 방문단은 영국을 여섯개 지방으로 나누었다. 그래서 각 주지사, 지방의 유력 인사들, 약간 명의 법률가와 성직자로서 종교개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들로써 방문단을 구성하였다.

이들 방문단은 성직자들로 하여금 수장법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했다. 엘리자벳은 방문단원으로 하여금 성직자들에게 부드럽게 상대하라는 명령을 했다. 그 보고에 의하면 사제들은 대부분 무식하고 고집스러운 인물들로서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도당이라고 하였다. 또 다른 보고자는 국왕의 수장법을 서약하지 않는 사제들을 특수지역으로 축출해서 따로 지내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방문단까지 활용했으나 국왕의 수장법이 자리잡히기까지는 꽤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 까닭은 국민들의 대부분이 카톨릭적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뛰어난 인물들인, 재계와 정계에서 실권을 잡은 젊은 세대들은 신교도들이었다. 그렇지만 서민 대중은 대부분이 카톨릭적이었다.

영국의 수장법 통과 후 6년이 되자 총 9천 명의 성직자들 가운데서 겨우 200명만이 수장 인정을 거부했다. 수장법을 거부하는 세력은 크게 세 그룹이 있었다. 하나는 카톨릭이고, 다른 하나는 청교도였다. 그리고 세번째는 분리주의자들이었다. 엘리자벳은 이들 세 그룹을 모두 수장법으로 다스린다.

① 엘리자벳과 카톨릭과의 싸움

엘리자벳은 수장법 선포 후(1559년) 국내의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다. 특히 1569-1588년까지 스페인은 영국 내의 카톨릭 복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다. 그래서 스페인의 사주를 받은 카톨릭 교도들이

영국에 잠입해 영국을 카톨릭화 하려고 하였다.

그중에 하나는 노퍽(Norfolk) 공작에 의해서 스코틀랜드 여왕인 메리 스튜어트를 엘리자벳 대신 왕으로 추대하는 운동이 벌어진 것이다 (1569-1570년). 이 운동은 극히 일부 지방의 위세로 끝나고 말았으나 이같은 운동의 배후에는 스페인의 사주와 원조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래서 영국 내 카톨릭의 잔존세력은 두통거리였다. 또 교황 피우스 5세(Pius V)는 1570년 2월 25일에 엘리자벳 여왕을 파문시키고 만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30년간은 제슈잇 교단에 의해 집중적으로 포교 공격을 받는다. 그들은 변장한 채 이 집 저 집 포교를 했다.

엘리자벳은 1571년에 반 교황적 법안을 통과시킨다. 영국 내 교황의 칙령 반입을 금지하고 국왕을 이단이라든가, 반역자라고 하는 자는 반역죄로 다스리겠다고 선포한다. 1585년에는 제슈잇 교단의 광신적 공격을 추방하는 추방법을 통과시킨다.

이렇게 해서 엘리자벳의 재위 45년 동안 카톨릭 교도들이 221명 처형 당한다. 이것은 메리 여왕이 재위 5년 동안 290명의 개신교도들을 처형 시킨 것과 좋은 대조가 된다.

② 청교도와의 갈등

청교도라는 용어가 시작된 것은 1564년부터이다. 이들이 맨 먼저 문제로 등장한 것은 성직자들의 복장에 관한 문제에서 비롯된다.

흔히 이것을 성복논쟁(The Vestiarian Controversy)이라고 한다 (1563년). 청교도들은 성직자들에게 입도록 마련된 제복의 사용 여부는 강제로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성직자들이 주중에 캡과 가운을 입고 주일날 중백의(中白衣, Surplice)를 걸치라는 것에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후 그들은 세

례를 줄 때 성호를 긋는 일, 성찬식 때 무릎을 꿇게 하는 행위, 지나치게 많은 종교 축일, 결혼식 때의 반지 사용, 교회 안에서 오르간 사용 등을 반대했다. 이와 같은 것은 로마 카톨릭의 잔재라고 주장했다.

이들 청교도들은 로마 카톨릭의 잔재를 일소하고 중백의 외에는 모든 성직자 의복제도를 폐지하자고 건의했다. 이같은 건의는 전체 성직자 회의에 상정되었으나 회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부결되고 말았다.

그러나 1572년에는 전혀 새로운 양상으로 청교도 운동이 드러난다. 그것은 토마스 카트라이트(Thomas Cartwright)를 비롯한 일단의 런던 청교도들이 제기한 문제였다. 이들은 엘리자벳 여왕이 추진하는 앵글리칸 교회의 계급체제 대신에 장로교 형태의 정부 조직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1차, 2차 훈계서를 통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발췌한 장로교식 교회체제를 주장하였다. 그들은 교회를 치리할 당회의 조직과 회중들에 대한 목회자들의 위임과 공중예배의 요람들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청교도들의 반항은 엘리자벳으로 볼 때 안정과 평온을 위협하는 세력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수장법으로 다스렸다. 그러자 카트라이트는 1574년에 도주하고 만다. 그렇지만 장로교는 지하운동으로 숨어 들고, 표면으로 노출되지는 않는다.

③ 분리주의자들(Separatists)

이들은 극단적인 반 기성교회적 운동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운동은 캠브리지의 로버트 브라운(Robert Browne)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들은 수많은 교회들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함께 모인 집단이라는 뜻의 회중교회의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이들은 브라운이 쓴 「모든 진실한 기독교인들의 생활과 태도를 보여주는 책」(Book Which Showeth the Life and Manners of All True Christians)에서 설명된다.

그들은 모든 회중들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카톨릭과 앵글리칸을 모두 다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회중은 주교들의 영향이나 장로회의 조직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도자는 반드시 고등교육을 받은 자들이 아니더라도 회중들이 적당한 인물을 목사와 장로로 선출해야 한다고 했다. 예배도 매우 단순한 순서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브라운은 1580년경 노르위치(Norwich)에다 실제로 이러한 교회를 세웠다.

이에 경악한 엘리자벳 정부는 이들 분리주의자들에게 박해를 개시하였다. 1586년에는 신학서적들에 대한 검열제(Conventicle Act)를 실시하여 극단적인 청교도 운동이나 분리주의 운동을 억제시키고자 했다.

1593년에는 비밀 집회법이 반포되었다. 기성교회(영국교회)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따로 별개의 집회를 갖는 자들을 유배 보내거나 혹은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

실로 존 나스는 엘리자벳을 가리켜서 '훌륭한 프로테스탄트도 아니고 확실한 교황주의자도 아니다.' 고 하였다. 이 말처럼 엘리자벳은 로마 카톨릭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혁주의도 아닌 적당한 중간으로 절충해 놓았다. 그녀는 가장 많은 수의 백성을 만족시킬 영국교회의 구조를 갖기 원했다. 그래서 카톨릭적 요소와 개신교적인 요소들을 다 포함시켜 타협적인 영국교회를 만들어 나갔다.

2) 39개 신조(Thirty-Nine Articles)

엘리자벳과 대 주교 파커(Parker)는 교리적인 어떤 표준이 있어야 함

을 느꼈다. 그래서 과거 에드워드 6세 때 영국교회의 신학으로 규정하였던 42개 신조(Forty-Two Articles)를 개정하여 대주교회의에 상정시켰다.

여기서 신앙의 주된 신조들의 선언이라는 11개 조항의 신조를 발표하였다(1561년). 결국 이것이 앵글리칸 교회의 기본 강령이 되었다.

이 39개 신조의 내용은 지나치게 차이나지 않게 하고, 그렇다고 너무 극단적인 입장도 배제하였다. 여기서는 교황권을 배격하였다. 또 성찬식에 있어서도 카톨릭의 화체설을 부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쓰빙글리의 상징적 임재설도 부정하였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만이 아닌 실재적 임재를 주장하여 루터적인 데 접근하였다.

이 속에는 예정설이 받아들여졌으나 극단적 칼빈주의 입장은 아니었다. 1562년 살리스버리(Salisbury) 주교인 존 제웰(John Jewel)이 영국 국교를 방어하는 변증서를 썼다. 그는 '앵글리칸 교회를 위한 변증(Apology for the Anglican Church)'을 썼다. 이 책은 최초로 조직적인 앵글리칸 교회의 입장을 수호하는 책이었다.

1563년의 대주교 회의에서 39개 신조를 확정시켰다. 이로써 신앙의 개정 작업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영국 교회의 기초는 엘리자벳 여왕에 의해서 놓여졌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이 법의 확정 후는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살펴보자.

첫째, 영국 영토와 영국 교회 내에서 로마 카톨릭 주교의 권위를 완전히 배척하였다. 국왕 아래서 관직을 가진 모든 성직자들과 일반인들은 로마 주교에 대한 배척을 서약해야 했다. 만약 서약을 거절하면 관직과 성직록을 박탈했다. 그래도 거부하면 재산을 몰수했다. 세번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반역자로 간주되어 최악의 형벌을 받게 하였다.

둘째, 왕이 영국교회의 최고 통치자가 되었다. 대주교회의는 독자적

입법 활동을 할 수 없었다. 교회법과 규범의 제정 권한은 국왕의 통제 아래 두었다.

셋째, 공중 기도서(The Book of Common Prayer)에 의해 모든 영국인을 위한 공중예배의 통일된 일치예식을 규정하였다. 예배의 자유는 결코 허락되지 않았다. 규정된 예배 형식에 벗어나는 자는 범법자로 간주되었다. 예배 형식을 벗어나게 충동질하는 자도 동일 범죄로 간주했다. 모든 신민들은 의무적으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야 했으며, 기도와 설교를 경청해야 했다.

만약 이것을 어겼을 경우는 벌과금을 내야 했다. 가난한 자는 20펜스를 지불해야 했다. 완강한 기피자, 혹은 비국교도들은 출교시켰다. 모든 출교된 사람은 구금형을 면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영국 국교 안에서의 자유는 있었으나 그 외에는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다.

(3) 엘리자벳과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잉글랜드는 튜더 왕조(Tudor)가 지배했고, 스코틀랜드는 스튜어트(Stuart) 왕조가 지배했었다. 튜더 왕조를 창건한 헨리 7세는 그의 딸 마가렛을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4세에게 출가시켰다. 제임스 4세와 마가렛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제임스 5세였다. 즉 제임스 5세는 헨리 8세의 조카가 되었다.

헨리 8세는 엘리자벳을 낳았고, 제임스 5세는 메리 스튜어트를 낳았다. 그러니까 엘리자벳과 메리는 사촌간이 된다. 메리가 태어난 지 꼭 1주 만인 1542년 12월 14일에 그의 부친 제임스 5세가 사망한다. 메리는 생후 6년 만에 프랑스로 보내져서 이곳 프랑스 궁중에서 자랐다.

그는 프랑스 궁중의 황태자 및 그의 여동생들과 함께 자라났다. 그녀

는 경박한 쾌락을 즐기는 기사도적 로맨스풍의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인지 장성했을 때는 극히 세속적인 여인으로 정열적인 사랑과 맹렬한 증오를 즐기는 여인으로 성숙했다.

메리는 1558년에 황태자 프란시스에게 시집 보내졌다. 그런데 메리의 시어머니였던 캐더린 드 메디치와 사이가 나빠져서 궁정생활이 불편했다. 1559년에는 프랑스 왕 앙리 2세가 사망하자 메리는 프랑스의 왕비가 되었다.

1560년 12월 5일 그녀의 남편이 사망한다. 이때 메리는 당시 가난한 후진국이던 모국 스코틀랜드로 돌아갈 것을 결단한다. 그렇지만 스코틀랜드는 개혁파가 세력을 잡고 있었으므로 자기들의 적대국인 프랑스 왕비의 귀국을 반겨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메리가 스코틀랜드인이므로 마지 못해 응락한다. 이렇게 해서 1561년 8월 19일에 스코틀랜드로 돌아온다.

메리가 프랑스 왕비요, 스코틀랜드 왕이었으나 실제 통치권은 없었다. 왜냐하면 족벌들의 힘이 워낙 강했고, 개혁가들의 입김이 막강했기 때문이다.

1565년 영국 엘리자베스는 헨리 9세의 증손인 헨리 스튜어트, 즉 다안리(Darnley) 경을 스코틀랜드로 돌려보냈다. 다안리는 카톨릭 교도였을 뿐만 아니라 메리의 배우자로 적당한 인물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스페인과 스코틀랜드가 다 같은 카톨릭 국가로 동맹을 맺게 두는 것보다는 스코틀랜드를 영국 쪽으로 가깝게 하는 것이 편했기 때문이다. 당시 23살이던 메리는 다안리와 사랑에 빠져 곧 결혼한다.

그러나 다안리는 야비하고 폭력적인 남편에 지나지 않았다. 다안리가 꾸민 살인혐의로 메리는 투옥당했다가 탈출한다. 메리는 보스웰

(Bothwell)의 제임스 헵번(James Hepburn) 경에게 피신을 하였다. 보스웰과 메리는 5월 15일에 결혼을 하였다.

결혼 한 달 후에 프로테스탄트 귀족들이 일제히 봉기를 들었다. 이때 프로테스탄트들은 보스웰은 피신케 하고, 메리는 투옥시켰다. 그러나 메리가 극적으로 탈출을 한다. 그리고 자기 운명을 영국 엘리자벳에게 맡긴다.

엘리자벳은 메리를 세실에 의해 재판케 한 후 19년간을 연금상태에서 살게 한다. 메리는 30명에 달하는 시종들을 거느리고 프랑스로부터 받는 지참금으로 각종 특혜 속에서 살아간다.

이 무렵 이탈리아 은행가 로베르또 리돌피(Roberto Ridolfi)는 교황의 허가 아래 엘리자벳을 암살하고 메리를 노퍽의 공작과 결혼시키려는 음모를 시행하려다가 적발된다. 공작은 1572년 6월 2일에 참수당한다.

그후 1586년에 메리는 또다른 엘리자벳 제거 음모를 꾸미다가 발각된다. 드디어 스코틀랜드 여왕으로 불리던 메리는 엘리자벳에 의해 사형에 처해지고 만다.

그녀는 죽을 때에도 카톨릭 신앙자임을 천명하고 죽었다(1587년). 메리의 죽음으로 스페인이 영국을 공격하면 영국 내부에 있는 카톨릭 세력의 반란이 발생하리라는 희망은 좌절되고 만다.

(4) 엘리자벳의 영국 확장

엘리자벳의 재위 초기에는 스페인이 영국의 전통적 적수 프랑스와의 사이에 끼어 있어서 큰 보호자가 되었다. 그러나 세월은 달라져서 영국과 스페인 사이가 종교의 차이로 말미암아 생사를 건 투쟁관계로 달라졌다.

이때 영국은 네덜란드에 원조를 구함으로 대륙 내에서 영국과 동맹국

으로 우의를 지켜 나갔다. 스페인의 필립 2세는 영국을 가만히 둘 수 없었다. 그래서 1584년에는 네덜란드의 윌리엄 오렌지공을 암살시켰다. 그후 1586년에는 주영 스페인 대사 멘도자(Mendoza)가 엘리자벳의 목숨을 노린 혐의로 추방당했다. 그리고 1587년에는 메리 스튜어트가 사형을 당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를 지켜 본 스페인은 영국을 점령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1588년 무적 스페인의 함대가 영국을 공격한다. 그런데 영국은 1596년에 스페인의 칼레를 점령한다. 1599년에는 무형 함대가 등장한다.

또한 영국은 포르투갈에 대한 반격과 해양 요새를 구축한다. 이렇게 해서 영국은 세계 최강이라던 스페인에 대적하여 승리를 거둔다. 이로써 영국은 새로운 자신감을 갖게 된다.

튜더 왕조하의 영국인들은 그 성격이나 전통으로 볼 때 세계적 탐험가나 식민지 건설자들은 아니었다. 그런데 스페인이 남미에 구축한 식민지들과 황금 채취를 보고서 뒤늦게 자극을 받아 전 세계를 향해 영국 세력은 영토 확장에 힘쓰게 된다.

특히 프란시스 드레이크(Francis Drake)는 교묘한 항해술로 스페인의 해상권을 맹렬하게 교란시켰다. 그는 대서양만이 아니라 태평양까지 진출하여 백 오십만 파운드 상당의 보화를 벌어들여 조국에 바쳤다. 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항구에 많은 함대를 격파하여 스페인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고 말았다. 1588년 이후의 제해권은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옮겨진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 세계 제해권이 엘리자벳 통치의 종말과 함께 같이 나고 만다. 엘리자벳이 1603년에 사망하면서 그 뒤를 이은 것이 메리 스튜어트의 아들인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였다. 제임스 6세는

1572-1603년까지는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다. 그런데 엘리자벳이 후계자가 없이 죽자 그의 후계자로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천거되었다.

제임스 6세는 1603년부터 스코틀랜드와 영국을 합병한 왕이 된다. 이 제임스 6세는 통합 왕이 된 후 이름을 바꿔서 제임스 1세(James I : 1603-1625)라고 한다. 이때부터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하나가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제임스 6세였던 영국의 새 왕 제임스 1세는 엘리자벳의 충신들을 멀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여기서 영국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스페인과 견줄 수 있는 제국을 건설하려던 꿈이 새 왕의 정책 변화로 사라지고 만다. 엘리자벳이 10년만 더 살았어도 남미의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제 10 장 스코틀랜드의 개혁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기를 1560년 경으로 잡는데 이때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부르짖은 지 40년이 지난 후이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영국에서 헨리 8세가 교황과 관계를 단절한 지 한 세대 이상이 지난 후였다.

그렇다면 스코틀랜드의 개혁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 그것은 스코틀랜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들 때문이었다. 가장 큰 요인은 왕실이 굳건하지 못했다. 그에 상대적으로 지방의 소 귀족들이 더 강했다. 그리고 국회나 지방 의회는 귀족들의 집합에 불과했다. 교회는 세속화 되어 대중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

이와 같은 자체 요인 외에 외부적 요인도 크게 작용했다. 스코틀랜드는 프랑스와 전통적인 우의를 지켜오고 있었다. 그래서 프랑스와의 계속적인 친선관계는 영국과의 분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와 반대로 스코틀랜드가 영국과 보조를 맞춘다면 영국 국교인 성공회를 택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와중에서 존 낙스의 공헌으로 프랑스의 카톨릭도 버리고 영국의 성공회도 버린 스위스 제네바의 장로교를 택한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다분히 외세를 배격하려는 국내 정치적 요인들이 크게 작용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우리는 또다른 형태의 종교 개혁사를 살펴보도록 하자.

1. 스코틀랜드의 정치사

잉글랜드 북쪽에 자리잡고 있던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로부터 자주 침입을 받았다. 이때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를 대항하기 위해 프랑스와 전통적으로 가까운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는 지속적인 후진성을 면치 못하였다. 그들은 다른 서구 유럽에 비해 400년 정도는 뒤떨어진 상태였다. 스코틀랜드의 가장 큰 약점은 왕실이 항상 흔들린다는 것이었다. 스코틀랜드 왕실 이야기라면 곧 암살의 일화라고 할 정도였다. 그에 따른 득실거리는 섭정들 세력도 각축전을 이루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방의 소 귀족들이 훨씬 강했다. 그들은 비 양심적인 봉건 제후들이었다. 국회와 지방 의회가 있었으나 봉건 귀족들의 집합에 불과했다.

교회는 로마 카톨릭 성직자들에 의해 엄청나게 세속화 되어 있었다. 그들은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성직록의 토지로 인해 치부하고 있었다.

이 나라의 백성들, 즉 중산층은 어디를 봐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타국으로 교육에 의한 미래 희망을 기대하였다. 이들 중산층은 프랑스, 영국, 보헤미아 등으로 유학을 갔다. 거기서 유럽 전체를 뒤쫓는 개혁의 열풍 속에서 새로운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된다.

스코틀랜드 개혁은 일반 중산층들이 해외에 나가서 개혁의 현장을 목격하고 돌아온 이들에 의해 시작된다. 그리고 그와 때를 맞춘 정치적인 변화도 크게 한 몫을 한다.

스코틀랜드는 16세기에 이르러 여론이 양분된다. 즉, 일부는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프랑스와의 관계를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변화하는 상황을 좀더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들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잉글랜드와 보다 밀접한 선린관계를 이룩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고 하였다.

이같은 여론 속에서 스코틀랜드 왕실과 잉글랜드 왕실에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것은 1502년에 스코틀랜드 제임스 4세가 잉글랜드 헨리 7세의 딸 마가렛 튜더(Margaret Tudor)와 결혼을 하게됨으로 이루어진다.

제임스 4세와 마가렛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제임스 5세였다. 제임스 5세는 헨리 8세의 조카였다. 헨리 8세는 자기의 딸 메리 튜더와 제임스 5세와 혼인시킬 의사를 표했다. 그렇지만 스코틀랜드의 친 프랑스파가 우세했으므로 제임스 5세는 프랑스 프란시스 1세의 딸 마드렌느(Madeleine)와 결혼한다(1537년). 그녀가 너무 어린 나이로 죽자 메리와 다시 결혼한다(1538년).

이런 결정은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와의 제휴를 꺼리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때로부터 브리튼 제도에 자리잡은 두 왕국들은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 반대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그 후에도 헨리 8세는 스코틀랜드에 접근을 한다. 그래서 제임스 5세와 기즈의 메리 사이에서 태어나 아직 어린 아이였던 메리 스튜어트를 자기 아들 에드워드와 결혼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메리는 프랑스로 보내져 그곳에서 자라 그곳에서 결혼을 한다.

이와 같은 왕실간의 불협화음은 곧 스코틀랜드와 앵글랜드간의 정치사의 흐름을 말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의 왕실에서는 개혁이 하등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 스코틀랜드의 개혁은 일반 중산층에서 시작된다.

2. 개혁의 준비

(1) 스코틀랜드의 롤라드

이 나라 백성들은 교육에 대한 희망을 가졌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 유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이같은 추세에 의해 한 스코틀랜드 출신 주교는 동포들을 위해 파리에다 스코틀랜드 대학을 창설하였다.

또 다른 주교는 옥스포드와 캠브리지에서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신변 안전보장을 얻어내기도 하였다. 이런 결과 1357년부터 1389년 사이에 학생들이 영국 대학으로 많이 흘러 들어갔다.

이 기간은 옥스포드가 위클리프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할 때였다. 이렇게 해서 영국으로 유학을 간 학생들에 의해 옥스포드에서 일어난 학생 개혁운동인 롤라드(Lollardy)가 전달된다. 영국에서 롤라드를 접했던 학생들이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을 때 롤라드는 스코틀랜드로 퍼져 갔다. 이렇게 스코틀랜드에 롤라드가 퍼져나갈 때 보헤미아의 후스파들도 접근해 온다.

1433년 7월 23일에는 파울 크로우(Paul Crow)가 체포된다. 그는 프라하의 후스파 서신들을 휴대하고 있었으며,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 후스파 운동을 소개하였다. 바울은 교회의 종교재판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이단으로 화형에 처해졌다.

(2) 스코틀랜드의 루터파 저술들

스코틀랜드 국회에서는 1525년에 루터파 서적을 가지고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감금형과 그들이 타고 온 선박과 화물을 압수한다고 선언하였다.

또 1527년에는 루터파의 확산을 돕는 자에게도 동일한 처벌을 가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정부의 노력은 성공을 거둘 수가 없었다. 1535년에는

성직자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이단적인 서적을 구입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서적은 40일 내에 반납할 것을 종용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금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물결은 더욱 급속히 퍼져 갔다. 여기서 최초의 스코틀랜드 개혁을 위한 순교자가 나온다. 그는 패트릭 해밀톤 경(Sir Patrick Hamilton)의 아들인 패트릭 해밀톤(Patrick Hamilton)이었다.

그는 1520년 파리에서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이 당시 루터의 글을 열심히 탐독하였다. 그때 독일 개혁자의 사상에 크게 감명을 받았을 것이다. 그가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는 자신의 견해를 숨기지 않고 밝혔다. 1527년 그는 이단의 죄목으로 고소당하게 된다. 그는 스코틀랜드를 빠져나와 독일로 피신했다.

그렇지만 그는 고국으로 되돌아가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상을 증언해야 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다시 돌아온다. 그는 1527년 가을부터 스코틀랜드에서 설교를 시작했다. 그의 목회 사역이 성공을 하자 고위 성직자들은 불안을 자아냈다. 약 한달 동안 설교와 함께 대학에서 토론을 하였다. 결국 그는 체포되어 화형을 당했다(1528년 2월 27일).

그로부터 해를 거듭할수록 순교자들이 줄을 이어 발생했다. 특히 날로 증가하는 왕실의 권력으로 인해 이전에 누렸던 귀족들의 권리가 날로 박탈당해갔다. 이에 대한 반감으로 귀족들 사이에서도 프로테스탄트 신앙이 더욱 거세게 번져갔다.

(3) 조지 위샤트(George Wishart)

피타로우의 위샤트(Wishart of Pittarrow) 가문의 한 사람인 조지 위샤트는 종교적 박해로 인하여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한다. 그는 영국, 독일, 스위스 등을 돌아다니면서 방황한다. 그러다가 1543년에 귀국을 한다.

그는 고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온 몸을 바치겠다고 결심한다. 위사트는 고국의 여러 도시로 순회 설교를 다녔다. 이 무렵 존 낙스가 위사트 곁에 동료로서 수행하였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담대한 설교자 위사트를 암살하려고 하였다. 여기에 맞서 존 낙스도 양 날이 번쩍이는 칼을 휴대하고 위사트 신변을 보호하였다.

그러나 위사트는 체포되어 성 앤드류 지하 감옥에 감금되었다가 대성당의 재판 후 처형된다(1546년 3월). 위사트의 순교가 있는 지 3개월 후 개혁을 지지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성 앤드류 성을 뚫고 들어갔다. 그때 저들은 모든 국민의 원성을 듣는 추기경 데이빗 비튼(David Beaton)을 살해한다.

비튼 추기경은 성 앤드류의 대 주교로 있으면서 스코틀랜드를 프랑스와 로마와의 관계에서 우호적으로 끌고 갔으며, 영국과 종교개혁과는 반대적 경향이 되도록 몰고 갔다.

이같은 원성이 높은 추기경을 살해한 후 성 앤드류 성은 암살자들이 장악했다. 그후 이 성은 정부로부터 생명을 위협받는 사람들과 개혁을 지지하는 이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이때 새로운 인물로 등장한 것이 존 낙스였다. 그는 성 앤드류에서 강압적으로 설교자가 되었다. 그의 첫 설교로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으뜸가는 개혁자로 인정받았다.

3. 존 낙스의 출현(John Knox: 1515-1572)

(1) 그의 초기 사역

존 낙스의 어린 시절에 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그는 1515년경 하딩톤 근처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빈

농계급의 평민 출신이었다. 그의 조상들은 보스웰의 백작(Earl of Bothwell) 추종자들이었다.

그는 1540년에 교황청 공증인으로서 사제 서품을 받았다. 1545년에는 오르미스톤(Ormiston)과 롱 니드리(Longniddry) 가문의 자녀를 가르치는 가정교사로서 1545년 12월부터 1546년 1월까지 위샤트를 수행하였다. 존 나스는 강건하고, 우람한 신체로 위샤트를 호위할 때 양 날이 선 검을 들고 호위하였다.

그런데 존 나스가 성 앤드류 성 안에서 피난민을 대상으로 설교를 할 때 그의 나이 32세였다. 성 앤드류 성과 마을에서 나스의 활동이 끝난다. 그것은 프랑스의 군함선이 도착해서(1547년 7월) 성벽을 향해 쏘아대는 대포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항복을 하고 만 것이다.

이때 존 나스는 프랑스 군에게 포로가 되어 19개월 동안 노예선에서 노젓는 생활을 하게 된다. 그는 4명에서 6명이 한 조로 쇠사슬에 묶인 채 노젓는 의자에서 고역으로 시달려야 했다. 그는 배의 오른쪽 노젓는 자리에서 하루종일 자세를 바꾸지 않고 노를 저어야만 했다.

밤에는 노젓는 자리 아래 칸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잤다.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노젓는 양쪽 자리의 통로를 오가면서 사정없이 내리치는 감독자의 채찍을 맞아야 했다. 그러던 그는 영국 정부의 노력으로 풀려난다. 그는 노예선에서 풀려나 1549년 4월 7일 영국에 도착한다.

(2) 영국, 스위스, 프랑크푸르트의 나스

나스는 영국에서 5년 가까이 종교개혁의 설교자로서 일을 한다.

버윅(Berwick), 뉴캐슬(Newcastle), 런던에서도 목회자로 일하면서 두 차례의 승진 기회가 있었으나 모두 다 거절한다. 그 이유는 영국교회의 공공기도서와 성례전의 집행과 기타 의식에 관한 사항이 그에게 수

납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 이때 낙스는 이미 영국 국교회의 제한성을 알게 된다.

낙스의 영국 사역도 '피의 여왕' 메리 튜더의 출현으로 중단하게 된다. 낙스는 프랑스를 걸쳐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한다. 여기서 얼마 동안 칼빈과 함께 지낸다.

그 후에는 다시 불링거(Bullinger)를 만나러 취리히로 간다. 이 때 낙스는 독재적인 군주를 백성들이 제약시킬 권리가 있는가, 아니면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가? 이같은 신학적 문제를 정립하는 데 고심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다.

1554-1558년 동안 낙스는 대륙에서 보낸다. 특히 영국인 망명객들이 모인 프랑크푸르트 개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함으로 그의 고상한 인격이 더 한층 돋보이게 됐다. 이들 망명객들은 스코틀랜드의 개혁은 개신교인 영국과의 병합 관계가 이뤄질 때 가능함을 깨닫게 해 주었다.

낙스는 스코틀랜드를 짧게 방문한다(1555년 9월-1556년 7월). 그리고 다시 제네바로 출발하였다. 여기서 그는 마조리 바우에스(Marjory Bows)와 결혼을 한다. 그리고 칼빈 밑에서 공부를 더한다.

4. 스코틀랜드 개혁교회

(1) 회중의 의장단(The Lords of the Congregation)

이들 회중의 지도자가 생기는 것은 왕실에서 일방적으로 카톨릭에 의한 정책을 펴 나가는 것에 대한 반발에 의한 것이었다. 여기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프로테스탄트들이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따라 '회중'을 섬기겠다는 약속을 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들 회중을 섬기겠다는 '회중의 의장단'은 1557년 말에 서약을 하고

그 약속 협정을 공증해서 법적 형식을 취했다. 이들은 자기들이 목표하는 바가 잉글랜드 프로테스탄트와 유사함을 깨닫고 저들과 동맹하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1558년에는 회중을 섬기겠다는 최초의 개혁교회가 설립된다. 그 뿐만 아니라 이들 회중의 의장단은 그 당시 섭정을 하고 있는 태후인 기이즈의 메리(Mary of Guise)에게 공식으로 청원을 한다. 이 때의 청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개혁 교회 양식에 따른 다른 예배를 공개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라.

b. 성직자들을 이단으로 재판하는 성직자 회의법을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때까지 유보할 것.

c. 이단의 혐의가 있는 사람이라도 세속 재판관 앞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해 줄 것.

d. 성직자들의 사악한 생활을 개혁해 줄 것 등을 청원하였다.

이같은 청원을 섭정자 기이즈의 메리에게 제출했으나 메리는 아무런 반응을 해 주지 않았다. 이에 회중의 의장단은 이 문제를 국회로 직접 가지고 갔다. 그리고 자기들은 신앙의 오용을 개혁하기 바라는 마음뿐이며 신앙에 관해서는 양심의 자유를 따르겠다고 선언하였다.

(2) 낙스의 환국

이 무렵 낙스는 '여성들의 괴수 집단에 대한 첫번째 나팔소리' (The first blast of the trumpet against the monstrous regiment of women)이라는 격렬한 논문을 펴냈다.

이 논문은 피의 여왕 메리 튜더를 겨냥했었다. 그 외에도 스코틀랜드의 기이즈 메리도 포함됐다. 기이즈의 메리에게는 '실수로 안장을 엮게

된 막되 먹은 암소' (Unruly Cow Saddled by Mistake)라고 하였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그 어느 국토든지를 막론하고 여자들이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한다는 것은 자연에 어긋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뜻과 허락하신 법칙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논문을 본 엘리자벳 영국여왕은 낙스가 반여성적인 인물이라는 나쁜 인식을 갖게된다. 낙스는 몇번이고 자기 본의를 해명하였으나 엘리자벳으로서는 충분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낙스는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활동하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결국은 동맹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만다.

낙스는 스코틀랜드 의장단의 환국 초청으로 1559년 5월 2일에 에딘버러에 도착한다. 낙스는 처음부터 영국의 지원이 없으면 개혁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영국의 "엘리자벳"은 낙스의 '첫 나팔소리'에 대한 선입관으로 도우며 응하지 않는다.

그런데 엘리자벳의 정치고문인 윌리엄 세실(William Cecil)이 영국 국무장관이 되었다. 이 세실은 상당히 칼빈주의자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스코틀랜드 의장단은 세실로부터 도움 약속을 얻어낸다. 세실은 영국 군대를 이끌고 스코틀랜드로 간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주둔해 있던 프랑스 군과의 대전에서 영국이 승리한다.

여기서 영국과 프랑스는 에딘버러 조약(1560년 7월 6일)으로 프랑스가 스코틀랜드에서 힘을 잃게 된다. 그런데 프랑스군이냐 영국군이냐 같이 스코틀랜드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때 마침 섭정을 하던 기이즈의 메리가 사망한다. 그 결과 프랑스와 잉글랜드 양국은 모두 자기들의 군사를 철수시킨다.

그 후 눈앞의 위험이 사라지자 낙스와 귀족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

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것이었다. 귀족들은 자신들이 교회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닉스는 그 자금을 이용하여 국립교육제도를 확립하고 교회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3) 스코틀랜드 개혁교회(The Reformed Church of Scotland)

닉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새로운 여왕 메리 스튜어트(Stuart of Mary)와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코틀랜드 개혁교회를 조직하였다(1560년). 이 교회의 양상은 그 후 장로교회와 유사하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개혁교회의 시작을 1560년 8월 24일로 본다.

닉스는 자기가 신봉하였던 칼빈주의적 장로교의 모습으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결정짓는 세개의 기본서를 제시한다. 닉스는 자기 추종자들과 함께 다음 세 가지 기본서를 만들었다.

- a. 스코틀랜드 신앙고백(Scots Confession)
- b. 제 1 치리서(First Book of Discipline)
- c. 일반 율례서(The Book of Common Order) 등이다.

이 책을 좀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

1)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이 고백서는 개혁교회 신조들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 신앙고백은 1647년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으로 대체된다. 이 두 개의 고백서는 상당히 많은 연륜(1560년과 1647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자가 전자에 비해 전혀 위배되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후자가 비인간적인 논리성이 있음에 반해 전자가 훨씬 동정적이며 인간적인 면이기도 하다.

2) 제 1 치리서

이 책은 어떻게 하면 개혁 교회를 가장 최선으로 다스릴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말한 것이다. 이 치리서는 곧 교회 행정에 관한 것이다.

교회행정은 당회(Kirk-Sessions), 대회(Synod), 총회(General Assembly)를 갖추었다. 그리고 교직자로서 목사, 교사, 장로, 집사, 감독관(the Superintendents), 낭독자(reader=목사를 대신하여 예배의 일부를 주관하는 평신도)를 두었다. 감독관은 일정한 지역을 책임지고서 그 지방의 교회적이며 신앙적인 상황을 총회 앞으로 매년 보고서를 내야 했고, 그 지역내의 여러 교회에서 설교도 해야 했다.

3) 일반 율례서

이것은 제네바 모범서, 낙스의 예배모범 등으로 이름이 불려진다. 이것은 교회의 공중 예배와 행사에 관한 지침서였다. 이 책은 주로 시편을 운문적으로 편집했으므로 흔히 '시편서' 라고도 한다.

이렇게 해서 스코틀랜드 개혁교회의 총회는 최초로 1560년 12월 20일 에딘버러에서 모였다. 이때 총회원은 42명이었고 그중 목회자는 6명이었다. 이 후로는 교회가 관련되어 있는 각종 투쟁에도 불구하고 매년 두 차례씩의 회의를 통해 교회 조직은 능동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5. 개혁 후의 뒷마무리

(1) 고등교육기관의 설립

종교개혁의 모든 지도자들은 교육활동에 많은 비중을 둔다. 루터가 그러했고 칼빈도 그러했다. 여기 낙스도 마찬가지다. 낙스는 그의 친구 조지 부케난(George Buchanan)과 함께 학교 건립을 추진한다. 그래서

성 앤드류(St. Andrews), 글라스고우(Glasgow), 애버딘의 3개 대학이 새롭게 탄생되었다. 그 후 네번째로 에딘버러(Edinburgh)대학이 설립된다.

(2) 여왕 메리와의 투쟁

프랑스에서 자라나 프란시스 2세와 결혼했던 메리는 미망인이 되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다(1561년 8월 19일). 이 메리의 귀국과 함께 낙스에게는 커다란 공포의 회오리가 불어닥친다. 메리는 스코틀랜드를 다시 카톨릭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했다. 메리는 잉글랜드 왕위까지 차지하려고 자기 사촌 단리 경과 결혼했다가 파경을 이룬 후 다시 보스웰 경과 결혼한다.

이같은 부도덕한 생활로 그녀는 결국 스코틀랜드에서 쫓겨나고 만다. 그러나 1560년부터 메리가 쫓겨나는 1567년까지의 7년 동안의 투쟁은 험하고 힘든 싸움이었다.

(3) 낙스의 후계자

낙스는 스코틀랜드에 장로교식 개혁교회를 이룩하였다. 낙스는 1572년 11월에 죽게 된다. 그러자 그의 뒤를 이은 앤드류 멜빌레오(Andrew Melville)가 개혁 작업을 계승한다. 멜빌레오는 그가 싸워야 할 대상들이 있었다. 하나는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공략해 들어오는 로마 카톨릭이었고 또다른 하나는 잉글랜드로부터 공략해 오는 성공회의 세력이었다. 그렇지만 멜빌레오는 이 모든 투쟁에 굴하지 않고 계속 싸워서 승리한다. 결국 스코틀랜드는 국회에서 장로회를 공식 종교로 선언한다. 이렇게 해서 스코틀랜드에 장로교가 정착하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귀중한 사실을 하나 배울 수 있다. 왜 스코틀랜드는 장로교 국가가 됐을까? 그것이 존 낙스 혼자서의 힘으로 가능했을까? 우리는 스코틀랜드의 오랜 정치사적 배경 속에서 그 숨겨진 원인을 찾아 보아야 할 줄 안다. 스코틀랜드는 오랫동안 프랑스로부터 지배를 받아 왔다. 그리고 이웃인 잉글랜드로부터도 시달림을 받았다. 그래서 저들이 개혁을 할 때는 프랑스인도 그들의 종교도 싫었다. 그 뿐만 아니라 잉글랜드인도 그들의 종교도 싫어했다. 이런 상황에서 멀리 다륙에서 가지고 온 스위스의 장로교 제도는 국민들 감정상 선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스코틀랜드에서의 장로교 정착은 스코틀랜드의 국민감정이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제 11 장

네덜란드의 개혁



네덜란드는 개혁교회 국가들 중에서 가장 뒤늦게 개신교 국가들의 대열에 끼이게 되었다. 네덜란드는 최초의 순교자가 1523년에 있었다. 그 후 60여년간을 신앙의 자유를 위해 투쟁을 계속하였다. 그동안에 흘러진 순교자들의 피는 수십만명에 이른다. 그렇게 해서 1581년에 이르러 서야 국가적인 독립과 함께 신앙의 자유가 얻어진다.

네덜란드의 신앙 투쟁의 역사는 곧 네덜란드 국가적 독립 투쟁의 역사로 발전되었다. 네덜란드는 자기들을 지배해 온 스페인과 함께 스페인의 종교인 카톨릭 신앙에서마저 벗어나려고 했다. 여기서 스페인은 군주의 위력이라는 미명으로 세계사에 보기 드문 신앙적 탄압을 감행하였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얻어진 네덜란드인의 신앙의 자유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귀하고 값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군주에 대한 저항 이전에 순수한 신앙활동만으로 죽어갔기 때문이다.

1. 네덜란드의 정치상황

오늘의 네덜란드를 이해하려고 하면 과거의 복잡한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라인 강 입구에는 흔히 '17개 지방' (Seventeen Provinces) 이라고 알려진 저지대가 있었다. 이 곳을 저지대라고 부르는 것은 이 지역이 바다 수면보다 낮은 지대(the lowlands)였기 때문이었다.

이는 오늘날의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을 포함한다. 이 세

나라가 오늘날은 나뉘어 있지만 1581년 이전까지는 한 군주 밑에 소속된 여러 지방(provinces)이었다. 그런데 북쪽은 화란족(Dutchman)이 살면서 폴란드 언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중앙부는 플레밍족(Flemings)이 살면서 플레미스(Flemish) 언어를 사용하였다. 남쪽에는 왈룬족(Walloons)이 프랑스어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차이가 많았으며 교회와 시민 관할권이 서로 달랐다. 그런데다가 네덜란드 땅은 큰 강들의 삼각주 지역에 놓여 있었으므로 걸핏하면 범람하기 일쑤였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해안선이 계속 침식해 들어왔다. 이와같은 자연과의 투쟁으로 그들의 국민성은 굳세고 부지런하고 독립심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 이 지방을 다스리는 군주는 찰스 5세(Charles V)였다.

찰스 5세는 독일과 스페인과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일부를 합친 신성 로마제국의 황제였다. 찰스가 6살 때 그의 부친 필립이 죽었다. 이 찰스는 아버지로부터 네덜란드를 상속 받고 어머니로부터는 스페인을 상속 받았다. 찰스가 아직 어렸을 때는 그의 고모인 마가렛(Margaret)이 통치 하였다. 찰스가 네덜란드를 책임지게 됐을 때 그는 네덜란드를 정치적으로 영토적으로 통일하려고 하였다(1515년).

네덜란드는 아무리 강한 군주라도 하나로 통일시키기가 어려웠다. 이 지역은 돈으로도, 조약으로도, 혹은 정복에 의해서도 장악할 수가 없었다. 그런 것을 찰스는 하나의 동일한 법률체제로 전체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였다. 모든 지역에 국회를 조직해서 하나의 주권국으로 통일시켰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정치적이며 지리적인 어려움들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제일

큰 문제는 인종과 언어로 인해서 17개 지방으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다가 교회들의 관할권이 서로 달랐다. 즉 어떤 교구는 독일 지역의 관할 지역이었고 또 어떤 교구는 네덜란드에 속하지 않은 룩셈부르크 관할이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정신 지주로 '공동 생활 형제회' (The Brethren of Common Lot)라는 평신도 공동체가 있었다. 이 공동체는 게라드 그루트(Gerard Groot)가 설립하여 90년이라는 긴 세월을 계속하였는데 평신도 사이에 기독교적인 교육을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었다. 이곳에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인 토마스 아 켐피스(Thomas A Kempis)가 살았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가장 위대한 인문주의 왕자인 에라스무스(Erasmus)도 이곳 출신이다.

2. 국왕들이 행한 처사

(1) 찰스 황제

1) 찰스가 행한 칙령들

네덜란드 국민들은 공동생활 형제회의 활동과 학교들로 인해서 16세기의 위대한 신앙 부흥을 맞이할 준비가 놀랍도록 완비되어 있었다. 그것은 성경의 대중화였다. 1513년과 1530년 사이에 성경 전체 혹은 신약에 대한 25개 이상의 번역이 이루어졌었다. 그것은 네덜란드어, 플레미시, 그리고 프랑스말로 성경이 보급됐다.

찰스가 1515년부터 네덜란드를 통치하기 시작하였는데 보름스에서 루터를 만나고 난 뒤 네덜란드로 돌아와 루터의 서적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에 대한 반대 선언을 발표하였다(1521년). 그 다음 해에는 17개 지

방에다 종교 재판소를 설치하였다.

이 종교 재판소에서 최초로 희생당한 두 명이 있다. 그들은 안트워프(Antwerp)에서 화형 당한 헨리 보에스(Henry Voes)와 요한 에쉬(John Esch)라는 어거스틴파 수도승들이었다(1523년 7월 31일).

찰스는 선포문을 거듭해서 발표했는데 회수를 거듭할수록 강경한 조치를 강구하였다.

1524년 4월 1일 = 무슨 책이든지 검열관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인쇄할 수 없음.

1525년 9월 25일 = 비밀리에 모이는 모든 집회는 금지.

1526년 3월 14일 = 개인집에서 식사로 모이는 것도 금지.

1528년 1월 28일 = 허가받지 않은 서적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

1529년 10월 14일 = 루터파 서적을 소지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자는 사형이 따름.

1530년 12월 7일 = 허가받지 않은 서적을 인쇄하는 자는 눈이나 손을 하나 제거함.

1540년 9월 22일 = 이단의 열정을 증진시키는 찬송가를 금지.

1544년 12월 18일 =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혹은 영어로 허가받지 않은 서적을 인쇄해서 배포하는 것을 금지.

1546년 7월 31일 = 모든 학교 선생들은 허가 받지 않은 서적을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 허가해서 사용하고 있는 서적의 목록표를 제시할 것.

1550년 4월 29일 = 이단과 그 확산을 금지하는 칙령 발표.

이상의 모든 칙령들은 루터파와 그와 근접한 가르침을 막으려는 목적에서 반포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칙령의 반포와 회수를 거듭할수록 더욱 혹독한 조치를 강구했다는 사실의 이면에는 아무리 개신교도들에

게 강한 박해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박해가 개혁신앙의 확대를 가로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칙령 그 자체도 공권력을 크게 행사하지 못했음을 말해 준다.

2) 찰스가 행한 재침례교도 탄압

찰스는 재침례교도에게만 또 다른 칙령을 선포했다.

1532년 2월 = 재침례주의자를 숨겨주는 행위금지. 밀고자에게는 12 길더의 보상금을 지급함.

1533년 2월 =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자는 청어 어업에 종사자를 제외하고 1년 동안 거주지 이탈 금지.

1535년 = 이 분파로 어느 누구든지 유혹하거나 끌어 들여서 재침례를 받게 하는 모든 사람은 화형으로 처벌할 것. 재침례를 받거나 이들을 숨겨준 자는 목베임을 당할 것. 여자들은 오로지 생매장할 것.

이렇게 해서 시작된 찰스의 탄압은 갈수록 가중되었다. 최초의 재침례교 순교자는 저습지역에 속한 얀 발렌(Jan Walen)과 다른 두 사람이다. 이들은 1527년 헤이그(Hague)에서 특별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사형을 당했다.

이들은 화형장의 불 앞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화형대에 줄로 묶어가지고 천천히 구워져서 죽게 했다. 이같은 잔악하고 몹서리치는 형벌은 찰스 황제가 고안했고 이런 희생은 재침례교도들에게만 국한되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암스테르담에서 행해진 처벌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들은 먼저 고문대 위에서 갖은 고문을 다 당한다.

그리고 난 뒤 채찍질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 던져진다. 다음에는 자기 아내와 딸이 물에 빠져 익사 당하는 것을 바라보게 한다. 그리고 난 뒤 서서히 타는 불에 구워져 타 죽는 듯한 고통을 주었다. 그 다음에는 조

그마한 관 속에다 집어 넣고 발로 밟아서 압박을 가한다. 그러면 갈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겪는데 그런 후 다시 불어 던져 타 죽게 한다.

이와 같이 잔학한 벌을 준 이유가 무엇이였겠는가? 그것은 그 당시 유일한 종교인 로마 카톨릭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앙을 갖는다는 그 단순한 이유 하나뿐이다. 그런데도 저들 재침례교도들은 계속 늘어가기만 하였다.

1533년 3월이 끝나기 전 모닝켄담(Monninkendam)이라는 도시는 그 주민의 2/3가 재침례교도였다. 그 뿐만 아니었다. 덴마크의 큰 도시 다벤터(Daventer) 쾰블레(Zwolle) 캄펜(Kampen) 등은 도시 전체가 재침례교도였다. 정부는 이러한 운동을 분쇄하려고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군대를 15명에서 20명으로 조직하여 도시 전체를 순찰케 했다.

그리고 처형 방법도 가장 잔인하게 했다. 지도자들은 목을 베어서 장대에 매달아 다른 이에게 경고의 징표가 되게 하였다. 또 어느 경우에는 남자 7명과 여자 5명의 옷을 완전히 벗긴 뒤에 그들의 적나라한 진실을 보여준다는 징표로써 암스테르담 시가지를 끌고 다녔다. 그리고 시민들로 하여금 야유를 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조롱하였다.

이렇게 해서 찰스 5세가 네덜란드 안에서 죽인 재침례교도의 수가 30,000명 이상이라는 기록이 있다. 찰스는 황제라는 권세로 자기와 똑같은 생명들 30,000명을 무참하게 도륙시켰다. 지금은 찰스도 죽었고 무고한 3만명도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역사는 이 사실을 그냥 침묵하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죽은 후의 저들이 간 곳이 각기 다를 것이다.

3) 필립과 네덜란드

찰스는 자기 아들 필립에게 스페인과 네덜란드를 물려준다. 그래서

필립이 1555년 10월 25일 브루셀 궁전의 대강당에서 대관식을 거행하였다. 네덜란드의 새로운 통치자는 즉위 당시 28세였다. 외양적인 면에서 아버지를 닮아 독일인처럼 보이지만 그의 언어는 스페인 언어였다.

찰스나 필립 부자는 너무 닮은 점이 많았다. 두 사람 다 느리고 인내심이 많은 기질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같이 냉소적인 불신으로써 어느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할 줄 모르는 냉혈한 사람들이었다.

필립은 아버지에게 미치지 못하는 군주로 인기를 잃기 시작했다. 필립은 아버지가 해놓은 정책을 그대로 추구했고 독창성이 전혀 없었다. 필립은 통치 2년 동안에 수많은 불만 요소들을 불러 들였다. 그것이 결국에는 반란으로 이어지고 만다.

필립은 국회를 소집해서 엄청난 액수의 돈을 요구하였다. 즉 전에 찰스가 1년에 150만 길더(gilders)의 세금을 징수하던 것을 필립은 1년에 700만 길더를 요청하였다. 필립은 스스로의 우둔함과 완강함으로 더 이상 네덜란드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필립은 1559년 8월 29일에 네덜란드를 떠나 스페인에 가서 안주한다. 필립은 그 이후로 네덜란드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필립이 네덜란드를 떠나면서 찰스 5세의 사생녀이며 필립의 이복 여동생인 파르마의 마가렛(Margaret of Parma)를 섭정으로 세웠다. 그리고 그녀의 권위를 강화시키기 위해 저지대 일대에 스페인의 병사들을 주둔시켰다.

섭정인 마가렛은 필립의 비밀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그리고 나라의 외교와 행정 전반을 위임 받은 위원회가 있었다. 이 위원회 위원은 아라스의 주교(the Bishop of Arras)와 드 발레몽의 남작(Baron de Barlaymont)과 변호사 반 아이타(Vigilius Van Aytta)였다.

이 세 사람 중 아라스의 주교(후에 그랜벨의 추기경이 됨)가 가장 중

요한 인물로서 정부의 실제적 운영이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필립은 스페인 마드리드의 궁전 집무실에서 명령만 내렸다. 스페인 군대가 계속 주둔해 있는 가운데 섭정이 하는 일이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때 스페인 군대가 네덜란드에 주둔하는 것이 나라를 파멸시키는 처사임을 오렌지 윌리엄 공(William, Prince of Orange)이 간파한다. 이에 스페인 병사들과 외국인 병력의 존재를 싫어하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그치지 않았다.

그런데다 설상가상으로 네덜란드에 더 많은 지역교구 설치에 관한 교황 바오 4세의 교서가 내려진다. 지역 교구가 더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종교 재판소가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했다. 백성들은 하나같이 자기네들의 지방법이나 권리보다 훨씬 더 우세한 종교재판을 겁내고 증오하였다.

이 무렵 국가의회 의원인 에그몬트 백작(The Count of Egmont)이 스페인에 있는 필립을 찾아간다. 필립은 그를 융숭하게 대접하고 정책을 대대적으로 변경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에그몬트 백작은 국왕의 약속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귀국하였다.

그러나 의회에 출두하여 필립이 전해준 편지를 열어본 결과 그 내용은 정반대였다. 필립은 마가렛에게 개신교에 대한 모든 이단들을 예외 없이 처형하라는 내용만 적혀있을 뿐이었다. 이런 일을 지켜보면서 에그몬트 백작과 국민들의 실망은 대단히 크게 증폭됐다. 네덜란드의 젊은 귀족 200명은 협상(Compromise)이라는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여기서 젊은 귀족들은 섭정으로 하여금 국가를 위협스럽게 만드는 제반 법규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들은 협상서를 섭정에게 제출하면서 자기들 힘을 과시하기 위해 행진을 하였다. 섭정은 이들의 위압적인 시위에 약간 당황을 했다. 그 때 최고 위원 중 하나인 발레몽트가 섭정에게 “폐하께서 이 거지들(The Beggars)을 두려워 하시겠나이

까?”라는 유명한 말로 안심을 시켰다.

이 말 이후로 협상 성명서를 채택한 젊은 귀족들은 자기들을 자칭 ‘거지들’이라고 하면서 거지들의 주머니를 짚어지고 다니며 나중에는 거지 메달을 만들어서 부착하고 다녔다. 섭정은 네덜란드의 심상치 않은 사태를 감지하였다.

그래서 국왕에게 네덜란드를 방문하든지 아니면 종교재판을 완화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 때 필립은 네덜란드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하고 섭정에게 이단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재량권을 허락하겠다고 회답하였다.

이 무렵 백성들은 자기들의 진정이 성공한 것처럼 알고 크게 힘을 얻었다. 그래서 프랑스, 독일, 스위스로 망명했던 사람들이 돌아왔다. 그런데 필립의 약속은 또 거짓이었다. 필립은 신앙의 자유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종교재판을 고려한다는 것도 단순한 속임수였다고 했다.

이것을 안 군중들의 전국 각 곳에서의 폭력적 만행은 전염병처럼 번져갔다. 군중들은 닥치는 대로 파괴하였다. 이와같은 폭동은 오히려 개혁파에게 허락하였던 모든 특권을 거둬들이게 하였다. 그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구실이 되어 네덜란드는 장기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3. 오렌지의 윌리암 공

네덜란드의 국민들이 카톨릭 교회의 건물을 부수고 제단과 화상 조각 등을 파괴했다는 소식을 필립이 듣게 된다. 필립은 네덜란드 국민을 크게 응징하기로 한다. 그래서 알바의 공작을 보내서 네덜란드를 진압토록 하였다.

(1) 알바의 공작(The Duke of Alva)

알바의 공작은 경험이 풍부한 스페인 보병 부대 3,000명과 이탈리아 기병대 13,000을 거느리고 길고 긴 행군 끝에 네덜란드에 도착한다 (1567년).

윌리암 공은 미리 예감하고 독일로 피신을 한 뒤였다. 알바가 도착하자마자 사법 재판정을 개설하였다. 이 재판정의 결정은 네덜란드에 있는 어떠한 법원의 결정보다도 우선권을 가지며, 전국 총회보다 우위권을 가졌다.

이 재판정을 '소요 회의' (The Council of Tumults)라고 불렀으나 대중들은 '피의 심판소' (The Bloody Tribunal)라고 불렀다. 이 재판정은 12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렇지만 모든 최종적인 결정은 알바 자신이 내렸다. 이 피의 재판소에서는 거의 모든 죄를 반역죄로 몰아 처형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한꺼번에 95명, 84명, 1,500명, 800명을 처형시켰곤 했다. 그리고 사제들에게 모든 범죄자를 제보하도록 활용했다. 나라 전체가 무정부 상태에 이르렀다. 파르마의 공작녀이며 네덜란드의 명목상의 섭정인 마가렛은 알바의 공작이 도착한 이래 유명무실함으로 필립에게 물러날 것을 요청한다. 그런데도 알바의 만행은 계속 더하였다.

알바는 15세의 나이로 루벵대학의 학생인 윌리암 공의 장자를 납치해서 스페인으로 데려갔다. 이때부터 윌리암 공이 스페인 군대와 맞서 싸움에 나선다. 1568년부터 군대를 모아 스페인 군대와 싸웠으나 전투는 실패였다. 네덜란드 군대는 육지에서 거의 실패였다.

그런데 육지 사람이 아닌 선원들과 어부들은 해상에서 계속 승리했다. 1569년에는 18척의 작은 배로 스페인의 군함들을 나포하였다. 1572년에는 왈체렌의 모든 섬들을 점유하였다. 이렇게 되니까 스페인

군대는 본국에서의 군수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

알바는 필요한 돈을 네덜란드 안에서 찾기 시작하였다. 1569년부터 시작된 엄청난 세금 징수는 결국 파멸을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네덜란드 선원들이 가장 강력한 세계의 무적 스페인 선단을 무찌르고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이에 무쇠처럼 무자비한 알바도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게 된다.

그는 1573년 12월 18일 브루셀을 떠났다. 알바가 그토록 피로 물들게 한 6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그는 후계자에게 스페인 수비대를 주둔시킬 수 없는 모든 도시는 소각시키라는 교훈을 남겼다. 그는 네덜란드 개신교도 1,800명을 처형시켰다.

(2) 새 섭정 돈 루이스 레게센스(Don Louis Requesens)

레게센스는 스페인의 상위 귀족의 일원이며 말타 기사단의 대사령관이였다. 그는 고결한 인품과 온화한 성격의 사람이었다. 그가 10년 전에 만 네덜란드에 파송되었다라면 네덜란드의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그는 즉각적으로 알바의 정책을 뒤집었다. 그리고 증오의 대상인 세금제도를 철회하고 피의 재판소를 해체하였다. 전반적으로 많은 죄수들을 사면하였다. 그리고 윌리암 공과 협상을 했다.

이 때 윌리암 공은 세 가지 선결 조건을 제시했다.

즉, 양심의 자유, 하나님 말씀에 따른 복음 설교의 자유, 모든 지난 날의 현장 복원, 즉 군사적 시민적인 모든 직책에서 스페인 사람을 제거시킬 것 등이었다.

그러나 협상은 결렬되었다. 또 다시 전쟁이 계속됐다. 육지에서의 전투는 거의 예외없이 능숙한 스페인의 보병들에 의해 패배 당하였다.

1547년에 스페인 군대가 두 개의 보루 중 라이덴을 포위하였다. 이 때 라이덴의 운명이 거의 결정날 즈음에 윌리암 공은 제방을 무너뜨리고 바닷물을 끌어 들이자고 제안하였다.

제방을 무너뜨린 지 4개월 만에 바닷물이 성벽까지 차 올랐다. 바닷물과 더불어 애국자들의 선원들이 쳐 들어왔다. 저들은 바다 물 속에 잠긴 옥수수 밭과 정원과 과수원과 마을을 피해서 성벽에 도착하였다. 이 모습을 본 스페인 군대는 겁에 질려 도망하였다. 라이덴의 포위 공격은 독립 전쟁의 분기점을 이루었다. 섭정의 군대가 육지에서는 예외없이 성공하였으나 해전에서는 큰 위력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섭정은 또 한차례 협상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협상은 역시 깨어졌다. 레게센스 섭정의 국고는 바닥이 났고 스페인 군대들은 항명하며 월급을 요청하였다. 이 때 섭정 레게센스가 갑자기 죽게 된다(1575년 3월).

레게센스의 죽음은 모든 것을 혼돈으로 몰고갔다. 이 때 네덜란드 17개 지방이 모여 상호간의 신앙상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동 계획을 세운다. 대표자들은 1576년 10월 28일 겐트(Ghent)에 모여서 '겐트의 평화 협정'을 맺는다. 여기서 윌리암 공을 17개 지방의 행정 수반으로 정하고 또 그를 네덜란드의 해군 제독으로 선포한다.

(3) 마지막 섭정 돈 요한 (Don John)

필립은 오스트리아의 돈 요한을 네덜란드의 새로운 섭정으로 선임하고 그는 11월 초순에 룩셈부르크에 도착하였다. 국회는 그가 겐트의 평화협정을 받아들이고 여러 지방이 전통적으로 누리오던 특권을 보전시켜주지 않는다면 그를 섭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의 정부

가 브르셀에 입성한 것은 1577년 5월 1일이었다. 그는 섭정으로 군림하려고 했으나 네덜란드의 카톨릭이나 개신교가 다같이 실제적인 지도자로 윌리암 공을 지지했다.

필립은 다방면으로 노력한 끝에 스페인 보병과 이탈리아 군대로 이루어진 20,000명의 군인을 네덜란드에 파병한다. 이로써 또다시 네덜란드는 전쟁을 계속해야 했다.

그런데 이같은 와중에 주변 국가들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독일의 용병이 대부대를 이끌고 칼빈주의자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동쪽에서 침범해 들어왔다. 남쪽에는 스페인 군대를 증오한다는 로마주의자들이 혼란케 했다.

이렇게 되니까 로마주의 남쪽과 개신교주의 북쪽이라는 분리가 시작되었다. 1581년 필립은 반대자 윌리암 공을 제거하기 위한 최후 시도를 선포하였다. 윌리암은 매국노이므로 그를 산 채로든지 죽은 채로 가져오는 자는 25,000 크라운의 포상금과 직위를 하사하겠다고 하였다.

여기에 맞서서 윌리암 공은 지금까지 스페인 왕에게 보냈던 충성을 엄숙하게 철회하고 새로운 독립 공화국을 건설한다고 선언하였다. 이 '포기 선언법' (Act of Abjuration, 1581년 7월 26일)이 선포된 바로 그 날은 새로운 개신교 국가가 탄생한 날이다.

(4) 종전 후의 수습

1) 분할된 세 나라

이렇게 해서 북쪽은 독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독립을 선언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자유가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로부터 30여 년 간 끈질긴 고통과 투쟁을 계속해야 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영웅적인 지도자

를 잃게 된다.

윌리암 공에게 걸린 포상금을 노리는 자들은 3년 동안 계속 그를 괴롭혔다. 1582년 3월 18일에 비스케이(Biscayan)출신이 윌리암 공에게 권총을 쏘았다. 총알은 오른쪽 귀 밑을 뚫고 들어와 입천정을 통과하고 왼쪽 턱으로 빠져 나갔다.

이 일이 있고 나서 2년 뒤인 1584년 7월 9일 게라드 (Gerad)라는 사람에게서 치명적인 상처를 당하고 운명한다. 암살자의 후견인들은 필립 왕으로부터 보상금 중 일부를 받아갔다. 필립 왕은 윌리암 공만 제거하면 반란이 종식될 것으로 착각하였다.

그러나 윌리암 공의 가장 신임할 만한 친구였던 요한 반 올덴비네벨트(Johan Van Oldenbineveldt)와 아들인 모리스(Maurice)에게 자신의 일을 떠 맡겼다. 올덴비네벨트는 참을성 있는 외교 수완으로 윌리암 공이 남겨준 미완성의 정치적 과업을 완성시켰다.

그리고 아버지 사망 당시 17세에 불과했던 모리스는 몇 해 안에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군사적 지도자가 되었다. 나이든 사람은 정치가로서의 노련함으로, 소년 장군은 전장에서 힘을 발휘함으로 스페인 군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1607년 필립이 죽은 지 거의 10년이 지나서야 스페인과 네덜란드는 무기의 사용중지에 합의하였다. 이렇게 해서 12년 동안의 휴전이 이루어진다. 그후 스페인은 그들이 이곳 전쟁에서 지불한 노력과 출혈이 너무 심한 것을 깨닫고 휴전에 임한다.

그 때 이미 북쪽 지방의 주민들은 절대 다수가 칼빈주의자들로 변해갔다. 그에 반해 남쪽 지방은 계속 카톨릭이 잔존하였다. 결국 이곳 저지대 지방들은 종교적, 문화적, 경제적 차이 때문에 세 개의 국가로 나뉘게 되었다. 세 나라는 개신교 국가인 네덜란드와 두 개의 카톨릭 국가

인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이다.

2) 장로회주의의 선택

네덜란드가 신앙의 자유를 얻었을 때 왜 칼빈주의를 선호하게 되는가? 위대한 지도자 윌리엄 공의 영향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윌리엄 공은 그의 가족이 루터파였다. 그런데 윌리엄 공은 로마 카톨릭의 신앙으로 성장하였다. 그는 생애의 마지막 무렵에 칼빈의 가르침을 마음속으로 수용하였다. 그리고 1573년 경에야 자신이 칼빈주의자라고 선언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윌리엄 공이 네덜란드에 미친 종교적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네덜란드의 독립 전쟁 때 칼빈주의자들이 더 많은 희생과 공헌을 했기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다. 희생을 말한다면 재침례교도는 30,000명이 넘었다. 그리고 개신교는 루터파, 칼빈파를 다 합쳐도 기천명 정도가 희생됐을 뿐이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 네덜란드인들에게 개혁파 중 칼빈주의를 선택하게 만들었을까? 거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다고 본다.

① 네덜란드는 국민들의 감정적 문제가 크게 작용했으리라고 본다. 네덜란드는 카톨릭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들은 스페인에 대한 증오가 카톨릭까지 혐오하게 했으며 그 다음에 루터교는 네덜란드가 가장 일찍이 영향을 받아 온 개혁주의였다. 그렇지만 루터교라는 이웃되어 있는 독일의 종교를 수용할 경우 또 다시 독일의 영향권을 면키 어려우리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래서 독일을 경계하는 뜻으로 독일과 관계가 먼 칼빈주의를 선택했을 것이다. 이것을 나는 민족주의의 발로라고 보고 싶다.

② 개혁파가 갖고 있는 신학이 크게 작용했으리라고 본다.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루터교는 종교가 국가와 하나가 된 상태에서 개혁을 완성했다. 그 점에서는 쾰빙글리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재침례교는 어떠했는가? 저들은 국가와 종교의 완전분리라는 원칙을 항상 고수하였다. 그래서 종전 후의 네덜란드로서는 현실성이 없었다. 그렇지만 칼빈주의는 어떠했는가?

저들은 국가가 적의 손에 장악되고 있을 때 외국의 용병을 끌어 들여서라도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저들은 종전 후 산업 정책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었다. 그래서 잃었던 경제회복에 모두 앞장을 섰다. 그리고 교회 정치제도 역시 장로회의 주의에 의한 대표자 중심의 위임 정치를 하였다. 이런 점에서 시민과 교회와의 권위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교회 정치에 대한 문제가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그래서 당회(교회법원=Consistory)가 모든 회중을 다스리는 장로주의로 네덜란드에 선택됐다고 본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실을 맺기까지는 오래 전부터 이같은 분야에 기여한 공로자들이 크게 작용을 하였다. 그것은 1561년에 구이도 드 브레스(Guido de Bres)가 강력한 칼빈주의에 입각한 '벨기에 신앙고백(Belgic Confession)'을 작성하였었다. 이것이 다시 칼빈주의자들의 손을 거쳐 1571년에 엠더(Emder)에서 채택된다.

그것이 도르드레흐트(Dordrecht) 혹은 돌트(Dort)에서 모인 대회(Synod)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진다.

3) 교육 기관의 설립

네덜란드가 스페인과 오랫동안 싸우는 동안에 전 국민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우어 준 곳은 교회였다. 그리고 국가가 어려울 때 조국에 대

한 헌신적 희생자들이 고등교육을 배운 지성인들임을 체험하고는 종전 후 많은 대학들이 생겨난다. 도시의 감격스러운 구원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뜻으로 라이덴 대학이 1575년에 설립된다. 10년 후인 1585년에는 프라네커(Franecker)대학이 설립된다. 그리고 그로닝겐(Gronningen) 대학은 1612년에, 우트레흐트(Utrecht) 대학은 1636년에, 허더빅(Harderwyk) 대학은 1648년에 설립된다.

(5) 칼빈주의의 형성

네덜란드는 장로교를 한 때 국교로 정한 때가 있었다. 그만큼 네덜란드는 장로교를 좋아하였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칼빈주의가 꽃피운다. 여기서 네덜란드가 칼빈주의를 형성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1) 문제의 발단

앞서 언급한 것처럼 네덜란드는 1561년에 '벨기에 신앙고백'이 나왔었다. 이 벨기에 신앙고백은 구이도 드 브레스가 카톨릭과 다른 신앙노선을 천명한 것이었다. 그 다음 1571년의 엠더 대회와 1572년의 돌트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1578년에는 장로교를 화란의 국교로 정한다. 나라가 비상한 관심을 갖고 개혁교회 정신을 수용하려는 것과는 달리 화란의 신학자들 사이에는 분쟁이 심화되고 있었다. 문제의 시작은 야코부스 알미니우스(Jacobus Arminius : 1560.10.10)에게서 시작된다. 그의 본명은 야콥 헤르마스(Jacob Hermas)인데 라틴 이름으로 개명한 것이 알미니우스(Arminius)이다.

알미니우스는 라이덴(Leyden)대학에서 1575-82년까지 인문주의적 신학 수업을 받았다. 그리고 다시 제네바에 있는 칼빈의 후계자 데오도

레 베자(Theodore Beza)에게서도 배웠다. 그는 1588년에 암스텔담의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 그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와같은 그의 명성 때문에 그에게 성경과 신학에 관한 자문을 받게 되었다.

알미니우스에게 제기된 문제는 칼빈의 예정론에 관한 문제였다.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드릭 쿠른헤르트(Drick Koornhert)'였다. 쿠른헤르트는 화란 정부의 관리로 있다가 할렘(Haarlem)에서 공증인을 하고 있었다.

그는 1583년에 하이델베르크 문답서 중에 칼빈의 예정론이 문제라고 하였다. 그는 이 문제를 '테스트(Test)'라는 제목을 붙여 화란 정부에 바쳤다. 그리고 칼빈의 예정론에 관한 자기 입장을 잘 이해 시킬 수 있게 회답을 요청하였다.

화란 정부는 라이덴 대학의 교수와 그 밖의 저명인사에게 이 문제를 위임하였다. 그러나 10여 명의 교수 및 유명 인사는 의논만 분분했지 명쾌한 결론을 보지 못하였다. 이같은 문제를 다시 새로 젊은 지성인 알미니우스에게 해결해 주도록 부탁했다.

이때부터 알미니우스는 쿠른헤르트의 문서를 반박하기 위해서 그의 문서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알미니우스는 쿠른헤르트 문서를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과 초대 기독교 신학과 당시 개혁가들의 가르침을 비교 연구하였다.

결국 알미니우스는 상당한 양심의 갈등 끝에 쿠른헤르트의 주장이 옳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알미니우스는 칼빈의 로마서 7:14, 9:6-18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미니우스는 1603년에 모교인 라이덴 대학의 신학 교수가 된다. 알미니우스가 칼빈의 예정론과 의견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대학교수 사이에서도 공개 논쟁이 되었다.

같은 대학 교수 중에 프란시스 고마루스(Francis Gomarus)는 엄격한 의미에서 칼빈의 예정론을 굳게 신봉하고 있었다. 알미니우스와 고마루스는 예정론을 갖고 다투게 되었다. 이 두 사람은 예정(Predestination) 자체는 다같이 믿었다.

다만 이 두 사람은 예정의 근거에 관한 의견이 달랐다. 알미니우스에 의하면 예정은 하나님께서 누가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를 미리 아신 예지(豫知)에 근거하여 예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여기에 반해 고마루스는 예수를 믿게 된 자체가 예정에 의한 결과라고 했다. 즉, 세계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누가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 주권적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한 알미니우스가 주장한 예정이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중보자 구세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결정 자체는 인간의 반응에 의존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각 개인의 궁극적 운명에 관련된 개인적 경륜은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적인 예지에 기초한다고 하였다. 신적 예지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속의 기회에 대해 각 개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미리 알았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알미니우스는 예정론의 이 부분만 빼놓고 그 밖의 모든 면에서 칼빈의 가르침을 추종하였다. 이와 같이 예지예정이나, 주권예정이나 하는 문제를 놓고 두 교수간에 계속 논쟁이 있었다.

그런데 두 교수의 싸움은 학생들 간에도 두 파로 나뉘게 했다. 라이덴 대학의 두 파의 싸움은 전국 교회를 두 파로 나누었다. 결국 전국 교회가 이 문제로 나누어졌다.

이같은 분열을 종식시키기 위해 국가에서는 화해를 권하고 전국 교회 총회도 모여 해결책을 모색했으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

저들은 싸움을 국가의 고등법원까지 끌고가서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열띤 논쟁의 연속으로 알미니우스가 1609년에 과로로 죽고 만다(1609년 10월 19일 당시 49세).

알미니우스가 죽자 그의 동료 교수들 중 알미니우스와 의견을 같이 하는 교수들이 싸움을 계승하였다. 이러한 신학적 문제엔 그 당시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이 첨가된다. 네덜란드가 스페인으로부터 벗어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완전하게 독립이 보장된 때가 아니었다.

네덜란드인 중에 일부 도시의 상인들이 옛 스페인과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이익을 얻고자 하였다. 여기에 대해 성직자들과 하층계급은 스페인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반대했다. 이같은 사회 흐름 속에서 상인들은 알미니우스편을 지지하였고 성직자와 하층 계급은 고마루스를 선호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 1610년 알미니우스파에서 반대 성명(Remonstrance)을 발표하였다. 이들을 흔히 '반대자' 또는 '항의자들'(Remonstrants)이라고 한다.

2) 알미니우스 후계자들의 항의

알미니우스의 후계자로 시몬 에피스코피우스(Simon Episcopius)와 역시 베자의 제자인 헤그의 유명한 설교자 위텐보게르트(Uytengaert)가 뒤를 이었다. 이 사람들은 1610년 1월 14일에 46명으로 구성된 '항의자들'을 구성하였다. 이들은 5개항에 달하는 수정 요청안을 화란 정부에 제기하였다. 이들이 말하는 수정 요청은 다음과 같다.

1561년에 채택한 '벨기에 신앙고백'의 제 16조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는 자비를 베풀어 선택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멸망 가운데 버려 두셨다'라는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 외에도 하이델베르그(Heidelberg)교리 문답 중에서도 수정되어야 할 몇 가지 조항들을 제시하였다. 이들이 말하는 칼빈주의의 수정 내용이란 5개항이었다.

a. 제1조항 : 예정에 대한 정의/예정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 그 내용의 핵심은 흔히 예지 예정이라는 말로 설명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 예정에 대해 알미니우스 자신은 하나님께서는 후에 누가 믿을지를 아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이고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후에 믿게 될 자들을 누구나 권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뜻으로 표현했다. 후자의 경우를 '개방 예정론(The Open Decree of Predestination)' 이라고 한다.

b. 제2조항 : 속죄/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비록 믿는 자들만이 실제로 예수님의 구속을 권한으로 받지만 그러나 원래 예수님은 전체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다.

c. 제3조항 : 인간의 성질/이 조항에서 칼빈주의자들이 알미니우스파를 공격하기를 저들은 자력으로 선행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 펠라기우스주의자(Pelagianism)라고 하였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력으로 아무런 선행도 할 수 없으며, 선행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인간의 죄된 성질은 하나의 경향성 또는 무력성을 의미한다.

d. 제4조항 : 은총/하나님의 은혜는 저항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성령에 저항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e. 제5조항 : 성도의 보전/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 은혜를 상실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명백하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 문제를 제기한 초기에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수년이 지난 후 정치의 개입으로 크게 확대되고 만다. 그것은 윌리엄 오렌지 공의 아들인 나소 영주 모리스(Prince Maurice of Nassau)가 신학 논쟁에 개입하였다. 모리스는 스페인과 접근을 반대한 칼빈과 고마루스 편을 들었다. 모리스는 스페인을 상대로 협상을 주도한 요한 반 골덴바나벨트(Johan Van Goldenbarnavelt)를 투옥시켰다.

그리고 국제법의 창시자로 유명한 휴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가 모리스의 친구인데도 체포하였다. 이것이 문제를 더 커지게 하였다. 홀란드 의회는 알미니안주의자들과 상인층에 대한 반발을 진정시키기 위해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시비를 가리는 대규모 종교 집회를 소집한다. 그것이 저 유명한 도르트 총회(The Synod of Dort)이다. 이 총회에서 소위 말하는 칼빈주의의 5개 강령이 채택된다.

한편 도르트 총회 후에 홀란드 의회는 이 신조를 따르지 않는 자는 교회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자로서 모든 교직을 박탈할 것을 결의하고 저들을 국외로 추방시켰다.

그래서 100명에 달하는 알미니안 목회자들은 고국에서 쫓겨났다. 그래도 계속 알미니안주의를 고집하던 자는 종신형에 처하였다. 또 알미니안파 예배에 참석했던 자들에게는 막대한 벌금이 부과되었다.

알미니안파의 수령인 에피스코피스와 위텐보게르트는 부라반트에 피신한다. 1625년 모리스 공이 죽자 그 뒤를 프레드릭 하인리히가 계승한다. 이 때부터 알미니안에 대한 관용을 편다. 알미니안파는 1630년에 암스텔담에다 회당을 세우고, 1634년에는 신학교를 설립해서 에피스코피우스가 교장이 된다. 화란에 있는 알미니우스파 중에 대표적인 신학자는 휴고 그로티우스였다.

그는 1583년에 출생하여 법학박사로 변호사가 되었고 30세에는 룩셈

담(Rotterdam)의 시장이 됐다. 그후 1617년에 모리스에 의해 종신 징역 선고를 받았다가 탈옥하여 파리에서 「전시 및 평화시 법규론」을 출판한다(1625). 그리하여 그로티오는 국제법의 시조가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그가 쓴 「그리스도의 속죄」(Satisfaction of Christ)는 속죄론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로티오의 속죄론은 흔히 정치설이라고 한다. 그에 의하면 모든 개인이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도 죄 짓는 인간을 당연히 벌하셔야만 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정치적 성격을 띠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진실한 형벌이 아니고 죄의 결과가 이렇다 하는 것을 보인 실례이다. 대략 이런 주장이었다.

그로티오 주장이 칼빈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륙으로 퍼져서 마침내 영국, 미국으로 번졌다. 이 사상을 따르는 자들로는 틸로트슨(Tillotson), 파트릭크(Patrick), 다니엘 위트비(Whitby), 사무엘 크락크(Samuel Clarke),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 등이 있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의 가장 중요한 유산은 감리교를 통해서 계속 남게 되는 일이다.

3) 칼빈주의의 내용

칼빈주의는 도르트 회의(The Synod of Dort)에서 제정되어진다. 이 회의는 1618년 11월 13일부터 1619년 5월 28일까지 154일 동안 계속 됐다.

이 회의의 회원은 외국인으로 27명이 참석했다. 외국인은 영국, 스코틀랜드, 독일, 스위스의 학자들이 초대되었다. 그리고 화란의 내국인은 45명이 참석하여 모두 70여명이 됐다. 이들 가운데 절반 가량이 목회자

였고, 혹은 신학교수도 있었다. 그리고 4분지 1정도가 평신도 지도자들이었고 나머지는 국가 회의 의원들이었다. 회의의 용어는 라틴어로 사용했다.

저들은 회의 진행 전에 알미니안 사람들을 대의원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회의장에 소환하는 형식을 취할 것이냐를 토론했다. 여기서 저들은 소환 형식을 취했다. 다음으로 알미니안의 진술을 구두로 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문서로 받게 할 것이냐를 토론했 후 문서로 받기로 결정한다. 그래서 이듬해 1월부터 알미니안과 신조를 조사에 착수하여 4월 중순경에 끝마친다. 그리고 5월 6일에 신조제정 작업이 마쳐졌다.

여기서 결정된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 ① 성경을 새로 화란어로 번역하도록 한다.
- ② 회의의 주 목적이 알미니안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알미니안을 정죄한다.
- ③ 알미니안의 5대 주장에 반대되는 5대 교리를 승인한다.

칼빈주의의 5대 교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제1조항 : 예정/무조건적 선택(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의 예정은 선택된 자들의 복음에 대한 각 개인들의 반응을 미리 아는 예지에 의한 예정이 아니다. 오직 인간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주권적 의지에 의한 예정이 있을 뿐이다.

b. 제2조항 : 속죄/제한적 구속(Limited Atonement)

알미니안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체 인류를 위해 돌아 가셨다고 했다. 이에 대해 칼빈주의는 그가 오직 선택된 자들만을 위해서 돌아 가셨음을 분명히 못박았다.

c. 제3조항 : 인간의 성질/인간의 전적 타락(Total Depravity)

비록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도 자연적 빛의 흔적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 너무 타락하였으므로 이러한 빛은 오히려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모습은 단지 세속적이고 자연적인 사물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혹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 될 수 없다.

d. 제4조항 : 은총/저항할 수 없는 은혜(Irresistible Grace)

하나님의 은총은 거절할 수가 없다.

e. 제5조항 : 성도의 보전/성도의 견인(Perseverance of Saints)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은혜 속에서 견인(堅忍)하며 절대로 은혜에서 떨어질 수 없다.

이와같은 5개 조항은 그 후 신학생들이 '튤립(TULIP)'이라는 단어를 통해 쉽게 기억하기 시작하였다.

T = Total Depravity

U = Unconditional Election

L = Limited Atonement

I = Irresistible Grace

P = Perseverance of Saints

칼빈의 이 5대 교리는 정통 칼빈주의의 상징처럼 되었다. 그 후에 다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1643년에 이루어진다. 칼빈주의에 있어서 이 두 개의 교리는 가장 대표적인 교리이다. 이것이 다음에 정통주의로 연결된다.

제 12 장

카톨릭의 반 개혁운동



종교 개혁이라는 사건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16세기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은 그후 150여 년 동안에 걸쳐 로마카톨릭에게 큰 손실을 주었다. 동부진영의 대부분이 개혁이 이루어져 돌이킬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서부 유럽의 약 반가량을 로마카톨릭은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카톨릭은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잃어야만 했는가? 그리고 저들이 이와 같은 쓰라린 아픔을 당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것을 깨달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들이 취한 개혁에 대한 반응들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것을 이 장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왜 카톨릭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잃게 됐는가? 그에 대한 단순한 대답은 간단하다.

그 이유는 카톨릭이 영혼의 치료에 전념하지 않고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른 일이란 성직자들이 과도하게 세속적인 일에 개입하고 있었다는 데 있었다. 그들은 정부를 간섭해서 통치권자를 수하에 넣으려고 하였다. 성직자들의 재판소가 도시민들의 생활을 끊임없이 간섭하였다. 성직자들은 자기네들이 속한 땅의 일상적 법률에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반항하면서 자기들 실속을 다 챙기는 '성직 이권'이 법의 우선이었다. 그리고 이런 것에 양식있는 발언을 하는 비위를 거스리는 모든 사람들은 출교라는 끔찍한 처벌을 면할 길이 없었다.

이와 같은 로마 카톨릭의 통치체제는 영성의 결핍을 가져왔으며 국가를 타락하게 하는 원천이라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모든 이는 변화를 갈망하였다. 이 변화에 대한 갈망은 정치인들, 지식인들, 귀족과 도시민들 그리고 양식 있는 성직자들과 수도사들과 교구 사제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마찬가지였다.

이들 대다수는 개혁되지 않는 교황청이야말로 유럽의 지속적인 골칫거리라고 인식하였다.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은 카톨릭으로 하여금 새로운 변화에 대한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다. 그래서 카톨릭에게 옛날 순수했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활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 그 뿐만 아니라 더이상 카톨릭이 개신교로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자체 개혁을 이루는 데 성공하였다.

카톨릭은 종교개혁이라는 충격을 통해 지적으로, 종교적으로, 제도적으로 많은 위기를 당하였다. 그렇지만 그 많은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전례 볼 수 없던 순수한 모습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운동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같은 각성에도 불구하고 지존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교황들 자신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존재들이었다. 오히려 새로운 수도단체들이 역사에 남을 공헌들을 하였다. 이 장에서는 교황들의 모습과 수도 단체들의 활동에 자극받고 뒤늦게 제 자리를 찾아가는 카톨릭 교회의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종교개혁 기간의 교황들

(I) 줄리우스 2세 (Julius II : 1503-1513)

줄리우스 2세는 60세로 교황에 당선되었다. 그가 교황에 당선되었을 때 그는 통풍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력적이며 결단력 있게 일들을 처리하였다. 그는 교황이라기보다는 황제와 같았

다. 그가 10년동안 재직하면서 교황청에 소속된 유럽의 전영토를 회복하고 공고히 했으며 확장시키는 일에도 자신이 직접 통치하였다. 그는 교황청이 지상의 군주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족벌주의를 배격했고, 성직매매를 반대했으며, 새로운 성 베드로 성당에 기초석을 놓았다. 그리고 아메리카, 인디아 및 아프리카의 선교를 장려하였다.

(2) 레오 10세(Leo. X : 1513-1521)

이 사람의 본명은 '지오반니 드 메디치(Giovanni de Medici : 1475-1521)' 이었다. 메디치의 아버지는 교황 이노센트 8세(1484-1492)이었다. 그에게는 본처 소생의 아들 하나와 사생아 둘이 있었다. 그 아들이 나이 13살 때 아버지가 추기경으로 임명을 했었다. 이 메디치는 38살에 교황이 된다. 이 레오 10세는 안락과 사치를 좋아했다.

그리고 로마시를 융성시켜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예술을 장려하였다. 그는 자기 가족을 극대화시키는 데 전념하였다. 레오 10세가 재위하고 있는 동안 루터가 95개 신조문을 갖고 종교개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레오는 그같은 일에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금고를 채우고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 면죄부 판매를 장려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부패가 증가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에 레오를 독살하려는 음모가 있었다. 이 음모는 배신자에 의해 누설됐고 음모의 주모자로 22세의 추기경을 고문한 뒤 처형시켰다. 그 뒤로 그 일에 관련된 추기경들에게는 벌금형을 내렸다. 그 뿐만 아니라 31명의 새로운 추기경들을 택함으로써 교황 선거단이 메디치 가정에 유리하도록 하였다.

레오 10세가 10년간 통치하는 동안 개혁 교회는 너무도 많은 진전을 하였다. 그리고 카톨릭으로서는 너무 많은 세월이 덧없이 흘러갔다. 1521년 12월 1일 레오 10세가 임종할 때에 모든 추기경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3) 아드리안 6세(Adrian VI : 1522-1523)

레오 10세가 임종할 때쯤 카톨릭으로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선거단에서 교착된 모든 관계 상태를 극복하고 참신하고 능력있는 사람을 교황으로 선출하였다. 아드리안은 네덜란드 출생으로 비천한 유티레이트(Utrecht) 태생이었다. 그는 공동생활의 형제단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 후 루우뱅(Louvain)대학에서 강의를 하였다. 그는 에라스무스의 친구였고 찰스 5세가 어렸을 때 가정 교사였다.

그는 스페인의 '토르토사(Tortosa)' 대주교와 카스틸과 아라곤 주재 교황 사절을 역임하였다. 그는 찰스가 자리를 비울 때 스페인에서 섭정도 하였다. 그는 학문이 깊고 금욕적이며 종교심이 깊은 데다가 많은 행정의 체험이 있었다. 그야말로 교회 내의 개혁을 주도하기에 적합한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는 교황으로서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

그 까닭은 그가 라틴어에 능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예술에 취미가 없었다. 이같은 것들이 이탈리아인의 르네상스 기준에서 평가할 때 순박한 촌티를 벗지 못한 수도사 정도로 멸시를 당했다. 그는 실망과 울화에 가득찬 채 1523년 9월 14일에 숨졌다. 그는 비 이탈리아인이었기에 자기 능력을 펴 보지도 못한 채 2년만에 타계하고 말았다.

(4) 클레멘트 7세(Clement VII : 1523-1534)

개혁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추기경들은 이탈리아인이 아닌 교황이 빨리 서거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전에 교황 레오 10세의 사촌 동생인 굴리오 드 메디치(Giulio de Medici)를 교황으로 선포한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클레멘트 7세라고 한다. 클레멘트 7세 역시 사생아로 태어났었다. 그런데 그가 교황이 되자 자기가 합법적 자녀가 되도록 만들었다. 클레멘트 7세는 레오 10세처럼 사치하거나 향락을 즐기지 않았다. 그는 재치있고 사귀기 쉬운 도회지 타입의 성직자로 예술을 장려하는 인물이었다. 그에게는 특별하게 악한 점은 없었으나 고질적으로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모든 일을 미루기를 좋아하였다. 그래서 모든 일을 지체하였고 소심함 때문에 목적이 불분명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고위 성직 자리에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이를 임명하였다. 어떤 때는 18살인 집안의 조카를 추기경에 임명하기도 했다. 이런 그의 불분명한 성격 때문에 재위기간에 많은 것을 잃게 된다.

먼저 잉글랜드가 교황의 권위로부터 독립을 선언한다. 또 스페인의 찰스 5세가 교황이 프랑스편을 든다고 군대를 파견해 로마를 점령하였다. 그래서 이때 교황은 성 안젤로(St. Angelo)성에 도피해야만 했다. 또 독일에 루터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을 잘못 기용하였다. 교만한 추기경 카제탄(Cajetan)을 보낸 것이나 그 후에 또 알레안더(Aleander)를 보낸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못됐다.

오히려 온화한 성품과 뛰어난 학식을 고루 갖춘 캄펙기오(Campeggio) 추기경을 보냈더라면 루터와 어떤 진전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대의 에라스무스의 견해였다. 클레멘트 7세는 1532년 5월에 종교회의 소집에 동의하고 1534년 9월 25일 자기가 동의한 소집령을 내리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5) 바울 3세 (Paul III : 1534-1549)

이 사람의 본명은 알렉산더 파르네세(Alexander Farnese)였다. 이 사람 역시 전형적인 르네상스형의 고위 성직자였다. 이 사람은 초기에 메디치의 가문에서 양육받았다. 그에게는 여러 명의 사생아가 딸려 있었다. 그가 교황이 된 후 처음 한 일은 족벌들을 등용시킨 일이었다. 그래서 14살인 아스카니오 스포르자(Ascanio Sforza)와 15살인 알렉산더 파르네세 손자를 그의 표현에 의하면 '노령을 위로하기 위해서(Props for old age)' 추기경으로 임명한다고 했다. 또 자기 아들들을 파르마(Parma)와 피아센자(Piacenza)공에 임명하였다. 그는 또 신학보다 점성술을 더 의지하였다. 그리고 로마시를 르네상스 예술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유럽 각국들로부터 온갖 수단을 다해 자금을 끌어 들었다.

그런데도 바울 3세는 카톨릭의 개혁운동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는 면죄부 판매와 관련된 가장 추악한 악덕들을 평정하였다. 그리고 부재자 주교들에게 자기 임지로 돌아가서 감독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명령하였다. 또 추기경에 뛰어난 에라스무스주의 성직자들을 임명하였다. 여기에는 유명한 기암피에르트 카라파(Caraffa)와 레지널드 폴(Reginald Pole) 등이 있었다.

또 로마에 본부를 둔 종교재판소를 재조직했고, 개혁의 일정을 제출할 조사위원회를 임명했다. 그리고 제슈잇 선교단을 공인하여 그들을 이용해 선교에 힘썼다. 또 신세계(the New World)에서 인디안들을 노예화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때 새로 임명받은 추기경 가스파로 콘타리니(Gasparo Contarini)가 바울 3세에게 '교회의 개혁에 관한 자문'(Counsel concerning the reform of the church)'를 제출하였다(1537년 3월 9일).

콘타리니는 교회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1536년 11월 초에서 1537년 2월 중순까지 거의 매일 모이다시피하여 자문서를 제출하였다.

이 내용에 보면 족벌주의, 성직매매, 복수교직 중임, 부재 성직자, 세속 및 일반 성직자들의 비도덕적 생활, 용이한 처벌해제제도, 창궐하고 있는 뇌물수수 현상 등 각종 타락상들을 열거하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개혁자들이 부르짖고 있던 신학의 근본문제들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예컨대 면죄부에 관한 문제라든가 칭의에 관한 문제 등등은 취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것은 개혁에 대한 이해가 제한됐거나 아니면 취급할 수 없는 권한 밖의 사항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바울 3세는 종교회의를 개최하도록 계속 압력을 받았다. 그러나 내외 사정으로 계속 연기되었다. 1537년 만투아에서 모이려고 했으나 그곳의 공작의 반대로 집회를 개최할 수 없었다. 1538년에는 베니스령 비첸자(Vicenza)에서 모이려고 했으나 대표자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때 찰스 5세가 자기 영토 내에서 회의를 개최할 것을 고집함으로 북부 이탈리아의 황제 직할 도시인 트렌트가 회의장으로 확정되었다. 1542년에는 트렌트(Trent)에서 모이려고 했으나 찰스 5세와 프란시스 1세간의 전쟁으로 몇 명밖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1545년 3월 25일에 소집공고된 트렌트 회의가 12월 13일에 드디어 제 1회기의 막을 올리게 됐다. 회기가 시작되자 몇 가지 간단한 문제를 취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중에 교황 바울 3세가 1549년에 노경으로 사망하였다. 그래서 회의가 정회된다. 루터는 바울 3세 재위 중에 사망했다.

(6) 줄리우스 3세(Julius III : 1550-1555)

줄리우스 3세는 바울 3세 사망 후 교황 선출을 위해 수개월간 난항 끝에 1550년 2월 7일에 선출되었다. 그는 델 몬테(del Monte) 추기경으로 바울 3세가 임명한 개혁위원회 위원이었다. 그는 또 트렌트 공회에서 교황청의 대변인을 지낸 여유만만한 기질을 가진 투스카니(Tuscany) 지방 출신이었다.

그러나 그가 교황이 된 후 실망만 안겨다 주었다. 그는 근실함과 견고함이 부족하고 쉽게 실망하며 무례한 농담을 즐겼다. 그는 또 화려함을 좋아했고 세속적이며 축제와 관련된 오락을 장려했으므로 로마에서는 인기가 있었다. 그의 취미 역시 사냥을 즐기며 큰 돈을 놓고 하는 노름을 좋아했고 광대들이나 배우들을 불러다 즐겼다.

이 줄리우스가 한 일은 한두 가지가 있다.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17세 된 자격없는 자를 추기경에 임명했다. 그리고 1545년 개최했다가 1547년까지 정회된 트렌트회의를 다시 재소집하였다(제2차 회기). 그래서 1551년 재소집했으나 곧 정회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는 1555년에 사망하였다.

(7) 마르셀루스 3세(Marcellus III)

마르셀루스는 교황된 지 3주만에 사망하였다.

(8) 바울 4세(Paul IV : 1555-1559)

이 사람은 본명이 기암피에트로 카라파(Giampietro Caraffa)로 아홉 명의 개혁위원 중 한사람이었다. 바울 4세가 교황으로 선출됐을 때는 그의 나이가 79세가 다 됐다. 그런데도 4년 동안의 교황 업무를 왕성하게 발휘했다. 그는 학식이 있고 청렴했으며 신앙심이 깊고 금욕적이며

타협을 모르고 솔직하며 말과 성질이 급했다.

그는 과거 힐데브란트(Hildebrant)나 이노센트처럼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Vicar of Christ)로 모든 군주들을 지배해야 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탁월하게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는 과거 1536년 교황의 사절로서 마드리드에 머무는 동안 종교 재판이 얼마나 막강한 힘으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체험하였다. 그래서 그는 종교재판소를 강화했다. 그리고 금서 목록을 수정해서 오직 강경 노선만이 효과가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같은 카라파가 교황이 된 후 그는 강압적인 반 종교개혁(Counter Reformation) 정책을 실행하였다. 그는 이단에 관해 의심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치의 양보가 없었다. 그는 가장 뛰어난 추기경 중에 하나이며 열성적 개혁가인 '모론(Morone)'을 투옥시켜 종교재판을 받게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 가족들에게는 약하였다. 그는 자기 직분을 이용해 가족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그래서 그는 재임 중 로마 시민들에게 악평을 받았다.

그가 사망했을 때 민중들은 붕기하여 그의 동상의 사지를 절단해 버렸다. 그리고 종교재판소의 죄수들을 해방시켰고 그들의 기록을 말소해 버렸다. 그는 그렇게 당하였지만 그 후 그 후임자들에게는 좋은 경종과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는 교황청을 숙청하고 교황직을 카톨릭 개혁 운동의 지도적 위치에 올려 놓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는다.

(9) 비오 4세(Pius IV : 1559-1565)

비오 4세는 트레نت 공회를 다시 소집하여 일을 완결케 하였다. 그리고 칙령들을 확증했다. 그는 또 선임자인 카라파의 조카로 추기경으로 된

이들에게 고범죄(high Crimes)를 적용하여 한사람을 처형시켰다. 이렇게 함으로 추기경단(The Sacred College)에 대항하여 교황의 권위를 입증하였다. 그도 역시 예술의 옹호자였는데 임기 말년에는 향락으로 인해 추문을 남겼다.

(10) 비오 5세 (Pius V : 1566-1572)

비오 5세는 13세기 후반에 다스린 그레고리 10세 이후 처음으로 성자로 추대된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는 도미니크 종단의 사람으로 신학과 철학의 선생이요, 종교재판관이었으며 성자로 추대된 마지막 교황이었다. 그후 1903-1914년까지 교황으로 있던 비오 10세가 1951년에 복자(the Blessed)로 시복 받았으나 성자는 아니었다.

그는 지극히 겸허했으며 가난의 규율(the rule of poverty)을 지키는 개혁가들의 대변자였다. 그는 바티칸 안에서도 금욕적인 생활을 계속했으며 교황청의 재판소를 도덕의 모본으로 만들었다. 주일 성수를 법으로 제정하려 했으며, 신성모독, 동물을 괴롭히는 일, 매춘 행위를 억제했다.

그는 족벌주의에 대항하여 친가의 몇 사람을 징계했다. 그리고 자기가 소속됐던 종단이라고 해서 특혜 베풀기를 거부했다. 그는 새로운 교리 문답서와 일과 기도서와 미사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그는 세속에 파묻힌 성직자들의 개선을 위해 뼈 아픈 고통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비오 5세의 노력으로 카톨릭의 개혁은 교황청이 바로 서면 된다는 좋은 모범을 보여 주었다. 비오 5세 이후의 교황청은 이 개혁의 통제력을 유지하였다.

(II) 그레고리 13세(Gregory : 1572-1585)

그레고리 13세는 사생아로 성장하여 후에 교황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닷할 것이 없는 생애를 영위했다. 그는 통치 기간 중 개신교에 빼앗긴 영토를 돌이키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예수회(Jesuit)를 후원해서 많은 선교도 지원했다.

그는 트렌트 공회에서 제정된 칙령을 강화했다. 그리고 고위직 주교 후보자들에 관한 인정은 자기가 확신할 수 있기 전까지는 세속 군주들의 지명 요구를 거부하였다.

그는 스페인 안에서 그 나라 안의 교회를 지배하려는 군주들의 노력을 꺾으려고 막강한 필립 2세(Philip II)에게까지 도전하였다.

그 외에 1585-1590년까지 재위한 식스투스 5세(Sixtus V)는 경건 생활에 열중하였다. 그는 로마에서 대대적인 건축 사업을 추진하였고 교황청을 재조직하였다. 그런데 그는 교황청 재정의 균형을 맞추려고 여기저기마다 관직을 매매하였다.

1592-1605년까지 재위한 클레멘트 8세(Clement VIII)는 친족주의에 탐닉하기는 했으나 공적도 있다. 그는 프랑스 4세에게 속죄를 허용함으로써 스페인과 프랑스간의 고질적인 항쟁을 종식시켰다. 특히 전임자가 시작한 벌게이트 성서 수정 작업을 완성했다.

1605-1621년까지 재위한 성경학자 바울 5세(Paul V)는 그가 교회의 권리라고 믿는 바를 법으로 제정하여 여러 카톨릭 국가들에게 적용하려고 노력했다. 그도 선임자들처럼 권력으로 가족들의 이익신장을 도모했다.

1623-1644년까지 재위한 우르반 8세(Urban VIII)는 30년 전쟁(1618-1648)의 반 이상 동안 교황 자리에 있었다. 그는 교황청을 국제

적인 무대에서 증재자로 만들기를 원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제 16,17,18세기의 그 어느 교황도 과거의 대 레오(Leo the Great) 대 그레고리(Gregory the Great) 그레고리 7세, 이노센트 3세(Innocent III)등과 같은 인물이 나오지 않았다. 제 13세기 이후 단 한사람만이 카톨릭 교회가 성자로 추대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실을 말해준다. 그만큼 모든 교황들이 이전 세대의 선배들만큼 영적, 도덕적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2. 카톨릭 국가들의 반 개혁운동

여기서 카톨릭 국가들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 당시의 제16,17세기의 유럽의 카톨릭 국가들을 말한다. 그 나라는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을 말한다. 이들 나라들은 개신교의 강한 종교 개혁의 반동으로 반 종교개혁 운동을 펼친 것이 사실이다. 요즘 에큐메니칼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역사가들은 반 종교개혁(Counter-Reformation)이라는 단어보다는 카톨릭의 종교개혁(Catholic Reformation)이라는 명칭을 즐겨 쓴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다.

카톨릭 나라에서 개혁을 위한 몸부림은 단지 개신교들의 반항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카톨릭도 자체 내에 있던 영적 에너지가 때 맞추어 개신교 종교개혁 때 분출되었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그같은 분출적 자연 발생의 요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카톨릭의 개혁운동은 몇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개신교 개혁에 대한 반동적 경향이 강했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현재 우리의 시점에서 볼 때 카톨릭의 억압과 박해는 개혁에 맞서는 강경

일변도였음이 확실하다. 특히 이러한 강경 일변도의 노선의 증거로 스페인에서 나타난 '로마의 검(Sword of Rome)' 또 '이단에의 망치(Hammer of Heretics)' 등이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개신교가 국가화 되었던 보헤미아, 모라비아, 폴란드, 헝가리 등은 예수회 선교단의 재 공격으로 다시 카톨릭으로 넘어갔다. 그런 의미에서 반 개혁운동이란 말이 타당하다.

(1) 스페인

1) 이사벨라 여왕의 개혁 정책

이사벨라(Isabella : 1451-1504)는 카스티(Castile)의 여왕이었다. 그는 여하한 형태의 변화나 교리의 융통성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는 이곳의 키메네즈 데 키스네로스(Ximenes de Cisneros : 1436-1517) 추기경과 함께 엄격한 도덕 재무장 운동을 펼쳤다. 그는 당시 수녀원과 수도원이 왕실이나 귀족 또는 성직자들이 낳은 사생아들을 사치스럽게 기르는 것을 개혁하였다. 이 개혁을 반대하는 이는 종교재판소를 통해 강하게 다스렸다.

또 키메네즈 추기경은 여왕의 도움을 받아 4개국 대역성서를 완성하였다. 이 성경 이름은 '콤폴루툼 대역성서(The Complutum Polyglot Bible)'였다. 여기 '콤폴루툼'이란 말은 알칼라(Alcala)라는 스페인 도시 이름을 라틴말로 옮긴 것이었다. 여기서 쓰인 4개국어는 그리스, 라틴, 히브리, 그리고 아람(Aramic)말이었다.

다음으로 키메네즈 추기경은 여왕의 도움으로 알칼라 대학교(The University of Alcala)를 설립하였다. 여왕은 이 대학교를 통해 고위 성

직자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고 하였다. 여기 스페인에서 실시한 종교 재판소는 일체의 항소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 종교재판소를 목격한 카라파(Caraffa)가 후에 교황 바울 4세(1555-1559)가 된다. 그는 강압적인 역 종교정책의 수단으로 종교재판소를 강화했다.

2) 스페인의 신비주의 운동

스페인의 신비주의자로 유명한 이는 아빌라의 테레사(Teresa of Avila : 1515-1582)이다. 테레사 수녀 이전에도 이탈리아의 씨에나의 캐더린(Catherine of Siena : 1347-1380)이 있었고, 또 프랑스의 아르의 조앤(Joan of Arc : 1412-1431)이 있다. 조앤 보다는 잔 다아크(Jeanne Darc)로 더 유명한 이 성처녀는 영, 불간의 100년 전쟁 때 환상적으로 조국을 도운 여인이다.

테레사 역시도 21살 때 가출을 하여 카르멜 종단(Carmelite)수녀원에 들어갔다. 그는 20대 초반에 몽유 증세에 걸려 8개월 이상을 반신불수된 상태로 지냈다. 40대 초반부터 내적인 목소리(interior voices)를 듣기 시작하였고 환상을 보았고, 그녀가 생각하는 계시를 경험한다.

그녀는 약 20년간은 첫 수도원 생활에서 내적 갈등의 삶을 살았다. 그러나 40대 중반부터 테레사는 달라졌다. 1562년에 아빌라에서 최초의 개혁적 '칼멜 수녀들' 혹은 '맨발의 수녀들' (Reformed Carmelite nuns) 모임을 창설했다. 테레사 수녀는 '십자가의 요한' (John of the Cross : 1542-1605)을 통해 남자들을 위한 칼멜 수도원도 창시했다.

테레사는 일생동안 32개의 수도원을 창설했다. 살아서도 성자로 존경받던 테레사는 사후 40년 후에 성자로 추대받았다.

(2)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자체 개혁이든 종교 개혁이든 간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나라였다. 교황청은 앞서 교황들 모습에서 살피본 대로 악덕에 빠져 있었고 지극히 불결한 외양간(the Augean stables)과 같아서 희망을 찾아 보기 힘들었다. 이탈리아는 종교적으로는 인류에 기여한 것이 없으나 르네상스와 인문주의 발상지로 훌륭한 미술과 기이한 문학을 생산해 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 : d.1519), 라파엘(Raphael : d.1520), 미켈란젤로(Michelangelo : d.1564) 등 위대한 미술가 등은 교황청 장식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과거에 기여한 사람들이 있다. 아시시(Assisi)의 프랜시스(Francis : 1181-1226)와 안셀름(Anselm : 1033-1109),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 1225-1274), 사보나롤라(Savonarola : 1452-1498) 등은 개혁 훨씬 이전의 사람들이다.

그러나 로마가 카톨릭의 본산지로 자리가 잡힌 중세기 이후부터는 이탈리아에서 위대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 로마 카톨릭의 본산인 교황청이 부패하게 된 것이 이탈리아 사람들 때문인지 아니면 교황청이 로마에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무기력해졌는지는 그것을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탈리아는 기독교에 공헌한 것이 별로 없다(이탈리아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사실이 그렇다).

(3) 프랑스

1) 개신교의 개혁운동

프랑스는 종교 개혁기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나라에 속한다. 프랑스야말로 가장 개신교 국가가 되어야 할 나라였었다. 그런데 헨리 4세라는 군주가 카톨릭 신앙을 선택함으로 국민들도 싸움에

지친 결과 결국 카톨릭 국가가 되고 말았다.

프랑스 최초의 종교개혁의 시작은 프랑스의 왕 프란시스 1세의 누이동생인 마거릿 당굴렘(Marguerite Dangouleme : 1492-1549)에 의해 시작되었다. 마거릿이 나바르의 왕 앙리 달브레(Henri dalbret)와 결혼했을 때 그녀의 네락(Nerac)성은 박해받는 개신교도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마거릿이 친숙히 지낸 개혁자들을 '모우 그룹'이라 부른다.

궁중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1545년에 왈도파(Waldo:왈도파에 대한 소개는 「새 교회사 I」 P.288-294까지의 기록을 참고하기 바란다)에 의해서 자행된다. 이 왈도파의 학살은 엑스(Aix)의 대주교가 왈도파가 살고 있는 마을 메렝돌(Merindol)의 주민들이 대대적인 모반을 꾀하고 있다는 거짓 보고를 함으로 시작된다. 여기서 군대는 7주간 동안 살상 행위를 계속했다. 이때 30개 마을의 왈도파 신자들 중 3,000-4,000명의 남녀가 현지에서 살해됐고 700명은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다. 여기서 살아남은 극소수는 스위스로 도피하였다. 이같은 학살은 그 후에도 계속됐다.

1562년 3월 1일에 기즈의 공작은 추기경과 함께 파리로 여행도중 바씨(Vassy)에 잠시 체류했다. 그날 주일 개신교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군중들에게 사격을 가했다. 이날 600-700명의 개신교도들 중 63명이 사살 당했고 100명 이상이 상처를 입었다.

바씨에서 개신교도들을 사살했다는 사실은 카톨릭주의자들에게 큰 고무적 사건이 되었다. 그래서 루앵(Rouen), 툴루즈(Toulouse),그레노블(Grenoble), 보르도(Bordeouex) 등에서도 개신교도들에 대한 대량 학살이 자행됐다. 이때 3,000명에 이르는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이 죽어 갔다.

1572년 8월 23일 이탈리아인들이 헨리 4세에게 강요해서 시작된 대

량 학살 사건이 이루어진다. 헨리 4세가 대학살을 명령하자 파리, 모우, 트로이, 루앵, 리옹, 뉘르즈, 보르도 등 수많은 곳에서 개신교도들이 살해당한다. 이때의 학살을 '성 바틀로뮤의 대학살'이라고 한다. 헨리 4세의 총리였던 술리(Sully)는 정통한 통계로 70,000명이 학살되었다고 하였다.

이런 박해에 개신교도들은 더욱 거세게 반격을 하였다. 이로 인해서 카톨릭과 개신교도들 간의 싸움은 전 국가적인 상황이 되었다. 헨리 4세는 스페인 군대 지원을 얻어 개신교도들과 계속 싸웠다. 그리고 30여 년의 전국적인 내란을 겪어야만 했다. 결국 헨리는 카톨릭 신앙을 선택하고 낭트의 칙령을 선포한다. 낭트의 칙령(1598년)은 곧 프랑스 개신교의 헌장이었다.

이 유명한 칙령은 95개조의 총칙(4월 13일 서명)과 56개조의 세칙(1598년 5월 2일 서명)으로 구성되었다. 낭트의 칙령으로 개신교도들은 라 로셸, 몽도방, 몽뻬리어 등 강력한 보루를 포함한 200여 개의 도시에 대한 완전한 통치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은 제한적인 상태에서 타협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들 개신교도는 유럽의 다른 개신교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 오고 있다.

2) 카톨릭의 개혁 운동

프랑스에서의 카톨릭 개혁은 늦게 시작됐다. 그 까닭은 앞서 살펴본 대로 카톨릭과 개신교와의 종교전쟁이라고 하는 싸움이 1590년대 말에야 종식됐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카톨릭 개혁은 뒤늦기는 했으나 열매들이 많이 있다. 프랑스의 파리 대학에서 시작된 예수회 운동이 급격하게 퍼져 나갔다.

1606년부터 1640년 사이에 47개의 새로운 대학이 예수회 운동에 의해서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경이적인 영향이라 아니할 수 없다. 1593년을 전후하여 아비뇽에서 '기독교 교리의 회중' (The Congregation of Christian Doctrine)이 창설됐다. 이것은 카톨릭의 평신도들에게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일⁴⁴에 헌신할 재속 사제들로 구성됐다. 이 운동의 영향으로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나는 정식 사제들의 종단이 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프랑스의 학파로 구성이 된다.

프랑스 학파는 프랑스 신비주의 학파(The French School of Mysticism)라고 알려진다. 이 운동은 피에르 드 베뤼르(Pierre de Berulle : 1575-1629)가 선구자였다. 이 사람은 후에 추기경이 된다. 이 베뤼르는 그가 존경하는 '아빌라의 테레사'와 '멘발의 칼멜' 수도회를 보급한다. 이같은 프랑스 학파는 예수회의 영향을 받은 베뤼르에 의해 프랑스 여러 곳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베뤼르의 제자 샤를르 드 콩드랑(Charles de Condren : 1588-1641)에 의해 대중으로 퍼져나간다. 콩드랑의 추종자 뵁상 드 뿔(Vincent de Poul : 1580-1660)은 많은 공헌을 한다. 그는 몇몇 대학들을 창설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한 사제들의 회중(The Congregation of the Priests of the Mission)을 포함한 여러 모임을 시작한다. 이 모임은 30년 이내에 프랑스 학교의 3분의 1정도가 뵁상 드 뿔의 후예들의 지도를 받게 된다.

뵁상 드 뿔은 성 라자르(St. Lagare) 수도원을 설립해서 본부를 삼았다. 그는 이 운동이 널리 분포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선 자매단(the Sisters of Charity : 1633)을 창설했다. 이들은 병자를 간호하기 위한 조직이었다.

그는 파리에서 노인을 위한 숙소와 통합병원을 창설했다. 또 여성으

로 구성된 방문학원(The Institute of the Visitation)을 창설했다. 또 베렐르의 프랑스 학파 일원인 위드(John Eudes : 1601-1680)에 의해 선한 목자의 회중(The Congregation of the Good Shepherd)이 창시된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 카톨릭의 종교 개혁을 위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다.

그들 중에는 여성의 종교 생활을 부흥시킨 베네딕트 여수도원장들도 있었고 현대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기독교 학교의 형제들의 단체를 창시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 모두를 다 열거하면 너무 지엽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의 카톨릭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나온 것 중에 심한 논란과 분열로 끝낸 사건 하나를 소개해보자. 그것은 소위 잔센주의(Jansenism)라고 알려진 것이다. 그것은 코르넬리우스 잔센(Cornelius Jansen : 1585-1638)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는 루벵(Louvain) 대학을 다닐 때 예수회의 후예들과 논쟁을 하며 공부를 했다. 그는 루벵 대학 교수가 되어 일생동안 예수회 후예들과 독설로 대항하였다. 예수회 역시 그에 필적할 신학교수진을 갖고 있었다. 잔센이 어거스틴에 관한 책을 써 냈다. 여기서 그는 칼빈주의자적인 것을 강조하였다. 즉 구원 받을 사람들에 대한 신성한 예정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 자신이 개신교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적인 종교 경험을 강조했다. 개인의 영혼이 그 창조자와 가질 수 있는 직접적인 관계를 강조했다.

그리고 개신교도들이 이해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든 것을 배격하고 완전한 기독교 생활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잔센의 견해에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잔센주의자 중 뛰어난 사람이 블레즈 파스칼((Blaise Pascal : 1623-1662)이다. 이 사람은 수학의 천재였고 그의 「팡세」로도 유명하다. 결국 잔센은 로

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 받았다(1653).

그러나 그 뒤로도 잔센주의는 계속됐다. 이처럼 유럽에서는 각 나라들이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와의 치열한 전쟁으로 수세기 동안 치달았다. 이 싸움 속에서 개신교가 약한 몇몇 지역에서는 카톨릭이 승리를 했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카톨릭과 개신교와의 30년 전쟁이 다시 일어났다. 이로 인해 카톨릭 교회가 몇 가지 얻었으나 국경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겸허와 희생이 그 기초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웃에 대해 서로 죽이려는 지속적인 전쟁사는 기독교 역사의 모순이라 할 수 있다.

3. 제슈잇 수도회(The Society of Jesus)

카톨릭에서는 개신교의 종교개혁으로 전유럽에 퍼져 나가는 개혁의 불길을 막으려는 여러 운동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돌격대로 제일 앞장 선 것은 제슈잇 수도회라 할 수 있다.

(1) 창설기

창설자 이그나티우스 로올라(Ignatius Loyola : 1491-1556).

이 사람은 그의 부친이 바스크(Basque)의 귀족이었다. 그가 태어난 바스크 지방은 요즘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경 사이에 위치한 비스케 만(the Bay of Biscay)에서 약간 남쪽에 위치해 있다.

그의 부친은 페르디난드 왕의 궁정에서 시종(Page)노릇을 한 적이 있다. 로올라 가문은 전통적으로 충실한 카톨릭교도였다. 로올라는 어렸

을 때 궁전 예절을 익히고 전략을 공부한 후에 다른 두 형제와 함께 자기들 상전이라 할 수 있는 나제라 공작(duke of Najera)의 군대에 소속되어 전투에 참여한다.

1521년 5월 21일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가 팜플로나(Pamplona)에 진격해 왔다. 저들 프랑스 군대는 팜플로나 성벽을 향해 대포를 쏘아댔다. 로올라는 이들을 막고자 분전하던 중 때마침 날아온 대포 알에 오른 쪽 다리는 으스러지고 왼쪽 다리는 부상을 당하는 비운을 겪게 된다.

프랑스 의사는 이 젊은이를 치료하고자 하였으나 미숙한 솜씨로 두 번 씩이나 부러지고 이어지는 우여곡절 끝에 평생 절름발이가 되었다. 고향으로 돌아와 휴양하던 중 여러 성자들의 전기를 탐독하게 된다. 특히 루돌프(Ludolph the Carthusian)가 쓴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많은 감동을 받는다. 이때에 로올라는 자기가 꿈꾸던 기사도적 이상을 종교의 영역으로 전환하고자 결단한다.

즉 그리스도인이란 빛나는 영적 갑옷을 입은 군대로서 의로우신 왕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지휘하에 사생 결단의 전쟁을 벌이는 군사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과 그의 명상들은 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성자의 길로 헌신하도록 결단하게 했다. 로올라는 바르셀로나(Barcelona) 근처 만레사(Manresa)에 은거하여 1년간 지내며 그의 과거 생활에 관한 철저한 정리를 한다.

그리고 인간들이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제어함으로써 구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씨름을 한다. 그는 이때 「영적 훈련」(Spiritual Exercise)이라는 대표적 저서의 뼈대를 만든다. 이 저서는 후에 1541년에 완성 출판된다. 만레사에서 약 1년간을 지낸 후 예루살렘을 순례한다. 그는 그때 모슬렘교도들을 개종시켜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온 로올라는 키메네츠 추기경이 설립한 알칼라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그때 그의 나이가 약 30가량이었다. 여기서 어린 소년들과 함께 라틴어를 배웠다. 로올라는 가정과 병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설교를 했다. 그리고 그가 집필하고 있던 「영적 훈련」을 소개했다. 그러나 그는 종교재판소에 의심을 받고 얼마간 투옥됐다. 그러나 앞으로 3년 동안 가르치거나 모임을 주재할 수 없다는 명령을 받고 풀려 나온다.



지옥에 가게 하는 입곱가지 죄에 대한 그림. 로올라의 고전 「영적훈련」의 도해판에 실린 그림이다.

출옥 후 그와 그의 동료들은 살라만카(Salamanca) 대학교로 갔으나 거기서 2개월도 못되어 다시 투옥되었다. 로올라의 열정이 이단의 혐의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로올라는 1528년부터 1535년까지 7년 동안 파리에 있으면서 공부를 하였다. 그는 몽테뉴 대학(College de Montaigu)과 생트 바르브 대학(College de Sainte Barbe)에서 수학하였다. 1534년에 신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1535년에 문학석사(M.A)를 받았다.

로올라가 파리에서 공부하는 동안은 칼빈이 공부를 하고 떠났을 때였다.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였으나 한 사람은 개혁자의 길을 걸어갔고 다른 한 사람은 카톨릭을 위해 헌신하는 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로올라가 파리에서 공부하는 기간에 자기 동지들을 규합하는 큰 일을 하였다. 로올라는 최초의 6명에게 「영적 훈련」을 소개하며 동지로 규합하는 데 성공한다. 이때의 6명은 곧 로올라의 후계자로 계승한 차기 사령관이 된 디에고 라이네즈(Diego Lainej), 알폰소 살메론(Alfonso Salmeron)과 후에 극동 지역 선교사로 큰 업적을 남긴 프란시스 사비에르(Francis Xavier)등이다.

이렇게 해서 1534년 8월 15일에 여섯 동지들은 수도원의 세 가지 맹세를 한다. 즉, 가난, 그리고 정절, 복종의 맹세(The customary three fold monastic vows of poverty, chastity, and obedience)를 하였다. 이것이 '제주회'(The Society of Jesus)의 시작이다. 원래는 The Company of Jesus라고 했었다.

(2) 발전기

제주회는 교황의 사절에게 자기들의 교리적 정통성을 납득시키고 이 모임이 교황의 권위 수호와 신앙을 전파하는 데 막대한 공헌을 할 수 있다는 납득을 시킨다.

드디어 1540년 9월 27일 교황의 공식 허가를 받아낸다. 제주회는 하나님의 군사(Soldiers of God)인 군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들은 교황의 지시하에 전투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의사를 철저히 부정하였다.

그들의 「영적 훈련」이라는 책에는 너무나 과장이라고 생각되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모든 사건 모든 사물에 관하여 안전하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싶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고수해야 한다. 나에게서는 아무리 흰색으로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만약 교회의 계급 체제

가 이를 검은 색이라고 정의한다면 나는 이를 검은색으로 믿을 것이다' (규칙 제 13조).

그리고 제 1법칙에는 "인간은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 경외하고 섬기기 위하여 창조되었으니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자기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이 사물들이 자기의 진정한 존재 목적을 성취하도록 돕는 한에서만 이들을 이용해야 할 것이며 만약 이들이 자기의 궁극적 존재 목적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된다면 이들을 제거해 버려야만 할 것이다. 우리들의 유일한 욕망과 선택은 왜 우리가 창조되었는가 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가 하는 기준 속에서만 행해져야 할 것이다" 라고 그들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이들의 조직은 우두머리로 총장(General)을 둔다. 그리고 모든 회원은 그리스도께 하듯 총장을 대우하며 존경할 것을 맹세한다. 회원 자격은 최고의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좋은 성품을 소유한 인물들 가운데서 지적으로 뛰어나고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매력적이며 헌신적인 인물들만으로 회원을 가입시켰다.

회원이 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철저했다. 처음 2년간은 견습기간이었다. 그후 신입회원이 돼서는 가난, 정절, 복종이라는 일반 수도회의 서원을 하게 된다.

그후 1년간은 교양 학문을 공부하고 3년간은 철학을 공부한다. 이 공부를 마치면 어린 회원들에게 철학, 문법을 가르친다. 그후 다시 4년간 신학 공부를 하고서야 정식으로 사제가 된다. 사제가 된 후에도 다시 1년간은 실천 신학으로 설교학, 영적 훈련을 한다. 그 후 다시 2년간의 실제 시험 기간을 거쳐 자격이 인정되면 교황에게 절대 순종한다는 특별 서원으로 비로소 제주회 정식회원이 된다.

로올라 자신은 5 피이트 2인치도 안되는 왜소한 체구였다. 게다가 오

래동안 소화불량 증세 때문에 고생하였다. 그리고 다리 수술을 할 때 남자의 자존심으로 남아 있는 돌기(突起)를 없애는 수술을 하였다. 그는 평생을 절면서 살았다.

그런데도 그는 모든 면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했다. 항상 원기가 넘쳤고 평온했으며 자신감이 넘쳤다. 모든 회원들에게 어떤 불순종도 허용하지 않았다. 로올라는 살아 생전에 교황의 교서를 받은 지 16년 만에 예수회 회원은 1,000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그리고 그의 생전에 100개에 달하는 대학과 신학원을 설립하였다.

(3) 수확기

제주잇 수도회는 로마 카톨릭이 만든 수도원 운동 중에서 최후로 화려하게 꽃을 피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주잇 수도회는 왜 그토록 뛰어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는가?

그 첫째 요인으로는 탁월한 조직력을 들 수 있다. 제주잇은 가장 하층 계급으로부터 사령관에 이르기까지 순식간에 소통되는 연락망을 갖고 있었다. 이 탁월한 조직력은 뛰어난 의사 소통을 가능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엄격한 징계조치를 통해 영적 생명력을 계속 강건하게 유지하고자 하였다.

제주잇은 성찬식을 자주 거행하였고 개인적 고해 성사를 강조하고 영적으로 회원들의 문제를 항상 상담함으로써 회원들의 양심 상태를 늘 점검해 주었다.

그리고 한 가지 큰 요인은 올바른 종교적 지식의 함양을 위해 보다 고상한 차원의 고등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해서 제주잇 수도회를 통해 많은 결실을 얻게 된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결실은 교육과 선교 부분이다. 로올라가 죽은 지 1세기 반이 채 지나기 전에 예수회는 700개의 학교를 설립하였다. 오늘날 그 학교들의 숫자는 수천에 이르고 있다. 저들은 개신교 국가들에 들어가 도서관, 수도회, 자선기관, 병원, 학교 등 어디든지 침투하였다.

제슈잇 수도회의 놀랄 만한 성과는 역시 선교이다. 제슈잇회는 프란시스 수도회 종단 후예들과 경합하여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였다. 이들 제슈잇 종단이 유럽 쪽에서는 개신교로 넘어간 지역들을 다시금 로마 카톨릭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 들였다. 이런 지역은 보헤미아, 모라비아 그리고 폴란드 등이 있다. 헝가리 역시도 개신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다 기울어진 것을 다시금 카톨릭 강국으로 되돌려 놓았다.

남미에 있어서도 그 공헌이 대단하다. 멕시코, 페루를 카톨릭 국가로 만드는 데는 프란시스칸, 도미니칸, 어거스티니안들이 가장 활동적이었다. 그렇지만 브라질과 파라과이에서는 제슈잇들이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아세아에서의 선교활동은 어려운 점이 많았다. 남미의 인디언들은 집단적으로 개종이 가능했다. 그렇지만 아시아에서는 오랜 역사 속에서 함께 자라온 고대 문화와 기존 고등 종교들 때문에 개종이 힘들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제슈잇 선교사는 프란시스 사비에르이다. 그는 로올라와 같은 지방 사람이었다. 그가 18살 때 파리의 생트 바르브 대학에 철학을 공부하러 갔다가 로올라를 만나게 되었다. 사비에르는 폴투칼 왕이 동인도 제도에 보낼 선교사 요청에 의해 남부 인디아에 가서 3년 동안 폴투칼 식민지들을 대상으로 해안 지방에서 선교활동을 한다.

그후 동인도 여러 제도(말라카, 말라야, 몰로카이)에서 선교를 2년반 동안 한다. 그리고 1549년부터 1551년까지 일본 선교를 한다. 이때 가



예수회 선교사들은 16-17세기에 남아메리카에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일하였다. 에쿠아도르의 키토(Quito)에 있는 이 교회는 그들에 의해 건축되었다.

고시마, 야마구찌 등 각지에서 선교 활동으로 열매를 맺는다. 이 무렵 전도를 받은 풍신수길(豊臣秀吉)이 임진왜란 때 한국을 쳐들어 오면서 종군 사제를 데리고 들어온다.

그는 46세 때 중국 선교를 계획하던 중 열병에 걸려 사망하였다. 카톨릭에서는 사비에르를 성자로 추대했다. 사비에르 유지를 받들어 중국 선교사로 제주시 선교사 마태오 리치(Matthew Ricci : 1551-1610)가 활약한다.

마태오는 중국의 상층부터 전도하여 차츰 하류 계급으로 내려가는 선교방법을 썼다. 그는 천문학과 수학에 깊은 조예가 있어서 베이징에서 환영을 받으며 선교했다. 이 마태오 신부는 현지의 풍습과 전통에 너무 타협을 많이

한다는 다른 종단 선교사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등 세계 어느 곳이든 제주시 선교사들의 영향은 확대되었다. 이것이 다른 종단들의 시기가 돼서 약 한 세대 가량은 교황으로부터 탄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들 제주시 선교단은 그 어느 종단과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세계적으로 활동하였다. 이들 제주잇 교단이야말로 교황청의 손에 들려진 강력한 검과 같았다. 군대 조직과 같은 이들은 각종 도전과 기회를 날카롭게 포착하였다. 그래서 개신교에 대해서 유감없이 대항하였다. 그리고 유럽에서 잃어버린 개신교도들보다 훨씬 많고 방대한 남미의 여러 나라들을 카톨릭화 하는 데 성공하였다.

카톨릭이 이렇게 왕성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개신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저들은 예정론 신학을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시비하면서 탁상공론만 펼치고 있었다. 잘못된 신학은 그 시대의 교회들을 퇴보시키고 잠재워 준다는 교훈을 역사는 증명해 주고 있다.

이 시대의 신학은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윤택하게 하고 국가와 전세계 앞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신학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엄숙한 현실 앞에 자기 모습에 대한 냉철한 발견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트레نت 종교회의

(1) 회의의 소집

1) 회의 결정의 의미

1545년부터 시작해서 1563년까지 모인 트레نت(Trent)종교회의의 의의는 여러 가지로 크다. 먼저 전 유럽 교회들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새 교회사 I』 P.326-335까지에서 종교회의의 운동에 관해 언급하였다.).

이때에 있었던 각종 종교회의들(피사회의(1409), 콘스탄츠회의(1414-1418), 바젤회의(1431-1449))은 교황의 권위에 커다란 위협이 되었었다. 저들 종교회의의 주창자들은 교황도 전체 종교회의의 결정에

승복해야 된다고 주장했었다.

그래서 교황들은 자기들의 전능한 지존권이 종교회의를 개최함으로 위협받을 것이라는 노이로제증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고, 황제들이 압력을 넣고, 추기경들이 건의를 해도 교회 회의는 열리지 않았었다. 그러던 종교회의가 트렌트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다음으로 여기 트렌트 종교회의는 카톨릭과 개신교를 완전하게 분리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이 당시 카톨릭 안에서도 개신교와의 화합을 위한 기대를 갖는 많은 흐름이 있었다. 특히 스페인의 찰스 5세가 표면에 나타나서 그러했다. 그러나 교황의 절대권 확보라는 작은 실리 때문에 다시 돌아설 수 없는 완전 분리의 계기가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큰 의미가 있다. 그것은 이 트렌트 종교회의가 종료된 후 19세기에 제1차 바티칸 종교회의가 다시 열리기까지 300년 동안은 아무런 종교 회의를 다시 개최하지 않았다. 이것은 카톨릭 교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

이 장기간 동안 카톨릭은 오늘날 현대적 카톨릭 교회로 정비를 하고 체제를 갖추어 놓았다. 카톨릭 교회는 트렌트 종교회의 이후에 트렌트 종교회의의 결정된 기초 위에다 오늘날의 현대 카톨릭을 이룩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 카톨릭 교회는 루터가 공격하던 중세 카톨릭 교회와는 너무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렌트 종교회의의 의미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2) 회의장소

회의 소집이 결정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전체 국민이 원하고 황제가 원하는데도 교회 소집령을 내려야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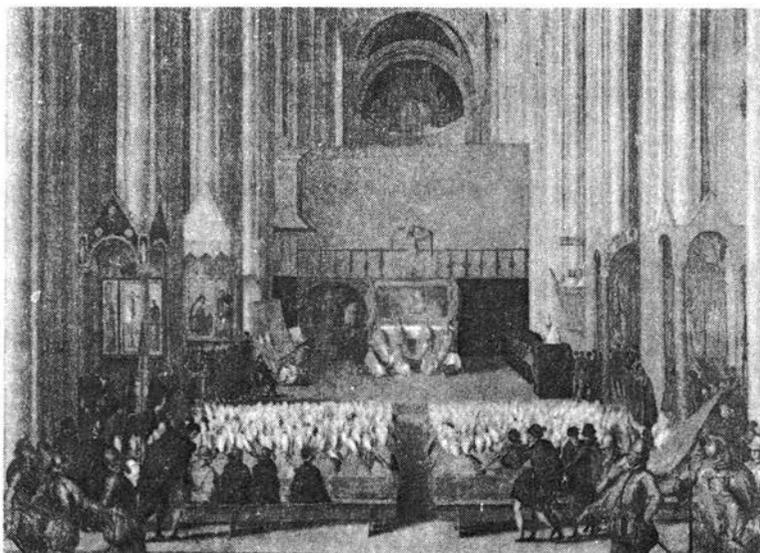
교황은 듣지를 않았다. 이 당시 회의 소집을 갈망하던 전 유럽의 기대를 반영하듯이 파리 대학의 신학, 철학 교수인 존 메이저(John Major : 1470-1550)는 '종교회의의 권위에 관한 논란'이란 논문까지 집필하였다. 찰스 5세는 교황을 지지하는 조건으로 종교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다.

찰스는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일부의 황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제국인 독일 내의 개신교들과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종교회의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황은 찰스의 요구를 듣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한때 찰스의 요구를 듣지 않아 1527년 스페인 군대가 교황청을 짓밟았던 위험도 있었기에 교황은 찰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우유부단한 교황 클레멘트 7세는 계속 회의 소집을 미루었다. 그러다가 교황 바울 3세(Paul III : 1534-1549)에 의해 1545년 12월 13일에 트렌트에서 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회의 장소가 트렌트(Trent)로 결정된 것도 찰스의 고집 때문이었다.

이 트렌트는 북부 이탈리아에 자리잡고 있었으나 법적으로는 독일 영토였다. 이 도시는 조그마한 교회령 제후국의 수도였다. 이 도시는 국경 지대에 위치한 1,000호 정도의 가옥을 가지고 있었으며 너댓 채의 훌륭한 건물과 주교 제후(The Prince Bishop)를 위한 커다란 궁정이 있었다.

이 도시에는 여러 개의 예배당이 있었으며 그 중에 산타마리아 마키오레(Santa Maria Maggiore)교회가 회의 소집장소였다. 이 도시의 주민은 일부 이탈리아인과 일부 독일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조그만 도시는 커다란 회의를 유치하기에는 사실 협소한 장소였다. 그래서 교황은 이 장소를 반대했으나 찰스의 강압적 요구로 이 장소가 결정됐다.



트렌트 대성당에 모인 트렌트 공의회의 마지막 모임(1563). 이 공의회는 로마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노정을 정했다.

3) 회원 구성

이곳 회의에 참석한 성직자들은 많지 않았다. 제1회기에 참석자는 31명이었다. 이들 31명은 대주교가 4명, 주교가 20명이었다. 이들 20명의 주교 중 이탈리아인이 12명, 스페인인이 5명, 프랑스에서 2명, 독일에 1명이 참석했다. 그리고 수도회장이 4명, 신학자 3명 등 모두 31명이 모였다.

이들 가운데서 스페인 대표가 가장 말씨가 많았다. 저들은 교리 문제에 있어서 전혀 타협이 없었으며 동시에 본국 황제의 뜻을 최대한 성취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모인 회의였기 때문에 카톨릭 자칭 세계 종교대회라고 했으나 세계 종교회의는 못되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존재하는 희랍 정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대회라고 할 수 없었

다. 이들 회의는 제1회기에서 제 25회기까지 18년을 계속했다. 그래서 이들 회원이 마지막 회기 때는 255명으로 늘어났다.

(2) 회의 진행

- 1) 교황 바울 3세(Paul III) 주도하의 회의 (1545-47)
제1회기-제10회기
- 2) 교황 줄리우스 3세(Julius III) 주도하의 회의 (1551-52)
제 11회기-제 16회기
- 3) 교황 비오 4세(Pius IV) 주도하의 회의 (1562-63)
제 17회기-제 25회기

회의 기간이 이렇게 간격이 있는 것은 그 기간의 대부분이 휴회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3) 결정사항

카톨릭의 대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역시 인간이었다. 그래서 회의 진행 도중 많은 야유와 폭력이 난무하였다. 스페인 출신의 성직자 하나가 너무 지루하게 오랫동안 연설을 하자 다른 나라 대표는 '이게 톨레도(Toledo : 스페인의 한도시) 회의냐? 네 멋대로 하게...' 라고 비난했다.

프랑스 대표 하나가 로마 교회의 부패상을 신랄하게 비난하자 이탈리아 대표는 "보라! 저 수탉이 우는 꼴을!" 그러자 다른 프랑스 대표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기를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는 일어나서 눈물로 회개했다 하지 않았느냐?" 고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을 간접 공격하였다.

이렇게 험한 말이 오가다가 한 대표는 분을 참지 못한 나머지 그리스 대표의 수염을 한 움큼 잡아 뜯는 촌극까지 있었다. 그래도 꾸준히 인내하고 회의의 격식을 갖춘 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결정하였다.

트렌트 종교회의의 소집 동기가 이단들이 강성해 지는 것, 교회내의 부패상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했다.

이 두 가지 발생원인은 주교들의 태만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교리적인 문제와 신학적인 불명확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사항들이 결정된다(중요사항).

- a. 성경은 벌게이트(Vulgate)판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는다.
- b. 구약의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한다. -이때서부터 카톨릭 교회는 66권에서 77권이 된다.
- c. 전통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삼는다. 이들은 "전통은 신앙이나 혹은 도덕에 관련되어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받아 썼는지 아니면 성령의 말씀하신 내용을 받아썼는지 카톨릭 교회 내에서 계속적인 계승으로 보전되어 왔으므로 성경과 동일한 존경심과 경외심으로 받아들인다."고 선언하였다. 카톨릭이 이렇게 정할 때 순탄하게 결정되지는 않았다. 치오지아(Chioggia) 주교인 나치안티(Nacchianti)는 전통을 성경과 동일 수준으로 올려 놓는 것을 극렬히 반대하였다.

또 다른 회원은 사도적 전통과 여타의 다른 전통을 구별해야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회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이끌어지고 말았다.

이보다도 더 큰 논쟁은 벌게이트 성경을 유일한 권위로 선언하려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이 선언은 모국어 성경 번역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페인은 이미 모국어 성경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독일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강력한 저항 때문에 타협으로 벌게이트 성경이 유일한 순수판이라는 것으로 결정되

었다.

d. 칭의론을 공격하였다. 이것은 루터가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에서 칭의를 주장한 것에 대한 공격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 대해 온건파인 콘타리니 추기경은 '칭의에 관한 서신(Epistole de Justification : 1541)'에서 칭의를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즉 인간의 올바른 행위에서부터 비롯되는 고유한 칭의(inherent Justification)와 인간이 신앙을 통해 그리스도의 역사로부터 받게되는 전가된(칭)의(imputed Justification)가 있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획득한 의가 가장 지고한 목표가 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슈잇 신학자들은 인간이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서는 선행이 절대 조건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래서 루터처럼 행위를 믿음아래 두려는 어떠한 조건도 수락하기를 거부하였다.

결국 총회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의를 따르기로 결정된다. 그것은 의인은 그에 앞서 예비 혹은 준비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칭의에 관한 문제는 프로테스탄트와의 타협의 여지가 완전히 소멸되게 된다.

e. 또 원죄에 관해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는 원죄를 적용시킬 수 없다는 것으로 원죄론을 공격하였다. 이 원죄는 한 중재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없어지며 이 은혜는 교회가 사용하는 영세성사로 최악이 소멸된다고 하였다.

f. 사제에게 구두로 고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처럼 구두로 고백하고 회개한 가슴 속의 죄들은 고행을 통하여 사해될 수 있다고 하였다.

g.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총으로 사람들을 그에게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 안전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배격할 수도 있고, 여

기에 협력할 수도 있는 자유를 가졌다고 선언하였다. 이것은 칼빈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배격한 것이다.

h. 또 개신교를 의식해서 카톨릭 교회를 지키는 교리를 재천명하였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의 명령을 준행함으로 되는 것이며 믿음과 선행이 협력할 때 이루어진다.

i. 만인 사제주의를 부정.

j. 7가지 성사는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

k. 화체설을 재확인 한다.

l. 평신도에게는 잔을 줄 필요가 없다.

m. 주교와 사제들만이 죄악의 용서나 분류를 할 수 있다.

n. 성자의 호출(invocation), 성자 유물의 존경, 성상, 성화, 면죄부를 강력히 지지했다.

o. 교황은 지상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그 외에 너무 많은 것들이 제정 결정되었다. 이렇게 해서 1563년 회의가 끝이 났다. 여기서 발표된 각종 교회 법령, 칙령들은 공식적으로 참석자들의 서명을 받았다. 여기 서명한 255명 중 189명이 이탈리아인이었다. 이렇게 해서 카톨릭은 개신교와의 결별을 하게 된다. 이 트레نت 종교회의의 파급 효과는 그 후 서양 역사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이 트레نت 종교회의의 후 이 회의에 대한 상반된 해석들이 나타났다.

1618년 베니스의 신부 파올로 사르피(Paolo Sarpi)는 「트레نت 종교회의의 역사」(History of the Council of Trent)를 출판하였다. 이 사르피는 신부였지만 또 만물박사였다. 그는 수학, 광학, 동방종교, 정부 및 교회 문제 등 다각적인 역사학 교수였다. 그는 트레نت 종교회의 이후 교회 안에서 취하는 교황의 행위들이 마치 강도와 다를 바 없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교황들을 악당으로 묘사했고 교황청 소속 성직자들의 행위

들을 폭로하였다.

그와 정반대로 제주잇 역사학자 팔라비치노(Pallavicino)는 사르피가 로마 교구를 중상하기 위해 각종 문서들을 변조 조작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트렌트 회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로마 카톨릭교회는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충격 앞에 자기 스스로를 정비하였다. 그리고 개신교를 향한 총공격으로 300여년간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서서야 개신교에서 벗어난 자체를 되찾기 시작한다.

5. 종교 재판과 금서 목록

(1) 종교 재판

종교재판(Inquisition)이라는 개념에는 영적이거나 교회적인 범죄에 대해서 신체적인 고통이나 처벌로써 형벌을 가한다는 것이었다. 종교재판의 역사는 콘스탄틴 시절에도 존속했었다. 그렇지만 중세 교회의 종교 재판은 또 다르다. 중세 교회의 종교재판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교회적인 것, 교황적인 것 그리고 스페인식 종교 재판이 있었다.

1) 교회적 종교 재판

교회와 세속 국가 사이에 주고 받는 식의 종교재판이다. 교회는 이단을 적발하는 의무를 지고, 국가는 적발된 이단들을 처벌하는 상호 묵계적 관계를 말한다. 여기서 교회란 주교가 대표하였다.

2) 교황적 종교 재판

1203년 교황 이노센트 3세(Innocent III)서부터 시작된다. 이노센트는 수도원장을 지명해서 이단 문제를 처리케 하였다. 이때 교황의 지명을 받은 자는 이단을 색출해서 판결을 하고 처벌을 하는 권한까지 행사하였다. 이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관할권을 무시하는 것이었고 교황의 지시는 어디서든지 통할 수 있다는 교황의 중앙집권화에 따른 행동이었다. 이렇게해서 교황청식 종교재판제가 뿌리를 내렸다.

3) 스페인식 종교재판

스페인의 종교 재판 시작은 15세기의 마지막 10년 사이에 일어났다. 스페인에서는 제후들에게 종교 재판관 임명권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벌금과 압수품은 왕실의 금고에 귀속시키는 점이 달랐다.

스페인에서 최초로 두 명의 왕실 종교재판관이 임명되었다(1480년 9월 17일). 최초의 종교재판은 사형을 선고함으로 6명이 화형당하였다(1481년 2월 6일).

그 다음 해에는 종교재판소 직능에 관한 여러 가지 현상이 제정된다. 종교 재판소는 자체적으로 규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종교 재판소는 독립된 기관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니까 나라의 모든 기관들이 이 기관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었다.

종교재판관은 또한 관리들을 임명했다. 관리들은 종교재판 협의회 규정을 준수한다는 선서를 한다. 그래서 이후부터 국가관리는 신앙상의 심이 되는 자나 이단을 옹호하는 자들은 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은 종교 재판관의 설교를 듣기 위해 의무적으로 집회에 참석해야 했다. 설교 후 모든 이는 성경이나 십자가 위에도 손을 얹고 종교 재판소를 돕겠다는 서약을 해야 했다.

종교 재판관이 임명한 관리들은 수비병과 공증인을 대동하고 마을마

다 돌아다녔다. 이들의 경비는 이들이 통과하는 도시와 지역에서 부과된 세금에서 엄출하였다.

침자들과 제보자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각종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렇게 해서 종교재판이 시작된 지 최초의 139년 동안에 300만명의 백성을 감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되자 스페인 전 국민의 가장 저주스럽고 혐오스런 대상이 종교재판소였다.

로렌테(Lorente) 토르구에마다가 의장직을 맡았던 18년 동안에 114,000명이 피소되었다. 이 가운데서 10,220명이 산 채로 화형에 처해졌으며 97,000명은 무기 수감형 내지 공개 참회형을 받았다고 기록됐다. 이같은 공포의 종교재판을 다른 나폴리나 시실리에 실시하고자 했으나 주민들의 결사적 반대로 실시하지 못하였다.

4) 이탈리아의 종교재판

이탈리아에 종교재판이 도입된 것은 개신교 종교 개혁의 무자비한 적 대자였던 추기경 카라파(나중에 교황 바울 4세)가 스페인의 종교재판을 도입한다(1542). 그러나 이탈리아인은 스페인 사람처럼 끈질김이 없었다. 만약 지도자를 잡아 가두면 추종자들은 지도자를 배반하고 다 흩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스페인처럼 많은 희생자는 없었다.

(2) 금서 목록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금서목록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여기서 금서가 될 수 있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 (1) 이단적인 용어
- (2) 무심코 읽는 중 이단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유혹적인 문장
- (3) 교회의 행동에 관한 비판적인 언급

(4) 성직자나 신앙적인 예식에 대한 풍자적 표현

이 모두가 금서 목록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니 그 수많은 책 중 안 걸리는 책이 별로 없을 정도였다. 이같은 경직된 조항은 사회를 메마르게 하였다.

2부
근대교회사



기독교 2천년 역사 중에 16세기가 가장 큰 격동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천 오백여년 동안 큰 저항없이 독주해 오던 로마 카톨릭 교회가 16세기에는 완전히 허물어지고 말았다. 로마 카톨릭은 과거 중세기적 유물들을 근거로 해서 18년 동안의 트레نت 종교회의 이후 현대 카톨릭의 기초를 닦았다.

그 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을 박차고 뛰어나온 프로테스탄트들은 여러 개의 개신교 교파들로 탄생되었다. 그렇지만 카톨릭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종교개혁으로 잃어 버린 것들은 다시 되찾으려고 맹공격을 가하였다. 그것이 30년 전쟁이라는 이름의 신, 구교 전쟁이었다.

그들은 싸움의 결과 무엇을 얻었는가?

이로 인해 국왕이 한 개의 제국 아래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보려는 환상은 하나의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종교개혁은 그 다음 종교전쟁으로 연결되었다. 그렇게 해서 치른 전쟁 후에 무엇을 얻게 되었는가? 전 유럽에 깊은 회의주의를 불러 일으켰다.

여기서 종교적으로 얻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으로 신비주의나 경건주의에 심취하는 경향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 영국에서는 영국민의 생활에 부합한 청교도 운동이나 메도디스트 운동도 발생하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종교의 가치를 부정하고 파괴적 의지가 담긴 루소(Rousseau)의 로맨틱 사상이 인간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또 칸트(Kant)가 나타나 이성 중심의 철학 사상을 수립하였다.

근세 시대는 록크(Locke), 흄(Hume), 데카르트(Descartes), 스피

노자(Spinoza), 루소, 칸트 등 많은 합리주의자가 배출되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크롬웰(Cromwell), 폭스(Fox), 웨슬리(Wesley), 파스칼(Pascal),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 등의 지도자들이 나와 위기를 헤치고 시대를 이끌어갔다.

근세 교회의 역사는 종교 개혁이후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각 교파들이 자기류의 신학을 가지고 발전하는 시기이다. 이들은 각기 다른 문화 속에서 자기 개성을 살려 가면서 각기 다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었다. 여기 2부에서는 이같은 세계 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13 장

30년 전쟁



1. 전쟁 발생의 원인

독일은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동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간에 전쟁을 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난 인구가 감소되었다. 싸움의 최격전지였던 보헤미아 지방은 인구가 5분의 4가 없어질 정도였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을 계속 해야만 했는가? 그리고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루어야만 했는가? 그래서 결국 얻어진 것은 무엇인가? 여러가지 회의스러운 생각이 많지만 여기서 우리는 전쟁 발생의 원인부터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1) 개신교도들의 분열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의 사역의 뒷 마무리를 멜랑히톤에게 맡겼다. 그런데 멜랑히톤은 루터와 신학적으로 다른 요소가 많았다.

루터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이라고 주장했을 때 멜랑히톤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협동해야 된다는 신인협동론(Synergism)을 주장하였다.

루터가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하지 선행은 무용하다고 할 때 멜랑히톤은 선행이 구원의 조건으로가 아닌 구원의 증거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두 지도자 사이의 신학적 간격은 저들이 죽고 난 후에 후계자들에 의해 더욱 커졌다. 즉 구원에 선행이 필요하다는 주장들과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자들로 인해 독일의 루터파는 심한 분열 상태에 있었다.

이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1530년의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Augusburg Confession) 50년 후인 1580년대에 독일 루터파 추종자들은 단합의 뜻으로 서명 작업을 하였다. 이 1580년의 서명 작업에는 51제후, 35개 도시, 그리고 8-9천여 교직자가 참여하였다. 그렇지만 같은 독일 안에서 루터파에 추종하지 않고 칼빈파를 따르는 이들은 이 서명 작업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것이 결국 독일 안에서 개신교 사이에 분열을 자아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독일 안에서 루터파는 카톨릭과의 협상으로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칼빈파를 위시한 다른 개신교도들은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이 프로테스탄트의 분열을 가중시켰다. 아울러 이같은 분열은 프로테스탄트들이 아무런 연합적 저항을 할 수가 없게 했다.

(2) 카톨릭 공세

카톨릭은 트레نت 종교회의를 기점으로 전열을 가다듬었다. 그래서 제일 표면에 제슈잇 선교단을 세워 유럽 전역에 공세를 가하였다. 그리하여 개신교도와의 싸움에서 이를 갈고 있던 여러 카톨릭 제후들과 감독들은 개신교 압박에 전력을 다 하였다.

그래서 실제로 오스트리아, 보헤미아, 폴란드 지방에 개신교화 되었던 지방들이 다시금 카톨릭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렇게 되니까 프로테스탄트들은 크게 긴장을 하고 대응하게 되었다. 이같은 긴장은 드디어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다.

(3) 직접적인 계기

30년 전쟁의 시작은 보헤미아 지방에서 발생하였다. 이 보헤미아 지방의 도나우베르트(Donauworth)시에서 폭동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도나우베르트시는 강력한 로마 카톨릭주의 신봉지인 바바리아(Bavaria)지방에 인접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도나우베르트 전 시민들이 개신교를 선택했다는데도 인접해 있는 카톨릭의 바바리아 공 맥시밀리안의 영향이 미치고 있었다.

1606년에 도나우베르트 시민들은 카톨릭 세력과 큰 충돌을 벌였다. 그것은 도나우베르트 도시 중 카톨릭이라고는 수도원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곳 수도사들은 도나우베르트 도시 밖으로 나오지 않고 단지 수도원 안에서만 자기들의 신앙 유지가 허락되었었다. 그런데 이 당시 황제였던 루돌프2세(1576-1612)가 친 카톨릭 정책을 쓰는 것에 용기를 얻었는지 수도사들이 도시 밖으로 나와 행진을 하였다. 이때 도시민들은 몽둥이와 투석으로 수도사들을 수도원으로 몰아 넣었다. 이같은 사건은 그당시 그다지 드문 사건이 아니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1607년이였다. 도나우베르트 시에 인접해 있던 바바리아 공 맥시밀리안이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도나우베르트 도시를 침략해 들어왔다. 그리고는 도나우베르트 개신교들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니까 개신교 제후들 중 몇이 모여서 1608년 5월 4일에 칼빈파인 팔라틴의 선제후 프레드릭 4세를 중심으로 복음주의 연맹(Evangelical Union)을 결성하였다.

그런데 이 연맹은 루터파가 빠진 칼빈파 위주의 연맹이어서 약세였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도 바바리아 공 맥시밀리안의 지도하에 1609

년 7월 14일 카톨릭 동맹(Catholic League)을 조직하였다. 이렇게 두 세력이 갈수록 험악한 분위기로 달려 가고 있었다.

이런 험악한 분위기에 불을 당기는 일이 황실에서 생긴다. 황제 루돌프 2세(1576-1612)의 후임으로 그의 동생 마티아스(Matthias)가 황제가 되었다(1612-1619). 그런데 마티아스는 너무 연약했으므로 섭정이 필요하였다.

또 마티아스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사촌인 페르디난드를 차기 황제로 지명하였다. 그런데 이 차기 황제가 될 페르디난드는 열렬한 카톨릭주의자였다. 그래서 카톨릭을 반대하던 보헤미아 지방 전국민들은 페르디난드와 마티아스의 섭정 두 사람을 다 싫어하였다.

이때 주민들은 '프라하의 왕실위원회(The Royal Council in Prague)'에 국왕의 정책을 대항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왕실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거부하였다.

이때 보헤미아 프로테스탄트들은 반란을 일으켜 왕의 두 섭정 고문을 50피트나 되는 창문에서 지상으로 던져버렸다. 다행히 저들은 오물 더미 위에 떨어져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감정의 폭발은 건잡을 수 없는 폭동으로 연결된다. 흔히 '프라하의 폭동'으로 알려진 이 사건이 30년 전쟁이 시작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해서 카톨릭을 지지하는 제후들과 군대들이 뭉쳐서 프로테스탄트를 지지하는 제후들과 국민을 서로 죽이고 살육하는 전쟁이 벌어진다.

2. 전쟁의 진행

(1) 보헤미아 내전

보헤미아의 폭도들은 일시적으로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그들은 팔레티네이트(Palatinate) 선거 후 칼빈파의 프레드릭을 자기들의 왕으로 옹립하였다(1610-1632). 팔레티네이트 주민들은 대부분이 개척파였다. 이 지역은 바바리아나 다른 영도에 비해 분리되어 있었다. 여기 팔레티네이트를 중심한 개척파의 반란은 보헤미아 동부쪽으로 번져나갔다. 그래서 인근의 실레시아(Silesia)와 모라비아(Moravia)지방까지 미쳤다.

1619년 마티아스(Matthias)가 죽었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열렬한 카톨릭주의자 페르디난드 2세(1619-1637)가 공식 왕이 된다. 새로운 황제가 된 페르디난드는 바바리아 공 맥시밀리안과 스페인의 군대로 보헤미아의 개척파를 공격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렇게 해서 페르디난드는 보헤미아 왕으로 옹립받은 프레드릭을 공격하였다. 이 싸움에서 개척파 반란군들은 카톨릭 왕의 군대들에게 곧 항복하고 말았다.

반란군에 의해 왕이 됐던 프레드릭은 보헤미아 왕위뿐 아니라 팔레티네이트 영도까지 빼기고 피신을 해야 했다. 한편 보헤미아는 다시금 국왕 페르디난드에게 넘어갔다. 그리고 전에 프레드릭의 땅이었던 팔레티네이트는 맥시밀리안에게 하사되었다.

이로부터 보헤미아나 팔레티네이트 양 지역은 새로운 카톨릭 군주에 의해 심한 박해를 받아야만 하였다. 이곳의 개척파 지도자들은 처형되었으며 재산은 몰수되었다.

1626년 부활절 보헤미아에서는 카톨릭 신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곳을 떠나라는 칙령이 반포되었다. 이때 나라를 떠난 가족이 3만 이상이 된다. 사건은 맥시밀리안이 주동하는 카톨릭 제후의 활동상을 지켜 보던 다른 개신교 지도자들에게는 커다란 불안을 안겨 주었다.

(2) 덴마크의 개입

북 서부 독일 지역의 개신교 제후들이 카톨릭 주동자인 맥시밀리안과 페르디난드를 공격하였다. 이때 페르디난드는 틸리(Tilly) 장군을 기용하여 개신교 연합 세력을 쉽게 물리쳤다.

1625년 말 잉글랜드, 네덜란드, 덴마크 등이 프로테스탄트 동맹을 결성하고 독일을 침공하기로 하였다. 이때 보헤미아 국왕 페르디난드는 보헤미아 최 거부 귀족인 발렌스타인의 알버트(Alber of Wallenstein)로 하여금 개신교군을 물리치게 하였다. 그리고 틸리 장군으로 하여금 덴마크 군을 물리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발렌스타인 군대는 1626년 4월 25일에 개신교도 연합군을 물리쳤다. 개신교도와와의 싸움에서 카톨릭의 승리는 1627년, 1628년에도 계속되었다. 카톨릭은 대 승리의 수확으로 1629년 3월 6일에 복구령(Edict of Restitution)을 내렸다.

이것은 과거 1552년 이후 개신교 소유로 변경된 모든 카톨릭 재산을 과거처럼 카톨릭에 복귀시키라는 명령이었다. 또 루터파를 제외한 모든 개신교의 권리를 박탈하였다.

이로써 5개의 감독구와 100여개의 수도원과 수백개의 교구가 다시금 카톨릭으로 바뀌어졌다. 만일 이때 카톨릭 내의 분쟁이 없었다면 개신교는 더 많은 손실을 당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던 카톨릭 동맹에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다. 카톨릭 동맹의 두목인 바바리아의 맥시밀리안이 발렌스타인 장군을 시기하여 그를 장군에서 면직시킨다(1630년 9월).

덴마크의 크리스찬 4세와 보헤미아의 페르디난드의 싸움은 드디어 뤼벡 협정(Treaty of Lubeck)으로 종결된다. 크리스찬 4세가 다른 개신

교 국가들의 도움으로 독일을 침공했으나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말았다. 이 전쟁으로 독일 국민들은 큰 전쟁에 시달려야 했고 나라는 더욱 황폐해졌다. 그리고 수천 명의 주민들은 카톨릭으로 개종을 강요 당하였다.

(3) 스웨덴의 개입

스웨덴의 국왕 구스타부스 아돌프스(Gustavus Adolphus)는 1611년에 겨우 17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이때의 스웨덴은 변변치 못했다. 당시만 해도 스웨덴 영토의 대부분을 덴마크가 점거하고 있었고 나머지 국토들도 여러 분파들에 의해 분할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세력가들은 아무도 왕실을 지원하고 존중하는 이가 없었다. 그러나 젊은 왕은 현명한 통치로 국민들을 통합하여 덴마크 침입자를 몰아내었다. 그리고 그의 힘이 강성해지자 덴마크를 비롯해서 러시아 폴란드 등 세 나라와 싸워서 모두 승리하였다.

이 구스타프 왕은 전술이 능했으므로 나폴레옹은 그를 세계의 7대 명장 중 하나로 손꼽았다고 한다. 이 구스타프 왕은 발탁해 연안에 있는 스웨덴을 넘보는 독일의 세력을 항상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그 당시 보헤미아와 독일에서 발생하고 있던 카톨릭 세력의 승세를 우려하게 되었다. 게다가 구스타프 왕 자신은 열렬한 루터파 신자였으므로 개신교를 보호하고 독일의 야망을 쳐 부순다는 목적으로 전쟁에 개입하였다.

1630년 구스타프 스웨덴 왕이 독일을 쳐들어 왔을 때 독일의 프로테스탄트들이 모두 불신하였다. 그러나 구스타프 왕은 1630년 6월 20일 독일 해안에 상륙하여 보헤미아 황제 페르디난드군을 격파하기 시작했다. 구스타프 왕은 자기와의 동맹군을 찾았다.

그래서 1631년 1월에 프랑스의 루이 13세의 유수한 재상인 리슐리외와 조약을 맺고 재정적 후원을 얻었다. 그 뿐만 아니라 독일내 개신교 제후들과도 동맹을 체결하였다. 그래서 독일 브란덴부르크 선제후와 작센이 스웨덴과 동맹을 맺게 된다.

1631년 9월 17일에는 구스타프 왕 자신의 힘으로 황제의 군대인 틸리(Tilly)군을 격파하였다. 구스타프 왕은 거듭되는 승리를 통해 거의 전설적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의 군사들은 전에 독일을 침공하였던 다른 나라 군대들과 전혀 다르게 처신했다. 전쟁 승리 후 현지의 주민들에게는 친절과 존경을 베풀었다.

또 스웨덴 군인들은 프로테스탄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점령지 주민들에게 개종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구스타프 왕은 자기가 스웨덴의 이익을 위해서 독일을 분할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와의 조약에서도 전쟁 승리로 독일 내의 조그마한 촌락 하나라도 프랑스가 차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조약을 맺었다. 이와 같은 구스타프 왕의 전략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다. 구스타프 왕은 라인강 지방에 진군하여 마인쯔를 점령하였고 작센은 프라하를 점령하였다.

곤경에 빠진 페르디난드 황제는 전에 바바리아 공의 시기로 장군을 면직시킨 발렌스타인 장군을 다시 불러 들인다(1632년 4월).

구스타프 왕은 계속 진군하여 카톨릭의 심장부인 바바리아의 수도 무니히를 점령하였다. 발렌스타인 장군은 구스타프 군대와 라이프찌히 부근 '뤽젠(Lutzen)'에서 접전하게 되었다. 이 싸움에서 발렌스타인 군대는 구스타프에게 대파하였다(1632년 11월 16일). 그리고 이 처절한 전투에서 구스타프 왕도 전사한다.

구스타프 왕이 죽고난 스웨덴은 유력한 수상 옥센세르나(Axel

Oxensterna)에게 넘어갔다. 그리고 구스타프는 죽었으나 전쟁은 계속 되었다. 이 때 몇몇 카톨릭 지도자들이 평화 조약을 탄원하였다. 이때 스웨덴 국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내세웠다.

- 1)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를 막론하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할 것
- 2) 보헤미아 왕국을 원래의 주권자에게 되돌려 줄 것
- 3) 팔레티네이트 지방을 프레드릭에게 돌려 줄 것
- 4) 제국 내에 있는 제주잇단을 축출할 것 등이었다.

이후의 전쟁은 사소한 약탈과 방화 그리고 음모의 무대로 변해 버렸다. 전장에서 수년을 보낸 장교들과 병사들은 전쟁에 맛을 들었다.

이 무렵 발렌스타인 장군이 오해에 의해 암살을 당한다. 그리고 주요 장교들도 살해된다. 이같은 암살이 페르디난드 왕에 의한 것인지는 확실치가 않다.

이 무렵에 스페인 군대가 스웨덴 군과의 싸움에 끼게 된다. 스페인은 독일의 자기 친척들을 원조한다는 명분으로 응원군을 파견하였다. 그런데 프랑스 정부는 카톨릭 추기경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다 강력한 개신교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니까 전쟁의 목적이 애매해져 버리고 말았다. 전쟁의 처음 목적은 종교적인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단지 권력 투쟁을 위한 싸움이 되고 말았다.

3. 베스팔리아 평화조약(The Peace of Westphalia)

결국 가장 피에 굶주렸던 자들까지도 전쟁과 파괴에 지치게 되었다. 아무리 많은 전쟁을 계속한다 해도 북부 독일은 카톨릭 군이 더이상 정복할 수 없고 남부 독일은 개신교 군이 정복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서 1635년 6월 15일에는 황제와 작센 사이에 평화조약이 체결된다.

1637년에는 페르디난드 2세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 페르디난드 3세(1637-1657)가 새 왕이 되었으나 사태는 달라지지 않았다. 독일은 이 전국을 타개할 만한 참된 지도자가 없었다. 독일인들은 외국 군대들에 의해 자기들의 영토가 짓밟히고 있는 것을 보고 탄식할 뿐이었다. 이때 프랑스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찾기 위해 전쟁을 계속 끌고 갔다. 프랑스는 독일의 어려움을 틈타 영토를 얻으려고 했다.

스웨덴 역시도 발틱 해안에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려고 했다. 이렇게 되자 종교적 원인은 사라지고 각 나라의 이권 투쟁으로 변해 버렸다.

스웨덴, 프랑스, 독일은 많은 협의 끝에 1648년 10월 27일 베스팔리아 평화 조약을 체결한다. 이 조약의 내용에는 종교상에 관한 것과 영토에 관한 것으로 구성됐다.

베스팔리아 평화 조약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1) 종교에 관한 것

1) 카톨릭교도나 루터파가 갖고 있는 종교상의 권리는 다른 개혁신교회(칼빈파)도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2) 교회 재산 소유권은 1624년 1월 10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때의 소속에 따라 정한다.

3) 군주나 제후의 종교가 곧 그 지방 신민들의 종교가 된다. 제후의 신앙과 신민의 신앙이 달라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 원할 때는 허용토록 한다. 단, 1624년 이후의 신앙은 제후와 신민이 다른 종교라 하더라도 같은 영내에 살 수 있다. 그리고 이주를 명할 때 재산을 몰수할 수 없다.

(2) 영토에 관한 것

- 1) 스페인은 네덜란드의 독립을 승인한다.
- 2) 독일 제국은 스웨덴의 독립을 승인한다.
- 3) 스웨덴은 발틱 해안에 있는 독일 영지인 포메라니아(Pomerania)의 일부와 루겐(Rugen) 섬을 할양 받는다.
- 4) 프랑스는 독일 영지인 메츠(Metz), 베르딩(Verdun), 투올(Toul), 알사스(Alsace) 대부분을 할양한다.

이렇게 해서 많은 건물들과 각종 종교 기관들은 1624년 당시의 상태로 회복되었다. 그리고 독일은 많은 영토를 잃게 되었다.

4. 전쟁의 결과

30년 전쟁은 독일에게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다. 온 나라 구석구석이 한세대 동안이나 무법한 약탈군들에게 제멋대로 짓밟혔다. 여기서 얻어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1) 인간들이 전쟁을 통하여 종교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에 처참한 고통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2) 베스팔리아 평화 조약에서 나타난 대로 인간은 종교의 자유를 회구하며 그것은 군왕이나 무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3) 세상의 군왕들이 처음에는 종교 전쟁이라는 거룩한 목적으로 출발을 했으나 결국 싸움의 결과는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정책을 결정해야 했다. 이와 같이 자국 중심의 이해 싸움은 현대 세속 국가들의 본성들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4) 인구의 감소가 현저하였다.

전쟁 전 아우구스부르크 인구는 8만명이었다. 그런데 종전 후는 1만 8천명으로 줄어들었다. 또 비텐베르크 시는 더 심하였다. 전쟁 전 인구가 40만이었던 것이 종전 후는 4만 8천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서 16세기 초 독일 인구가 3천만이던 것이 전쟁이 끝난 후에는 1천 2백만으로 줄어들었다. 전국민적 인구 감소와 함께 피살된 목사가 많게 되었다. 비텐베르크시에는 300명의 목사가 피살되었고, 발나디나트에 칼빈파 목사도 350여명이 희생되었다.

(5) 지적 생활의 부진으로 도덕이 부패해졌다. 전쟁 중이라 산업이 파괴되고 문화, 예술 등 지적 활동이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사회 전반이 도덕적으로 부패해졌다. 이러한 때 종교계는 양 극단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하나는 더욱 깊은 신비주의에 빠져 들어가는가 하면 또 다른 편에서는 종교에 깊은 회의를 느끼고 종교를 부정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30년 전쟁은 다음 세기에 일어날 각종 반응에 자극을 주는 원인이 되었다.

제 14 장 청교도 운동



청교도 운동 자체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그다지 큰 파급 효과를 미쳤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 운동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그 파급 효과는 더욱 커져 갔다. 특히 미대륙의 건국 초기에 미친 영향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한국의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은 장로교, 감리교를 가리지 않고 청교도적 신앙의 칼라를 전수해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에 관한 연구는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먼저 청교도 운동의 역사적 발전 모습과 신학적 발전 모습을 다르게 구분해서 살펴보자.

청교도의 역사적 발전 과정이 영국의 정치 현상에 의한 반응이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증명해 주고 있다. 그렇지만 신학적 발전 모습은 어떤 특정한 정치 현상과 전혀 별개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의 기원을 어느 때부터라고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약간씩 의견이 다르다.

1. 청교도 운동의 역사적 모습

(1) 최초의 선구자

청교도(Puritan)라는 용어의 시작은 존 후퍼(John Hooper: 1495-

1555)에게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후퍼는 헨리 8세 때 취리히로 가서 쾰링글리의 후계자인 블링거와 2년 여간 교제하면서 많은 감회를 받고 귀국한다.

그는 영국으로 귀국해서 취리히에서의 경험을 근거로 그 당시 헨리 8세의 미온적 종교 정책에 불만을 토로하였다. 후퍼가 영국 국교회의 종교 정책에 관해 많은 것들을 지적했었으나 그가 국교회와 크게 부딪친 문제는 제단 사용과 사제들의 제복에 대한 반대가 크게 부각되었다.

1550년 후퍼는 글로세스터(Glocester) 감독에 임명을 받았다. 그러나 후퍼는 사제의 제복 사용 거절을 고집하다 투옥됐다가 풀려난다. 그리고 그는 계속 제복을 중백의로 바꿔야 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다가 많은 수난 끝에 1555년 메리 여왕 때 화형을 당해죽고 만다.

이렇게 해서 후퍼의 제복 사용을 중단하고 종교계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운동은 하나의 고고지성으로 끝이 났다.

그런데 이 운동은 그 다음 엘리자벳 여왕 때 좀더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엘리자벳 여왕은 1559년 통일령에 의해 영국내 모든 교회가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식 개혁이 이뤄지도록 법제화한다. 이때의 통일령은 예배의 형식을 기도로 통일시키려 하였고 사제들의 복장까지도 통일을 하려고 하였다.

이때에 대륙으로 피난했다가 돌아온 수많은 개혁의 의지를 가진 무리들이 엘리자벳 여왕의 종교 통일 정책에 반항을 한다. 이들 반항자들의 구성은 여러가지로 복잡하다. 개혁과 신학을 중심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독립과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들 반대자들은 1564년경 그들의 의견을 집단적으로 묶어서 여왕의 통일 의식령에 반대를 제기한다. 이들 반대자들이 신학적 내용도 있었겠지만 저들의 표면적인 주장은 제복 사용을 반대하고 검소한 생활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해서 청교도라는 집단적 무리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564년 엘리자베트 여왕 때로 기록되고 있다. 그런데 청교도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그 당시는 이 말이 매우 경멸적이고 모욕적인 말이었다. 이것은 종파주의자, 광신자, 반항자, 그리고 무지하고 정신나간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초기의 청교도에 대해서는 매우 모욕하고 중상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되었다. 이같은 청교도 운동이 영국의 제왕들과 함께 변천 발전되고 드디어 후에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바뀌어진다.

(2) 제임스 I 세(James I :1603-1625) 때의 청교도

엘리자베트 여왕 때 그 모습을 나타낸 청교도는 제임스 왕 때에 좀더 분명하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엘리자베트 여왕은 처녀 왕으로 후손을 남기지 못하였다. 그는 죽기 전에 스코틀랜드 국왕 제임스 6세(1572-1603)를 잉글랜드 왕으로 지명하였다.

엘리자베트 여왕이 죽고난 다음 제임스 6세는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를 합친 대영제국의 왕이 된다. 그는 대영제국의 왕이 되면서 제임스 I 세로 개칭을 하고 두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된다.

새로운 대영 제국의 왕이 된 제임스 I 세는 스코틀랜드 보다도 잉글랜드를 다스리기가 더욱 어려운 것을 발견하게 된다. 제임스 I 세가 잉글랜드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역시 종교문제였다. 제임스 I 세가 전에 다스렸던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에 의한 종교 개혁이 성공함으로 로마 카톨릭과는 현저하게 구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잉글랜드는 어떠하였는가?

잉글랜드는 바로 전임자인 엘리자벳이 애매한 중도형 종교를 취했기 때문에 카톨릭의 전통적 의식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예배 내용에서 개신교의 사상들을 표현하려고 했다. 이같은 혼합 중도형 종교 정책을 맹렬하게 공격하고 나서는 세력이 개신교 세력이었다. 이들은 스코틀랜드의 개혁주의자들과 연합해서 과감한 개혁을 주장하며 항의를 계속하였다.

저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다 똑 같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이들의 강조점들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오늘날의 영국 교회가 제왕에 의해서 이루어 질 것이 아니라 성경적 교회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현 교회는 청소(purify)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이 주장하였던 주장들을 크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1) 청교도들의 주장

① 로마 카톨릭의 잔재를 깨끗이 청결하라.

잉글랜드 교회 안에는 여전히 카톨릭적 잔재가 남아 있었다. 예배당 안에서 십자가를 사용한다든가 제단에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사제들이 제복을 입는 것 등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열렬하게 반대했다.

② 경건한 생활의 실천을 강조했다.

잉글랜드 교회 구성원들의 종교 생활이 허례 허식에 지나지 않음과 그들의 사치성 등을 반대하였다. 그리고 경건한 종교 생활을 강조하였다.

③ 감독제도(Episcopasy)를 반대했다.

저들은 교회가 보다 성경적이기를 주장하였다. 그래서 감독제도는 후세의 조작이라고 보고 신약교회의 장로들(presbyters)에 의한 장로회

주의를 주장하였다.

④ 금주운동을 전개했다.

당시 영국 국교회 대부분은 술을 마시는 것을 허용했다. 그래서 술과 함께 뒤따르는 방종과 부도덕 역시 타락의 원인이 되었다. 청교도들은 이들에 대한 반동으로 강력한 금주 운동과 함께 도덕 청결을 주장하였다.

⑤ 연극 관람도 반대했다.

당시는 영화가 없었기 때문에 연극을 반대했다. 이유인즉 극중에서 표현될 수 있는 부도덕성만이 아니라 연극 자체에 잠재해 있는 이중성(duplicity) 때문이었다.

⑥ 독립 개교회를 주장하였다.

교회는 반드시 그 어떤 상부의 조직으로 부터 독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같은 주장을 따라 독립파라고 하였다.

⑦ 성인 신자에게만 침례를 베풀어야 한다.

독립파 중에서는 자기 신앙은 자기가 고백할 수 있는 성인 신자에게만 침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을 침례파라고 부르게 됐다.

대략 이상과 같은 주장들이 다양하였다. 그러므로 청교도라는 무리 안에는 개혁주의의 칼빈파도 있었고, 또 독립파로 분리를 주장하는 세력도 있었고, 침례파도 있었다.

이들 초기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회라는 거대한 세력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각자 신학적 견해가 약간씩 다른 데도 불구하고 약자들이 연합 형태를 구성하였던 것 같다.

2) 제임스 1세의 반응



18세기 비 국교도들의 집회 장소의 내부. 그 분위기는 토론하는 집회장(hall)을 연상시킨다. 중세 대성당에서의 기도회와 신비의식에서 떠나 있다.

제임스 1세는 너무 복잡한 구성요소를 가진 잉글랜드 국민을 다스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가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로서는 국가 재정에 대한 것이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부과되는 과세(誇稅)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런데 과세의 해결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였다.

그 당시의 의회는 평민들이 선출에 의한 평의회(House of Commons) 또는 하원이 있었고 귀족들과 주교로 구성된 상원의원(House of Lord)이 있었다.

상원 의원은 항상 보수적으로 왕실의 정책에 긍정적이었다. 그렇지만 하원은 진보적인데다 왕실정책에 비판적이었다. 그런데 제임스 왕이 도움을 얻어야 할 곳은 하원의회였다.

하원들 중에는 아무래도 비국교도인 개신교도가 많았다. 이들은 왕이 추진하고 있는 미온적 종교정책에 비판을 가하고 있는 청교도들이 많았다. 제임스 왕은 이들 하원위원들의 요청을 들어주면 자기가 원하는 과세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래서 청교도의 지도자인 레이놀즈 박사의 제청을 받아 들인다.

제임스 왕 때 이뤄진 가장 큰 공적은 성경 번역이다. 영국에는 이미

있던 대성서(The Great Bible:1539-41)와 제네바 역(Geneva Bible:1568)의 결점을 검토하고 전면적인 개역을 하게 된다.

1607년에 54명의 개역위원이 선정되었다.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웨스트민스터의 3개 대학에 분담된 번역위원들은 번역을 착수하였다. 그래서 1610년에 완성을 보았고 1611년에 출판되었다. 이것을 제임스왕의 흠정역(The King James Version:1611)이라고 한다.

제임스 왕은 이렇게 청교도들과 타협도 하였다. 그렇지만 그가 추구하는 정략에 도움 되지 못할 때는 전면 돌변하여 청교도들을 탄압하였다. 청교도 지도자들 800명이 서명을 해서 '천명의 탄원'(Millenary Petition)을 제출했을때 그들을 추방시켜 버렸다.

(3) 찰스 1세(Charls I :1625-1644) 때의 청교도

제임스 1세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 찰스가 왕이 되었다. 찰스 때의 청교도는 극한적인 투쟁의 시대였다.

찰스는 그의 통치 초기부터 국민들로부터 의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그가 영국 국교회 수장을 계승해야 할 사람으로 카톨릭교도인 프랑스 루이 13세 누이와 결혼을 한 일이었다.

국민들은 그의 신앙에 대해 석연치 않는 의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국민들은 새 왕후를 이세벨에 비교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국민들의 의혹은 그가 청교도나 의회주의에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로 곧 드러났다.

우선 찰스는 의회를 해산하고 의회 없이 통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같은 구상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왜냐 하면 의회의 승인 없이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찰스는 수 차례에 걸쳐 의회를 소집하였으나 하원에서는 세금의 비준 문제 전에 다른 사건을 먼저 다루도록 주장하였다. 그래서 의회를 해산 시키기를 여러 차례 반복한다. 이렇게 해서 처음 11년간은 의회와의 투쟁으로 세월을 보낸다.

그리고 다음에는 청교도들과 투쟁을 한다.

1633년에 윌리엄 로드(William Laud:1573-1645)가 캔터버리의 대주교가 된다. 로드는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종교적 통일이 필수적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성공회의 정착을 반대하는 청교도들을 가차없이 탄압하던 인물이었다.

그는 청교도들을 처형하고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감행하였다. 로드의 초 강경책을 만족히 여긴 찰스는 로드에게 스코틀랜드까지도 로드의 종교정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로드가 스코틀랜드에도 영국 성공회식 예배를 강요하였다. 이로 인해 스코틀랜드 국민은 큰 반전으로 응전하였다. 이렇게 해서 로드가 이끌고 찰스왕이 하나가 된 세력과 스코틀랜드의 칼빈주의자들과 잉글랜드 청교도들이 하나가 되어 전쟁이 벌어졌다. 스코틀랜드 군인들이 잉글랜드의 찰스의 군대를 패퇴시킴으로 전쟁의 양상은 단연 찰스에게 불리해졌다.

이와 같은 사태 전에 찰스는 1629년부터 1640년까지 의회를 소집하지 않으면서 나라를 다스려 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같이 장기간 동안 의회를 소집하지 않음으로 '장기의회(The long parliament)'라는 비난을 면치못하였다.

그러던 찰스가 드디어 의회를 소집해서 스코틀랜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의회의 주체 세력은 청교도들이었다. 새롭게 소집된

의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은 장로교회 정치를 주장하는 청교도측 사람들이었다. 이들 청교도 지도자인 햄프던(Hampden)과 핀(Pyn) 등이 주축이 되어 영국 국교회주의자요, 감독제도를 보급하려던 윌리엄 로드 대 주교를 반역죄로 런던 탑에 유폐시켰다.

하원의원은 점점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래서 천문대와 고등법원을 폐지했고, 감독 정치제도까지도 폐지하도록 결의하였다. 그리고 하원은 1643년 7월에 웨스트민스터 신학자 대회를 개최하도록 결의한다.

영국 의회에서는 보다 학식이 많고 경건하고 분별력이 있는 성직자로 구성된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Westminster Assembly)를 개최하도록 결의한다. 이 회의는 1643년 7월 1일 부터 시작해서 1647년 2월 22일 까지 계속된다. 그런데 이 회의 기간은 찰스왕이 이끄는 왕당파와 의회에서 의원들이 위주가 된 시민들과의 시민전쟁(Civil War:1642-1660) 기간 중에 회의가 계속됐다.

시민전쟁은 찰스 국왕이 의회에서 대 주교 윌리엄 로드를 재판한 햄프던과 핀을 체포하려고 의회에 진격하였다. 그러나 의회는 왕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찰스는 1642년 8월 22일에 런던을 떠나게 되었다. 이때 국왕을 대항하는 의회파 지도자는 존 핀(John Pyn)이었다. 찰스 국왕은 국회군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게 된다. 왕의 부하로 제임1세의 손자 루버트(Prince Rupert)가 대장이 되어 기병으로 전승을 주름잡아 나갔다.

그에 비해 국회군은 아직 훈련되지 않은 민간 무리들이었다. 그래서 모든 싸움에서 항상 국회군이 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때 의회군의 지도자로 나타난 것이 저 유명한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 1559-1658) 장군이다.



Westminster Abbey

그러면 크롬웰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의 가문은 헨리 8세의 대신의 후예였다. 그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수학도중 부친의 사망으로 공부를 중단한다. 그는 런던에서 법률을 공부한 후 고향 헌팅톤(Huntingdon)에 가서 활약하다가 국회의원이 된다. 그는 청교도로서 성경을 열심히 애독하고 개인이나 정치적인 모든 결정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기초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다.

크롬웰은 내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하원의원에서 평범한 한 청교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내란의 양상이 걸잡을 수 없이 장기화될 것을

내다보고 내란이 생기면 무력 대결이 불가피함도 예측하였다. 그래서 그는 도시인이 아닌 신앙심 깊은 농부들을 훈련하여 신식 군대(New Model)라 칭하는 강력한 기병대를 조직하였다.

이렇게 해서 강한 신앙심을 밑바탕으로 한 철기병을 구성하고는 1644년 7월에 크롬웰의 철기병들은 왕의 군대와 싸워 마스톤 무어(Marston Moor)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그리고 1645년에는 내스비(Naseby) 전투에서도 대승을 거두었다. 이때부터 크롬웰은 당당한 지도자가 되어갔다. 또 1648년에는 프레스톤(Preston)에서 최후 승리를 거둔다.

1649년에 찰스 군대는 스코틀랜드 군대와와의 싸움에서 항복을 하고 드디어 영국 의회군에게 넘겨진다.

이렇게 왕당파로 알려진 찰스와 의회군 지도자로 알려진 크롬웰과의 시민전쟁 속에서 저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모이게 된 것이다. 이때 모임에 참석한 총 대표는 151명이었다. 이 중 121명이 목사였고(이 중 8명은 스코틀랜드의 대표였다.) 나머지 30명은 주로 하원의원들로 구성된 평신도 대표들이었다.

내용상으로 국교회, 장로교회, 독립파 교회, 에라스무스주의자 등이 참석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영국 국교회는 전혀 참석하지 않고 대개 장로교 사람들이었다. 회의장은 처음엔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헨리 7세의 부속 예배당이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사제장의 관저(Jerusalem Chamber)에서 모였다. 이들은 1643년 7월 1일부터 1647년 2월 22일까지 약 3년 7개월 동안 끈기있는 회의를 계속 하였다.

웨스트민스터 대회서 결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것은 총 33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맨 처음 성서론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최후 심판까지를 칼빈주의에 입각한 신앙관들을 천명하였다.

2) 대 교리 문답서

이것은 196개의 묻고 답하는 문답서이다.

이 내용은 앞서 신앙고백에 대한 보충 설명과 주석이 위주다.

3) 소 교리 문답서

이것은 107개의 문답서이다. 이 내용은 초신자의 교육 지침서이다.

이 신앙고백서가 스코틀랜드에서는 1647년 국회에서 아무 수정없이 그대로 채택 수용되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약간의 수정을 거친 후 1648년에 영국 국회에 보고된 후 채택되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시민 전쟁의 와중에서도 영국인의 독자적 힘이 아닌 스코틀랜드의 신학적, 군사적 지원 아래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고백서가 계속해서 지켜질 수 있었던 것도 왕당파 군대를 몰아내고 청교도적 지휘관인 크롬웰의 영향이 매우 컸다.

(4) 크롬웰 장군 때의 청교도

크롬웰은 한 하원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했었다. 그는 소규모의 철기병들로 모든 왕당파 군대들을 물리쳤다. 저들의 규모는 작았으나 저들 모두는 성전에 임한다는 확신들을 갖고 있었다. 크롬웰이 이끄는 철기병들이 계속 승리를 함으로 그는 강력한 군부의 대표로 부상하게 된다.

크롬웰이 이끄는 군부는 주로 독립파들이었다. 그에 반해 의회의 대다수는 장로교주의자들이었다. 의회의 대다수인 장로교 사람들은 장로교 조직에 따른 정부형태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군부에서는 갖가지 다른 이견들을 제시했다. 이렇게 의회를 주축으로 한 청교도들과 군부 사

이에 갈등이 심화되었다.

1646년 의회에서는 군대를 해산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오히려 '레벨러(Levellers)'를 중심한 극단적인 군부 세력들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였다.

군부 세력이 강력해지자 찰스왕은 도주하였다. 그는 도주해서 스코틀랜드인에게 만약 자기가 다시 복권하게 되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에서 장로교를 국교화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 의회에는 의회대로 탄 약속을 하고 군부는 군부에게 따로 약속을 하는 등 비밀 협상을 계속하였다.

이때 군부가 강력하게 나섰다. 군부에서는 스코틀랜드인을 물리치고 찰스왕을 사로 잡았다. 그리고 의회를 숙청하기 시작하였다. 의회 지도자 45명을 체포하고 많은 의원들에게는 회의 참석을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이렇게 하여 나머지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를 반대자들이 조소하여 '잔당의회'(Rump Parliament)라고 하였다.

잔당의회는 하원의원들이 찰스왕을 재판하고 1649년 9월 30일에 반역과 내란 음모죄로 그를 처형시킴으로 왕정의 역사는 잠시 끊기게 된다.

이때 스코틀랜드인은 죽은 왕의 아들 찰스 2세를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잉글랜드 안에서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잔당의회 중 장로교파 사람들은 장로교를 국교로 수립하자고 주장하였다. 독립파에서는 이를 거부하였다.

스코틀랜드는 따로 왕당파가 득세하였다. 게다가 아일랜드에서는 반란이 일어났다. 참으로 어려운 혼란기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크롬웰이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크롬웰은 잔당의회의 이름으로 아일랜드 반란을 평정한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왕당파 폭동을 진압한다.

찰스 2세는 할 수 없이 대륙으로 도주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잔당 의회는 자기들의 권력을 영속시킬 방안을 의논하고 있었다. 크롬웰은 잔당의회 의원들을 쫓아내고 의사당 문을 봉쇄해 버렸다. 이렇게 되니까 크롬웰은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의 영도자가 되었다.

크롬웰은 대의정부 형태(representative government)로 돌아갈 방법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그는 호민관(보호주)(Lord Protector)이라는 명칭으로 국가의 대권을 이끌어 갔다. 이 당시의 정부 형태는 미묘하였다. 원리상으로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등에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가 통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잉글랜드인들로 구성된 소수의 잔당 의원들과 크롬웰 개인이 실권을 가진 정부가 되었다.

크롬웰은 호민관으로 계속 공화국 수립의 꿈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왕좌를 권하였으나 그것을 거절하였다. 그리고 그는 교회와 국가의 개혁에 착수하였다. 그는 종교적으로 장로교, 침례교, 그리고 온건한 감동파들까지도 공존할 수 있는 종교 체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크롬웰 자신은 독립파였으나 편중된 종교 정책을 쓰지 않았다.

또 정치적으로도 청교도다운 법을 제정하였다. 즉 철저한 주일 성수로 주일날은 반드시 종교 행사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행사를 허용치 않았다. 그리고 경마, 투계(닭 싸움) 극장 등 방탕한 오락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모두 금지시켰다.

그리고 그의 경제 정책은 귀족과 빈곤층을 억제하고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펴 나갔다. 크롬웰이 살아 생전에는 나라가 평온했다. 그러나 그가 1658년 9월에 죽고 나서 상황은 달라졌다.

그는 후계자로 그의 아들 리처드 크롬웰(Richard Cromwell)을 지명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지도자의 능력이 없어서 군인들의 협박을 받고 1개월 후 자리를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니까 다시 왕정으로 복귀하고 만다.

(5) 왕정복고(The Restoration) 때의 청교도

호민관 제도가 실패함에 따라 다시금 왕정으로 복고될 수밖에 없었다. 몽크(Mock) 장군의 영도아래 의회는 찰스 2세를 선왕을 이은 왕으로 맞아 들였다. 찰스 2세가 왕이 되면서 청교도들의 반발이 발생하였다. 찰스가 국교(성공회) 안에서의 장로교를 용인하려고 했으나 새 의회는 이러한 계획을 반대하였다. 새로 구성된 의회는 전통적 감독제도인 성공회를 선호하였다. 그것은 장로교 사람들의 고집과 독선을 경원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새 정부는 감독제도를 복원시키고 전에 엘리자벳 왕이 만든 공동기도서(Book of Common Prayer)를 다시 채택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국교회에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법들을 반포하였다. 이렇게 되니까 비 국교도인 청교도들은 기존 교회 안에서 발 붙일 곳이 없게 되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왕정 복고가 더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곳에는 이미 철저한 장로교 제도가 성립되어 있었다. 그런데 다시 왕정복고로 인해 감독제도가 채택되자 스코틀랜드의 많은 목사들이 직위가 박탈당해야만 하였다. 이에 따라 반란과 폭동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잉글랜드 군대가 스코틀랜드 장로교측 반란군들을 진압하기 시작하였다.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인들은 처절한 반항을 했으나 끝내 진압을 당하고 만다.

찰스 2세가 죽고 그의 동생인 제임스 2세(James II)가 왕이 된다. 제임스 2세는 카톨릭으로 종교를 바꾸려고 하였다. 그는 카톨릭 신자들을 고위직에 임명하고 비공식 종교에 참여하는 자들을 사형에 처하는 칙령을 반포하였다. 제임스의 통치 3년만에 영국인들은 반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오렌지 공 윌리엄과 그의 아내(제임스의 딸) 메리를 왕으로 모셔 들었다.

윌리엄 공 내외는 1688년 잉글랜드에 도착하였다. 제임스는 프랑스로 도주하고 말았다. 이들 윌리엄공과 메리 여왕의 종교 정책은 너그러운 편이었다. 잉글랜드에서는 누구든지 1520년에 만든 39개 신조문(Thirty-nine Articles)에 서명을 하고 왕실에 충성을 맹세하기만 하면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비록 서명을 하지 않아서 '비서명자'라는 인물들까지도 왕실을 해하고자 하는 음모만 꾸미지 않는다면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그리하여 잉글랜드 안에서는 성공회가 국교라는 것으로 공식 종교가 되었고, 그외 일반은 청교도적 이상이 계속 살아 남아 계승 발전 되게 되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가 국가의 공식 종교가 되었으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교리적 기준으로 채택하였다.

(6) 청교도 문학자 및 신학자

1) 존 밀톤(John Milton:1608-1674)

열심있는 청교도 가정에서 신앙의 진수를 배우며 성장하였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가 청교도적 시(時)를 많이 지은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 이태리로 유람을 다녀오기도 했다.

1649년 내각의 라틴어 서기관이 되었는데 1652년에 소경이 되었다.

그래서 조수의 도움으로 서기관 직책을 수행하였다. 그후 크롬웰의 비서관이 되었다가 1659년에 은퇴하였다.

1660년 영국이 다시 왕정으로 복고하자 밀톤은 역경을 겪게 된다. 이 시기에 유명한 「실락원」과 「복락원」의 대작을 완성한다. 실락원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가 하는 방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 존 번연(John Bunyan:1628-1688)

존 번연은 영국 베포드(Bedford) 부근의 엘스토우(Elstow) 촌락에서 출생하였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부모 밑에서 대장간의 일을 돌보며 자랐다. 번연은 17세에 국회군에 종군으로 입대하였다. 이때만 해도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다.

1647년 19살에 독실한 신앙인이며 현명한 처녀와 결혼을 한다. 아내의 감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 1655년에 베포드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해 네 자녀를 남긴 채 아내가 죽고 말았다. 번연은 슬픔을 딛고 침례교회에서 집사 안수를 받았다. 그후부터 그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 때에 수 많은 회중들이 번연의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았다. 번연은 1659년에 엘리자베스와 재혼을 하였다.

1660년 왕정이 복고되면서 영국내 국교회가 아닌 모든 교회에서는 설교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였다. 그런데도 번연은 샴셀(Lower Samsel)의 농장에서 설교를 하다가 체포되었다. 그후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였다. 번연은 12년 동안의 감옥 생활 중에 저 유명한 「천로역정」(Pilgrim's Progress)을 저술한다.

천로역정은 성경 다음가는 불후의 명작으로 인기를 끌게 되었다. 번연은 옥중에서 48권의 또 다른 저서를 남겼다. 그 중에 「거룩한 성」

(The Holy City), 「기도」(Prayer) 등이 유명하다.

번역은 설교와 저술로 그리스도인된 사람들의 성화(Sanctification)의 과정을 가르치려고 노력하였다. 그래서 인간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해야 하는 여러가지 생활을 많이 가르치려고 하였다.

그 외에도 청교도 신학과 운동에 기여한 공로자들이 많이 있다.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1558-1602)는 「금사슬 이론」(Golden Chain)으로 칼빈주의적 예정 사상을 더 발전시켰다.

또 리처드 박스터(Richard Baxter:1615-1691)는 많은 저작과 설교로 청교도를 발전시켰다. 존 오웬(John Owen:1616-1683)은 위대한 설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감화를 주었다.

그리고 대각성 운동(The Great Awakening)의 선구자 노릇을 한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s:1703-1758)는 청교도 운동의 일급 지도자로 활약하였다. 그의 대표적 설교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죄인들' 이란 설교였다. 에드워드는 무너져가는 유럽의 도덕을 다시금 일으켜 세운 공로자였다.

그 외에도 스피릿이나 기타 많은 영적 거장들은 청교도들이 즐기치게 주장한 청결한 생활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해서 청교도 신학은 비단 영국에서만이 아닌 스코틀랜드 그리고 유럽과 미국에까지 국경없이 고르게 영향이 퍼져 나갔다.

여기서 우리는 청교도가 보다 많은 나라들로 확장되게 된 그 신학의 발전 모습을 살펴 보도록 하자.

2. 청교도 신학의 발전 모습

(1) 청교도 신학의 기원

청교도 신학은 칼빈주의의 또 다른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주의가 좀더 학문적으로 다듬어진 것이 '계약 신학' (Covenant Theology) 이라고 한다. 이 계약신학은 스위스 취리히에서, 독일의 개혁자에게서 비롯되어 영국으로 건너온다.

계약신학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로 건너가서 그곳 상황과 적응되면서 청교도신학이라는 것으로 명명된다. 그러니까 굳이 분류하자면 분류가 가능하지만 청교도신학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청교도신학을 완성한 스코틀랜드나 잉글랜드 사람들의 신학의 핵심은 칼빈주의적 계약신학이다.

여기서는 청교도 신학을 중점적으로 알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유럽 대륙의 칼빈주의자들은 계약신학을 갖고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에 보급하였다. 그런데 대륙의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Sovereignty of God)사상에 압도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이 칼빈주의가 영국이나 스코틀랜드로 건너 가서는 강조하는 면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었다. 즉 저들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예정설을 따르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생활에 대한 청순성을 두드러지게 강조하였다. 그러니까 대륙의 계약신학이 영국에 와서는 강조의 방향에 있어 약간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2) 청교도들이 주장한 핵심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의 섭리자이시고 세계의 설계자이시다. 세계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고로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

2)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었다.

- 3) 주일 성수(Observance of Holy Sabbath)를 강조했다.
- 4) 순수한 예배(Simple Worship)를 강조했다. 형식적 의식의 배제, 기도서 사용금지, 제복 사용금지, 제단에서의 성찬 사용금지 등을 강조했다.
- 5) 성직자의 고등 교육 이수(Higher Education for Clergy)를 주장했다.
- 6) 성실한 생활(Devotion Purity of Life)을 강조했다.
- 7) 신학은 계약신학(Covenant Theology)을 표방했다.
- 8) 성찬식을 1개월에 1회 실시했다.
- 9) 강력한 경건 훈련의 실시 등을 강조하였다.

(3) 청교도 신학이 여러 면에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또 몇 가지 점에 있어서는 큰 문제점을 남겼다. 청교도들이 남긴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날(시간)에 대한 지나친 죄의식을 강조하였다. 성수주일이라 해서 주일날 다음과 같은 것을 죄악시하였다. 여행, 레크리에이션, 요리, 매매, 운동 등을 죄악시하였다. 저들은 처음에 토요일 오후에 해진 다음부터 일요일 밤까지 위의 여러 가지 사항 중 위반을 하면 벌금과 태형을 가하였다. 이것이 한국에도 성수주일이라는 개념으로 전달되었다. 그러나 성수주일의 참 뜻은 이런 것이 아닐 것이다.

2) 음주, 흡연, 맹세하는 것(선서), 음탕, 수다, 게으름(무위) 모두를 다 죄로 간주하였다.

3) 크리스마스 날은 이교날이라고 해서 거부하였다.

4) 절대로 짧은 치마(No Short Sleeves)는 금물이었고, 화장도 금지

하여 죄악시하였다.

5) 마술 사용을 금했다. 청교도가 마술을 사용했다고 하면 믿는 이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17세기 유럽 전역과 초창기의 미국 청교도들은 마술을 사용하였다. 1692년 3월에 사무엘이란 목사가 매세츄세츠를 중심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마술로 쇼를 보여주며 전도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이 '살렘(Salem)의 마녀들'이라는 재판으로 확인되었다. 이 재판에서 20명(여자 14명, 남자 6명)이 교수형에 처해졌으며 다른 몇 사람들은 감옥에서 죽었다. 청교도들 중 존경받는 성직자들, 부유한 상인들, 총독의 아내까지도 마술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매세츄세츠와 보스턴은 상당기간 소란하였다.

3. 계약신학(Covenant Theology)

청교도 신학과 계약신학은 서로 연결된 신학이다. 계약신학에서 청교도 신학이 나왔고 또 청교도 신학은 계약신학을 더 풍성하게 결실하도록 하였다.

(1) 계약신학과 계약사상

1) 계약사상은 무엇인가?

계약사상은 하나님과 사람들 간에 계약을 맺는 사실들을 계약사상이라고 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계약을 맺으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 노아(창 9:12-13), 아브라함(창 12:1-3, 17:4-8), 다윗(삼하 5:3) 등 구약에는 새 계약에 대한 예언도 있다(렘 31:31-33).

그외에도 언약에 관한 언급이 많이 있다(사 42:6, 49:8, 렘 32:40,

50:5, 겔 16:60, 20:37, 호 2:18-20).

계약사상은 신약에도 언급된다. 예수님 자신이 새 계약을 말씀하셨다(마 26:28, 막 14:24, 눅 22:20). 사도들도 이 언약이 구약 때의 실현으로 설명한다(갈 3:17, 엡 2:12, 고전 11:25).

이렇게 계약 또는 언약이란 말에 근거하여 과거의 옛 계약을 구약이라 하고 새 계약을 신약이라고 하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

2) 계약신학이란 무엇인가?

계약신학이 계약 사상에서 비롯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계약신학은 이 신학을 기독교 전 신학의 중심적인 요소라고 보고 모든 신학적 설명을 이 신학체제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신학은 한 신학형태의 원리를 뜻한다.

(2) 계약신학의 기원

계약신학이란 칼빈주의자들의 신학 내용이다. 계약신학이란 용어를 사용한 이는 독일의 개혁 신학자 콕시우스(Cocceius John Koch: 1603-1669)로 전해지고 있다.

그와 같은 주장이 버만(Burman) 윗시우스(Witsius)등에 의해 발전된다. 그리고 영국의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에 의해 청교도들에게 보급된다.

영국 청교도의 계약신학은 미국으로 가서 프린스톤 신학에서 더욱 발전되고, 또 달리 화란의 자유대학에서도 발전된다. 프린스톤 신학교에는 하지(A.A.Hodge)와 벌코프(Burkhof)가 크게 공을 세운다.

네덜란드에서는 카이퍼(Kuyper)와 보스(Vos)가 크게 기여한다.

(3) 계약신학의 내용

계약신학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이다.

1) 하나님은 에덴동산에서 아담에게 행위의 언약(The Covenant of Work)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상징으로 동산에 두 그루의 나무(생명과와 선악과)를 만드셨다.

2)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을 자들에게 은혜의 언약(The Covenant of Grace)을 주셨다. 이 두 가지가 계약신학의 핵심이다. 혹 어떤 학자는 창조이전의 성 삼위간에 있었던 속죄의 언약(The Covenant of Redemption)을 주장하기도 한다.

행위의 언약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 적용된다. 은혜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상 종말까지와 하늘에서 영원히 거할 성도들에게 적용된다.

(4) 계약신학 그 이후의 실제적 역사

행위의 언약이란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인간의 대표자로 삼아 계약을 맺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때 상을 받게 되고, 불순종할 때 벌을 주기로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자각으로 근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행위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의 행위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다. 아담 이래 모든 인간은 계약의 위반자이다. 계약 위반자인 죄인으로서의 인간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

계약신학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으므로 인간이 희망을 갖는 것이지 구원받는 확신이란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계약신

학 자체로는 구원의 확신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다. 다만 구원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계약신학에서 훈련받은 모든 사람들은 항상 경건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청교도 신앙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는 생활에 철저한 면은 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라는 부분은 타 교파가 전수해준 진리이지 개혁신학 자체의 것은 아니다. 그 사실은 역사가 증명해 준다.

초기의 청교도들의 신앙생활 모습을 지금 그 누가 흉내낼 수 있으랴. 정말 저들의 생활은 엄격하였고 순수하였고 완전하였다.

그런데 1662년 '불완전한 계약' 또는 '타락한 계약(Degeneration of the Covenant)'이라는 말이 생겨진다. 이것을 퇴보한 '절반짜리 계약(Half-Way Covenant)'이라고도 한다.

'절반짜리 계약'이란 말이 무엇일까?

청교도들은 매세츄세츠와 코네티컷드(Connecticut)지역에서 커다란 현실 문제에 부딪혔다. 유럽 대륙을 떠나 신앙의 자유를 위해 신 대륙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가장 큰 이상은 진정한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 일이었다. 신 대륙의 새 국민은 진정한 기독교 성도가 시민으로서 구성이 되어야 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기독교 성도의 기준을 어디다 뒀야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여기에 대해 침례교에서는 개인적으로 중생의 체험을 겪는 회개 때까지 성숙한 후에 침례를 받는 사람들을 성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반해 개혁주의 신학에 동조하는 사람은 어린 유아들에게 유아세례를 받게 해 오고 있다. 아이들은 유아세례를 받고 아직 개인적 중생의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유아 세례의 가치는 있는 것으로 믿어야 한다

고 했다.

이들 계약신학에서는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던 것처럼 유아 세례자에게도 유아세례의 의미가 적용된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유아들에게도 옛 이스라엘 유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듯이 언약의 자녀들 (Children of the Covenant)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계약신학에서는 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중생한 사람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가 않았다. 여기서는 그가 유아세례든 성인세례든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아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중생의 체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절반은 계약의 백성이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절반짜리 계약' (Half-Way Covenant)자들도 다같은 언약의 구성원이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절반 곧 1/2 계약자는 다음에 1/4이나 1/8이나 1/16로 계속 계약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길을 더 놓고 말았다.

(5) 계약신학의 약점

1) 계약신학의 핵심적 주장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자기 과거를 되돌아볼 때 너무 감격스러운 신앙고백으로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란 말을 사용할 때는 무척 은혜로운 말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 하여 함부로 사용하면 하나님에게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

님과 인간이 맺은 계약을 하나님의 절대주권대로만 집행해 나간다면 하나님께 모든 핵심이 있고 인간이 해야 되는 개인적인 책임문제는 설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인간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해야 되는 책임문제를 게을리 하게 할 소지가 많았다.

2) 계약신학에는 이스라엘 교회와의 구분이 없다.

무천년설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동일시한다. 유태인들은 메시아를 거절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특권을 잃어 버렸고, 참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서 계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한 성경적 근거를 여러가지 제시한다(벧전 2:9-10, 엡 2:19, 갈 6:16, 빌 3:3, 갈 3:6-9등).

그러나 이스라엘과 교회와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① 인종적 배경이 다르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및 그의 12아들을 조상으로 한다. 그러나 교회는 인종적, 혈통적으로 저들과 아무 관련이 없다.

② 출생이 다르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으로 출생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교회는 육적 출생이 아닌 영적 출생 즉 중생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될 수 없다.

③ 성령의 역사가 다르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특수한 사람들 위에 임했었다. 그러나 그 성령은 영속적으로 내재의 보장이 없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중생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임하고 한 번 임한 성령은 내재와 함께(롬 8:9) 보증이 된다(엡 1:14).

④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다르다.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그 머리이다(골 1:18).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밀접한 관계

에 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러한 관계가 없다.

그외에도 교회와 이스라엘과의 차이점은 너무 많고 분명하다. 이렇게 둘 사이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함으로 그에 뒤따른 신학적 차이도 여러가지로 뒤따른다. 즉 할례와 유아 세례를 같은 맥락으로 본다든가, 세례가 구약의 할례처럼 구원의 방편이 되는 것처럼 믿는다든가, 목사를 구약의 제사장과 비슷하게 여긴다든가, 종말론에 대해서 무천년 설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든가 하는 여러가지 신학적 문제점들을 갖게 된다.

3) 교회 회원이 되는 데 이중 요구를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성경에는 분명하게 유아세례가 없다. 그런데 본인의 자아에 의한 신앙적 결단이 아닌 부모의 의지로 유아세례를 실시한다. 그리고 장성해서 다시금 자기의 신앙을 결단해야 하는 이중 요구를 함으로 성례의 의미가 모호해졌다.

4) 인간의 의지 작용을 지나치게 신뢰하였다.

성령의 사역을 의뢰하지 않고 유아세례, 학습, 세례를 통해 신자가 저절로 되는 것으로 인간의 의지를 과신하였다.

5) 표면적으로 이중성을 띤 삶을 가르치고 있다.

구원받은 증거가 마치 교회서 많은 시간 보내는 것인 양 가르쳤다. 아침, 오후, 저녁 언제나 교회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은 신자의 기준인 것처럼 가르쳤다. 그리고 그런 이가 사회 생활에서 세속인으로 사는 것에 대한 방법은 가르치지 않았다. 그래서 교회서는 신자, 사회서는 세속인으로 2중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당연시 해 놓았다.

6) 국가와 교회간의 분리라는 기본 원칙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초기 청교도들의 '메이플라워 계약서' (Mayflower Compact: 1620)

내용을 보면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메이플라워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하라. 우리의 영도자요, 군주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의 왕이신 신앙의 옹호자 제임스 폐하의 충성된 국민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국의 명예를 위하여 버지니아의 북부 지방에서 최초의 식민지를 창설하고자 항해를 시작하였다.

여기 본 증서에 의하면 엄숙하게 상호 계약에 의한 정치단체를 만들어 이것으로써 공도의 질서와 안전을 촉진하고 그 위에 상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모두 여기에 대하여 당연한 복종을 바칠 것을 계약한다. 1620. 11 . 11

카아버, 브레드, 포드, 윈스로우, 브루우스터를 위시하여 41명 서명하다.”

7) 계약 철학의 주된 주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지 전능성과 무소부재성 등 너무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만 강조하였다. 그 결과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직된 대상으로 보는 편협한 인식을 심어주었다.

여기에 회의를 느끼고 반항하는 자는 신을 부정하는 자유주의로 돌아서든가 아니면 인간의 의지를 과신하는 알미니안주의로 변할 수 있게 되었다. 계약철학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똑같이 사랑의 하나님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개혁주의자들의 교회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에 관한 인식보다는 공포의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가? 정직하게 반성해야 될 문제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

제이다.

8) 계약신학에는 종말론에 대한 언급이 미약하다.

칼빈 자신의 저서에도 종말론이 없고 그 후의 도르트 총회나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도 종말론의 언급이 없다.

9) 미국 건국 초기에 청교도 신학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한국의 초기 선교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 1890-1900년까지 선교사가 약 40명이 왔다. 그 중 16명이 청교도 신학의 본산지인 프린스턴 출신이었고 또 11명이 같은 장로교인 맥코믹(Macormic) 출신이었다. 이들 모두가 청교도 신앙자들이었으니 한국 초기 신앙의 색채를 알 수 있다.

이제 청교도 운동에 관한 고찰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청교도 운동은 한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청교도 운동이 닿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변화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청교도 운동은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교파에 국한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왜 청교도 운동은 한 세대의 유행처럼 크게 불어 닦혔다가 사라지고 말았는가?

오늘날도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층에서 하는 말이 '옛날이 오늘날보다 더 신앙심이 깊었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옛날의 청교도 신앙자들은 하루의 일과를 열정적인 성경 공부와 성도들 간의 뜨거운 교제로 보내는 것을 매우 즐거워하였다.

그런데 오늘날의 신자들은 왜 성도의 교제 시간을 회피하려고 하는가? 옛날의 청교도 신앙자들은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신중하게 추구하였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신자들은 너무 이기적이 되고 말았다. 옛날의 청교도 신앙을 가진 이들은 엄한 청

교도적 종교 훈련에 열정적으로 헌신하였다.

그런데 오늘날의 신자들은 세속적인 타협주의가 아니면 비합리적인 신비주의 현상을 즐기고 있다. 이 모든 원인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세상이 달라졌고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인가? 우리가 전해야 되는 내용과 실체가 잘못된 때문인가?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우리들이 나아갈 바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제 15 장 신비주의 운동



종교가 건전할 때 그 사회는 건강하게 된다. 그렇지만 종교가 제 구실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사회는 혼탁해진다.

유럽 전역에는 다같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아래 모든 교회들이 극단적인 분열을 더해가고 있었다. 여기에 대한 반동 작용으로 여러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반동들의 양상은 너무도 다양하다. 그 모든 이름들을 다 열거하고 소개하기란 너무 벅찬 과업이다.

여기서는 그 많은 운동들 중에서 후대인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 중에는 신비주의, 이성주의, 경건주의, 복음주의 등의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운동들을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퀘이커(Quakers)교도들을 만들게 한 조지 폭스(George Fox : 1624-1691)를 신비주의 운동이 낳은 열매로 보려고 한다. 그렇지만 신비주의 운동은 비단 17세기에만 나타난 한 현상이 아니다. 신비주의는 좀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신비주의에 대한 발전사를 개략적으로 조망해 보고자 한다.

1. 신비주의(Mysticism)란 무엇인가?

신비주의란 말은 그 말이 담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매우 불명료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 이 단어는 그 성격상 두 개의 서로 다른 의미

를 갖는 것으로 독일 신학자들이 규명하였다.

(1) Mystizismus

초자연적 숭배나, 신학적 추구나, 또는 심령 연구의 강신술적 적용을 포함하는 모든 것을 신비주의라고 표현한다.

(2) Mystik

신과 인간 사이의 접촉이나 관계를 직접 경험하는 모든 것을 신비라고 표현한다. 이같은 규명에 따라 신학에서 신비주의라고 할 때에는

1)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경험하는 것.

2) 절대적인 실체(Absolute Reality)와 영혼과의 연합에 대한 모든 이론을 포괄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주의라고 할 때는 과거의 수많은 인류역사 속에서 각양 다른 인간들의 신비스러운 경험들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접촉의 경험을 하는 것들이 모두 포함되고 있다. 그러므로 신비주의라는 말을 하나의 개념, 하나의 타입, 하나의 현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신비주의란 인간 종교의 근원 만큼이나 멀고도 힘든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비주의가 나타내는 외양적 양상도 여러가지로 다양하다. 무의식 상태에서 듣게 되는 음성이나 환상이라든가, 두드러진 육체상의 변화라든가, 또 졸도나 황홀경과 같은 비정상적인 현상들을 동반하여 신비가 나타난다.

그렇다면 현대의 신비주의는 어떤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인가? 이것을 과거 역사 속에 존재했던 신비주의 현상들을 살펴봄으로 정립해 보고자 한다.

2. 성경에서의 신비주의

(1) 구약에서의 신비주의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종교의 최고의 진수였으므로 신비주의적 요소에 접근하는 것을 강력하게 부정하여 왔다. 유대교를 철저히 지키고 있는 것은 율법에 근거한 형식주의였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주의를 용납한다든가 신비주의와 융화된다는 그런 시도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도 구약에 신비주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구약의 신비주의는 주로 선지자들의 환상에 의한 경험들을 그 주축으로 삼고 있다. 이 사야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사 6:1)고 하였다.

에스겔의 환상들도 신비주의에 대한 성격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환상은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함께 종말론 신학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시편에서도 많은 신비적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시 104:3-4, 시 139:1-13 등).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구약에서의 신비는 확실한 것들이다. 그 신비가 오늘날에도 똑같아야 되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구약에 신비가 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여기서 중간사 시대의 유대교를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과거의 학문 연구에서 중간사 400년간을 그냥 무시하고 뛰어 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구약의 말라기에서 계시가 중단되었고 그 후 400년간은 계시가 단절된 암흑의 시대였다고 알고 있다.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 시대에 와서야 다시금 계시가 재생된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계시가 단절되고 400년의 중간사가 지난 다음에야 계

시가 다시 재생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400년 동안 유대교는 어떻게 지내왔는가? 유대교가 400년 동안 어떤 변화 속에서 지내다가 다시금 새로운 복음서 시대로 접어 들었는가?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는 중간사를 구약시대라고 보지 않는다. 그렇지만 유대교가 중간사 시대에 어떻게 발전하였는가? 중간사 시대에 활약한 사람들은 무엇을 남겼는가? 그것이 신약의 저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것 등은 반드시 규명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본다.

그렇지만 그것을 규명하는 것이 이 장에서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두고 싶다. 여기서는 종전같은 관행대로 구약 다음에 신약으로 뛰어 넘어가려고 한다.

그렇지만 팔레스타인의 랍비들이 탈무드를 연구해 낸 미드라쉬 학파와 유대-헬레니즘 학파들은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이 구약을 계승하여 유대교를 발전시킨 실체들이다. 이들은 구약의 '지혜' 사상을 정교하게 발전시켰다. 그래서 구약의 지혜사상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말씀의 개념과 어떤 영향 관계가 있는가?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 연구가 앞으로 큰 관심거리가 될 것이다. 아울러 정경 연구를 하는 것에도 이 시대를 제대로 연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믿는다.

(2) 신약에서의 신비주의

신약 성서에서의 신비주의는 바울에게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복음서에 신비주의적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가지 각색의 신비적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바울의 신비적 표현은 수많은 구절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서전체의 구절들에 나타나 있다. 갈 1:15,16, 2:20, 4:6, 고후 3:18, 4:6, 12:1-4, 롬 8:2,16, 엡 3:14-21 등에는 자신이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신비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의한 신비적 표현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또 바울의 신비적 표현도 암시적으로 언급되고 있다(고전 2:8-16, 6:17 등). 신약에서 나타나는 신비적 현상들은 환상, 꿈, 비몽사몽, 천사와 악마, 계시, 성령의 은사들이 설명되고 있다.

그리고 신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비적 현상이라기 보다는 신비스러운 어휘들로 설명되고 있는 곳이 계시록이다. 계시록 자체는 신비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신비한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한 표현일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의 저자 요한이, 위에는 진정하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또한 어두움과 그들과 악의 현실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강도 있게 주장하고 있다.

3. 역사 속에 나타난 신비주의

기독교 2천년 역사 속에서 신비주의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여기서는 종교개혁 이전을 로마 카톨릭의 시대라고 가정하고 보려고 한다. 물론 이 가정이 전혀 잘못된 것임을 잘 안다.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카톨릭만 아니라 동방의 회랍 정교회도 있었고, 시리아 교회, 애굽 교회, 그리고 소수의 순수한 신약교회 후예들이 있었다. 그런데 저들에 대한 기록이 거의 전멸 상태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편의상 확실한 기록이 있는 로마 카톨릭의 근거를 토대로 역사 속의 신비주의라고 설명하고자 한다.

(1) 로마 카톨릭의 신비주의

신비주의라는 말은 근래에 들어와서 생긴 말이다. 보다 오래된 카톨릭에서는 '신비적 신학'이라고 하였다. 이 말은 피조물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자연신학이라고 한다면 계시에 의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교의 신학이라고 하였다.

이 두 가지와 또 달리 하나님께 대한 신비적 지식과 관련된 현상들은 신비적 신학이라고 지칭하였다. 교부들 중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d.215)나 오리겐(d.251)에게서 신비적 신학을 다룬 저술들이 있다.

그러나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라틴 신학자 성 암브로스에게서이다. 그러나 가장 막대한 영향을 끼친 중세 시대의 신비주의자는 글레르보의 성 베르나드투스(St. Bernard of Clairvauxid. 1153)이다. 그의 신비스러운 경험들에 대한 기록들은 루터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13세기의 탁발수도단의 발생과 함께 프란체스코 수도사인 성 보나벤투라(St. Bonaventura:d.1274)는 그리스도의 수난에 대한 그의 열렬한 명상과 금욕주의적 저술들을 남겼다. 보나벤투라는 신비적 신학자들의 왕자라는 칭호를 받았다.

여자 신비가들도 있다. 씨에나의 캐더린(Catherine of Siena:1347-1380) 짠 다아크(Jeanne dArc:1412-1431)가 있었다. 카톨릭의 가장 뛰어난 신비가 칼멜수녀원을 창시한 스페인의 테레사(Teresa of Avila:1515-1582) 수녀이다. 테레사는 32개의 수도원을 창시하였다. 테레사는 '맨발의 칼멜 종단'(The Discalced Carmelites)을 창시하였다. 테레사의 동지였던 십자가의 요한(John of the cross:1542-1605) 역시 칼멜 종단을 이끌면서 하나님과의 농도 깊은 대화들을 시와 산문으로 남겨 놓았다.

로마 카톨릭은 종교 개혁 후 제주의 신학자들을 통해 신비주의적 저술이 나왔었다. 그러나 19세기 부터는 신비주의의 공백기가 계속되었다. 최근의 카톨릭은 신비를 위해 정신 물리적 결과들을 열망해서는 안되고 신비적 기도를 열망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도로 달라져 가고 있다.



테레사는 중앙 스페인의 아비라 성에서 태어났다. 십자가의 요한은 1572-77년에 아빌라에 있는 성육신 수도원의 고해신부였다.

(2) 프로테스탄트의 신비주의

초기의 프로테스탄트 신비주의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비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아 출발되었다. 네덜란드의 신비가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Imitation of Christ)는 많은 프로테스탄트 신비주의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루터 역시도 타울러(John Tauler:d.1361)의 설교들을 열심히 경모 하였던 사람이었다. 타울러는 도미니크 종단 사람으로 열렬한 전도자였다. 그는 당시 고난 받는 서민들이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설교집을 많이 남겼다. 또 초기 신비가들은 재침례파에 많이 있었다. 토마스 뮌쩌나 한스 텅크 그리고 발타자르 후브마이어 등은 전형적인 신비주의의 대표자들이었다.

그런데 17세기, 18세기의 신비주의 운동은 그 출생 원인들이 전의 로마 카톨릭 교회 영향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시작된다. 즉 17-18세

기의 신비주의 운동은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지 않고 프로테스탄트 자체 내의 영향을 받는다.

프로테스탄트 신비가들은 어떤 것에 자극을 받는가? 그것은 30년 전쟁과 같은 종교 전쟁을 통해 종교가 무엇인가라는 회의에서 신비주의가 발생한다. 또 같은 개신교 안에서도 편협한 교리주의 때문에 서로 충돌하고 서로 정죄하는 교권주의에 식상해 있던 지식인들이 신비주의로 빠진다. 또 전혀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없었던 무식한 무교육층의 사람들도 신비주의 운동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이제 여기서는 신비주의 운동 중 뚜렷한 성격을 드러낸 세 사람의 지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야콥 뵘메(Jakob Boehme: 1575-1624)

뵘메는 독일 실레시아(Silesia)지방의 괴를리츠로부터 몇 km 떨어진 곳에서 출생하였다. 농민의 아들인 뵘메는 루터파 가정에서 자라났다. 커서 그의 직업은 구두 수선공이었다. 그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의 저작들이 정통 기독교라고 하기 어려운데도 그의 사상은 독일, 네덜란드, 영국, 러시아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뵘메는 14살 때부터 제화공 견습으로 들어가서 평생동안 구두수선이 그의 직업이 되었다. 그런데 그는 제화공 생활을 하면서 환상을 보기 시작하였다. 그 일로 인해 주인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뵘메는 이곳 저곳을 여행하면서 구두를 수선하며 살아가는 방랑자가 되었다.

뵘메는 방랑 생활 속에서도 열심히 교회를 찾아 다녔다. 그런데 당시의 교회들은 지루하고 무미건조한 신학 논쟁들을 계속하였다. 그래서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은 아무 쓸모없는 '바벨탑'을 세우고 있다는 결론

에 도달하였다.

그는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영적 감화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자기의 내면적 경건을 위해 서적을 다치는 대로 읽기 시작하였다. 그는 많은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과 세상을 체험한 경험들과 자기의 신비스러운 경험들을 통해 일련의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는 이러한 확신들과 경험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제화공으로서 단순한 생활에 만족하였다.

그는 25세 때 방랑 생활을 청산하고 고엘리츠(Goelitz)시에 가게를 열고 그런대로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그는 설교할 욕심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는 환상들을 반드시 글로 남기도록 명령하신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펴낸 책이 「찬란한 여명」(Brilliant Dawn)이다.

뵈메가 이 책에서 표현한 것을 보면 그는 여러 사람의 영향과 사상을 그대로 받은 것이 드러났다. 뵈메가 크게 영향 받은 사람은 슈벵크벨트와 바이겔이었다.

카스파르 슈벵크벨트(Caspar Schwenkfeld: 1487-1541)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서 루터에 의해 깨닫고 루터의 후원자가 되었다. 그러나 루터의 성만찬 논리로 견해를 달리하고 신비주의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슈벵크벨트는 기독교 신앙을 정확한 교리로 규정해서 경직시키는 것을 싫어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의 내적 체험을 중요시 하였다. 그래서 형식적인 제도들과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성례전들을 거부하였다.

그는 실레시아 지방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고백자들」(The Confessors of the Glory of Christ)이라는 단체를 조직하였다. 뵈메가 바로 이 슈벵크벨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뵈메는 또 발렌타인 바이겔(Valentine Weigel: 1533-1588)의 영향도

받았다. 바이겔로부터 연금술, 점성술 및 신지학의 난해한 어휘들을 그대로 이어 받아 사용하였다. 뵈메는 「찬란한 여명」을 발간한 후 지역 목사에게 고발되어 유배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종교의 문제에 관해 글을 쓰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5년여 동안 무사히 지내게 되었다.

그러나 1618년 새로이 받은 환상들을 일부 추종자들의 강권에 의해 다시 쓰게 되었다. 「하나의 빛나는 광채」를 비롯한 세 권의 책이 뵈메의 허락없이 추종자들에 의해 다시 출판되었다. 이로 인해 이단으로 다시 고발되어 고엘리즈를 떠나게 되었다.

뵈메는 삭소니의 선거후 궁정을 찾아갔다. 그 곳에서 몇몇 신학자들에게 그의 가르침들을 검토받았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에 관해 뚜렷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신학자들은 뵈메가 무엇을 의도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이 들었기 때문이다. 뵈메가 좀더 정확한 사상을 발표하도록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50세에 사망함으로 더 많은 것을 남기지 못하였다.

뵈메의 사상을 잘 파악할 수 없었던 그 이유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용어로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마술, 점성술, 신지학, 연금술 등에서 비롯된 여러 관념들을 이상하게 혼합하여 설명해 놓았다.

그런데도 그의 작품들은 1647년부터 1661년 사이에 영국의 스페로우(John Sparrow)와 엘리스톤(John Elistone)에 의해 영어로 번역되었다. 그래서 영국인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아이작 뉴턴(Isac Newton)과 존 웨슬레(John Wesley)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웨슬레는 뵈메의 찬송시를 영어로 번역 사용하였다. 그 중에 유명한 것이 '예수 나에 대한 한없는 사랑' (Jesus. Thy boundless love to me) '바람에게 너의 두려움을 전하고 믿고 망하지 말라' (Give to the

windl thy fears trust and be not dismayed)가 널리 알려졌다.

그러면 뵈메의 주요 사상은 무엇인가?

그는 구원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삶과 연합되는 것이고, 고립된 자아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고, 새로운 출생에 의하여 그분의 영과 능력 안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의 독특한 주장은 구원은 정통 견해들이나 잘 짜여진 신조들을 그대로 믿는다는가 또는 외적인 성례전의 참여나 외적 조직으로서의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된 생명과 마음의 내적 연합으로 한 인간의 삶 가운데 인격적 하나님의 생명체로 사는 것을 뜻하였다. 뵈메는 생전에 많은 추종자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의 사후에 그가 남긴 서적들을 통해 많은 숭배자들을 얻게 되었다.

2) 조지 폭스(George Fox :1624-1691)=퀘이커 창시자

조지 폭스는 뵈메가 죽던 해 영국 촌락에서 태어났다. 폭스도 평민 출신의 제화공으로 사회 생활을 출발하였다. 그는 제화공들의 방탕한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19세 때 방랑 생활을 시작한다. 그는 보다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각종 종교집회에 참석하였다.

조지 폭스는 영국의 모든 교회들을 다 섭렵하였다. 로마 카톨릭교회,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 장로교회와 독립교회들을 다 순방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은 모든 교회들은 위선자들의 집합소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목자라는 사람들도 단순히 봉급을 받기 위해 일하는 샅군들(Journeymen)일 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찬송, 예배순서, 설교, 성례, 신앙고백과

목회자들은 모두가 성령의 자유를 훼손하는 인간들의 발명품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며 성경을 거의 암송했다고 한다. 폭스는 성경과 현실 교회들과의 갈등 속에 번민하다가 드디어 모든 것들을 대항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폭스는 '내면의 빛' (inner light)을 주장하였다. 인간 내면의 빛은 모든 인간들 가운데 존재하는 씨앗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진정한 길이였다. 그는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에게 계시되어지는 내면의 빛에 크게 고무되었다.

폭스가 경험한 각 교회들과 각 교파들의 인상은 각기 달랐다. 그러나 그 중에 카톨릭과 성공회는 더 위선적이고 삭군으로 느껴졌다.

장로교를 통해서는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인류의 전적 타락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의 경험마저 부인하는 메마른 형식주의를 경험하였다. 폭스는 모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내면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해야 한다고 믿었다. 폭스는 이렇게 깨닫고 난 뒤 그의 주장을 여러 종교 집회에 찾아가서 설교가 끝난 직후에나 또는 예배 후에 군중들에게 기독교에 관한 그의 생각들을 발표하였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멸과 야유를 받고 무수히 얻어맞은 뒤 쫓겨났다. 그렇지만 그 같은 매맞음이 그를 멈추게 하지 못하였다. 그는 위선자들과 삭군들로 가득찬 교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방해하고 자기 메시지를 전하였다.

폭스는 많은 핍박 속에서도 계속된 그의 환상과 메시지를 전했고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기 시작하였다.



초기의 웨이커파 집회 최초의 웨이커파들은 교회를 '뽕죽탕 집'이라고 불렀고, 일반 주택에서 모였다. 그들은 성직자들을 '고용인들'이라고 이름지었고, 어떤 회원에게나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

그래서 그를 추종하는 숫자가 급증하였다. 처음 이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빛의 자녀들' (children of light)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폭스의 추종자들이 종교적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마구 떠는 것을 목격하였던 사람들이 저들을 가리켜 '떠는 자들' (Quakers)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웨이커'라는 명칭은 떠는 자들, 진동하는 자들을 조소하는 이름이었다.

그렇지만 그들 자신은 '친우회' (Society of Friends)라고 불렀다.

폭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예배를 위한 그 어떤 형식도 성령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커들의 예배는 침묵 속에 시작된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면 여자든 남자든 다 똑같이 말할 권리를 갖는다. 폭스는 어떤 때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느끼

면 설교를 하지 않았다.

또 저들은 세례식이나 성찬식 등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포도주나 빵 같은 물질적인 요소 때문에 영적 요소들을 분리시킬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폭스는 공동체와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퀘이커들의 집회에서는 단순히 과반수로 어떤 문제들을 결의하지 않았다. 전 회원들의 완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의결은 지연되었다. 성령께서 해결책을 주실 때까지 회의는 침묵 속에 계속되었다. 그리고 한 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음 회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다.

퀘이커들은 기존 교회들로부터 많은 반대를 받았다. 퀘이커 광신자들이 기존 교회 예배 때 갑자기 뛰어나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함으로 감정을 품게 되었다. 또 국교회에다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십일조 헌금을 반대하였으며 전쟁에 참여하는 것도 반대하였다.

그 외에도 맹세하는 것, 누군가에게 모자를 벗고 경례하는 것 등을 반대하였다. 이로 인해 퀘이커들은 신성모독죄로 또는 국가에 대한 반란 음모죄로 잡혀가기도 하였다. 폭스는 이와 같은 행동으로 여러 곳에서 얻어맞고 모두 6년간을 감옥에서 지내었다.

폭스는 영국의 호수지방에 있는 스워드모어 홀(Swarthmore Hall)에 있는 자택을 퀘이커의 본부로 삼았다. 폭스는 잉글랜드 방방곡곡을 다니며 순회전도를 하였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에 갔을 때는 내란 음모죄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고, 카리브 해 일대와 북 아메리카에서 2년을 보내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그가 죽은 1691년에는 그의 추종자들이 수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폭스는 신앙의 자유를 간청하기 위해 크롬웰에게 찾아간 적도 있었다. 그러나 폭스는 생전에 많은 박해를 받았다. 저들은 방랑, 신성 모독, 폭동유발, 십일조 거부 등으로 투옥되는 일이 빈번하였다.

이 당시 찰스 2세가 국가의 허락 없는 종교 집회를 금지시켰고 이에 따라 수천 명이 투옥되었다. 1689년 종교의 자유가 허락 됐을 때는 이미 수백 명이 감옥에서 사망한 후였다. 퀘이커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많은 사람들이 신 대륙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런데 새로운 뉴 잉글랜드의 보스톤에서 퀘이커들은 청교도들에게 배척을 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총독 엔디코트(Endicott)는 퀘이커들을 추방시키려고까지 하였다. 이에 퀘이커들이 맞서자 1660-61년 사이에 보스톤 공유지에서 사형을 당하기도 하였다.

퀘이커들은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전도를 하였다. 1659년 존 테일러(John Taylor)는 원주민들을 방문하여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래서 인디언들이 퀘이커들을 신뢰하게 되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중 많은 사람들이 퀘이커 교도가 되었으며 이 신앙이 이어져 오늘날에는 알라스카의 에스키모인으로부터 볼리비아의 아이마라인(Aymaras)까지 많은 퀘이커교도 원주민들이 있다.

퀘이커교도들이 미국 건국 초기에 크게 공헌한 것이 있다. 현재의 펜실베이니아 주가 바로 퀘이커 지도자에 의해서 그 이름이 명명된 사실이다. 그 지도자의 이름은 윌리엄 펜(William Penn)이었다. 그의 부친은 해군 제독이어서 펜이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었다. 펜은 학생 때에 청교도가 되었다. 그후 프랑스에 유학을 가서는 휴그노의 영향을 받았다. 1667년 잉글랜드로 돌아가서 퀘이커교도가 되었다.

그의 부친은 광신자처럼 되어 돌아온 아들을 내어 쫓고 7개월 동안 런던 탑에 투옥시켜 버렸다. 그는 감옥에서 국왕 찰스 2세에게 편지를 보내서 누가 옳은지도 분명하게 모르면서 종교적 신념을 꺾으려고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릇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펜은 그의 부친과 친구들의 중재로 감옥에서 풀려났다. 그리고 그는

퀘이커 교리를 변호하는 글을 썼다. 그 당시 친구들은 펜에게 북 아메리카의 뉴 저지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당시 국왕은 신대륙들을 영국의 식민지로 장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대륙에 먼저 살고 있던 원주민들에게 지불해야 되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였다. 이때 펜이 영국 국왕에게 현재의 펜실베이니아 지방을 국왕대신 지불하겠다고 나섰다. 펜은 현재의 펜실베이니아 지방을 완전한 종교의 자유가 실시되는 새로운 성격의 식민지로 만들고자 하였다.

이곳 초대 총독이 된 펜은 원주민인 인디언들과 새로 전입해온 정착민들 사이에 화해 관계를 이루며 조화를 꾀하였다. 이들 사이에는 서로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이렇게 해서 신앙에 의한 실험 도시로 원주민과 정착민들이 모두 다 같은 형제라는 '형제 사랑의 도시'로 '필라델피아' (Philadelphia)가 세워졌다.

이같은 펜의 노력은 초기에 많은 영국인들에게 비현실적 처세로 비취졌다. 그러나 펜실베이니아 주의 정치 무대의 주역이 퀘이커교도들인데다가 실생활에서 이를 실천해 나갔기 때문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그래서 인디언들과 유럽에서 이주해오는 사람들 사이에는 평화스러운 관계가 지속되었다. 그래서 펜의 이름을 따라 그 주를 펜실베이니아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지난 1750년 새로운 총독이 인디언들에게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 때문에 퀘이커교도들은 일체의 공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펜이 펜실베이니아를 통해 보여준 종교의 자유에 의한 통치의 모범은 마침내 전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헌법 속에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 퀘이커 교도 중에 존 울맨(John Woolman)이 있다. 이 사람은 뉴

저지에서 겸손한 재봉사였다. 그는 노예제도의 부당성을 확신하고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며 노예 제도의 부당성을 증거하였다.

그는 그의 동료 퀘이커교도들에게 노예를 두지 않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같은 비폭력적 혁명운동은 훗날 노예해방을 위한 남북전쟁으로 연결된다.

또 울멘은 오랜 시간의 고된 노동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술을 마시게 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에게 하루에 적당한 노동시간이 6시간이 돼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근로시간의 제정을 가져오는 공헌을 하게 되었다.

조지 폭스는 신비주의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는 여러 가지 사회적 지침들을 제공해 주는 공헌을 하였다. 폭스에게 영혼의 문을 열어준 것은 그의 신비적 경험들이었다. 그리고 그의 놀랄만한 종교적 통찰력은 기성 교회들이 보지 못하던 새로운 문제들에 광명의 길을 안내해 주었다.

3) 윌리엄 로우(William Law :1686-1761)

로우는 영국 국교도였다. 로우 역시 신비주의의 완벽한 모습을 드러내었다. 로우는 자기 부정과 부인에 대한 굉장한 강조와 함께 고전적이고 중세적인 신비주의 노선들을 추구하였다. 로우가 쓴 경건 생활에 관한 책이 있다. 한 권은 「기독교인의 완성에 대하여」(A Treatise on christian perfection:1726년)와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에로의 심각한 요청」(A Serious Call to a Holy and Ddvout life:1728)이 있다. 이런 책들의 영향이 1750년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웨슬레의 복음주의 운동(The Evangelical Revival)에 크게 기여하였다.

4) 엠마누엘 스웨덴보리(Emmanuel Swedenborg)

스웨덴 보리는 스칸디나비아 사람(1688-1772)으로 폭스가 죽기 전 3년 전에 태어났다. 스칸디나비아는 로마 카톨릭 교회 아래 있는 동안 중요한 신학자를 단 한 사람도 배출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스칸디나비아가 루터교의 개신교로 넘어 온 후부터는 뚜렷한 활기를 일으키며 인물들을 배출하였는데 위대한 영적 깊이와 열의를 가진 하우케(Hauge)가 있고 신비주의자 스웨덴보리가 있고 실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Kierkegaard)가 그 인물들이다.

스웨덴보리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는 옅살라 대학교에서 수학했으며 졸업 후에는 보다 전문을 넓히기 위해 잉글랜드,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을 5년동안 여행하였다.

그리고 난 후 과학 연구에 몰두하였다. 그는 과학 연구 끝에 종교적 확신에 도달하게 되었다. 스웨덴 보리는 과학 연구소에서 영계(靈界)로 옮겨지는 환상을 경험했다고 한다.

이 환상의 경험 후 그는 실제 세계와 성경의 진정한 의미에 관해 방대한 저술을 남기게 되었다. 그에 의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의 반영이며 따라서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상응한다는 것이었다.

그가 죽은 지 12년 후인 1784년 그의 제자들은 '새 예루살렘 교회'(The Church of the New Jerusalem)를 창립하였다. 그리고 19세기 초에는 '스웨덴보리 협회'가 조직되었다. 이들의 주 목적은 그의 저술들을 출판하고 널리 보급하는 것이었다.

그 외에도 신비주의에 의해 강력한 영향을 받은 영국의 시인들이 있다. 19세기의 워즈워드, 콜리지, 테니슨 그리고 브라우닝 등은 그들 자신들이 신비적 체험을 했을 뿐 아니라 영혼에 대한 그들의 해석 역시 신비적이다.

그리고 미국의 신비적 시인으로 에머슨(Emerson)이 있다. 그런데 신비주의 운동은 퀘이커를 제외하고 전체 교회와 사회에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 까닭은 신비주의 자체가 처음부터 내세 지향적이고 개인주의적이었기 때문이며 신비주의보다 더 많은 영향을 남긴 것은 경건주의 운동이었다.

제 16 장 경건주의 운동



경건(敬虔)이란 무슨 뜻인가? 또 경건주의(敬虔主義)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이 경건주의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경건주의가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그리고 경건주의를 발전시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모든 것을 이 장에서 살펴 보도록 하겠다.

1. 경건이란 무슨 뜻인가?

경건이란 헬라어는 유세베리아(ευσεβεία)이다. 이것을 영어로 옮길 때 Godliness가 된다. 이 말이 성서 이외의 회랍 문헌에서 사용되었을 때의 뜻은 신들이나 인간들에 대한 당연한 존경의 태도를 의미한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거의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다.

(1) 인간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고 쓰일 때

이 말이 딤편 5:4에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라는 말로 쓰인 '효'가 곧 유세베리아이다. 이 원문을 흠정역에는 '경건' (Piety)으로 번역했고 R.S.V.에는 '종교적 의무' (religious duty)로, 한글 개역성경은 '효'라고 번역하였다. 그리고 한글 공동번역에도 '종교적 의무'라고 하였다.

'유세베리아'라는 말이 인간에 대한 태도라는 말로 쓰일 때는 사람이 자기 가족을 위한 적당한 관심과 의무를 표현하는 말을 뜻한다.

(2)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고 쓰일 때

신약 성경에서 '유세베이아' 라는 말은 거의 예외 없이 '경건' 이라는 말로 번역되었다.

다같은 영어 성경인데도 '유세베이아' 를 놓고 행 3:12을 흠정역에서는 '거룩' (holiness)라고 번역했고, R.S.V.에서는 '경건' (piety)이라고 번역했다. 우리나라 한글 개역 성경은 '경건' 이라고 하였다.

그 외에는 모든 곳에 '경건' 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의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표현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 성경에는 위선적인 경건이라는 말도 함께 나온다. 딤후 3:5에 참된 경건과 대조되는 형식적인 경건을 '모르포신 유세베이아스(μορφωσιτυνευσεβεια)라고 했다. 이 말을 흠정역과 한글 개역은 '경건의 모양' (form of godliness)라고 하였으나 R.S.V.에서는 '종교의 모양' (form of religion)이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경건은 하나님과의 생생한 결합에서 오는 말과 행동 그리고 모든 삶의 태도를 말한다. 그렇지만 거짓된 경건은 외형적 모습만 갖췄을 뿐 그의 삶에 아무런 능력이 뒤따라지 않는 것을 뜻한다.

2. 경건주의(Pietism)란 무엇인가?

경건주의는 17세기 독일 루터교 안에서 새로운 종교 개혁운동의 양상으로 시작되었다. 이같은 경건주의 운동은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점차 여러 나라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

경건주의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경건주의가 어떤 성격을

드러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경건주의에는 일반적으로 4가지의 성격이 있다.

(1) 경건주의자들은 그리스도교의 본질을 개인적으로 체험되는 내적 변화라고 확신한다. 개인적 신앙을 여타의 다른 것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2) 경건주의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는 것을 그 이상으로 삼고 있다. 즉 낡은 옛 생활을 깨끗하게 단절하고 새로운 삶으로, 거룩한 인격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을 강조한다.

(3) 경건주의는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성경의 역할에 새로운 관심을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정통 교회에서는 성경을 기독교 교리의 유일한 근거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교리를 가르쳐 주는 규범도 되지만 영적 생활의 근거이기도 하다.

경건주의자들은 성경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초래하는 성령의 수단으로 이해하였다. 성서는 사람의 죄를 비추어 주며, 새로운 탄생을 예고하며,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도록 인도한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거듭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자라며 풍성한 삶을 사는 것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주의자들은 성경을 영적 생활의 활력 지침으로 소개하였다.

(4) 경건주의는 기존 세력에 대한 하나의 저항 운동이었다.

즉 기존 세력들이 기독교 안에서 안주하면서 문제를 보지 못하는 요소들을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그래서 기존 교회론에 관한 것, 신학적인 문제점들, 종교적인 현실 등에 대단히 비판적이었다.

그러다보니까 당시의 지배 세력들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경건주의자들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교리우선주의와도 마찰을 일으켰다. 또 이들은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이성주의와도 마찰을 일으켰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주의자들은 모두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들 경건주의는 신비주의보다 더 깊고 많은 영향력을 후대에 남겼다. 이제 우리는 경건주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자.

엄밀한 의미에서 경건주의라고 하면 독일의 스페너와 프란케가 이끌었던 독일의 운동을 의미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진젠돌프까지 포함시켜 살펴보겠다.

3. 경건주의의 역사

(1) 경건주의의 배경

경건주의는 왜 생기게 되었는가? 그것은 앞서 13장에서 30년 전쟁을 설명하면서 이미 언급하였다. 경건주의가 30년 전쟁(1618-1648년)의 산물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물론 경건주의가 30년 전쟁 때 생긴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30년 전쟁을 겪으면서 거기서부터 무엇인가 새롭게 갱신 되어야 한다는 강한 욕구가 시작되었다고 본다.

30년 전쟁이 끝나고 난 뒤 인구는 대폭 감소되었고 산업은 꺾였었다. 교회는 불타 버렸고 거리에는 병자와 가난한 자들이 버려져 있었다. 물질문명의 폐허와 함께 영적, 도덕적 타락이 일어났다. 모든 국민은 술 취함, 성적 문란, 도둑질, 탐욕 등에 빠져 어느 곳을 봐도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모든 목사나 평신도들이 실망을 하고 있었다. 저들은 위안의 방법으로 신비주의자들의 작품들을 탐독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타울러(Tauler)의 설교집이나 토마스 아 켐피스(Thomas a

kempis)의 저서들을 즐겨 읽었다.

그리고 슈벡크벨트(Schwenckfeld)나 바이겔(Weigel) 그리고 뵘메(Boehme)의 작품들이 인기를 끌었다. 루터교와 칼빈파는 이같은 신비주의를 반대하였다. 그렇지만은 대중들은 고갈된 영혼의 피로를 저들의 작품 속에서 위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때 영국 청교도주의도 영향을 미쳤고 리차드 박스터(Baxter)의 「이교도를 부르심」, 루이스 베일리(Lewis Bayly, 1565-1631)의 「경건의 훈련」, 존 번연(Bunyan)의 「천로역정」 등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운동의 여파들이 경건주의를 탄생시킨다.

경건주의는 19세기까지 계속 되었으나 지면상 여기서는 17,8세기의 사람들로 국한시키도록 하겠다.

(2) 경건주의 아버지 스페너

경건주의의 아버지하면 대체로 필립 야콥 스페너(Philip Jacob Spener:1635-1705)를 꼽는다. 그러나 어떤 학자는 경건주의 아버지로 스페너보다는 요한 아론트(Johann Arndt:1555-1621)를 꼽기도 하나 스페너가 훨씬 괄목할 공헌을 하였다.

스페너는 독일 알사스(Alsas)에서 출생하였다. 스페너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철저한 루터교 신앙의 분위기 속에 성장하였다. 스페너의 신앙의 대모(God mother)는 신앙심 두터운 백작부인이었다. 그는 요한 아론트의 「참된 기독교」(True christianity:1610)를 백작부인으로부터 교습받았다. 스페너는 소년 시절부터 신앙의 책읽기를 즐겨하였다.

스페너는 스트라스부르크와 제네바 등지를 유학하면서 칼빈파 교회들을 교제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리용에서 공부도 하고 독일의 여러 대

학도 순방하였다.

1663년에서부터 1666년까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목회를 하면서 대학 강사 생활중 신학박사 학위를 얻는다. 1660년 프랑크푸르트 교회에 초청받아 목회를 한다. 그는 여기에서 '경건의 모임들' (Colleges of Piety)이라 부르는 성경 공부 중심의 경건회 모임을 설립하였다.

스페너가 경건회 모임을 시작한 지 5년 후 1675년에 「피아 데시데리아」(pia desideria:경건의 욕망)을 출판하였다. 이 책에는 신자들의 경건성을 양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진술되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개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참된 기독교는 교리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영적 생명력이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된다고 하였다.

스페너는 이 책 속에서 현실 교회에 대한 비판을 가하였다. 목회자나 신학자가 되기를 원하는 후보자들은 그들이 깊은 개인적인 신앙을 갖춘 진정한 기독교 신자인지를 시험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설교자들을 향해서는 지나치게 학문적이고 논쟁적인 것은 억제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그 까닭은 설교란 설교자의 지식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도록 자극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스페너는 기존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도 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반 평신도에게도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술취함도 가벼운 죄로 예외 될 수 없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매음이나 간음, 우상숭배, 동성연애, 도둑질, 폭력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국가가 교회의 머리 노릇을 하면서 교회를 지배하려고 드는데 대해서도 담대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스페너의 '경건의 욕망'은 곳곳

에서 열광적으로 수용되었으나 스페너의 개혁의 초점이 평신도에게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과 신학 교수의 학구적 신학 활동을 비판하는 개혁이라는 비난과 함께 공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반발에 부딪히자 스페너는 더욱 더 열심히 '경건의 모임들'인 성경 공부에 전력하였다. 그런데 스페너의 뜻과는 반대되게 성경 공부 모임은 분열되었다. 그들은 '교회 내의 작은 교회(little churches in the church)'로 분열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너의 경건운동은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다. 보다 많은 집단과 귀족들까지 스페너의 경건 방법을 모방하게 되었다. 스페너는 경건의 훈련으로 카드놀이, 춤과 극장 출입을 금하고 음식과 의복에서 절제하는 규율을 가르쳤다. 매주일 오후에는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교리 문답교실을 인도하였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주일 아침의 설교를 정리하고 하나님의 신비에 관한 대화나 책을 읽도록 권하였다.

스페너는 계속된 반대와 논쟁에 지쳐서 1686년에 드레스덴(Dresden)의 법정 목사로 옮겨간다. 여기서 그는 법정의 무책임성과 야비함을 알게 된다. 그리고 정통파 목사들이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큰 적개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환멸을 느끼게 된다.

여기서 스페너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그가 「신학 연구의 장애물들」(Impediments to Theological Study)을 펴낸 것이고(1690), 다음으로 또 중요한 일은 스페너의 후계자가 된 어거스트 헤르만 프랑케(Franke)를 알게 된 것이다. 프랑케는 스페너의 후계자가 되어 제 2의 위대한 경건주의 지도자가 된다.

스페너는 드레스덴에서 법정 목사의 사역을 하는 중에 삭손의 대학교인 라이프찌히와 비텐베르그로부터 적대적인 대접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비텐베르그 대학 교수단은 스페너에게서 284개의 탈선행위를 들어

그를 비난하였다.

1691년 그는 베를린(Berlin)으로 옮겨간다. 스페너는 그의 여러 논문을 모아 「신학사상」(Theologische Bedencken)을 펴낸다. 그리고 프랑케와 함께 '할레' (Halle)에 새로운 '할레 대학'을 세운다(1694).

이 할레 대학의 신학 교수진은 스페너와 프랑케의 영향으로 경건주의의 학문적 중심지가 되었다. 그리고 스페너는 니콜라스 진젠돌프(Zinzendorf)가 세례 받을 때 대부(代父) 역할을 하였다. 스페너는 1705년 2월 5일에 세상을 떠났다. 스페너에게서 시작된 경건주의 운동은 스페너보다 나이가 아래인 프랑케에 의해서 더욱 크게 발전하게 된다.

(3) 경건주의의 중심인물 프랑케

이거스트 헤르만 프랑케(August Hermann Franke: 1663-1727)는 루벡(Lubeck)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키엘(kiel)에서 학생 시절에 스페너의 감화를 받고 경건주의자가 된다.

그는 라이프치히(Leipzig)대학교에서 학생으로서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하는 중 특별하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 그가 참석했던 모임은 성경 연구를 통해 학문적으로 성경에 접근하는 모임이었다. 그렇지만 프랑케는 성경연구는 경건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기에 라이프치히를 떠나 스페너를 따르게 된다.

프랑케는 다시 라이프치히로 돌아가서 스페너 방식에 의한 새로운 성경 연구 운동을 시작하였다. 프랑케는 스페너처럼 경건 생활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라이프치히에서는 프랑케를 싫어하는 세력이 많았다. 왜냐하면 프랑케의 경건주의를 기존 루터교나 칼빈파에서 매우 마땅치 않

게 여겼기 때문이다.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득의(以信得義) 교리에 집착하였다. 그래서 루터파는 신앙인들의 태도보다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루터파는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개인적 성결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칼빈파도 이와 유사한 점이 있었다. 칭의에 관한 이론은 루터파를 동의하였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노력해서 성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만 사람이 성결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경건주의자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이들 경건주의자들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단지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도덕 생활 정도를 따라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불신자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생활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전통적 루터파나 칼빈파의 견해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기독교의 정확한 교리와 일반 사회 규범에 맞는 도덕 생활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경건주의자들의 견해는 달랐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회나 일반 시민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경건주의자들의 주장 때문에 기존 기성 교회들로부터 반발을 사게 되었다.

프랑케가 라이프치히에서 배척을 받고 엘푸르트 목사에게로 갔으나 그곳에서도 반대를 받고 베를린으로 옮겼다. 1687년에 프랑케는 더욱 강렬한 종교적 체험을 하였다.

그 체험 후 더욱더 확신을 얻게 되었으며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과 불신자를 구별해 내는 규범을 깨닫게 된다. 프랑케의 경건주의는 더욱더 금욕적인 생활 방식과 율법적 생활 방식을 강조함으로 스페너의 정신을 능가하게 되었다.

1694년에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선제후가 할레(Halle)대학을 세우면서 베를린을 강력한 영적운동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래서 독일의 종교적 지도권을 경쟁자인 작센(Saxony) 공으로부터 빼앗아 오려고 하였다. 그래서 경건주의자인 스페너를 불러 들였고, 스페너는 프랑케를 할레 대학에 끌어들이었다. 그래서 프랑케는 1698년에 할레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할레 대학은 경건주의의 소굴이 되게 되었다.

프랑케는 할레 대학에서 목사 겸 교수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다른 기관들을 설립하였다. 프랑케는 할레 대학보다도 다른 할레의 기관들 설립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하였다. 프랑케가 세운 기관은 고아원, 출판사, 성서 출판소, 선교사들의 언어 학습을 위한 신학대학, 의과 대학 부속 진료소 등을 설립하였다.

이 기관들은 점차 여러 방면에서 좋은 사회적 기여를 하게 된다. 고아원은 프랑케가 죽을 당시인 1727년에 170명의 교사에 2천 2백 명의 고아를 양육하고 있었다. 또 출판사를 통해 찬송, 설교, 저술 등을 출판보급함으로써 경건주의 확장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외국 선교에 있어서도 탁월한 공헌을 하였다.

16세기 개혁주의자들은 매우 한심한 신학사상에 빠져 있었다. 어떤 신학자는 현대의 기독교 신자들이 다른 국가나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하라(마 28:18)는 지상명령은 사도들 시대에 이미 다 완성되었다고 하였다.

사도시대에 로마로, 서반야로 땅 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완성하였으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선교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 돌아오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한심한 신학사상 때문에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경건주의자들에게서 선교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일어났다. 신앙은 신학이나 교리가 아니라 생활이라고 믿는 이들은 다시금 타민족선교에 관해 새로운 장을 열어갔다.

1707년 덴마크 왕 프레드릭 4세는 인도에 있는 그들의 식민지에 선교사를 파송하고자 할레 대학의 프랑케에게 의뢰하였다. 이때 프랑케는 할레 대학 졸업자인 바돌로메우스 지텐바르그(Bartholomaeus Ziegenbalg)와 하인리히 플루르차(Heinrich Plutschau) 두 사람을 인디아 선교사로 보낸다. 그 뿐만 아니라 덴마크 왕의 지원과 경건주의 지도자들의 인도 아래 그린랜드(Greenland)와 람랜드(Lapland)에 선교사들의 훈련소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경건주의 신학자로 유명한 요한 알브레흐트 벵겔(Johann Albrecht Bengel: 1687-1752)이 있다. 벵겔은 12년간 노력으로 「신학주해」를 완성하였다. 벵겔의 성서 주석은 간결 명료하고 심원한 해석으로 지금까지도 크게 사랑받는 고전으로 전해 온다.

경건주의는 독일의 루터파 안에서만 국한되어 일어난 운동이 아니었다. 비텐베르그 대학이 루터파의 정통 운동이었다고 하면 경건주의는 할레 대학을 중심한 새로운 신앙운동으로 그 특징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4) 진젠돌프와 모라비안들

경건주의는 스페너를 세례 때 대부로 삼았던 니콜라스 루드비히 진젠돌프(Nikolaus Ludwig von Zinzendorf: 1700-1760)에게 영향을 미쳤다. 진젠돌프는 열렬한 경건주의자들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그래서 그 부모들은 경건주의 학교인 할레 대학에 보내어 프랑케아레 수학하도록 하였다.



진젠돌프, 모라비아교회의 창설자. 그는 종교적 교년과 감정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했고, 많은 찬송시를 썼는데 그중의 일부는 영어로 번역되었다.

진젠돌프는 1710년부터 1716년까지 할레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학교에 다녔다. 그는 일찍이

대부였던 스페너로부터 매력을 느꼈었고 프랑케로부터는 큰 자극을 받았다. 진젠돌프는 14살짜리 소년으로 '겨자씨 모임(Order of the Grain of Mustard Seed)'을 조직했다. 이 모임의 구성원들은 모든 인류를 사랑할 것을 맹세하였다.

그는 루터파의 중심지인 비텐베르크에 가서 법학 공부를 하였다. 여기서 그는 교수들과 여러 차례 논쟁을 벌이곤 하였다. 그후 화란과 프랑스를 여행하였다.

1721년에 색슨 공의 정부관리가 되어 드레스덴(Dresden) 궁정에서 일을 하게 된다. 바로 이곳에서 그는 그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모라비안

(Moravians)을 만나게 된다(1722년). 모라비안들은 원래 모라비아에 살던 후스파(Hussites)들로 신앙의 자유를 위해 피난온 난민들이었다. 또한 경건주의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진젠돌프는 망명자들을 보고 평소 '겨자씨 모임'에 대한 그의 소망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진젠돌프는 자기 사유지를 제공하여 모라비아 피난민들을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 모라비안들은 진젠돌프가 제공한 사유지를 거류지로 정하고 보헤미안 형제단(Bohemian Brethren)을 조직하였다.

이들 보헤미안들은 루터교회로부터 완전 분리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베르텔스도르프(Berthelsdorf)에 있는 시골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저들이 목회자가 필요할 때는 그 지방에 있는 루터교 목사를 초청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그들의 의식은 일반 교회와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세상의 소금'이라는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교회는 세상의 평범한 교회가 아니라 참 '마음의 종교(heart religion)'로 부터 비롯된 교회 안의 교회라고 믿었다. 그래서 국가나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교파적인 일반 교회와는 다르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같은 모라비안들의 삶을 보고 진젠돌프는 궁정의 직위를 사임하고 이들과 합류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이름을 '헤른후트(Herrnhut)' 공동체라고 하였다. 이 헤른후트 공동체는 진젠돌프의 감독 아래 점점 독특한 모습으로 갱신된 모라비아 교회가 되었다.

진젠돌프는 '있는 그대로 나아오라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슬로건을 내걸었고, 모라비안 교회는 크게 부흥되었다. 그러자 루터교회와 갈등이 시작되었다. 진젠돌프는 1734년에 목사 자격을 얻

었고 1737년에는 감독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루터교의 계속된 압력 때문에 헤른후트를 떠나게 된다. 이때 독일 서부지방과 영국, 미국 등을 여행하게 되었다. 특히 전에 루터란 선교사에 의해 개종한 에스키모인을 만난 것이 그의 가슴에 선교열을 뜨겁게 하였다. 그래서 1732년에 카리비안(Caribbean)에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수년 후에는 아프리카, 인디아,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에 모라비안 선교사들을 파송하였다.

진젠돌프가 미국을 여행하면서 펜실베이니아의 베들레헴(Bethlehem)과 나사렛(Nazareth) 그리고 노스 캐롤라이나의 살렘(Salem) 등에다 선교부를 설치하였다. 이들 모라비안들은 겨우 200명 가량의 피난민들이었는데도 해외로 1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을 파송하였다.

1749년에 진젠돌프는 다시 헤른후트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가 죽는 1760년까지 모라비안 교회를 관장한다. 이 모라비안 교회는 진젠돌프의 죽음과 함께 루터교 교단과 결별한다. 모라비안 교회는 많은 수의 교세를 자랑한 적도 없고 그후 계속해서 많은 숫자의 선교사들을 파송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19세기에 일어날 선교의 열정에 큰 자극을 주는 큰 공헌을 하였다. 또한 모라비안들이 존 웨슬레에게 미친 영향으로 인해 그것이 감리교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더욱 큰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에서의 복음적 각성운동은 모라비안 형제단의 큰 영향을 받았다. 1755년에 영국 안에는 15개의 모라비안 형제단이 있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John Wesley)가 저 유명한 '올더스게이트의 참회 체험(Aldersgate Street Experience: 1738)'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모라비안 형제단의 한 파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웨슬레는 런던의 펠터 레인(Fetter Lane)에 있는 모라비아 교회에

가입하였다. 1738년 웨슬레는 그가 존경했던 사람들에게 배우기 위해 헤른후트로 여행을 하였다. 후에 웨슬레는 모라비안파로부터 떨어져 나오지만 그가 최초로 구원을 얻는 중생의 체험은 모라비안 형제단에서 이루어졌다. 이같은 체험은 존 웨슬레만 아니라 찰스 웨슬레 그리고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그런 까닭에 모라비안 형제단의 가치는 그들 자체 운동에 의한 파급 효과로 인해 세계 선교열을 일으킨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미친 영향으로 인해 그 파장이 길게 연결된 것이다.

4. 경건주의의 영향

경건주의는 17세기에 시작하여 19세기까지 계속되었다. 이들 경건주의가 현대에 끼친 영향과 공헌은 무엇인가? 앞서 신비주의는 현대에 끼친 영향이 퀘이커 외에는 별로 공헌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경건주의자들은 여러 면에서 큰 공헌을 하였다.

(1) 경건주의는 20세기 종교계에 성서신학을 출현하게 하였다.

전에 전통적 교회들은 교리학, 신조학, 또는 교회론 등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다. 그러나 경건주의자들은 교리나 신학보다도 경건한 삶에 관한 신학을 수립하기 위해 새로운 성서 연구의 체계를 구축하였다. 종교개혁 당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여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기 위해 원전 연구를 많이 하였다.

그런데 성경에 관한 원전 연구는 성서의 고등비판의 결과 성서의 권위를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지만 경건주의자들은 성경을 연

구하되 성서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위한 새로운 성서 연구 방법을 만들어 놓았다. 이 점에 있어서 경건주의자들의 공헌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 경건주의자들은 현대 에큐메니즘(Ecumenism)에 큰 공헌을 하였다.

스페너나 진젠돌프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분리시켜 놓는 교리나 신학적 차이 같은 것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저들은 그리스도인들 간에 무엇이 다른가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무엇이 같은가를 찾아 연합시키려는 운동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그래서 교리학에 대한 단순화를 추진하였다. 정통신학에는 신학적으로 체계화된 논리는 있었으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었다. 물론 경건주의자들에게도 신학적인 실수가 있었으나 분열보다는 일치룰 이루는 능력이 드러났다.

(3) 경건주의는 사람이 종교적인 인간이 됨으로써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관념을 깨뜨렸다.

종교나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 애호가들의 주장이다. 참된 신앙은 개인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인격적 만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인격적 체험 신앙을 저들 경건주의자들이 일찍이 가르쳐 주었고, 그것이 현대에 와서 보편화된 진리가 되었다.

이들 경건주의는

- ① 개인적이고도 체험적인 것으로써의 종교
- ② 전 인격적인 참여에 의한 삶의 증거
- ③ 하나님 말씀에 의한 능력이 나타나는 생활
- ④ 영혼 없는 제도, 생명력 없는 몸, 내용 없는 형식 등에 대한 저항

등이 전체에 흐르는 핵심을 이루었다.

우리는 이들 경건주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날의 교회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저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만나는 중생의 체험이 이뤄졌는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는가? 오늘날의 교회들은 얼마나 내용도 없고 생명력이 없는 상태에서 형식만이 존재하는가?

제 17 장

존 웨슬레와 메도디스트 운동



독일에서 시작된 경건주의는 모라비아를 통해 영국으로 건너갔다. 영국은 그동안 의회군과 왕당파간의 전쟁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지쳐 있었다. 이러한 때 유물론에 의한 철학 사조가 영국에서 일어난다.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1561-1626)은 자연을 통해 얻은 경험을 기초로 추상적 철학의 길을 열어 놓았다. 그후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1588-1679)가 유물론 철학을 수립한다. 홉스에 의하면 지식이란 감각을 집성한 것이며 정신이란 감각할 수 없을 정도의 정미한 물체이고 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정도의 차이뿐이라고 하였다.

영국에는 유물론 이후 자연신론(Deism)이 등장한다. 이들 자연신론자들은 기독교가 자연종교(Natural Religion)와 일치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철학자 데이비드 흄(David Hume:1711-1776)은 오직 경험에 기초한 지식만이 진리라고 하였다.

이같은 흄의 사상은 독일의 칸트(Immanuel Kant)에게서 이성주의로 발전된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무질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성주의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때 영국의 종교계에 새로운 복음주의 운동에 의한 각성 운동이 일어났다. 그것이 웨슬레와 조지 휫필드 같은 사람들이었다. 웨슬레의 경건 운동은 드디어 감리교라는 한 교단을 형성하였다. 그가 생애 동

안 전개한 많은 신앙운동은 기력을 잃어가는 기독교에 큰 활력을 되찾게 해주었다. 이제 그에 관한 모습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겠다.

1. 웨슬레의 초기 생애

(1) 웨슬레의 출생과 교육

존 웨슬레(John Wesley: 1703년 7월 17일-1791년 3월 2일)는 영국 엡워드(Epworth)지방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 사무엘 웨슬레(Samuel Wesley)는 영국 국교회 사제였고 그의 모친 스잔나(Susanna) 역시 목사의 딸이었다.

존의 부모는 자녀를 19명을 낳아 길렀다. 존은 이들 19명 중 열다섯째였고 찰스는 열여덟번째 아이이었다. 존이 겨우 5살 때 목사관에 붙어났다. 이때 두 형제는 구사일생으로 구명을 받아서 그의 어머니는 저들을 '불 속에서 닦은 쇠처럼 구해 내셨다'고 믿었다.

존은 1720년에 옥스포드의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에 입학하여 계속 우수한 성적을 냈기 때문에 1726년에 링컨 대학의 연구원(Fellow)으로 임명받게 되었다. 그리고 교수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성직 임명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래서 1725년에 출세를 위해 성공회 부사제의 서품을 받은 바 있었다. 이렇게 그릇된(?) 동기에서 받은 안수 때문에 향후 10여년 동안을 고민 속에 살았다고 한다.

1728년 존은 옥스포드를 떠나 부친의 교구일을 돌본다. 그렇지만 같은 대학에 다녔던 동생 찰스는 옥스포드에 머물면서 커감(Robert Kirkham), 모간(William Morgan) 등 동료 학생들과 함께 성서 연구와 기도 생활에 힘쓰는 작은 클럽을 조직하였다.

형 존이 1729년 11월에 옥스포드에 다시 돌아왔다. 이때부터 존은 작은 클럽을 '신성회(Holy Club)'라고 하고 그 지도자가 된다.



요한 웨슬레, 순회 복음전도자

이 회원들은 거룩하고 정결한 생활을 하며 1주일에 한번씩 성찬식을 갖고,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그래서 신성회 회원들은 규칙적인 경건 시간을 정하였다. 매일 오후 한데 모여 3시간씩 성경 및 신학서적을 공부하기로 하였다.

또 정기적으로 감옥을 방문하여 죄수들을 위로하였다. 이들 가운데는 존만이 유일하게 안수받은 사제였다. 그리고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지도자가 되었다. 존은 신성회 클럽이라 이름지었으나 다른 이들은 이들을 경멸하고 조롱하였다. 그래서 경멸하는 이름인 열심주의자, 성경벌레, 성찬 형식론자, 혹은 규격주의자라는 뜻으로 '메도디스트'(Methodist)라고 불리워졌다. 이때의 메도디스트가 훗날 감리교의 이름이 된다.

이 무렵 신성회 운동을 빛나게 하는 새 인물이 참여한다. 그는 조지 휘트필드(George Whitefield)였다. 휘트필드는 존보다 11살 아래였다. 그는 1736년에 성공회 신부로 안수받았다. 그는 타고난 운변술과 열정있는 전도자이어서 많은 영을 깨우쳤다. 휘트필드의 설교는 소박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 들였을 때의 평화와 거기서 비롯되는 즐거운 생활과 봉사를 강조하였다. 그의 설교

를 듣는 이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강하게 압도해 오는 위력 앞에 정복당하고 말았다.

조지 횃필드는 미국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떨치었다. 그는 미국 순회 집회를 여덟 차례(1738, 1739, 1740, 1744, 1748, 1754, 1755, 1763-65) 다녔고 마지막으로 1769년 매사추세츠에 있다가 1770년 9월 30일에 생애를 마쳤다.

(2) 웨슬레의 회개

웨슬레는 옥스포드에서의 신성회를 통한 대학생 선교활동을 크게 인정받게 되었다. 그는 10여 년 동안의 캠퍼스 사역을 끝내고 미국 조지아 주의 인디언들을 위한 선교사로 가게 된다.

1735년 말부터 1736년 초까지 모라비아의 형제단에 소속된 선교사들이 미국 조지아 주의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고 있었다. 웨슬레는 이들 모라비안과 함께 한 배를 타고 가게 되었다. 웨슬레는 조지아 주 지사 오글레토르페(Oglethorpe)의 초청을 받아 사반나(Savannah)로 목회하러 가는 길이었다.

항해 도중 젊은 웨슬레는 그 선박의 임시 목회자(선목)이었다. 그래서 함께 동행 하게 된 모라비안 일행 26명을 만났다. 웨슬레는 서툰 독일어로 모라비안 신자들과 의사 소통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 배 돛대가 부러지고 난파의 위험 지경에 도달하였다. 그런데 그 큰 풍랑 속에서 모라비안들은 침착성을 잃지 않도록 계속하여 평안한 찬송을 불렀다. 선원들과 모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사색이 되었다.

웨슬레도 전에 신성회 클럽에서 경건의 규칙에 따라 열심히 자기를

훈련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를 하였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공포 때문에 그의 경건의 훈련은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폭풍이 지난 후 웨슬레는 자기는 목사인데도 공포에 시달렸는데 모라비안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하게 용기를 잃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웨슬레는 지금까지의 자기 신앙에 대해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되었다. 사반나에 도착한 웨슬레는 모라비아 형제단원인 고틀립 스팅겐베르그(Gottlieb Spangenberg)와 신앙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이때 스팅겐베르그는 웨슬레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물었다.

“형제여! 그대는 그대의 가슴 속의 성령을 통해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이때 웨슬레는 대답을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그는 다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웨슬레는 ‘물론 그가 온 세상의 구주임을 압니다.’

그러자 그는 ‘내가 묻는 것은 온 세상의 구주인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구세주라고 믿느냐?’ 고 물었다.

웨슬레는 ‘그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웨슬레는 영국에서 좋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또 가장 좋은 대학에서 공부도 하였다. 그리고 그는 영국 국교회의 신부로 서품도 받았다. 그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젊은 대학생들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기도도 인도하며 경건한 지도자로 10여 년 간을 헌신하였다. 그렇지만 웨슬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는 단지 각종 종교 프로그램에 익숙한 종교인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경험 후 그는 내심의 혼란을 겪게 되었다. 미국의 선교사로 간

웨슬레 형제는 열심히 일을 하였다. 그렇지만 목사로서의 사역은 계속 실패했다. 조지아 주의 교인들에게 마치 신성회 회원들처럼 행동해 줄 것을 기대했으나 전혀 달랐다. 이런 중에 동생 찰스가 병 때문에 실의하고 귀국하고 말았다.

존 웨슬레 역시 좌절에 허덕이고 있었다. 웨슬레가 더 좌절한 것은 홉키(Sophy Hopkey)라는 여인 때문이었다. 존은 홉키라는 여인을 만나 결혼을 결정할 찰나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였다. 존은 홉키라는 현명한 신앙의 여인과의 결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막대기를 세워서 좋은 곳으로 넘어지면 결혼을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막대기는 반대쪽으로 넘어졌다. 그리서 결혼을 포기한다고 하였다.

그러자 홉키라는 여인은 딴 남자와 결혼을 하였다. 이에 언짢아진 존은 그 여자를 성찬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홉키 집안과 이웃들은 웨슬레를 옹졸한 비인격자로 몰아붙이고 명예 훼손죄로 고소를 하였다. 웨슬레는 혼란과 좌절 속에서 더 이상 미국에서의 활동을 포기하고 1738년 설의 속에 귀국하고 만다.

영국에 돌아와 뚜렷한 소명을 찾지 못한 웨슬레는 모라비안을 찾아간다. 웨슬레는 모라비안 피터 빌러(Peter Bohler)를 만난다. 빌러의 자문에 의해 완전한 구원의 확신에 이를 때까지 설교하는 일을 중단한다. 그리고 빌러가 조직한 '페터 레인회' (Fetter-Lane Society)에 창설 회원으로 참여한다.

웨슬레는 모라비안들과의 교제 중에 드디어 1738년 5월 24일에 철저한 회심이 이루어진다. 이때 동생 찰스 역시 5월 21일에 회심이 이뤄진다. 존은 이날 올더스케이스트가(Aldersgate street)에 있는 집회에 참석했다. 그 집회는 모라비안파의 기도회 모임이었다.

그 집회에서 한 흑인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밤 9

시 15분경 존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때 존은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죄를 없이 하셨으며 죄와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웨슬레는 이 경험 후 구원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관심을 쏟을 수가 있게 되었다.

웨슬레는 구원의 확신을 얻는 회개의 경험 후에 모라비안의 경건한 생활을 좀 더 배우기를 원하였다. 웨슬레는 독일 헤른후트의 모라비안 형제단을 방문하였다. 거기서 진젠돌프와 2주간의 교제를 가진 후 영국으로 돌아온다. 웨슬레가 모라비안 공동체를 통해 많은 감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라비안의 신비주의는 자기 성격과 사회적 관심에 맞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었다.

웨슬레는 그동안 모라비안들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라비안이 되지 않기로 결정한다. 웨슬레는 훨씬 행동적이었고 비신비주의적이었고 폭넓은 종교 활동에 끌려 있었다.

2. 감리교의 출생

(1) 옥외 설교

웨슬레는 모라비안 집회를 통해 일생의 큰 전환인 거듭남의 체험을 하였다. 이 무렵 신성 클럽의 한 회원인 조지 핏필드 역시 웨슬레와 비슷한 경험을 하였다.

조지 핏필드는 공업도시 브리스톨(Bristol)에서 설교를 통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조지 핏필드는 예배당이 아닌 옥외에서 설교하는 것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횃필드는 브리스톨에서의 사역을 혼자 담당할 수가 없었다. 그는 곧 미국으로 가야 했으므로 자기의 사역을 웨슬레가 맡아주도록 부탁한다. 이에 웨슬레는 횃필드의 초청을 수락하지만 옥외에서 설교하는 것은 반대하였다.

웨슬레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따라 일을 성취하시는데 교회에 배당 밖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죄라고 여겼다. 그러나 그가 직접 사역을 해 본 후에는 그와 같은 생각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웨슬레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 당시 영국의 사정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수가 없었다. 그 까닭은 새로운 산업 도시가 생겨나면서 많은 인구들이 유동적이었다.

그런데 영국 성공회는 그 산업 도시에 몰려드는 새로운 인구들을 위한 관심을 쓰지 못하였다. 그 제일 큰 원인은 목회자들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웨슬레는 유동인구가 많이 모이는 시장 공터나 또는 광장을 찾아 다니면서 설교를 하였다. 이것이 웨슬레가 성공을 하게 된 상황적 호기회였다.

웨슬레와 횃필드는 한동안 함께 사역하였다. 그러나 웨슬레가 차츰 이 운동의 지도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 둘은 신학적 차이로 갈라지게 된다. 웨슬레는 전통적인 칼빈주의의 예정론에서 벗어난 알미니안주의적 입장을 취하였다. 그에 반해 횃필드는 칼빈주의적이었다. 두 사람은 몇 차례의 논쟁 끝에 서로 갈라져서 횃필드는 칼빈주의 감리교회(The Calvinist Methodist Church)를 조직한다. 이 칼빈주의 감리교의 중심지는 주로 웨일즈 지방이 된다.

횃필드는 헌팅던(Huntingdon) 백작 부인의 도움으로 죽을 때까지 64개의 예배당을 짓는다. 이 칼빈파 메도디스트 교회는 정치를 회중정

치로 하고 예배는 영국국교회와 같게 하였다. 이 교회의 초대 인물로 존 플래처(John Fletcher: 1729-1785)가 있었다.

웨슬레의 신학은 알미니안 신학의 입장에 확고하였다. 웨슬레는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속죄로만 구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벗고 청결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이란 죄가 전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써 완전을 말한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뜻하였다.

이와 같은 신학적 바탕을 가진 웨슬레는 전에 그가 반대하고 최악시 하였던 옥외 집회를 계승하게 된다. 웨슬레는 횃필드만큼의 박력은 없었다. 그러나 성실함과 실제적인 신앙에 대한 호소 때문에 커다란 감화를 줄 수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옥외 설교는 약 50여 년간 그의 전도생활의 한 패턴이 된다.

군중들이 많이 몰려 들었다. 청중들 중 어떤 이는 외치고 땅에 꺼꾸러져 몸을 뒤틀곤 하였다. 웨슬레는 그런 현상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악마의 반항적 발악이라고 이해했다.

그리고 웨슬레는 새로운 교파를 시작할 의도가 없었다. 자신은 성공회 목사로 평생을 지킬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성공회 예배 시간과 상충되지 않도록 조절하였다. 그리고 성찬은 성공회에서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2) 감리회의 조직

웨슬레가 독립된 교파로 발전시킬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그는 그의 운동의 성공을 위해 조직이 필요하였다. 모여진 군중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연적으로 따라야 했다. 그런데 웨슬레는 조직에 있어서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드디어 조직을 시작한다.

1738년 5월 1일은 감리교가 탄생한 날이다. 감리교의 탄생에 대해 세 가지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하나는 1729년 11월 옥스포드에서 '신성 클럽'을 창설한 때를 감리교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 두번째는 1736년 4월 미국 조지아 주 사반나에서 웨슬레가 선교사로 사역하다 이루어졌다고 보는 견해, 그리고 세번째가 웨슬레가 1738년 감리교 협회를 조직하고 최초의 채플을 세우게 된 때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중 세번째가 타당하다고 본다.

처음에는 개인 주택에서 모이다가 후에는 자기들의 건물에서 집회를 하였다. 그런데 웨슬레가 모라비안의 '페터 레인회(Fetter-Lane Society)'에 관계했던 관계로 웨슬레의 모임은 그들도 함께 하였다. 그러던 중 1739년 10월에 진젠돌프에게서 온 필립 몰터(Philip Heinrich Molther)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는 참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순수 웨슬레 추종자들이 모라비안과 분립하여 '연합 협회'(United Society)를 조직한다. 연합회의 조직이 1740년 7월 23일에 이루어진다. 이 연합회는 후에 '연회'라고 하는데 이 명칭은 모라비안의 영향으로 추측한다. 웨슬레는 또 '분단'(bands)을 조직한다. 분단은 하나의 소단위의 그룹으로 피차 신앙을 격려하도록 하였다.

감리교의 특징의 하나인 '속(Class)'이라고 하는 것도 조직하였다. 한 속은 12명으로 구성하였다. 11명에다 한 명의 지도자 한 사람을 조

직하였다. 이들은 한 주에 한 번씩 만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신앙 문제를 토론하고 전교인에게 1페니씩 헌금하도록 하였다. 이 돈으로 브리스톨에 지은 채플 건축 때 진 빚을 갚을 수가 있었다. 이 속이라는 조직이 처음에는 재정적 요구에서 출발했으나 후에는 피차의 영적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웨슬레는 이 집단의 직원으로 평신도인 강설자와 권사와 유사를 두었다. 여기서 말하는 평신도 강설자란 평신도로서 설교하는 자들을 말한다. 웨슬레가 처음에 평신도가 설교를 한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데 토마스 맥스필드(Thomas Maxfield)라는 평신도의 설교를 들어본 후 큰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평신도 설교가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감리교 운동의 시급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평신도인 남자, 여자를 강설자로 설교할 수 있게 하되 성찬식은 집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들 강설자들을 1744년에 런던으로 모이게 하였다. 이것이 최초의 '연회'의 시초가 된다.

1746년에는 그가 돌보던 전 지역을 '지방(Circuits)'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지방에는 순회 설교자와 고정 지도자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각 지방은 '감리사(Superintendent)'의 지도 아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전체 조직의 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평신도 설교자들이 모이는 정기적 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모임은 '연례 총회(Annual Congerence)'로 발전한다. 후에 이 총회는 보통 3년을 임기로 하는 각 지방의 책임자들을 임명하였다.

(3) 감리회의 시련

웨슬레는 성공회나 기타 모든 이와 함께 평화스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그의 운동이 계속 확장될수록 그에게 밀려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었다. 맨 먼저 큰 시련은 신학적 논쟁이었다. 그것은 완전성에 관한 문제였다.

웨슬레는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완전한 동기와 행동이 가능하고 그런 경지에 도달하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다고 믿고 있었다. 물론 여기서의 완전은 목적이지만 거기 도달한다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두고 칼빈주의자들이 계속 적대하였다. 예정론을 주장하는 칼빈주의자들은 그런 주장으로 도덕이 마비될 수 있다고 공격하였다.

다음의 시련은 영국 성공회와의 관계였다. 감리교는 서서히 일관된 발전을 거듭하였다. 너무 비대해진 감리교는 성공회에서 분열하지 않을 수 없도록 크게 집단화하였다.

감리교가 이렇게 비대해 지자 감리파를 향한 폭력행위가 비일비재하였다. 성공회의 성직자와 귀족들은 감리파에서 하류층의 평신도들에게 강설자로 많은 권한을 부여함을 못마땅히 여겼다. 그래서 이들의 집회에 돈받은 강패들을 보내 훼방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웨슬레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가 있었다.

성공회 성직자들은 분명한 교구제도가 있었다. 그런데 감리파들은 교구의 경계를 무시하고 어디서나 설교했기 때문에 성공회에서는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보고 용서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 당시의 영국법에 의하면 그들의 예배 의식과 건물 사용의 목적을 분명히 밝혀야만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었다. 그런데 웨슬레가 자기들 건물의 목적을 밝히게 되면 성공회가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안 밝히면 법을 어기는 위법이 되었다. 그래서 웨슬레는 많은 주저 끝에

1787년에 등록하도록 지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독립된 교회의 교파로 향한 첫 걸음이 내디뎠다. 이들은 웨슬레가 죽은 후 1791년에 완전히 분리하게 된다.

(4) 감리회의 발전

웨슬레는 1771년에 평신도 설교자 프란시스 애즈베리(Francis Asbury)를 미식민지에 파견하였다. 애즈베리는 버밍엄 근처 핸드워드 태생이었다. 그는 웨슬레의 순회 설교자로 있다가 미국을 지원해 갔다. 그러나 애즈베리의 미국 사역 중 독립전쟁이 벌어졌다. 다른 사역자들은 귀국하고 말았으나 그는 미국에 남아서 미국에서의 감리교 확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1784년에 웨슬레는 애즈베리와 토마스 코크(Coke)를 신생국가의 감독(Superintendent)으로 임명하였다. 웨슬레는 감독(Bishop)과 장로(Presbyter or elder)가 동일한 직분으로 믿었다. 따라서 스스로를 포함한 안수받은 장로는 다른 성직자들을 안수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웨슬레는 잉글랜드에서 1791년에 88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50여 년 동안 20만 리 이상의 전도여행을 다녔다. 그는 4만 회 이상 설교를 하였다. 그의 저술은 50여 권이 된다. 그가 죽을 무렵 감리회 설교자는 541명이었고 회원수는 13만 5천에 달하였다.

감리회는 1923년 현재 웨슬레파 메도디스트, 원시 메도디스트, 일치 자유 메도디스트, 칼빈파 메도디스트 등이 있다. 감리회는 세계 동반구와 서반구의 대표자들이 10년마다 모이는 감리교 세계대회가 있다. 이 회의는 1881년에 제정되었고 그 후부터는 4년마다 모이고 있다.

1911년 토론토 대회에 제출된 통계에 의하면 동반부의 신도수는 6,

794,471명이었고 서반부는 25,934,076명이다. 이들 합계는 32,728,547명이었다.

감리회가 이토록 성공하였던 이유들 중 하나는 당시의 산업혁명 때문에 야기되었던 새로운 필요들을 적절하게 대응했기 때문이었다.

18세기 후반의 영국은 산업화 과정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인구가 공업 중심지로 이동해 갔다. 여러 가지 경제 사정으로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을 당시의 성공회식 교구체제로는 도시 인구의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바로 이러한 대중들을 감리주의자들은 찾아가서 그들 요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추종자들을 만들어 갔던 것이다.

미국에서의 성공도 마찬가지이다. 신대륙에 도착한 정착민들은 새로운 땅을 찾아 계속 서쪽으로 이주해 갔다. 기존 교회들은 저들의 상황적 변화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교회와 관계가 떨어져 나갔다. 바로 이러한 개척민들을 찾아가는 감리교의 선교는 크게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3. 감리교의 특징

감리교 교훈의 특징들을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보편적 구원

칼빈주의자들은 제한적 구원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감리교는 누구든지 다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보편적 구원을 주장하였다. 이 신학적 차이가 선교의 현장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는 앞서 경건주의 운동 때 언급하였다.

그릇된 신학이 교회를 퇴보시키고 문화를 흑암으로 만들었던 것을 중

세교회에서 보았고 개혁신학자에게서도 보았다. 종교개혁 후 로마 카톨릭은 유럽에서 잃은 개신교를 남미나 동남아, 아프리카에서 회복하고도 남았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개혁주의자들은 선교는 더 이상할 필요 없다고 하였다. 여기 감리교 신학은 그같은 신학적 모순을 극복하였다. 그것이 성공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고 본다.

(2) 완전한 성화

감리회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 자신과 그의 동료에게서 죄와 질병이 완전히 치유되는 것을 기대하도록 용기를 심어준다.

(3) 성도의 교제

감리회는 그리스도인의 형제됨을 선포한다. 그리스도인의 형제됨의 증거는 서로 교제를 나누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에 근거를 삼는다. 이들은 교인의 증거가 성례전의 준수나 목사에 대한 복종 또는 신조에 대한 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다.

(4) 그리스도인의 봉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부터 명령받은 봉사가 하나님의 왕국을 지상에 넓히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고 가르친다.

존 웨슬레의 메도디스트 운동은 그 시작이 다른 운동들에 비해 길지가 않다. 그런데 저들의 운동은 현저하다.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저들의 현저한 발전 상황이 적절한 때였기 때문일까?

왜 다같은 여건에서 출발한 미국에서의 교회는 다른 교파보다 훨씬 성장을 빨리하게 됐는가? 지금의 미국 교파들 중 가장 큰 교파세력으로 성장한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는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미국의 신대륙으로 옮겨진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미국에는 로마 카톨릭도, 영국 성공회도 기타 다른 개신교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큰 교세를 가진 원인은 무엇인가? 이같은 점을 깊이 연구해서 우리들의 행보에 큰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제 18 장

초기 미국교회



미국의 건국 역사는 불과 200여 년 남짓하다. 그런데 미국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우주적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어떻게 하여 오늘과 같은 위력을 가지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 건국의 역사와 함께 초기 기독교의 영향을 생각하게 된다. 지금의 미국은 기독교의 영향이 크게 미친다고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건국 초기에는 분명히 기독교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초기 미국교회의 형성사를 배움으로 미국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 원인들을 짐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의 신대륙 역사가 시작된 것은 1492년 콜럼부스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지만 미국이 오늘날의 미국이 될 수 있는 정신적 역사는 17세기부터 영국의 식민지 정책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우리는 초기의 미국 교회를 알기 위해서 영국의 식민지 정책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식민지 정책에는 몇 가지의 특이한 점이 있다.

첫째, 영국의 식민정책은 다른 나라들의 식민제국 건설 성공에 자극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영국보다 훨씬 앞선 식민제국에 성공한 나라가 있었다. 그들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다. 이들 두 나라는 16세기에 식민건설에 착수하여 대제국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다. 영국이 이처럼

다른 나라보다 한 세기나 늦었다는 것은 그만큼 선택의 폭이 좁았다는 의미도 있다.

둘째, 영국의 식민정책은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었다.

즉 스페인들은 새로운 식민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인디언들의 노동력을 자기들 것으로 개량하여 사용하였다. 그에 반해 영국인들은 특수한 곳을 제외하고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을 점령하기 위해 인디언들을 멸종시키는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식민정책이 더 잔인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영국의 식민지 정책 속에는 종교인들이 합세하였다.

영국이 식민정책을 전개하기 위해 종교인들을 이용했다는 말이다. 우리는 앞서 영국교회의 개혁을 공부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해외로 도피했던 사실을 살펴보았다. 영국인들은 대륙으로 도피하다가 결국에는 신대륙으로 도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같은 사실들을 너무 지나치게 미화시켜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 즉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은 그들 식민제국의 동기가 황금을 찾아 나섰으나 영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은 종교적 동기가 시초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페인들은 가는 곳마다 원주민에게 잔인하였으나, 영국인들은 평화롭게 공존하려고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은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설명이다. 영국의 식민지 정책 속에는 종교인들이 이용되었다.

넷째, 미국의 개척자들은 현지에서의 고난 속에 넓은 아량으로 다듬어졌다.

영국 정부의 식민정책으로 이주한 사람이나 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도피해서 이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이들에 의해 신대륙이라는 미국이 건설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영국과 다른점들을 만들어 나갔

다. 여기서 영국의 재판이 아닌 새로운 창조미국의 미국이 생겨 남을 본다.

1. 영국 식민지 13개

주 영국의 식민 정책은 제임스 1세에 의해 시작되었다. 제임스 왕은 식민 정책을 위해 특별 회사를 조직하였다. 그 회사의 이름은 버지니아 회사(Virginia Company)이다. 이 회사는 1606년에 영국 상인들에 의해 조직되었고 제임스왕의 특허가 주어졌다. 그런데 제임스왕보다 먼저 식민정책을 시도한 사람은 엘리자벳 여왕이었다.

엘리자벳 여왕 때 월터 롤리(Walter Raleigh)가 여왕의 허락하에 1584년에 신대륙을 식민화하려고 하였다. 롤리가 신대륙 중 버지니아에 도착하여 그 지명을 버지니아라고 명명한 것도 영국의 처녀 여왕(Virgin Queen)인 엘리자벳을 위해 헌사한 것이다. 그런데 롤리의 신대륙 식민화 노력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엘리자벳 여왕이 10년만 더 살았어도 식민화 정책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그런데 엘리자벳의 후임자인 제임스 왕은 선왕의 정책을 답습하기를 꺼려했다. 그래서 1606년에야 새로운 식민 정책이 실천된다.

(1) 최초의 식민지 버지니아 주

버지니아에 본격적으로 식민지 작업이 시작된 것은 1607년의 일이다. 이해 5월에 버지니아 회사의 주선으로 105명의 정착민들이 제임스 강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자기들의 국왕 제임스를 기념하기 위해 제임스 강(James River)이라고 명명하고 제임스 타운(James Towns)을

건설하였다. 이들 최초의 정착인들을 신대륙으로 이주시킨 영국 정부로서는 몇 가지의 목적이 있었다.

제일 큰 목적은 두말할 것 없이 신대륙의 개척이었다. 그리고 신대륙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에게 영국 국교를 통해 감화를 주고자 하였다. 그리고 당시 북쪽을 향해 올라오던 스페인의 세력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정착민들 가운데는 청교도 신앙을 선호하는 흐름으로 발전되어 나갔다. 이것을 안 본국 정부는 버지니아 식민주를 1624년부터 국왕 제임스의 직접 통치아래 두었다.

이같은 정부의 간섭으로 청교도 신앙의 영향력은 크게 펼쳐지지 못하게 되었다. 버지니아가 어느 정도 식민지로 성장하자 제임스의 아들인 찰스 1세는 버지니아 주의 일부를 빼앗아 메릴랜드(Maryland)로 분할한다. 찰스 1세는 카톨릭을 좋아해서 메릴랜드 주를 카톨릭 신자에게 양도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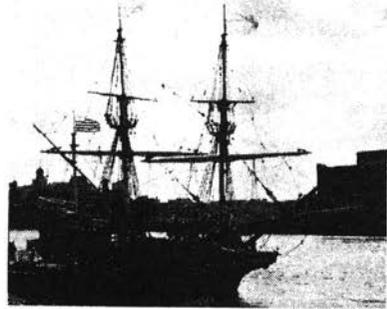
이곳 메릴랜드는 담배 경작과 수출이 가능하였다. 그래서 새롭게 메릴랜드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1619년부터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을 수입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버지니아 주와 메릴랜드주가 최초의 영국 식민지로 세력을 확보해 나간다.

그리고 이 때의 종교는 주로 영국 국교회가 위주였다. 그런데 영국 본토에서와 같은 편협하고 공격적인 영국국교가 아니었다. 새로운 신대륙에서의 영국 국교도들은 영국의 귀족풍의 점잖은 대 농장의 소유주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다소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었다.

(2) 제 2차 플리모스 식민지

여기 또 다른 식민 형태가 있다. 그것은 1620년에 저 유명한 메이 플

라워(May flower) 배를 타고 이곳 플리모스(Plymouth)에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처음에 영국의 종교박해를 피해 네덜란드로 갔던 분리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이 네덜란드에서 신앙의 자유는 찾았으나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타국에서의 교육이 여의치가 않았다.



메이플라워호를 복원한 것이다. 이 소형선박을 타고 청교도단은 뉴잉글랜드를 향해 항해하였다.

그런데도 본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버지니아 회사의 중심으로 영국 왕의 허락하에 신대륙으로 이주하였다. 이들이 맨 처음 출발했을 때는 101명이었다. 이들이 메이 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한 곳이 버지니아였다.

그러나 버지니아에는 이미 영국 국교도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들은 다시 더 북상하여 '케이프 코드' (Cape Code) 에 상륙했다가 다시 자리를 옮겨 플리모스에 정착한다. 이들 청교도들의 첫 신대륙 생활은 비참하였다.

첫 해 겨울에 전염병과 추위로 많은 죽고 겨우 50명이 살아 남았다. 이 어려운 때 이들을 도운 것은 인디언들이었다. 인디언들은 짐승을 사냥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농사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이주한 첫 가을 추수를 감사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기도 하였다. 이들 청교도들이 플리모스에 정착하면서 본국으로부터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주토록 하였다.

이들은 버지니아 회사가 아닌 '매사추세트만 회사' (Massachusetts Bay Company)를 조직하였다. 그것은 영국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받

지 않는 이주민들을 모집하기 위해서였다. 이 무렵 영국에서는 로드(Laud) 대 주교가 청교도들을 혹독하게 박해하였다. 그것이 더 많은 이주민들을 생기게 하였다.

그래서 매사추세츠만 회사의 도움으로 약 10,000여명의 청교도들이 뉴잉글랜드로 이주하였다. 이들이 결국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와 '코네티컷'(Conneticut)주를 만들게 된다. 그런데 뒤에 이주해 온 사람들은 플리모스에 최초로 왔던 청교도들과는 그 신앙입장이 약간 달랐다. 저들은 계속 영국 국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신약에 나타난 성경적 원리를 따르고자 했던 청교도들이었다.

(3) 계속된 식민주

영국에서 계속된 식민정책은 또 다른 식민주들을 만들어낸다. 1628년에 800명의 청교도가 개척한 코네티컷(Conneticut)주가 있고 1634년에 개척한 메릴랜드(Maryland)주가 있다.

이 메릴랜드는 앞서 말한 대로 찰스1세가 카톨릭 신자인 발티모어(Baltimore)공에게 개척토록 하였다. 또 지금의 뉴욕(New York)시는 1623년 화란 사람들이 맨하탄(Manhattan)에 와서 토인들에게 매수한 뒤 뉴 암스테르담(New Amstardom)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1664년에 영국인이 뉴 암스테르담을 탈취하고 뉴욕이라고 명하였다. 이렇게 식민주가 계속 늘어가면서 청교도식 식민주에 반대를 하고 나서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났다.

그것은 로저 윌리엄스(Roger Williams)가 이끄는 프로비던스(Providence) 식민주였다. 청교도들이 종교확립주의 정책을 시행하자 그는 종교자유의 원칙 아래 침례교를 세운다. 이것이 1644년의 로드 아

일랜트 식민주이다.

그리고 퀘이커 교도인 윌리엄 펜(William Penn)이 1681년에 펜실베이니아 식민주를 종교의 자유 상태에서 건설한다. 이렇게 하여 영국의 식민주는 계속 늘어간다. 영국은 이렇게 하여 17세기 18세기 동안 북아메리카에 많은 식민주를 설립하고 확장하였다. 이렇게 식민지를 설립해 나가는 데 종교적 요소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처음의 종교란 두 말할 것 없이 영국 성공회였다. 이들 영국 성공회는 타 종교를 수용하지 못하는 편협성을 보였다. 그런데 점차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종교적 자유를 인정하였던 로드 아일랜드와 펜실베이니아의 모범을 따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종교적 자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럽 대륙에서 있었던 종교 전쟁의 비극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영국은 신대륙의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 부수적인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었다. 그것은 노예제도를 도입하고 난 뒤에 따르는 인종 차별문제가 생겼고, 또 인디언들의 토지를 착취함에 따르는 도덕심의 문제도 따르게 되었다.

그 외에도 신대륙의 무한한 개척정신이 끝 없이 욕망을 자극함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도 문제가 되었다. 이같은 모든 문제들로 인해 최초로 이민의 꿈을 싣고 정착한 사람들의 신선한 종교적 열정과 아름다운 신대륙 건설의 소망이 자츨 희미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희미해져 가는 신대륙에 위대한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새로운 대각성운동이 일어난다. 그것을 가르켜 대각성운동이라고 한다.

2. 대각성(The Great Awakening) 운동

(1) 대각성운동의 동기



하버드대학교의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건물 가운데 하나이다. 존 하버드(1607-1638)는 뉴잉글랜드로 이주한 초기의 청교도였다. 그는 그의 유언에 따라 새로운 대학의 설립을 위해 그의 토지의 절반과 약 4백 권의 책을 남겼다.

미국의 대각성운동은 기독교 안에서 일어난 경건운동이었다. 그러면 미국교회는 어떻게 해서 각성운동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위해 본국을 버리고 신대륙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지식 문제에서 일어난 자각이었다.

종교의 자유를 위해 신대륙으로 이주한 부모들은 자기들이 본국에

서 당한 서러움과 한을 마음껏 풀고 싶었다. 이들 초기 청교도들은 자기들이 영국에서 비국교도라는 이유 때문에 가고 싶은 대학도 가지 못하는 서러움을 당했었다. 그렇지만 신대륙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교육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렇게 기대를 했던 이민 정착민의 자녀들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어린 자식들이 유아세례를 받고 난 뒤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없으면 '절반짜리 계약자들' (Half-Way Covenant)로 인정하고자 하였다.

이들 절반짜리 계약자들은 회심의 경험도 없는데다가 핍박이 전혀없는 신세계에서의 무한한 자유로 인해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절제한 신자들로 양산되어 갔다. 이같이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이 계속 늘어감에 따라 기독교에서는 우려를 거듭하는 목소리가 커져 갔다.

이에 뉴 저지의 '라리탄 계곡' (Raritan Valley)에 있는 화란 개혁교회에서 새로운 각성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교회의 목사는 '프렐링후이센' (Theodore Frelinghuysen)이었다.

이 목사는 자기 교회 신자들이 교회를 마치 향수를 달래는 곳으로 알고 출입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래서 프렐링두이센 목사는 신자들로

하여금 보다 깊고 생생한 신앙의 지식을 일깨워 주기 위해 6년 동안 줄곧 부흥운동을 계속하였다. 여기 라리탄 계곡의 물결이 드디어 전 미국의 부흥운동으로 휩쓸게 되었다.



커네티컷의 하트포드에서 있었던 초기의 통나무 오두막 교회

이 부흥 운동의 열매로 테넨트(Tennent) 부자가 크게 쓰임을 받게 된다. 아버지 윌리엄 테넨트와 아들 길버트 테넨트(Gilbert)는 부흥운동 결과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다. 이들 부자는 확신을 얻은 후 펜실바니아주 네샤미니(Neshaminy)에 있는 목사관 건너편에다 훈련 학교를 세운다. 이 학교를 사람들은 비웃는 호칭으로 '통나무 대학'(Log College)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 통나무 대학이 프린스턴의 전신이었다.

이 통나무 대학에서는 주로 목사들을 양성하기 위해 또 다른 통나무 대학들을 설립해 나갔다. 이 당시 미국 장로교에서는 두 조류가 흐르고 있었다. 하나는 생생한 신앙과 경험적인 것을 최고의 관심으로 보는 영국 푸리한계의 신파(New Side)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정확한 교리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스코틀랜드계의 구파(Old Side)가 있었다.

테넨트 가문은 신파에 속하였다. 그래서 구파에서는 테넨트 일가를 제명처분 하였다. 이와 같은 신·구파의 싸움이 1758년에 통합되긴 하였으나 이같은 싸움이 각성운동을 촉진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대각성운동의 지도자들에 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제 1차 대각성 운동 (1726-1770)

제1차 대각성운동의 주역은 테넨트 부자에 의해 시작되었고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해 발전하여 조지 휫필드에 의해 아름답게 결실하였다.

1) 윌리엄 테넨트(William Tennent: 1673-1746)

윌리엄 테넨트는 화란 개척교회 계통의 목사였다. 그가 라리탄 계곡의 프렐링후이센 목사의 부흥 운동에 영향을 입고 통나무 대학을 세운 사람이다. 윌리엄 테넨트는 1746년에 죽었으나 그가 세운 통나무 대학 같은 유사한 대학들이 계속 생겨났다.

그리고 그의 아들 길버트(Gilbert)와 함께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영향을 주에 변화시켰다. 이 테넨트 부자의 영향으로 1756년에 프린스톤 대학 전신인 뉴욕대학이 생기게 되었다.

2)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1758)

에드워즈는 코네티컷주 윈드솔(Windsor)에서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외할아버지 역시 목사였다. 에드워즈는 13살에 초창기의 예일(Yale)대학에 입학하여 1720년에 졸업하였다. 대학 재학시 록크(Locke)의 사상에 깊은 감회를 받았다. 대학 졸업 후 2년간 신학을 연구하고 3년간 모교인 예일에서 교사가 되었다.

그러다가 1726년 노스햄튼(Northampton)에 있는 외조부 솔로몬 스톱다드(Solomon Stoddard) 목사 후임으로 회중교회 목사가 된다. 여기서 그는 20년간 목사로 시무하였다. 거기서 에드워즈는 너무 엄격한 규율을 요청함으로써 교인들과 충돌이 생겨 1750년에 사임한다.

그리고 스톱브리지(Stockbridge)란 촌락교회의 교사가 되어 변방의 토인들에게 선교를 하였다. 1757년에는 프린스톤 대학 학장으로 청빙되었는데 동년에 옛 종두병을 얻어 1758년 3월 22일 사망하였다.

에드워즈는 예리하고 사물을 꿰뚫는 지성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기질 속에 신비가다운 요소가 있었다. 그는 여름에는 4시, 겨울에는 5시에 일어나 하루 13시간씩 공부를 했다고 한다.

에드워즈의 작품으로 「종교적 감정」, 「원죄론」, 「속죄의 역사」들이 있으나 가장 유명한 것은 「자유 의지론」이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선택의 자유가 있으나 선택은 필연적으로 책임이 뒤 따르므로 의지에는 자유가 없다고 하였다. 아담이 선택의 자유는 있었지만 선택한 후에는 자기 의지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에는 자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의 위대한 철학자, 신학자. 그의 설교의 영향으로 매사추세츠의 노담프튼에서 대각성운동이 시작되었다.

에드워즈가 신대륙인 뉴 잉글랜드에서 최초의 신학자가 된 것은 물론이고 그의 부흥운동은 대각성운동의 불길을 일으켰다. 에드워즈가 노스햄턴에서 목회하는 동안 신앙부흥 운동이 두 번 일어났다.

한 번은 1734년 겨울과 1735년 봄에 일어난 큰 회개운동이었고 다른 한 번은 1740년부터 1742년까지 계속된 부흥운동이었다. 이 두 번의 부흥운동으로 그 교회에는 550명의 새 신자가 회개하는 결과가 있었다.

에드워즈의 설교는 노스햄턴 사람들이 이론상으로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떠나 있음을 통렬하게 공박하였다. 그리고 천천히 똑똑히, 그리고 엄숙한 어조로 죄의 무서움을 선명하게 설명하였다.

에드워즈의 설교들은 죄의 확인과 하나님의 용서의 경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가 즐겨 사용한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빠져 든 죄인들' 이었다.

에드워즈의 설교를 들은 이는 생활의 변화와 경건한 신앙으로 회복하는 반응을 나타내었다. 이 같은 부흥의 불길은 매사추세츠 일대를 휩쓸고 또 다시 코네티컷까지 파급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번지는 불길은 몇 차례의 큰 파동을 친 뒤 곧 가라앉게 되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시 한 번 이러한 불길이 일어나기를 염원하는 소망과 함께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3) 조지 횃필드(George Whitefield 1714-1770)



조지 횃필드(1714-1770), 영국의 각성운동 시기의 위대한 설교자.

횃필드는 웨슬레와 함께 영국에서 메도리스트 운동을 이끌어간 지도자였다. 이 횃필드가 자기 성역을 웨슬레에게 부탁하고 미국을 자주 방문하여 에드워즈와 함께 부흥 운동을 전개하였다.

횃필드의 선교는 회심의 경험들과 아울러 회개에 따른 회열이 외부적 표현으로 나타나게 하였다. 횃필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할때 눈물을 흘렸으며 어떤 이들은 용서받은 기쁨에 차서 소리를 질렀고 감격을 이기지 못한 이는 기절하는 사람도 있었다.

4) 제1차 대각성운동의 결과

제1차 대각성운동은 건국 초기의 미국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① 종교적인 면

- 이 당시 미국의 정착민은 30만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이들 중 3만 이상이 새로운 회개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
- 최소한 150개 이상의 새 교회가 설립되었다.
- 교회 출석률이 압도적으로 증가하였다.

- d. 많은 젊은 청년들이 목회 사역자로 헌신하였다.
- e. 모든 교회들은 교회 회원에 머무르지 않고 증생을 강조하게 되었다.
- f. 침례교와 감리교가 크게 팽창하였다. 그 까닭은 대각성운동을 이끌 어간 지도자가 모두 장로교 지도자였고 회중파 목사였다. 그런데 저들의 강조는 개인적 신앙 경험을 강조했으므로 유아세례에 의한 회원을 인정하는 장로교를 떠나게 되었다.
- g. 가정 방문과 주중에 성경공부가 증가되었다.
- h. 즉흥적인 설교가 유행하였다.
- i. 성경의 권위에 대한 새로 인식이 증가되었다.
- j. 많은 신학서적이 기록되었다.

② 사회적인 면

- a. 가정, 직장, 사회에 고차원적인 윤리가 강조되었다.
- b. 사회에 대한 자선사업 운동이 시작되었다.

③ 교육적인 면—많은 학교를 건설하는 붐이 일어났다.

- a. 프린스턴 칼리지 (Princeton College 1755)
- b. 타트모스 칼리지 (Dartmouth College 1769)
- c. 로드 아일랜드 칼리지 (Road Island)
- d. 퀸(Queens) 칼리지
- e. 킹스(Kings)칼리지
- f. 와싱턴 (Washington) 칼리지 등 수많은 학교가 세워졌다.

④ 정치적인 면—대각성운동은 미 합중국을 결성하게 된 13개 식민 주 전체를 하나로 묶어 가는 최초의 움직임이 되었다. 바로 이러한 일체 감은 드디어 미국이 영국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는 미국 독립정신에 자극 을 주었다. 이것은 실로 지대한 역사적 사건을 낳게 하였다.

⑤ 선교적인 면-각 선교단체가 일어났다. 인디언들과 흑인 사회에 개종과 해방의 바람이 불었다.

⑥ 부정적인 면-대각성 운동이 대중 부흥 운동으로 지나친 감정주의라고 비판을 하며 냉철하고 합리적인 이성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감정주의를 반대하고 이성을 강조하는 이를 '구 광파' (Old Light)라고 하였고 감정주의를 찬성하는 이를 '신광파' (New Light) 라고 하였다.

보스톤의 예일 대학과 하버드 대학은 구광파에 속함으로 감정주의를 찬동하는 신광파가 갈라져서 프린스톤을 건립한다. 이같은 분열은 장로교나 회중교회나 침례교에도 분열을 가져온다.

(3) 제2차 대각성운동 (1790-1835)

제1차 대각성운동으로 전 미국이 달라졌다. 그 운동으로 사람들은 신앙적 각성뿐만 아니라 국가적 자의식에도 눈을 뜨게 됐다. 원래 뉴 잉글랜드의 이주민들은 대영제국의 식민지 정책으로 신대륙에 이주하였다.

그들은 신대륙에 와서 영국 정부의 도움없이 거친 환경을 개척하기 위해 온갖 고초를 다 겪었다. 그런데 영국 본토가 아닌 신대륙에서조차 영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간섭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끔찍한 일이었다. 그래서 자기들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영국 정부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국가적 각성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야만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1775-1782년 까지 7년 동안 독립전쟁을 치루어야만 하였다. 전쟁은 1775년 영국군이 식민지 민병대들이 비축해 놓은 탄약고 하나를 파괴하고자 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1776년

7월 4일 전쟁이 시작된 지 1년 후 13개 식민주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의논하였다.

이때 프랑스와 스페인은 신생국을 원조하였고 영국은 인디언 부족들의 지원을 받아 전쟁이 계속되었다. 1782년에 양측간에 협정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미국의 독립이 실현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독립전쟁으로 미국 사회는 또 다시 어려운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 당시 가장 두드러진 운동인 유니테리언주의(Unitarianism)와 보편주의(Universalism)였다. 유니테리언주의란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고 인간의 자유와 지적 능력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보편주의는 모든 인간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다. 여기에 다 노예제도, 진화론, 근본주의와 자유주의의 갈등, 인종정책 등 여러 가지 현실문제들이 미국 교회의 신앙의 열기를 식혀가고 있었다.

그리고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전체에 걸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이민자들이 유럽으로부터 몰려들어 왔다. 이민자들의 유입과 함께 카톨릭이 크게 늘어 났고 루터교 역시 급성장하였다.

그 외에도 메노나이츠(Mennonites), 모라비안(Moravians), 회랍 및 러시아 정교(Greek and Russian Orthodox) 그리고 유태교 등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전쟁 이후의 온갖 정신 사조와 이민인들의 유입으로 전 미국 교회는 큰 혼란을 겪게 되었다. 이와 같은 때에 다시금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여기서 제2차 각성운동의 지도자는 티모디 드와이트와 드와이트 레이만 무디였다. 이들 두 사람은 제2차 대각성운동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들이 이끌어간 제2차 각성운동과 그 결과들을 살펴해보도록 하자.

1) 티모디 드와이트(Timothy Dwight:1752-1817)

이 사람은 예일 대학 교학장이자 조나단 워드워즈의 손자였다. 티모디 드와이트는 매사추세츠의 노스햄튼(Northampton)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코네티컷의 페어필드에서 몇년 동안(1783-95)교직에 종사 하였다.

그는 이 무렵 미국 시 문학의 전통을 세우려고 하였다. 그후 그는 코네티컷 회중교회 목사로 그 지역 지도자가 되었다. 뉴저지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그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1795년부터 1817년까지는 예일대학의 학장 및 신학 교수로 재직하였다.

드와이트는 대학 학장으로 있으면서 학교 행정과 교육과정을 변혁 시켰고 입학 정원을 세배로 증가시켰다. 특히 그의 설교로 인하여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 1802년 경에는 학생들의 3분의 1을 개종시켰다.

드와이트가 학교 예배 시간에 행했던 설교들은 온건한 칼빈주의적 신학 체계 위에 행해졌다. 특히 그의 조부인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을 답습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과 영원한 구원이나 파멸을 내리시는 전적인 주를 강조 하였다.

그는 코네티컷, 메인, 뉴 햄프셔,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주 등을 포함한 미국 북동부쪽을 보수세력으로 주도해 나갔다. 그의 강한 보수 신학은 해이해져 가는 미국 사회를 새롭게 각성시키는 데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2) 드와이트 레이만 무디 (Dwight Lyman Moody:1837.2.5-1899.12.22)

드와이트 무디는 1837년 2월5일 매사추세츠 노스필드(Northfield)에서 출생하고 거기서 죽었다. 무디는 아버지 에드윈(Edwin)과 어머니

벵시 홀튼 (Betsy Holton)의 아홉 자녀들 중 여섯번째로 태어났다. 석수였던 그의 아버지가 1841년 41세로 사망하자 그의 가족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부흥운동 지도자였던 무디와 생키. 그들이 뉴욕 브루클린에서 대중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찬송가 작시자이며, 음악가인 생키가 오른쪽 폐달식 오르간 옆에 앉아 있다.

이로 인해 무디는 그 지역의 국민학교 교육을 받

았을 뿐이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자신의 생계를 직접 꾸려 나가야 했다. 1854년 14살 때 보스턴으로 가서 외삼촌 사무엘 홀튼의 구둣방에 고용되어 점원으로 일하였다.

그런데 외삼촌은 그를 채용할 때 조건을 제시했다. 그것은 자기가 나가는 마운트 바논의 회중교회에 매 주일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무디는 그 조건을 충실히 지키었다.

무디는 교회 생활에 감동을 받고 1855년에 교회에 입교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교회로부터 심사 결과 실통치 않아서 입교허가를 1년간 보류하고 그 동안 교인이 되는 기초 지식을 습득해 나갔다.

1856년 9월에 시카코로 옮겨 갔다. 시카코에서 무디는 구두 외판원으로 외삼촌이 주던 액수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되었다. 그는 구두 외판업계에 뛰어난 명성과 함께 수입도 많아지게 되었다. 그는 10만불을 목표로 그의 사업이 번창해 가고 있는 동안 그는 종교 사업에 대해 마음이 쏠리기 시작했다.

그 당시 그는 교회의 주일학교의 교사로서 신입 학생들과 전혀 구제 불능으로 보이는 문제아들을 맡아서 가르치는 데 많은 정열을 쏟았다.

그런데 많은 문제아들이 무디의 가르침을 받기만 하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무디는 노스 마켓 홀(North Market Hall)주일학교를 설립하고 교장으로 일하였다. 이 학교의 학생이 1,500여명에 이르자 1863년에는 주일학교를 기초로 해서 일리노이 스트리트교회(Illinois Street Church)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무디는 일리노이 주에서 주일학교 운동가로 그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무디는 시카코의 기독교청년 연합회(Y.M.C.A)사업에 적극 후원하고 건물 증축비로 거액을 제공한다. 1861년부터는 구두 판매 사업을 그만두고 독자적인 도시 선교사가 된다. 1862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의 건강 문제로 1867년에 영국을 방문하게 된다. 그때 무디는 그곳에서 전도 활동을 벌였다.

1872년에 다시 영국을 방문해서 여러 전도 집회를 주관해 나가던중 탁월한 복음 전도자로 인정 받게 된다. 그 이듬해 다시 영국 초청을 받았을 때 저 유명한 생키(Sankey)가 동반하여 함께 영국 집회를 열게 된다. 이때부터 생키의 음악과 무디의 설교가 한 팀을 이루어 부흥사로 명성을 떨치기 시작한다. 생키의 단수하면서도 영혼을 뒤흔드는 찬송과 무디의 솔직한 설교는 가는 곳마다 수많은 청중들을 끌어 모았다.

그 뒤로는 영국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도 그는 명성을 떨치었다.

1892년 무디는 성지 이스라엘을 방문 했는데 그때 그 자신의 심장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했다. 1899년 11월 16일 미주리주 캔자스시에서 예배인도 중 쓰러져서 고향으로 옮겨져 12월에 운명하였다.

무디는 솔직한 설교가였다. 그는 교육을 조금밖에 받지 못해서 영어 성경을 문자대로 받아 들었다. 그는 성경상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매우 친밀하게 다루기를 좋아했고 또 자신의 설교 가운데서 그 인물들과 더

불어 상상적인 대화를 나눔으로써 그는 설교를 생동력있게 하였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고집하지 않았다. 그는 개인적으로 보면 무뚝뚝하며 투명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는 결코 세련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특정한 개인에 관한 예화들과 재치있는 언급과 적절한 비평들로 엮어진 그의 설교는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무디는 다른 유명한 부흥사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칭찬을 받으면서도 그같은 칭찬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리고 군중들이 흥분하고 열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건전성과 신령한 면과 진실성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다.

무디와 생키가 함께 전도 집회 때 사용한 찬송가가 1900년대 이르러서는 저작권 수입만도 125만 달러가 넘었다. 그러데 무디는 자기에게 배당된 수익금으로 여러 개의 교육기관을 세웠다. 1879년에 그의 고향 노스필드에다 젊은 여성을 위한 '노스필드 신학교'를 세웠다. 이 학교에서는 대학 진학을 위한 예비 과정을 가르쳤다.

또 1881년에는 같은 곳에 젊은 남자들을 위한 '마운트 헤르몬 고등학교'를 세웠다. 그리고 1899년 9월에 시카고에다 무디 성서학원(Moody Bible Institute)을 세웠다. 이 학교 초대 학장으로 토레이리(R.A. Torrey)박사가 취임하였다. 이 학교는 성서 지식, 교회음악, 세계 선교가 주목적이었다. 이 학교의 특징은 학생들의 등록금이 전액 장학금이 고 기숙사비만 본인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리고 시카고 시내에 무디의 기념교회인 '에비뉴 교회'가 있고 무디 학원 출신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특히 동양 선교회(O. M.S) 및 성결교의 창설자인 카우만(C.E.Cowman)과 길 보른(E.A.

Kilbourne)이 이 학교 출신이다.

이와 같은 무디의 신앙 부흥 운동은 침체되어 가는 미국 사회와 특히 전쟁 후의 미국민들에게 새로운 영적 각성을 일깨워 주었다. 그래서 항상 양심에 걸리는 노예제도를 폐지하자는 각성이 생기고 미국을 도덕적으로 재무장하기 위해 금주 운동을 펼치자는 사회 운동이 일어난다.

3) 켄터키 케인 릿지 부흥 운동

1801년 켄터키(Kentucky)에서 발생하였던 케인릿지 부흥(The Cane Ridge Revival) 운동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원래 이 모임은 보다 깊은 신앙을 전파하겠다는 목적으로 천막집회(Camp meeting)를 시도하였다.

이 모임의 주관은 장로교 목사가 하였다. 처음으로 시도된 천막 집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그런데 대형 천막 안에서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섞여졌다. 즉 한 쪽에서는 찬송하고 설교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며 떠들어 댔다.

이같은 소란 속에서도 집회는 강행되었다. 이때 설교는 장로교 목사만이 아닌 감리교, 침례교 목사도 함께 설교를 인도하였다. 이같은 부흥 집회에 대해 장로교 목사들은 매우 비판적이었다. 왜냐하면 예배가 경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참석자들 중 어떤 이들은 울고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는 등 소란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회는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 되었다. 이 때 이후로 많은 전도자들은 이같은 집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최선의 수단이라고 믿게 됐다.

그렇지만 케인릿지 부흥회 후의 반응은 여러가지로 달랐다. 이 모임을 주선한 장로교 목사들은 케인릿지와 같은 집회를 주선하거나 참석

하는 자는 처벌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감리교와 침례교는 이러한 천막 집회를 긍정적으로 받아 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같은 천막 집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다. 이와 같은 천막 집회는 개척 시대에 가장 걸맞는 부흥집회 방법이 되었다. 그래서 감리교와 침례교는 양적으로 급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리고 감리교와 침례교가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한 다른 이유는 거의 교육을 받지 못한 설교자들을 기꺼이 수용하는데 있었다.

이 두 교회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교육 정도를 가리지 않고 설교자로 사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사역자를 쉽게 활용한 것이 교파 확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개척지대마다 열심히 나가 전도하고 쉽고 대중적인 설교를 함으로 많은 이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 들었다.

이렇게 하여 제2차 각성운동은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므로 각계 각층이 교회 안에 운집하게 되었다. 이렇게 많은 군중이 교회 안으로 들어옴으로 그에 따른 여러가지 현상들이 생기게 되었다. 2차 각성운동으로 교회 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교육적, 정치적으로 다양하게 영향이 파급되었다.

4) 제2차 대각성운동의 결과

① 종교적인 면

2차 각성운동 이후 교회는 완전히 교파 중심 시대로 달라진다. 남부와 서부에는 감리교와 침례교가 늘어났고, 뉴 잉글랜드와 중부에는 회중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그리고 미국 성공회(영국 성공회에서 떨어져 나옴)가 두드러지게 확장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대교파들이 이때부터 독립하기 시작한다. 즉

미국의 장로교회가 북 장로교와(지금은 연합장로교)남 장로교로 갈라지고 침례교회가 남 침례교, 북 침례교로 갈라지고 감리교 역시 연합 감리교와 미국 감리교로 갈라진다.

교파들이 이렇게 갈라지는 데는 신학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조나단 에드 워즈가 칼빈이즘을 약간 수정해서 구원의 확장을 요청한 것이 그 뒤로 계속 수정이 더해진다. 그래서 사무엘 홉킨스(Samuel Hopkins)와 테일러 (Nathaniel W. Taylor)등이 더욱 진보된 수정 신학을 주장한다. 이것이 보수와 진보파로 갈라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같은 보수와 진보 싸움은 계속 20세기까지 연결된다. 그래서 프린스턴에서 유니온으로, 매코믹으로, 웨스트민스터로, 샌프랜시스코로 계속 분열을 거듭한다.

② 사회적인 면

제 2차 대각성운동이 사회적으로 크게 각성을 준 것은 노예제도에 관한 각성이었다. 식민지 시대부터 노예제도는 많은 이들의 양심을 괴롭히는 것이었다.

1776년 퀘이커교에서 노예제도를 반대하기 시작하였고 침례교에서도 동조하였다. 그러나 장로교는 애매한 입장이었다. 1818년 장로교 총회는 노예제도 폐지는 반대한다고 했으며,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목사는 성직을 박탈하였다.

감리교 역시 노예제도 문제를 놓고 서로 싸우다가 드디어 감리교 총회가 갈라졌다. 침례교도 남 침례교로, 장로교도 남부 장로교로 갈라진다. 이것이 다음에 오는 남북 전쟁으로 연결 된다. 이러한 와중에서 분열을 겪지 않는 교파는 카톨릭과 성공회뿐이었다.

미국의 제 2차 대각성운동은 초창기 순수했던 사람들을 지역별로 자

기 이해 중심에 따라 신학과 교파를 다르게 만들어 주었다.

여기서 우리가 크게 경각심을 가져야 할 사실이 있다. 앞서 제 1차 각성에서는 교회의 각성이 미국의 독립으로 연결되었다. 그런데 제 2차의 각성 때에는 교파가 크게 부흥되기는 했으나 신학과 자기 이해에 따라 각 교파로 분열되었다. 교파의 분열은 드디어 미국의 남북 전쟁으로 열결되었다. 교회는 단지 교회내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회와 국가에 영향을 준다.

고로 교회지도자들은 이같은 역사적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3. 노예제도와 남북 전쟁(1861-65)

노예제도는 많은 이들의 양심을 괴롭혔다.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 정책에 따라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노예로 수입해 놓은 것이 큰 문제로 등장하였다. 노예들이 북부 지방에서는 부유한 소수들의 사치품이었다.

그러나 남부 지방에서는 생활의 필수품을 공급하는 대상이 되었다. 그런 중에 1712년과 1741년에 뉴욕에서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 반란후 범인들을 수레로 짊어 죽이거나 산 채로 불 태워 죽였다. 이것이 계속해서 더욱 노예들을 흥분하게 하였다.

1831년에 버지니아에서 터너(Nat Turner)의 주동으로 흑인폭동이 일어나 백인 58명이 죽었다. 이 사건 이후 노예법은 더욱 엄격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남, 북 전쟁이 생기기 전까지 노예 제도는 더욱 강화되었다. 이때 백인들은 흑인이 열등 민족이기 때문에 만인평등이란 백인들에게만 있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흑인들에게는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죄로 여겼다.

그리고 노예제도에 관한 각 주가 그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위임하였다. 이때 북부에서는 노예들을 남부에 팔아버렸다. 남부에서는 먼 공업의 발달과 함께 노예노동의 수요가 점점 늘어났다. 그래서 1850년에는 탈주 노예에 대한 보다 강경한 법들이 생기게 된다.

1850년대만 하더라도 하원 의원은 북부가 우세 하였고, 상원 의원은 남부가 우세하였다. 대통령은 대부분이 남부 출신이 많아서 남부를 옹호하였다. 그러나 1850년 이래 자유 주가 증가하면서 인구는 남부보다 북부가 더 많아졌다. 북부의 인구가 더 많아진 것은 근대 공업의 발전에 따라 많은 인구가 늘어났는데 남부는 상대적으로 자영농에 의해 크게 늘지가 않았다.

1854-56년에 북부에서는 공화당을 창당하였다. 그리고 남부에서는 민주당을 창당하였다. 이 두 양당 간의 투쟁은 해마다 격화되었다. 1860년 11월 6일에 북부는 단독으로 링컨(A.Lincoln)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그리고 노예제도를 반대하였다. 남부는 11개 주가 남부연맹(The Confederate State of America)을 결성하고 노예제도를 존속시키려 하였다. 이렇게 해서 1861년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다. 1864년 북군의 장군 세만(Sherman)이 남부의 전략지대인 조지아(Georgia)를 점령 하였다.

1865년 4월9일 남군의 장군 리 장군이 북군에 항복함으로써 북군이 승리하였다. 이로써 남부의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공화당이 주장하는 정치 강경대로 북부의 공업화가 현저하게 촉진되었다. 이로써 미국은 산업 자본에서 금융자본으로 미국 자본주의를 크게 융성할 기초를 닦았다. 이것이 미국을 완전한 근대국가로 발전케 하는 계기가 된다.

남 북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과거의 사회적 경제적 긴장 관계는 계속 증

가하였다. 남부는 보다 더 인종 차별주의적이며 반 지성적인 경향을 띠게 되었다. 북부에서는 계속 밀려드는 이민들과 흑인들 때문에 도시 인구가 급증해졌으나 교회는 이러한 새 도전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였다.

서부는 인디언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었고 스페인계 주민들이 인종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가지 다양한 혼란 속에서도 미국은 세계 인류의 발전을 위한 임무가 있다는 자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어려운 난국을 뚫겠다고 나서는 몇가지 조직 단체들이 있었다. 그것은 기독교 청년회(Y.M.C.A)와 기독교 여성회(Y.W.C.A)였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주말학교(Sunday School)의 부흥이 있었다.

사회교육이 혼란하고 가정에서 성경 지식이 약화된 것을 주일학교에서 성경 교육을 해야 한다는 자각이 크게 고조되었다. 여기에 발맞추어 성공한 것이 무디의 주일학교였다.

미국은 남북 전쟁 후 남, 북간에, 도시와 농촌간에, 빈부간에, 흑백간에, 남, 여간에 많은 차이들을 좁혀야 된다는 자각들을 하게 된다. 이 자각을 부흥사들이 비추어 줌으로 혼란했던 미국을 다시금 안정시키게 된다. 이렇게 혼란한 나라를 교회 지도자들과 뜻있는 교회 단체들이 순수한 기독교 정신으로 혼란을 수습해 나갔다. 이것이 제 2차 각성운동과 교회의 공적이었다.

4. 새로운 교파들

미국의 문제들을 수습하기 위해 생겨진 초교파적 단체들이 있다. 이것은 선의의 동기들이 후에 교파 형태로 발전 한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1)구세군



구세군은 언제나 그 제복과 음악 때문에 이름이 알려졌다. 이 구세군 악대는 콘월의 펜잔스 출신이며, 1880년대에 사진을 찍은 것이다. 뒷줄 가운데에서 긴 수염이 있고 높은 모자를 쓴 부스 대장을 볼 수 있다.

구세군의 창설자는 윌리엄 부스(William Booth:1829-1912)이다.

부스는 본래 감리교의 설교자였다. 1858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감리교의 순회 설교자로 활약했다. 그런데 부스의 아내 캐더린 맨포드(Catherine Manford)와 함께 런던에서 구세군을 창설하였다(1865).

이들 구세군은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군대와 같은 조직으로 대항하여 싸워야 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군대식 제복과 계급을 달고 강경하게 대항하는 것을 주된 강령으로 삼았다.

이 구세군이 처음부터 남녀 평등의 원리에 입각하여 도시 빈민들의 영적, 육체적 복리를 위해 활약하였다. 이들이 남북 전쟁 후 미국에 죄수와 대증들로부터 환영을 받게 되며 큰 성공을 거둔다.

(2) 성결교회

미국 내에서 감리교가 좋지 않게 변화한 모습에 불만을 품고 성화에 대한 강조를 하는 파들이 생겨났다. 이들을 성결교회(Holiness Church)라고 하였다. 이들 성결교회들은 1908년에 나사렛교회(The Church of the Nazarene)를 만든다.

이 성결교파는 성도로서 가난한 자를 향한 관심과 성화에 관한 실천을 강조하는 것으로 특색을 이루었다.

(3) 오순절파

처음의 성결교회들은 예배에서 성령의 은사들을 강조했었다. 특히 방언, 치병, 예언들을 중시했다. 그런데 얼마 지난 후 성결교회들이 포기한 성령의 은사들을 오순절파에서 수용하였다.

1906년 로스앤젤스(Los Angeles)의 아주사 스트리트 미션(The Agusa Street Mission)에서 재등장 하였다. 이 아주사 거리의 부흥의 불길이 바로 오순절파 교파를 만든다. 이 오순절파는 '하나님의 성회'(Assemblies of God)로 조직되었다.

(4) 제 7일 안식교

19세기 초 버몬트(Vermont)에 살고 있던 침례교 신자 윌리엄 밀러(William Miller)가 다니엘서와 창세기를 연구한 후 예수의 재림이 1943년에 실시된다고 하였다. 밀러의 이 예언은 빗나감으로 그 추종자들이 흩어지게 됐다.

이때 엘렌 하몬 화이트(Ellen Harmon White) 부인이 나타나 밀러의 추종자들을 모아 주일 대신 토요일을 성일로 지키는 안식교를 조직한다. 1868년 안식교는 하나의 교단으로 성립되었다. 안식교는 의학, 식품영양학, 선교에 큰 관심을 집중시켰다. 안식교는 의학과 식품 등으로 대중들의 요구를 공급해 주었다.

(5) 기타 새 종파들

1) 조셉 스미스((Joseph Smith)에 의해 시작된 몰몬교(Mormons)는 1830년에 몰몬경을 출판 하였다. 이들의 첫 출발은 오하이오(Ohio)

에서 공동 생활로 시작하여 일리노이스(Illinois)로 옮겨 갔다.

그후 브리감 영(Brigham Young)이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the Latter Day)라 칭하고 유타(Utah)로 옮겨 갔다. 1852년에 영이 일부다처제를 실시할 것을 선언함으로써 1857년에 미국과 전쟁이 발발하였다. 그래서 1890년에 일부 다처주의를 폐지하였다.

2) 찰스 T. 러셀(Charles T. Russel)에 의해 시작된 '여호와의 증인'은 사탄의 세 무기로 정부, 기업, 교회를 들었다. 그는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고 재림은 1872년에 이루어 졌고 세상의 종말이 1914년에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러셀 후에 조셉 F. 로드포드(Joseph F. Ruthford)에 의해 여호와의 증인들(Jehobahs Witnesses)라고 명명되었다.

3) 크리스찬 사이언스는 메리 베이커 에디(Mary Baker Eddy)에 의해 창시되었고 콰임비(P.P. Quimby)에 의해 조직화되었다.

1879년 8월23일 최초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기원으로 삼는다. 이들은 1908년부터 일간지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Christian Science Monitor)를 발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 교파 또는 새 종파의 탄생은 왜 왔는가? 그것은 미국 교회가 신학적으로 자유주의(Liberalism)와 근본주의(Fundamentalism) 간의 갈등 속에서 혐오를 느끼는 사람들이 새것을 찾아 보려는 욕구에 부응하여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사회복음(Social Gospel)로 가난한 이들과 고통 당하는 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으로 인기를 끌려고 하였다. 여기의 지도자는 1897년부터 1918년까지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월터 로센부쉬

(Walter Rauchenbush)이다. 근본주의자들은 1846년에 복음주의 동맹을 조직하여 자유주의와 싸웠다. 1895년에 뉴욕주 나이아가라폭포에서 근본주의의 5대 이념을 제정하게 되었다.

- ① 성경의 무오류성(The inerrancy of Scripture)
- ② 예수의 신성(The divinity of Jesus)
- ③ 동정녀 탄생(The Virgin birth)
- ④ 예수의 대속의 죽음(Jesus death on the cross as a substitute for our sins)
- ⑤ 육체의 부활과 임박한 재림(Physical resurrection and impending return)

이 근본주의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등이 주로 많았다. 이들 근본주의자들은 또다시 더 철저한 보수로 '세대주의'(Dispensationalism)를 만들게 된다.

새 교회사 제 2부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나는 종교 개혁사에서부터 시작하여 18세기 말 또는 19세기 초의 미국 교회사까지를 서술 하였다.

이 글을 다 쓰고 보니 아쉬운 점이 너무 많다. 어떤 부분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을 기록하였고 어떤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다. 앞으로 더 많이 연구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을 절실하게 느낀다.

특히 군소 교회들에 관한 연구가 너무 빈약함을 느낀다.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위해 정진해 나가야 하겠다는 각오가 더욱 새로워짐을 느낀다. 저자로서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충고를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서 보다 충실한 작품을 만들고자 한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이 책은 어떤 특정한 교파에 얽매어서 과거사를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로지 저들의 행보가 신약교회 사관에서 볼 때 어떠하였는가. 그것에 대한 관찰에 주력했다는 것을 밝히고 싶다.

그리고 저자가 계속하여 제 3부를 완성할 수 있도록 기도와 뜨거운 성원을 앙망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참고문헌

· 종교개혁 전반에 관한 자료 ·

1. Bainton, Roland H.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oston, 1952.
2. Dickens. A.G, *Reformation and Society in Sixteenth Century Europe*. New York, 1966.
3. Harbison.E.Harris, *The Age of the Reformation* Ithaca, New York, 1955.
4. Hillerbrand, Hans J, *The protestant Reformation, A Narrative History Related by Contemporary observers and participants*. New York, 1964.
5. Gonzalez Justo L, *The story of Christianity*, 「종교개혁사」, 서영일 역, (서울:은성출판사), 1992.
6. —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Vol3, Nashville, 1975.
7. Elton G.R, *Reformation Europe, 1517-1559*, Cleveland, 1963.
8. Hillerbrand Hans J, *Men and Ideas in the Sixteenth Century*, Chicago, 1969.
9. Lindsay Thomas M, *A History of the Reformation*, 2 Vols, New York, 1951.
「종교개혁사」3권, 이형기, 차종순 역, (서울:예장 총회출판국), 1990.
10. — *The Reformation in Germany*, 2vols, New York, 1969.
11. Spitz Lewis W.ed, *The Reformation*, Boston, 1962.
「종교개혁사」, 서영일 역, (서울:기독교 문서선교회), 1991.
12. — *The Protestant Reformation*, Englewood Cliffs, N.J. 1966.
13. 라이온사 편, *The History of Christianity*, 「교회사 핸드북」, 송광택 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1989.
14. Clyde L, 맨슈랙 저, 「세계 교회사」, 최은수, 심창섭 감수, (서울:충신대학 출판부), 1991.
15. 윌리스턴 위거 저, 「세계 기독교교회사」, 강근환, 민경배, 박대인, 이영현 역편, (서울:기독교서회), 1990.

16. 케니스 래토레토 저, 「기독교사」(상·중·하), 윤두혁 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1990.
17. B.K.카이퍼 저, 「세계 기독교회사」, 김해연 역, (서울:성광문화사), 1990.

· 루터에 관한 자료 ·

1. Bainton Roland H, *Here I Stand: a life of Martin Luther*, Nashville & New York, 1950.
2. Dickens, A.G, *Luther and the Reformation*, London, 1967.
3. Fife, Robert H, *The Revolt of Martin Luther*, New York, 1957.
4. Grisar, Hartmann, *Martin Luther: His Life and Work*, Westminster, 1960.
5. Ritter, Gerhard, *Martin Luther: His Life and Work*, New York, 1963.
6. Althaus Paul,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Philadelphia, 1966.
7. Mackinnon James, *Luther and the Reformation*, 4 Vols, London, 1925-1930.
8. Simon, Edith, *Luther Alive: Martin Luther and the Making of the Reformation*, New York, 1968.
9. F.E.매얼 저, 「루터교 신학」, 지원용 역, (서울:컨콜디아사), 1960.
10. 앙드로 모로와 저, 「독일사」, 전영애 역, (서울:충성사), 1993.
11. 지원용 저, 「마틴 루터의 생애와 사상」, (서울:컨콜디아사), 1987.
12. 지원용 저, 「루터와 종교개혁」, (서울:컨콜디아사), 1972.

· 쾰빙글리에 관한 자료 ·

1. Bromiley, G.W, *Zwingli and Bulliger, Vol 24 of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Philadelphia, 1953.
2. Courvoisier, Jacques, *Zwingli: A Reformed Theologian*, VA, 1963.
3. Garside Charles, *Zwingli and the Fine Arts*, New Haven,

1966.

4. Rilliet Jean, *Zwingli: Third man of the Reformation*, Philadelphia, 1964.

· 칼빈에 관한 것 ·

1. Bratt John H, *The Rise and Development of Calvinism*, Grand Rapids, 1964.
2. Cadier Jean, *The man God Mastered: A New Biography of John Calvin*, Grand Rapids, 1960.
3. Harkness Georgia, *John Calvin: The man and his Ethics*, New York, 1958.
4. Walker Williston, *John Calvin, the Organizer of Reformed Protestantism, 1509-1564*, New York, 1906.
5. Warfield Benjamin, *Calvin and Calvinism*, New York, 1931.
6. Niesel Wilhelm, *The Theology of Calvin*, Philadelphia, 1956.
7. McNeill John T,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New York, 1954.
8. 전경연 저, 「칼빈의 생애와 그 신학사상」, (서울:신교출판사), 1959.
9. 시몬 키스트 메이커 저, 「칼빈주의」, 김정훈 역, (서울:성광문화사), 1982.
10. 크리스토퍼 네스 저, 「칼빈주의자가 본 알미니안주의」 강귀봉 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1981.
11. D.스틸 · 토머스 공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김남식 역, (서울:정음서적), 1982.

· 재침례교에 관한 자료 ·

1. Armour Rollin's, *Anabaptist Baptism: A Representative Study*, Scottdale, PA, 1966.
2. Bax Belfort, *The Rise and Fall of the Anabaptists*, New York (American Scholar Publications), 1966.
3. Bender Harold s, *Menno Simons Life and Writings*, Scottdale, PA, 1950.

4. Blanke Fritz, Brothers in Christ, *The History of the Oldest Anabaptist Congregation*, Scottsdale PA.1961.
5. Hillerbrand Hans, *A Bibliography of Anabaptism 1520-1630*, Elkhart, Ind, 1962.
6. Smith C.H, *The Story of the Mennonites*, 3rd ed, Newton, Kans, 1950.
7. Smith Son,R.J, *The Anabaptists*, London, 1953.
8. Estep William R, *The Anabaptist Story*, 「재침례교도의 역사」, 정수영 역, (서울:요단출판사), 1985.

· 영국과 스코틀랜드에 관한 것 ·

1. Dickens, A.G, *The English Reformation*, London, 1964.
2. Hughes Philip, *The Reformation in England*, 3Vols, London, 1950-1954.
3. Powicke Maurice, *The Reformation in England*, New York, 1941.
4. Smith Herbert M, *Henry VIII and the Reformation*, London, 1948.
5. Burleigh John H, *Church History of Scotland*, New York, 1960.
6. Donaldson Gorden, *The Scottish Reformation*, Cambridge, 1960.
7. Knox John, *The History of the Reformation in Scotland*, ed William C.Dickinson, New York, 1950.
8. Ridley Jasper G, *John Knox*, New York, 1968.

· 카톨릭에 관한 것 ·

1. Henry Daniel-Rops, *The Catholic Reformation*, New York: Dutton, 1962.
2. John C.Olin, *The Catholic Reformation:Savonarola to Ignatius Loyola*, New York:Harper & Row, 1969.

· 네덜란드, 감리교, 미국교회 기타 참고 자료 ·

1. Pieter Geyl, *The Revolt of the Netherlands*, New York, Barnes & Noble, 1958.
2. Rupert E.Davies, *Methodism*, Baltimore:Penguin, 1963.
3. Franklin H,Littell, *The Free Church*, Boston, 1957.
4. Arthur James Grant, *The Huguenots*, Connecticut, 1969.
5. Sydney E.Ahlstrom, *A Religious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Vol II*, New York, 1975.
6. Henry Van Etten, *George Fox and the Quakers*, New York, 1959.
7. Stewart C.Easton, *The Rise and Fall of Western Colonialism*, New York, 1964.
8. Beaver,P.Pierce, *Church, State and the American Indians*, St. Louis, 1966.
7. 이구환 저, 「이야기 국사」, (서울:청아출판사), 1993.
8. 박영호 저, 「청교도 신앙」, (서울:기독교 문서선교회), 1983.
9. 브로우드벤트 저, 「순례하는 교회」, (서울:전도출판사), 1990.

□ 색인표 □

(ㄱ)

가스파로, 콘타리니(Gasparo Contarini)	301	그레고리 13세	306
가일러, 요한(John Geller)	34	그레고리 7세(1073-1085)	26
감리교의 형성(1738)	417, 426	그레벨, 콘라드(Conrad Grebel)	126, 142, 155
간반 법령집(Corpus Iuris)	42	그로닝겐 대학의 설립(1612)	287
개혁예장문-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291	그로체(St. Groce)	37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예로의 심각한 요청- 윌리엄 로우의 저술	397	그로티우스, 후고(Hugo Grotius)	292
거룩한 성- 존 번연의 저술	367	그루트, 게라드(Gerard Groot)	273
겸양제(Conventicle Act:1586)	250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어 켐피스스의 저술	387
게라드	284	그리스도의 생애- 루돌프의 저술	316
겐트의 평화협정(1576)	282	그리스도의 속죄- 후고 그로티우스의 저술	293
경건의 훈련- 루이스 베일리의 저술	404	그리스도인의 자유- 루터의 저술	76
경건주의 운동	400, 404	근본주의	460
계승법(the Act of Succession)	231	글라레언(Glareson)	149
계약신학	369, 370, 380	금식술 이론- 윌리엄 퍼킨스의 저술	368
고마루스, 프란시스(Francis Gomarus)	289	기도- 존 번연의 저술	368
고백(Confession)	58	기독교 병사의 지침서- 에라스무스의 저술	32
공동 기도서	365	기독교 원리의 강요- 에라스무스의 저술	32
공동생활 형제회	30, 273	기독교경요- 켈빈의 저술	178, 212, 249
공식금(Medi Fructus)	27	기독교의 복원- 세르베투스의 저술	207
공동 기도서	252	기독교인의 완성에 대하여- 윌리엄 로우의 저술	397
관용에 대하여(De Clementia)-칼빈의 저술	176	기부금(Subsidies)	27
교서	198	기사전쟁(Knight War)	87
교의신학	386	기암파에트로, 카라파	303
교회의 바벨론포로- 루터의 저술	74, 230	골드(golds)	23
구세군	458	고로우, 엘레(Elie Corout)	191
그레고리 7세	307		
그레고리 10세	305	(ㄴ)	
		나직안티	328

낙스, 존(John Knox)	257, 262
남북전쟁(1861-65)	455
낭트의 칙령(1598)	312
내스비 전투	361
노바라 전투(1513)	119
노예제도	454
뉴욕 대학	442
뉴턴, 아이작	390

(ㄷ)

당파	199
당파-네덜란드의	286
대각성 운동	368, 439
대성서(the Great Bible: 1539-41)	233, 357
대요리문답- 루터의 저술	214
대학- 에라스무스의 저술	32
더들리, 존(John Dudley)	235
더불유(W. C. C.)운동	15
데카르트	337
덴크, 한스(Hans Denck)	151
도르트 회의(1618-19)	293
도미니칸파 수도회	30
독일 귀족에게 고함- 루터의 저술	72
돌트총회(1572)	287
동양선교회	451
동체설(Consubstantiation)	97
드레이크 프랜시스(Francis Drake)	255
드와이트, 티모디(Timothy Dwight)	448

(ㄹ)

라이덴 대학의 설립(1575)	287, 288
라이프치히논쟁(1519)	66
라테란종교회의(1215)	125
라파엘	310
레제센스, 돈 루이스	281
레닌(Lenin)	136
레오 10세	26, 54, 62, 225, 230, 298
레오나르도 다 빈치	310
로드, 윌리엄(William Laud)	358
로리히, 헤인리히(Henrich Lortz)	118
로마서 주석- 칼빈의 저술	193
로마의 명사들- 중세시대의 저술	33
로울라, 이그나티우스(Ignatius Loyola)	315
로우, 윌리엄(William Law)	397
로저스, 존(John Rogers)	240, 241
로트만	157
룩크	337
롤라드(Lollards)	223, 260
롯저, 세바스찬(Sebastian Lotzer)	89
루돌프 2세	341
루소	337
루우빙 대학	299, 314
루이 11세	20
루이 13세	346
루터	30, 339, 387
뤼베크행	344
릿츨, 알브레히트(Albrecht Ritschl)	136

량권	456	모라비안	412, 422, 447
(口)		모라비안 영계단	413
머르셀루스 3세	303	모어, 토마스	232
머르크스(Marx)	136	목사	197, 237
머리그나노 전투(1515)	119	물론교	459
머스턴 무어 전쟁	361	몽테뉴 대학	317
머이스터 역커르트	30	무디, 드와이트(Dwight Moody)	448
머태오 리치	322	무디생석약원	451
머티스, 얀(Jan Matthis)	159	윈스티 왕국	157
머타이스	342	윈켈, 토마스(Thomas Munzer)	86, 89, 136, 154
민쯔, 펠릭스(Felix Manz)	126, 143, 155	미사 교리	75
말부르크 대담	96	미결판앨로	310
말부르크회의(1529)	96, 131	밀턴, 존(John Milton)	366
멕시코말리안 황제	45, 62, 69	(나)	
메노나이트(Mennonite)	166, 447	바디안(Vadian, 1485-1551)	130
메도디스트 운동	337	바스코 다 가마(Vasco da Gama)	23
메리 스투어트 여왕	267	바울 3세	103, 233, 301, 325, 327
메리 여왕	237	바울 4세	34, 303, 309, 333
메리, 가이즈의	265	바울 5세	306
메이 플라워 오	437	바이블, 발렌타인	389, 404
메이저, 존(John Major)	325	바젤회의(1431-49)	14, 323
메이플라워 계약서(1620)	377	바티칸 국가	21
멜랑히톤(Melanchthon)	67, 96, 339	바티칸 종교회의-제 1차	324
멜빌레오, 앤드류(Andrew Melville)	269	박스터, 리처드(Richard Baxter)	368, 404
면죄부(Indulgences)	53, 59	반역법(the Tresons Act)	231
모든 진실한 기독교인들의 생활과 태도를 보여주는 책 (로버트 브라운의 저술)	250	버만	372
		버지니아 회사	435

번연, 존(John Bunyan)	367	브라운, 로버트(Robert Browne)	249
벨기에	328	블라우록, 조지(George Blaurock)	144
벨기에	372	베오 4세	304, 327
베네딕도수도회	30	베오 5세	306
베스플라어 평화조약	347	베텐베르크 '성인의 교역'	57
베이컨, 프랜시스(Francis Bacon)	417	베텐베르크 대학	44, 410
베이일리, 루이스(Lewis Bayly)	404	벨라토의 화랑(Praetorium of Pilate)	46
베제, 테오도르(Theodore Beze)	211		
베젤, 요한(John Wesel)	42	(스)	
벨기에 신앙고백(1561)	286, 287, 290	사보나롤라(Savonarola)	14, 34, 310
벵겔, 요한 알브레히트(Johann Albrecht Bengel)	410	사바이온, 프랜시스	321
보니베투라	386	42개 신조	251
보니파이스 8세	26	살라만카 대학교	317
보니파이스 9세(1389-1404)	28	살바토르 노스트(Salvator Noster)	54
보른, 길	451	30년전쟁(1618-1648)	306, 339, 403
보름스의회(1521)	79, 80	39개 신조(1563)	250
보스	372	셋틀러, 마이클(Michael Sattler)	146
보편주의	447	생케	450
보에미아 내전	342	생트 베르브 대학	317
보에미안	17	샤프, 필립(Philip Schaff)	136
보에미안 형제단	412	선제위(Prince-Elector)	21
복락원- 존 말톤의 기술	367	선양에 대한 설교- 루터의 기술	71
복겔슨, 얀(Jan Bockelson)	159	성결교	451, 458
뵈메, 야콥(Jakob Boehme)	388, 404	성복논쟁(the Vestrian Controversy; 1563)	248
빌링, 헤인리히(Herrich Woffin)	118	성인들의 보화	53
부스, 윌리엄(William Booth)	458	성직록(Benefice)	27
분리주의자들	17, 249	성당주의	461
불랑거, 헤인리히(Herrich Bullinger)	134	세족식-매노파들의	168

소요리문답- 루터의 저술	214	신비주의 운동	381
소요회의(the Council of Turin)	280	신성화- 열슬래의	419
속작의 비석	209	신약성서 의역- 에라스무스의 저술	32
수장법(the Act of Supremacy; 1543)	228, 230	신인엽동론- 멜랑히톤의	339
수장법(the Act of Supremacy; 1559)	245	신정정치(Theocracy)	16
수장예정론-갈반의	217	신학대전-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술	213
순교자들의 책(존 폭스의 저술)	241	신학상상- 어쿰 스페너의 저술	406
슈벡크펠트, 카스파르	389, 404	신학연구의 장애물들- 어쿰 스페너의 저술	406
슈말칼트 동맹(1530)	100, 137	실락원- 존 밀톤의 저술	367
슈비비아 협의회(1529)	98	10조문(Ten Articles; 1536)	232
슈벡크펠트, 카스파르(Caspar Schwenckfeldt)	158	(○)	
스미스, 조셉	459	어드리언 6세	299
스웨덴보리 영마누엘	397	어른트, 요한(Johann Arndt)	404
스위스 형제단	126	어르켈라투스- 프빙글리의 저술	122
스콧투스, 존 돈스(John Duns Scotus)	223	어머테우스 8세	181
스쿨렌드 신앙고백(존 닉스의)	267	어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1530)	340
스페너, 어쿰(Philip Jacob Spener)	404	어우구스부르크의 신앙고백(1530)	98
스페인어문학과-1차(1526)	92, 156	어우구스부르크의 협정(1548)	103
스페인어문학과-2차(1529)	94	어우스부르크의 면담	64
스피노자	337	안셀름	310
사리아교회	15	안식교	459
서모어, 에드워드(Edward Seymour)	235	알렉산더(Alexander)	78, 78, 83
시몬스, 멘노(Menno Simons)	163	알렉산더 6세(1492-1503)	28
시인전쟁(1642-60)	359	알렉산더- Hales의	53
식스투스 4세(1471-1483)	28	알미니우스, 어쿰부스(Jacobus Arminius)	287
식스투스 5세	306	알칼라 대학교의 설립	308
식당(Franz von Sickingen)	87	안브로스	386
신국- 단테의 저술	29		

암스도르프(Amsdorf)	67	왈룬족	272
애굽교회	15	요나스(Jonas)	67
여기스틴수도회	30	요르그-수세(Brother Jorg)	126
여리석은 짓의 예언- 에라스무스의 저술	32	요한, 돈	282
에드워드 6세	234, 242, 251	우남성당(Unam Sanctam)	26
에드워드, 조나단(Jonathan Edwards)	293, 338, 368, 442, 448	우르반 8세	306
에든버러 대학	269	우트레흐트 대학의 설립(1636)	287
에든버러 조약(1560)	266	올덴, 존	396
에라스무스	149, 273	월사, 추기경	225
에라스무스, 테세데리우스(Desiderius Erasmus)	30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8, 361
에르푸르트 대학	40	웨스트민스터 종교개혁(1643-47)	359
에머슨	399	웨슬레, 존(John Wesley)	338, 390, 413, 417, 418
에큐메니즘	415	위싱턴, 조지(George Wishart)	261
에피스코피우스, 시몬	290	윌클리프(John Wycliff)	14, 34, 223
에크(John Mayr of Eck)	62, 66, 78, 118	위트베, 다니엘	293
엘리자베드 1세	20	윌리엄스, 로제(Roger Williams)	438
엘리자베스 여왕	238, 353	윌시우스	372
영국대학(1571)	287	유크노	17
엔겔스(Engels)	136	유니테리언 주의	447
에호와의 증인	460	6조문(the Six Articles:1539년)	234
영적 훈련- 이그나티우스 로울라의 저술	316, 318	율리우스 2세	26, 46, 54
영광론- 칼뱅의	289	음식에 관한 선택과 자유- 쾰빙글라의 저술	122
오리건	386	이교도를 부르심- 리처드 벅스터의 저술	404
오순절파	459	이노센트 3세	26, 307, 332
오웬, 존(John Owen)	368	이노센트 4세	26
옥컴, 윌리엄	223	이노센트 8세	298
왈도파(Waldenses)	139, 311	이새벨라 여왕	308
		이신트의 교리- 루터의	408

이중어장론- 칼빈의	215, 217	존- 라이덴의(John of Leiden)	160
인문주의(Humanism)	29	종교재판	331
일반 율례(세존 박스의)	267	종교전쟁(1546)	101
		종교속세일	191
(스)		주교서(Bishop's Book:1537)	232
자선자매단(the Sisters of Charity:1633)	313	줄리우스 2세	225, 240, 297
자연신학	386	줄리우스 3세	327
장로	198	지오반니 드 메디치	298
장로법원	199	진젠돌프, 니콜라스 루드비히(Nikolaus Ludwig von Zinzendorf)	407, 411, 423
장미전쟁(1453)	19	잡서	199
재침례교도의 박해	275	쾨빙글러	16, 96, 184
재침례교의 영세단-스위스의	140		
재침례파(Anabaptists)	17, 88, 90, 135-171	(우)	
재침례파-독일의	145-163	천리안 혁명- 아랍 배매의 저술	389
재침례파-스위스의	126, 139-145	찰스 1세	69, 357
잔센, 코르넬리우스(Cornelius Jansen)	314	찰스 2세	363, 365
잔센주의(Jansenism)	314	찰스 5세	22, 83, 92, 227, 272, 324
전시 및 풍악시 법규론-유희 그로타우스의 저술(1625)	293	잠된 기독교- 요한 아문트의 저술	404
제 1차리세(세존 박스의)	267	전로역정- 존 번연의 저술	367, 404
제네바역 성서(Geneva Bible:1568)	357	정교도 신학	369
제수잇 수도회(the Society of Jesus)	315	정교도 운동	337
제멜, 존(John Jewel)	251	출교	199
제임스 1세	224, 256, 353, 356, 357, 435		
제임스 2세	366	(우)	
제임스 5세	252, 259	카라키올리, 마리오(Caraccioli)	79
제임스 6세	255, 353	카라팍	333
조안- 여극의	309	카르디, 피에르(Pierre Card)	191
존 박스	16, 211		

케르투지우스도회	30	크롬웰 토마스	230
케우만	451	크리스천 사이언스	460
케이퍼	372	크리스천 4세	344
캐슬턴 주지경	65, 77	클레멘트 7세	226, 299, 325
캐트라이프, 토마스(Thomas Cartwright)	249	클레멘트 8세	306
칸트	337, 417	클레멘트-앨렉산드리아의	386
칼릭스투스	54	카에르레고르	398
칼빈주의	285	(트)	
칼빈주의 감리교화-조지 헛필드의	424	타올러	387, 403
칼빈주의의 형성-네덜란드의	287	테넌트, 윌리엄(William Tennent)	442
칼스타트, 폰(Von Carstadt)	67, 85	테레사, 아빌라의	309
칼의 복음	155	테레사-스페인인의	386
캐더란-싸이키아의	309, 386	테스트-드라크 쿤베르트의	288
캘빈전쟁-1차(1529)	130	테젤, 요한(John Tetzel)	55
캘빈전쟁-2차(1531)	131	토마스 어 켈픽스	30, 273, 403
커버데일, 미얼스(Miles Coverdale)	233, 240	토마스 아퀴나스	310, 329
코뱅, 장(Jean Cauvin)	173	통나무 대학	441
쿠시우스	372	튜더, 마가렛(Margaret Tudor)	259
콘스탄스 회의(1414-1418)	14, 323	튜더왕조	19
콜럼부스(Columbus)	23	트렌트종교회의(1545-1563)	101, 323
콰를루툼 대역성서(the Complutum Polyglot Bible)	308	트렌트 종교회의의 역사-피올로 사르피의 저술	330
코른베르트, 드릭크(Drick Koonhert)	288	트렌트 회의의 소집(1551)	303
퀘이커 교도	381	트랄치, 에른스트(Ernst Tractsch)	136
크리크, 서우엘	293	특별 면제금(Dispensations)	27
크랜머, 토마스(Thomas Cranmer)	227, 230, 234, 242	틴데일, 윌리엄(William Tyndale)	223, 233
크로우, 파울(Paul Crow)	260	탈로트슨	293
크롬웰, 리처드(Richard Cromwell)	338, 364		
크롬웰, 올리버(Oliver Cromwell)	359		

(소)

파렐, 윌리엄(William Forel)	182
파르네세, 알렉산더	301
파스칼, 블레즈(Blaise Pascal)	314, 338
파트릭크	293
팔라비치노	331
팡세-블레즈 파스칼의 저술	314
펜, 윌리엄(William Penn)	439
퍼킨스, 윌리엄(William Perkins)	368, 372
페르디난드	105
페르디난드 2세	348
페르디난드 3세	348
펜, 윌리엄	395
펠라기우스주의자	291
포기선언법(Act of Abjuration, 1581)	283
폭스, 조지(George Fox)	338, 381, 391, 398
풍신수길	322
프랑체카 대학의 설립(1585)	287
프란시스 1세	69, 83, 178, 316
프란시스 2세	269
프란시스수도회	30
프랑켄, 헤르만(August Hermann Franke)	406, 407
프랜시스-왓셔의	310
프레드릭 4세	341, 410
프레드릭 선재후(Fredrick the Wise)	16, 64, 70
프로테스탄트(protestant)	95
프로테스탄트-국단의	136
프린스턴 대학	441, 442, 446

플레처, 존(John Fletcher)	425
플레밍족	272
플로렌스 회의(1414)	75
피서회의(1409)	14, 323
피서 존	232
피어 테스테라에(경건의 옥망)-어쿰 스페너의 저술	406
피우스 2세	26
피의 여왕	238, 264
피의 재판소(the Bloody Tribunal)	280
필립 2세	255, 306
필립-헷세의(Philip of Hesse)	91, 96, 129
필립페, 쟁(Jean Philipe)	196

(중)

여니님의 성취	459
아이델베르크 대회(1518)	63
야제(Hodge)	372
알레 대학	410
알레 대학의 설립(1694)	407, 409
에말톤, 패트릭(Patrick Hamilton)	261
어더빅 대학의 설립(1648)	287
어브마이어, 발타사르(Balthasar Hubmaier)	149
헤제, 루드비히(Ludwig Hetzer)	154
앤리 2세	202
앤리 4세	311
앤리 7세	19, 224, 259, 361
앤리 8세	16, 223, 241, 242, 252, 352
앤리프경	23

말연관계의 계승	224
호프만, 멜키오르(Melchior Hofmann)	158
홉스, 토마스(Thomas Hobbes)	417
화란 제정교회 연맹	165
화란족	272
화해설 교리	75
회중의 의장단(the Lords of the Congregation:1557)	264
후스(John Huss)	14, 34, 65
후터, 제이콥(Jacob Hutter)	153
후트, 한스(Hans Hut)	152
후퍼, 존(John Hooper)	351
훈령(Injunctions:1547)	235
휘필드, 조지(George Whitefield)	417, 419, 441, 444
훔, 데이비드(David Hume)	337, 417
흠정역 성경(the King James Version:1611)	357
학랍정교회	15

□ 성구색인 □

장세기	
9:12-13	371
12:1-3	371
17:4-8	371
출애굽기	
22:25	221
레위기	
18:6-18	224
20:21	224
25:36	221
사무엘아	
5:3	371
시편	
22편	49
104:3-4	383
139:1-13	383
잠언	
28:8	221
이사야	
42:6	371
49:8	371
6:1	383
에레미야	
31:31-33	371
32:40	371
50:5	372

에스겔	
16:60	372
20:37	372
호세아	
2:18-20	372
매태복음	
18:13	128
26:26	129
26:28	372
28:18	409
5:3	177
매게복음	
14:24	372
누가복음	
22:20	372
요한복음	
6:38-39	71
6:51	129
사도행전	
16:30-33	127
19:1-5	128
20:17-28	220
3:12	401
4:28	218
로마서	
1:17	50

6:1-6	128
6:10	75
8:2,16	385
8:29-30	218
8:9	376
교린도전서	
11:25	372
11:26	75
2:7	218
2:8-16	385
6:17	385
7:14	128
12:1-4	385
3:18	385
4:6	385
갈라디아서	
1:15-16	385
2:20	385
3:17	372
3:6-9	376
4:6	385
6:16	376
디모데전서	
5:17-18	198
5:4	400
디모데후서	
3:5	401

다단서	
1:5-7	220
야베소서	
1:14	376
1:4-5,11	218
2:12	372
2:19	376
2:8	51
3:14-21	385
빌립보서	
3:3	376
골로새서	
1:18	376
베드로전서	
2:9	109
2:9-10	376
2:9-10	73
5:1	220
요한일서	
1:1	220
요한이서	
1:1	220
요한삼서	
1:1	220

새교회사 II

1993. 11. 20. 초판발행
2002. 8. 30. 6쇄발행

지은이 정수영
펴낸이 정해석
펴낸곳 **명림출판사**

305-333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116-6

☎ (042)862-9607 / FAX 862-4510

<http://www.mhclick.com>

E-mail : mhbest@mhclick.com

등 록 1997년 1월 17일 (제25호)

값 12,000원

© 저자와의 협약 아래 인지는 생략되었습니다.

새교회사 I

초대교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에 의한 교회사연구의 새차원 전개

정수영지음/368쪽

새교회사 II

16세기 종교개혁에서부터 18세기 근대 교회사까지 개혁정신의 투혼을 재조명하므로 새로운 교회사관을 정립

정수영지음/480쪽

히브리서강해

목회자와 평신도를 막론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신학적인 필요를 만족시켜 주는 책

정수영지음/400쪽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지 이미 50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현재 교회들 모습은 어떠한가, 종교개혁 당시의 성직자들처럼 대형교회가 마치 능력 평가의 기준치가 되어가고 있고 물질 위주의 모습이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현 교회들을 또 다시 개혁을 맞이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을까? 내게는 이같은 연민이 이 책을 집필하는 동안 계속 엄습해왔다. 나는 과거의 개혁자들의 개혁정신이나 그과정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좋은 암시적 교훈을 시사할 것으로 믿는다. 그래서 독자들의 과거의 사건 파악에 눈길을 쏟기보다는 개혁자들의 살아있는 그 투쟁혼을 읽을 수 있었으면 한다.』

